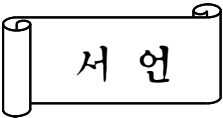


聖靈論

사 순 도 지음



서 언

성령의 계시와 인도로 완성된 이 책은 성경에 산재하는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 정리하여 15장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제1장부터 제8장 1절까지는 본회(참예수교회 대만총회)에서 발간하는 『성령보(聖靈報)』 제74호(1956년)부터 제96호(1958년)까지 연재했는데, 보완할 곳이 많이 발견되어 나중에 수정 증보하였다. 그 후 필자는 다른 성업으로 바빴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한 자료 수집이 미흡하여 유감스럽게도 수 년 동안 집필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성령보』 제158호(1963년)부터 성령의 인도로 필요한 자료들을 입수하고, 다시 연재하기 시작하여 제183호(1965년)까지 독자들과 지면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이 책이 완전히 탈고됨으로써 10년 가까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 1963년 4월에 본회 대만총회에서 발간하였던 『성령론』은 총 11장으로, 각 교파들이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토론하기 위해 쓴 것인데, 내용은 비록 간략하지만 바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성령의 교의(敎義)를 학습하기에는 유익할 것이다. 이 책 『성령론』을 편찬한 목적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본회 신학원(참예수교회 대만총회 신학원)이 창립된 1963년 이후 미래의 일꾼이 될 신학생들에게 신학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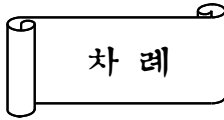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성립에 있어서 성령은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회의 중요한 교의(敎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회의 사역자들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성령의 세례를 추구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영광이 오늘날에 재현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교회의 창립자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 탄생하였다. 성령은 또한 교회의 유일한 치리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계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고 성령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셋째, 성도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전진하게 하고자 이 책을 썼다. 성령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성령은 신앙생활의 주관자이시며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조력자(助力者)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도들의 대다수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신앙생활의 주관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수 년 동안 원고를 작성하고 이 책이 완성되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때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필자는 천학비재(淺學非才)의 약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사업의 완성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부디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갈구하는 모든 독자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찬송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1966년 2월 8일 참예수교회 대만신학원 사순도.



제 1 장 무엇이 성령인가?

제 1절 성령의 인격성(人格性) > 19

제 2절 성령은 누구이신가? > 21

1.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다 > 22

2.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 23

제 3절 신관에 대한 토론 > 24

1. 성경의 주제 > 25

2. 영(靈) 안에서의 일치(一致) > 27

3. 시공(時空)을 초월하시는 성령 > 30

제 4절 몇 가지 난제들 > 32

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칭호 > 32

2.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칭한 점 > 33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신 점 > 35

4. 바울의 축복 > 36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서술 > 37

제 5절 성경에 부합되는 신관(神觀) > 37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 38

2. 아나니아의 거짓말 > 39

3. 성령의 내주 > 40

4. 유력한 대변자(代辯者) > 41

5. 천지만물의 창조주 > 41

제 2 장

성령의 명칭

- 제 1절 성령 > 43
- 제 2절 진리의 성령 > 44
- 제 3절 보혜사 > 44
- 제 4절 지혜와 계시의 영 > 48
- 제 5절 기 타 > 50
 - 1. 참 신을 나타내는 명칭 > 50
 - 2. 예수의 영임을 나타내는 명칭 > 50
 - 3. 존귀함을 나타내는 명칭 > 50
 - 4. 효용을 나타내는 명칭 > 51
 - 5. 성정(性情)을 나타내는 명칭 > 51

제 3 장

성령의 상징

- 제 1절 비둘기 > 53
- 제 2절 이슬 > 55
- 제 3절 비 > 56
- 제 4절 물 > 56
- 제 5절 강물(江河) > 58
- 제 6절 기름 > 61
- 제 7절 도장(印) > 62
- 제 8절 보증 > 64
- 제 9절 불 > 65
- 제 10절 구름 기둥과 불기둥 > 66
- 제 11절 빛 > 68
- 제 12절 칼(劍) > 69
- 제 13 절 바람 > 71

제14절 일곱 개의 눈(眼) > 72

제 4 장

성령과 교회

제1절 교회의 정의(定義) > 74

제2절 교회의 본질 > 76

제3절 교회의 유래 > 77

제4절 교회가 구비해야 할 조건 > 77

1.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 > 78
2. 교회에는 파송된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 79
3.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터로 삼아야 한다 > 80

제5절 교회를 치리하시는 성령 > 81

1. 성령은 교회의 유일한 치리자이시다 > 81
2. 성령께서 일꾼을 세우신다 > 82
3.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 85

제6절 교회 설립의 은사 > 87

1. 초월적 깨달음의 은사 > 87
 - (1) 지혜의 말씀 > 87
 - (2) 지식의 말씀 > 88
 - (3) 분별의 영 > 88
2. 초월적 사역의 은사 > 89
 - (1) 믿음 > 89
 - (2) 치유 > 90
 - (3) 능력을 행함 > 91
3. 초월적 구변의 은사 > 92
 - (1) 예언하는 은사 > 92
 - (2) 각종 방언하는 은사 > 93
 - (3) 방언 통역의 은사 > 94

제7절 은사의 기초 > 95

1. 고린도교회의 오류 > 96
2. 사랑으로서 기초를 삼는 은사 > 97
3. 거룩한 사랑과 자연적 사랑 > 99

제8절 오직 하나뿐인 교회 > 100

1. 성전은 오직 하나이다 > 100
2. 몸은 오직 하나이다 > 100
3. 신부는 오직 하나이다 > 101
4.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이다 > 102
5. 참 포도나무는 오직 한 그루이다 > 102
6. 주의 양은 오직 한 무리이다 > 102
7. 방주는 오직 하나이다 > 103
8. 취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 > 104

제9절 교회는 반드시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 104

1. 위슬로프(F. Wisloff)의 주장 > 104
2. 교회 연합은 주 예수의 뜻 > 106
3. 어떻게 교회의 합일을 촉진할 것인가? > 109
 - (1) 주의 이름 아래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 109
 - (2)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 109
 - (3) 진리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 110

제 5 장 성령과 성도

제1절 성령(聖靈)과 칭의(稱義) > 112

1. 칭의란 무엇인가? > 112
2. 어떻게 칭의를 받을 것인가? > 113
3. 성령을 의지한 칭의(稱義) > 115

제2절 성령과 성화 > 117

1. 성화란 무엇인가? > 117
2.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 118

- 3. 성화에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 119
- 4. 성령은 성화의 조력자이다 > 121
- 제3절 성령(聖靈)과 구원(救援) > 123
 - 1. 구원(救援)은 무엇인가? > 123
 - 2.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근거 > 124
- 제4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 126
- 제5절 천국 기업(基業)의 보증 > 127
- 제6절 산 소망을 주는 성령 > 129
- 제7절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 131
- 제8절 능력을 주시는 성령 > 133
 - 1. 증거하는 능력 > 133
 - 2. 잘못을 드러내는 능력 > 134
 - 3. 기적을 행하는 능력 > 135
 - 4. 새롭게 하는 능력 > 136
- 제9절 신도를 대신하여 기도함 > 138

제 6 장

성령의 역사(役事)

- 제1절 자기를 책망케 하시는 성령 > 142
 - 1.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 143
 - 2.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 145
 - 3.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 146
- 제2절 주 앞에 이끄시는 성령 > 147
- 제3절 사죄케 하시는 성령 > 149
- 제4절 해방케 하시는 성령 > 151
- 제5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 > 152
- 제6절 정죄(定罪)하시는 성령 > 153
- 제7절 일꾼을 보내시는 성령 > 154

제 7 장

성령 주심의 약속

제1절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 155

1. 모세의 예언 > 155
2. 다윗의 예언 > 156
3. 솔로몬의 예언 > 157
4. 이사야의 예언 > 157
5. 에스겔의 예언 > 160
6. 호세아의 예언 > 162
7. 요엘의 예언 > 162
8. 스가랴의 예언 > 163
9. 말라기의 예언 > 165
10. 세례 요한의 예언 > 167

제2절 주 예수의 약속 > 168

1. 십자가 사건 전의 약속 > 169
2. 부활 후의 약속 > 177

제 8 장

성령의 강림

제1절 이른 비가 먼저 내림 > 181

1.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약속 > 182
2.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역사 > 183

제2절 성령 강림 중단 > 185

1. 성령 강림의 중단에 관한 예언 > 185
2. 성령 강림 중단의 예표 > 189
3. 성령 강림 중단의 역사 > 190

제3절 늦은 비가 후에 내림 > 193

1.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예언 > 193

- 2.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예표 > 195
- 3.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장소 > 198
- 4.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역사 > 202
 - (1) 세계 각국의 오순절 운동 > 203
 - (2) 참예수교회의 발원(發源) > 210

제 9 장 성령의 세례

- 제1절 성령 받은 증거 > 228
 - 1. 방언을 말함 > 230
 - 2. 몸의 진동 > 240
 - 3. 보고 들을 수 있음 > 241
- 제2절 방언의 효용 > 243
 - 1. 대신 간구함 > 244
 - 2.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가 됨 > 245
 - 3. 자기의 덕을 세움 > 247
 - 4. 교회의 덕을 세움 > 250
- 제3절 특수한 은사 > 252
 - 1. 고린도전서 14장의 정의(正意) > 257
 - 2. 오순절의 경험 > 262

제 10 장 성령의 감동

- 제1절 일반적인 그릇된 관념 > 274
- 제2절 각 시대의 성령 감동의 역사(役事) > 278
 - 1. 구약시대 > 278
 - (1) 선지자를 감동시킴 > 279
 - (2) 사사를 감동시킴 > 280

- (3) 제사장을 감동시킴 > 281
- (4) 왕을 감동시킴 > 282
- (5) 기타 > 283
- 2. 이른 비 성령이 임하시기 전 > 285
 - (1) 예수의 강생에 관하여 > 285
 - (2) 예수의 공적에 관하여 > 286
 - (3) 예수의 신분에 관하여 > 287
- 3. 이른 비 시대 > 290
 - (1)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감화함 > 290
 - (2) 교회를 흥왕케 함 > 292
 - (3) 사명을 맡기심 > 294
 - (4) 미래의 일을 계시(預示) > 295
 - (5) 사람을 거룩하게 함 > 296
- 4.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 시기 > 297
 - (1)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실천하게 함 > 298
 - (2)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게 함 > 300
 - (3) 사람을 감동시켜서 문서선교에 힘쓰게 함 > 301
- 5.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 > 303
- 제3절 일반 개신교회가 마땅히 취할 태도 > 306
 - 1. 성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 > 307
 - 2. 가말리엘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라 > 308
 - 3. 아볼로의 겸손을 배우라 > 309
 - 4. 세례 요한을 주목하라 > 311

제 11 장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오류

- 제1절 오순절은 영원히 재현되지 않는다? > 314
- 제2절 모든 기독교 신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 328
- 제3절 성령의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 336

제 12 장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 제1절 참된 교회에 속한다 > 355
- 제2절 진리에 순종한다 > 358
- 제3절 ‘할렐루야’를 외친다 > 361
- 제4절 죄 사함의 세례(침례)를 받는다 > 365
- 제5절 안수를 받는다 > 369
1. 연합의 표시 > 369
 2. 축복의 안수 > 369
 3. 병 고침의 안수 > 370
 4. 은사를 나누어 줌 > 370
 5. 전례(典禮-의례)의 하나 > 371
 - (1) 성직 안립 > 371
 - (2) 일꾼의 파견 > 371
 6.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 > 372
 - (1) 사마리아 성 사람의 체험 > 372
 - (2) 사울의 체험 > 372
 - (3) 에베소 제자들의 체험 > 373
- 제6절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 374
- 제7절 믿음과 전심(專心)으로 구한다 > 378
- 제8절 항상 기도에 힘쓴다 > 384
- 제9절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다 > 387

제 13 장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

- 제1절 성령 충만의 정의 > 394
1.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 > 394
 2. 성령으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함을 가리키는 말 > 396

제2절 성령 충만을 받은 효과 > 399

1. 성업을 감당할 수 있음 > 400
2. 죄의 권세와 싸워 이김 > 403
3. 성령의 열매를 맺음 > 411
 - (1) 사랑 · 희락 · 화평 > 414
 - (2)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 417
 - (3) 절제 > 422

제3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 424

1. 갈급해야 한다 > 425
2. 악을 버려야 한다 > 428
3. 회개해야 한다 > 432
4. 순종해야 한다 > 433
5. 노력해야 한다 > 436

제 14 장

성령과 사령의 분별

제1절 성령 받음의 특징 > 440

1. '할렐루야'를 즐겨 말한다 > 440
2. 방언을 말하고 영가(靈歌)를 부른다 > 441
3.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 442
4.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 442

제2절 사령 받음의 특징 > 443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 443
2. 세상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 444
3. 참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 445
4. 주절거리는 음성과 속살거리는 말을 한다 > 445
5.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졸도하게 한다 > 446
6.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다 > 446
7. 교만하다 > 448

8. 기타 현상 > 449

제3절 사령(邪靈) 받은 실례(實例) > 450

1.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 450
2. 입에 거품을 문 경우 > 451
3. 질서가 없는 경우 > 452
4.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 452
5. 뒤로 넘어지는 경우 > 453

제4절 사령의 침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454

제 15 장

내가 성령 받은 체험담

1. 성령을 받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다
- 임오진(林悟眞) > 456
2. 남편의 변화에 감동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다
- 양숙진(楊淑眞) > 461
3. 성령이 크게 강림하여 지반이 흔들리다
- 진양진(陳揚眞) > 463
4.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게 되다
- 사금곤(謝錦坤) > 469
5. 항상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성령을 부어주셨다
- 주아아(朱阿娥) > 476
6. 몸에 번개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왔다
— 간동호(簡東豪) > 479
7. 성령의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뜻을 정하여 세례(침례)를 받았다
- 임헌생(林獻生) > 483
8.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다
- 오양도(吳揚道) > 486
9. 골방에서 전심(專心)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다
- 양약한(楊約翰) > 491

10. 성령의 세례를 받고 중한 폐결핵이 고쳐지다

- 간익진(簡益眞) > 495

11.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에 따라 간구했더니 곧 성령을 받았다

- 이영실(李靈實) > 499

12. 목회자를 반박하여 제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포로가 되다

- 사동벽(謝東璧) > 503

성경이란 무엇인가?

■ 제 1 장 ■

무엇이 성령인가?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불분명한 것 같다(고전13:12).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설명이 이미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에 대한 이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제 1절 성령의 인격성(人格性)¹⁾

성경주석가들은 원문으로 영(靈)은 ‘기(氣)’, 혹은 ‘바람(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을 단지 일종의 하나님의 ‘감화력(感力)’이나 ‘생기(生氣)’를 일컫는 말로 이해한다. 그래서 기운과 바람을 성령의 본질(本質)로 이해하여 성령을 ‘거룩한 바람’, 즉 ‘성풍(聖風)’으로 오역함으로써, 예수께서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인자를 거역하는 죄보다 더 크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마12:31,32),

1) 역자주. 저자는 이를 위격(位格)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삼위일체 신관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

성령의 인격적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성령이 단지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생기(生氣)’일 뿐이라면 이를 해석하는 데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서 도합 열세 번이나 성령에 관해서 언급하셨다. 이 때 남성 대명사인 ‘그(他)’라고 표현하셨는데(요 14:16,17,26, 15:26, 16:7,8,13,14), 이는 ‘그분(那位)’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성령은 인격적 존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증거한 바를 보아도 성령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뉘 주시느니라』(고전 12:4,11).”

그리고 성령은 지(智) · 정(情) · 의(意)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때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지적인 면에서 그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창1:1,2, 시104:30),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으며(엡4:30), 증거하실 수 있다(요15:26). 사람을 가르치셨고(느9:20, 요14:26), 진리로 인도하셨으며(요16:13),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도록 계시하신다(엡3:5). 둘째, 정적(情的)인 면에서 그는 사랑이 있으시고(롬15:30), 은혜를 베푸시며(히10:29), 근심하시고(사63:10, 엡4:30), 위로하시며(행9:31),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주신다(롬8:27). 셋째, 의지적인 면에서 그분은 당신의 ‘뜻’이 있고(롬8:27),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며(행15:28), 명령을 내리기도 하시고(행8:29), 일꾼을 보내기도 하신다(행13:4). 그리고 전도를 막기도 하시고(행16:6), 성직자를 세우기도 하시며(행20:28),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뉘주시고(고전12:11),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다(계2:7,11,17,29, 3:6,13,22).

제2절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인격적 존재자라면 대체 그는 누구인가? 이것은 극히 오묘한 신관(神觀)의 문제이며, 천 년 동안 내려온 어려운 과제이다. A.D. 325년에 체결된 ‘니케아신조(the Nicene Creed)’에 의해서 기독교는 ‘삼위일체설(三位一體說)’을 이미 확정하였으나 우리는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 바울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였다(고전2:11). 신관 문제(神觀問題)는 하나님의 사정(일)이다. A.D. 4세기 이래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관에서 착오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데 기인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할 뿐이다(요14:26, 16:13, 엡1:17).

레터스(L.L.Lehters)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蘇慕華譯)의 10쪽에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셋째 분이시다”라고 하였고, 비슬뢰프(F.Wislöff)는 곧 『나는 성령을 믿는다』(戴懷仁, 王永生 공역)의 1쪽에서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神)의 세 번째 거룩한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사찌요상(佐治良三)은 『무엇이 성령이냐』의 4쪽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분별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령이 인격적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삼위일체의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찌(佐治)씨는 성령을 하나님과 구분되는 인격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의 (오류적)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그(성령)가 곧 ‘하나님의 영’임을 나타낸 말인데, 어찌 그가 하나님과 구분된 인격적 존재일 수 있겠는가?

1.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천지창조 과정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수면에서 운행하신 후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당신의 영(또는 신)’이라고 하셨다(겔36:27, 37:14, 욥2:28, 29).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하여 자신들이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행2:16-18).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하였고, 3장 2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요10:38). 하나님은 영이신데(요4:21),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영이 주님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받은 성령은 곧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이다(마3:16, 눅4:18).

바울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였고(고전 12:6),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2:13)”,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였다(엡4:6).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기록하였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만유에게 나눠주어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고(고전12:11, 7), 야고보도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하였다(약1:17).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결코 ‘세 번째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구분된 인격적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 사이에는 빌립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였고(29), 끝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했다(39). 누가의 신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곧 ‘주 예수’의 영이심을 알 수 있다. 이런 요소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고(6),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 하셨다고 했다(7).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라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다. 천지만물의 창조에 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기는 ‘성령’이 수만에 운행하신 후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으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천지만물은 ‘그(예수)’가 창조하셨다고 했다(요1:1, 3, 14, 고전8:6, 골1:16, 17, 히1:2).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요일2:27)”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이란 분명히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요16:13). 요한이 여기서 특별히 밝힌 내용의 초점은 ‘그(주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상징하며, ‘주 예수’의 영을 가리킨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령은 ‘주 예수’의 영이지, 결코 ‘세 번째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제3절 신관에 대한 토론

신관에 관한 문제에서 ‘니케아 공회(Council of Nice)’ 이후 천주교와 일반 개신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바로 ‘삼위일체(Trinity)론’이다. 천주교에서는 이 신관에 반하는 어떤 신관도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관을 배척하고 있다. 자구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때 ‘삼위일체’의 ‘위’(位)란 ‘위격(persona)’을 뜻하는데, ‘삼위(三位)’란 곧 세 개의 ‘위격(persona)’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의 ‘위격(persona)’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9)”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래에 열거한 몇 구절의 근거들이 있다. 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 몸 위에 내렸으며, 그 순간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6-17).” ②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고(마11:25-26, 14:23, 26:39, 42, 44), 항상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셨다(눅22:32 요17:9-11, 20-23). ③ 예수께서 스스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요14:28)”라고 말씀하셨다. ④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행7:55-56). ⑤ 예수는 지극히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는 분이시다(롬8:34 히7:22-25 요일2:1).

이런 근거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론자들은 하나님이 ‘삼위’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은 또한 ‘일체’라고 말한다. 곧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것이다(요10:30, 14:9-10, 17:21-22).

그들은 진일보해서 해석한다. 그들은 또 삼위일체신관이란 ‘일위신삼체신’, ‘하나의 위격을 가진 세 분의 몸(一位神三位身 : Three Persons In One God)’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삼위의 몸(三位身)’이란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신성, 동등한 지위, 동등한 영광을 가지며, 동일한 무한 권능, 동일한 영존자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한다. 즉 ‘일위신(一位神)’, ‘하나의 위격’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근거로 삼위일체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실제로는 ‘삼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근거들을 부인할 수도 없었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독립성도 만족시키면서 세 위격의 독립성도 만족시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라는 명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행스럽게 ‘삼위일체’도 그렇고, ‘일위삼체’도 그렇고, 그 이면에는 ‘유일신’의 관념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삼위’니 ‘삼체’니 하는 것의 어휘적 오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관에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신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 보고 싶다. 첫째, 성경의 주제, 둘째, 영 안에서의 일치, 셋째, 사공을 초월하는 성령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구약은 구원의 은혜의 계획이고 신약은 그 성취이다. 이 주제를 붙들면 신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이다. 그는 천하 만민의 구주시요, 장차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다(마1:18-25 눅2:8-11).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요일3:24),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대(사9:6 롬9:5). 그분이 강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다(딤후3:16 요1:1,14).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강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신 것이다(시129:3 32:13-18 마27:26-50).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롬4:25 고후5:21).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다. 이런 이유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롬5:6-10 8:33-34).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은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롬8:23 엡1:14 4:30). 성경에 의하면 이 구원의 완성은 필히 예수의 재림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죄인이 형벌을 받고 의인이 들림을 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요5:28-29 살전 4:14-17). 그러므로 승천 후의 예수는 계속해서 구속의 사역을 지속하셔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선민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다(롬8:34 히7:22-25 12:22-24 요일2:1).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으며, 삼천 명이 세례를 받아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건립되었다(행2:1-4, 41). 이 또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요16:13).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알 수 있다(마16:15-17, 고전12:3).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의 죄가 사해될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는 효과가 있다(요일5:6-7 행22:16 고전6:11 딤후3:5). 성령의 감동이 있기에 우리

는 성결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살후2:13).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찌 이렇게 클 수 있는가!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강생, 내어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다. 구원이 완성되면 다음과 같아진다. 곧, 물질세계가 멸망하고 다시 사람을 유혹함이 없게 된다. 마귀는 형벌을 받고, 성도는 시험 받을 일도 없고, 교회는 들림을 받으며, 성도는 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도 성도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성령 또한 땅 위에 건립된 교회에 임재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 추론할 때 그리스도가 강생하시기 전, 구속 사역이 진행되지 않은 ‘영원한 과거’의 상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구속 사역이 완성된 ‘영원한 미래’의 상태에서의 하나님 역시 ‘유일하신 분’이시다. 구속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구원의 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은 ‘삼위’로 분류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한 분의 사역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강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시대를 대략 이천 년으로 가정했을 때 이 기간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할 때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2. 영(靈) 안에서의 일치(一致)

두 번째 ‘영 안에서의 일치’는 신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성경 안에는 성령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다. 이를테면 여호와와 신(영)(삿3:10), 하나님의 성령(미3:16), 아버지의 성령(마10:20), 주의 성령(눅4:18), 그리스도의 영(롬8:9), 예수의 영(행16:7), 그 이들의 영

(갈4:6)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명칭은 다양하나 모두 한 분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일컬어 ‘영 안에서의 일치’라고 정의한다. 주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이란 말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나타낸다. 이것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킨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14:9-10).” 이것이 ‘영 안에서의 일치’라는 표현이 가능한 정당하고 유력한 근거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비록 동일한 한 분의 영이지만 예수께서 인자로 강생하신 이후,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요 14:28, 개역)”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는 것인가?

첫째, 아버지의 지위가 아들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이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가르쳤다(요12:49-50). 심지어는 그분이 행동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좇아 실행했다(요7:6,8 마26:39).

둘째,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들은 장차 삼 년 동안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사십 일 동안 금식해야만 했다. 그 후 성령이 충만했으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었다(눅 4:1-15). 아들은 사역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했다(막1:35 눅 5:15-16).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구하셔야 했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셨다(요17:4). 이들의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남기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 자신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셨다는 점이다.

셋째,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고별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얻은 권능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요17:2). 이러한 권세는 만물에 깃들인 것이다(히1:3). 또한 자연계를 지배하는 모든 현상들과 관계된 권세를 말한다(막4:37-41). 이 권세는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을 때와 (단7:13-14) 주 예수의 기도에서(요17:2)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발견된다(마 28:18-19).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만민을 다스리는 ‘왕자’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마24:14, 계11:15). 만민이 주의 백성이 되어 그에게 나와 경배하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를 얻을 때가 온다(계17:14, 19:16).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상이 성취되고 주 예수의 소망하는 바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존영(尊榮)이 아들보다 크시다. 고별기도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다(히1:3). 그분이 하시는 일, 즉 병을 고치고, 귀산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들이었다(눅17:15-18 요9:1-3, 11:3-4, 40 13:31-32, 17:1 엡1:20).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그는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고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으며, 그로 인해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서 지극히 높은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마

27:29 눅24:26 약7:39 히2:9 빌2:8-11).

다섯째, 아버지의 지식이 아들보다 크시다. 아들이 말한 것은 모두 아버지가 이르신 그대로 말한 것이다(요12:49-50). 아들이 말한 것은 모두 아버지가 주신 교훈이다(요8:28). 그러므로 그가 말세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때 단지 이러저러한 전조들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했을 뿐, 정확하게 그분이 언제 어느 때에 재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3,36).” 본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중요한 비밀이며, 아버지가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아들도 모르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지시하지 않으시면 아들은 알 수 없다(요 7:3-10). 그러므로 아버지의 지식은 무한하고 아들의 지식은 유한하다. 즉 아들의 지식은 모두 아버지의 계시에 의존한다.

상술한 몇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아버지는 지위, 능력, 권능, 존영,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비록 아들보다 아버지가 크시지만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은 같은 하나의 영이다. 이것이 소위 ‘영 안에서의 일치’라는 오묘함이다.

3. 시공(時空)을 초월하시는 성령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이란 말은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관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세 번째 중점이 된다. 만일 이 중점을 잘 붙들면 물질 관념을 버리고 신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의 물건이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를 점유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宇宙)에 충만하다고 했다(시139:7-10 렘23:23-24). 한자의 ‘우주’라는 단어에서 ‘우(宇)’는 ‘무한의 공간’을 의미하고 ‘주(宙)’는 무한의 시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동시에 두 개의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없다. 단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영체의 몸을 가지신 이후에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사라지기도 하셨던 것이다(눅24:36, 31). 문을 두드리실 필요도 없이 제자들이 있는 방안에 나타나셨다(요20:19,26).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이제 영체이신 예수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나 하나님의 영이나 영체이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성령은 물질과 같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며, 또 아버지과 아들의 영, 그리고 성령은 ‘영 안에서 일치’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실 때 주가 잉태되셨고, 육신이 되셨다(마1:18 눅1:35 요1:14 딤후3:16).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그분의 몸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주를 향해 음성이 있었다(마3:16-17).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지상에서는 인자로 계시고, 여전히 하늘에 오르신 자이시며(요3:13),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다(시103:19).

우리의 경험이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만약 성령을 받은 백 명의 성도가 동떨어진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백 분이 계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성령은 오로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고전12:4 엡4:4).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했다(고전12:13). 이처럼 동일한 한 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네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성령은 곧 시공을 초월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강생하셔서 육신이 되실 수 있었고, 동시에 천지에 충만하셨다. 그래서 나와 너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삼위일체론자들의 근본적인 오류는 물질적인 관념을 통해서 신관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은 성령의 ‘완전성을 지리멸렬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 독일(獨一)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영 안에서 일치’를 말할 때 예수를 강생하신 성령의 ‘일부’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우리 각각의 사람(성도)이 받은 것은 ‘일부’의 성령이라고 설명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삼위일체론자들의 물질 관념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독일신관의 오묘함은 영원히 이해하고 깨달을 방법이 없다.

제4절 몇 가지 난제들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삼위일체론자들이 항상 제출하고 지지하는 관점들이다. 만약 독자가 상술한 세 가지 중점을 잘 이해했다면 아래의 몇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숙고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칭호

‘아버지’란 하나님과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임을 나타낸다(엡4:6). 그는 모든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으시다(히12:9). 나타

나신 순서에 의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되시므로(요3:2, 17, 7:29), 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요3:16, 마11:25-27, 요17:1).

‘아들’은 본래 ‘아버지’였고(요14:9), 그와 아버지는 하나이며(요10:30),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요1:14, 마1:18-21, 딤후 3:16). 그러므로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우주 안에 또 다른 존재의 아버지를 찾을 수 없다(요1:18, 12:45, 14:9-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강생하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무릎을 예수 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빌2:6-10).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본래 하나이다. 결코 삼위일체 중의 ‘제삼위의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성경에 비록 ‘하나님의 성령’(마3:16), ‘아버지의 성령’(마10:20), ‘그 아들의 영’(갈4:6)이라고 달리 표현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칭한 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삼위일체론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복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런 주장을 거부한다.

첫째, ‘우리’는 고대 왕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호칭하던 것으로, 이 호칭은 왕 자신이 국가의 원수이며, 절대적 권세가 있고, 자신의 말이 곧 법이며,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을 표명한다. 실제로 천주교의 교황은 전통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We)’라는 말을 써왔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황은 모든 천주교 신도 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 ‘지상의 그리스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23세가 즉위한 후 천주교의 전통적 관념하의 제도 가운데 몇 가지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호칭이 ‘나’라는 호칭으로 바뀐 것이다. ‘나’라는 호칭으로 바꾼 것은 곧 스스로 ‘지상의 그리스도’로 자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는 자신이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천주교 사상 최고의 개혁자요 민주사상이 깊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의 재임 기간은 1958년 11월 4일에서 1963년 6월 4일까지였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재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행17:24 딤후6:15 계19:16). 만인보다 뛰어나신 지극히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엡4:6). 이런 근거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실 때 이는 ‘다수’의 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일체의 피조물이 모두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절대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다(시 103:19-22).

둘째,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대해 27절에서 ‘자기 형상’이라고 했지 ‘자기들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26절의 ‘우리’라는 것이 ‘다수’를 의미한다면 이는 삼위일체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왜 27절에서는 ‘자기들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는 26절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일컬어 ‘우리’라고 하신 것은 다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27절에서 ‘자기들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회피하고 있다.

셋째, 유대인들은 ‘유일신관(獨一神觀)’을 가지고 있으며,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26절의 ‘우리’가 다수를 의미한다면 유대인들은 어찌 삼위일체 신관을 승인하지 않고 유일신관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26절의 ‘우리’라는 서술은 유대인들이 ‘단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신 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6, 17).”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동시에 나타나심을 볼 수 있고, 이는 자칫 하나님을 삼위로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 안에서 일치’²⁾이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유일무이(獨一無二)하신 하나님이다. 즉, 영적으로 하나이므로 아들로 강생(降生)하실 수 있고 하늘에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다. 또 주 예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도 장차 성령을 주실 ‘아버지’,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는 ‘아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 온 ‘성령’을 동시에 서술하기도 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주 예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극히 오묘한 말씀을 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3:13).”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여전히 영광의 하늘에도 계셨다. 동일한 시간에 여기도 계시고,

2) 역자주. 본서 제1장 3절 2항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다.

또한 저기도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닌 영(靈)으로 존재하므로(요4:24) 이곳에서 저곳으로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강생하셔서 세상에 계셨으나 그 당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지상에서 직무를 수행하신다고 해서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4. 바울의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13:13).”

이 축복의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요일4:8)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뜻이다(요3:16; 롬5:8).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1:14), 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벧전2:24) 대가없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다(딤후3:5). 성령의 특징적인 역사는 곧 감동의 역사로써 사람을 감동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고전12:3)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다(살후2:13).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나타내는 역사의 특징을 설명할 뿐이지 삼위일체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서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막16:19).”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행7:55~56).”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혹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혹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과 같은 표현들인데, 이와 유사한 기록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엡1:20; 골3:1; 히10:12; 뱀전3:22). 삼위일체론자들은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증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아래 지상에서는 여전히 ‘성령’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직임을 계속하셔야 하며(히8:1, 7:22~25), 성령이 지상에서 선민들이 구속을 얻을 때까지 교회를 치리하는 역사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롬8:23; 엡1:14, 4:30).

제 5절 성경에 부합되는 신관(神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로 신관(神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명백히 깨달았고, 서로의 관점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시종일

관 모호한 논거가 없었고,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주후 325년에 신관(神觀)을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로 '삼위일체설'을 정립한 것이 정당한 듯하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관념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 성경에 부합되는 신관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주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후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행2:38, 10:48), 혹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행8:16, 19:5)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두 이름이 아니라 단지 대명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곧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본래 각자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단수(單數)로 표기 되어 있고, 영어역본 역시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키었나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일어역본에는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전하여 지키었나이다”로 되어있다. 또 영어역본에는 “내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전하여 지키었나이다”라고 했다.³⁾ 이것으로 볼 때 아버

3) 역자 주. (요 17:2, NIV)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요 17:2, NASB) 『even as Thou gavest Him authority over all mankind, that to all whom Thou hast given

지의 이름이 곧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요1:14, 1). 즉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딤후3:16). 아들과 아버지는 원래 하나이며(요10:30), 아들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영이 아들 안에 계신다(요14:8~9).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이다. 성령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마10:20), 하나님의 영(마3:16), 하나님의 아들의 영(갈4:6), 그리스도의 영(롬8:9), 또 예수의 영(행16:7)이시므로 성령의 이름 또한 ‘예수’이다. 이처럼 사도들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는 주 예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2. 아나니아의 거짓말

초대교회에서는 소위 유무상통(有無相通)⁴⁾의 생활을 실천했다. 성도들이 자신의 땅과 집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행4:32~35) 온 교회가 마치 한 가족과 같았다. 그 무렵 아나니아란 자도 다른 이들에게 뒤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Him, He may give eternal life.』(요 17:2, NRSV) 『since you have given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o give eternal life to all whom you have given him.』(요 17:2, KJV) 『As thou hast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thou hast given him.』

4) 역자 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통용함.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눔.

때문에 자신의 발을 판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불손한 의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돈의 일부를 감추어두었다(행5:1~2).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책망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 세 시간 뒤에 그의 처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다시 그녀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행5:3~11)”라고 말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으며, 9절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位格)상의 구별을 전혀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다양한 호칭을 혼용한 것이다.

3. 성령의 내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이 내주(內住)하시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등 세 가지 표현을 혼용했다. 이런 혼용의 사례는 호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영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호칭이 다르다고 결코 세 위(位)의 영이 우리 마음에 내주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 10절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등의 호칭조차 혼용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바울의 서술과 위에서 베드로가

서술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록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유력한 대변자(代辯者)

주 예수는 제자들이 나중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질 것을 밝히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분부하신 것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막13:11),”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눅12:12),”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21:15)”라고 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아버지의 영’, 또는 ‘성령’, 또는 ‘나(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하기 까다롭기는 하지만 여기서 유력한 대변자(代辯者)는 바로 오직 한 분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5. 천지만물의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후에 만물이 조성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조물주로

서 만유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기록했다(요1:1, 3, 14 ; 고전8:6 ; 골1:15~17 ; 히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물주가 되신 사실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외에도 잠언 8장 22~30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에 대해 서술할 때 지혜를 의인화(擬人化)시켜 서술한 것이다. “여호와와 창조 시작,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내가 있었다. 상고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이미 세움을 입었나니 …… 그 때,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니, ……(잠8:22-30).” 이와 같이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표현이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결코 삼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주 예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요5:44), 혹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요17:3). 주의 제자들도 그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딤후1:17), 혹은 ‘지혜로우신 하나님’⁵⁾(롬16:27), 혹은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유25), 혹은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고전8:4) 등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하였다. 따라서 소위 ‘삼위일체설’은 결코 성경 안에 존재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며,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부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독자들을 인도하셔서 성경에 부합된 신관(神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5) 역자주. 중국어 성경에는 '유일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 제 2 장 ■

성령의 명칭

성경 안에는 성령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다. 이러한 명칭의 다양성을 근거로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다.

제 1절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단어 가운데 ‘성령’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는 무려 19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고 (요4:24), 달리 말하면 성령은 곧 그분의 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하시므로(레11:44, 요17:11) 그분의 영도 성결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은 그분을 ‘거룩한 신’이라 했고(단4:8, 9, 18), 바울도 ‘성결의 영’이라 했다(롬1:14).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신다. 즉, 우리로 하여금 성결을 이루도록 감동시키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롬 15:16, 살후2:13, 벰전1:2).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갈5:16).

제 2절 진리의 성령

주 예수는 진리이며(요14:6), 성령은 그의 영이시다(고후3:17). 주 예수께서 진리이기에 그의 영도 또한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에 대해 언급하실 때 ‘미혹의 영’이라는 명칭과 대조되는 호칭으로 항상 ‘진리의 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요14:17, 15:26, 16:13). 사도 요한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성령은 진리’라고 증거했다(요일5:7).

성령이 오신 것은 사명의 관점에서 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주 예수께서 진리인 이상 성령의 사명은 곧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장래 일을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요 16:13). 왜냐하면 진리는 마치 봉한 책과 같아서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사29:11, 12, 계5:1-5, 고전2:11).

제 3절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희랍 원문으로 ‘파라클레토스’(Paracletos)로써, ‘파라’(Para)는 ‘곁에’ 또는 ‘방어하는’의 뜻이고, ‘크레토스’는 ‘불러냄을 받은’이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를 조합하면 즉 ‘불러냄을 받아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다.¹⁾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만 모두 4회 ‘보혜사’로 번역되었다

(요14:16,26 15:26 16:7).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영어역본에서 ‘파라클레토스’를 ‘안위자(安慰者: comforter)’로 처음 번역했다. 그러나 이 영어 단어의 현재 용법과 14세기 말엽 당시의 뜻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 당시 이 단어는 라틴어 ‘아드보케이투스(Advocatus)’에서 유래한 단어로, 주된 뜻은 ‘힘(力量)’이다. 위클리프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의 그 의미는 ‘힘을 더해 주는 자’와 ‘도와주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가 나를 안위하는 자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로 번역했다. 그 후부터 이 용어의 뜻이 점점 약화되었고, 지금은 거의 ‘근심 중의 안위’의 뜻으로만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단어가 근심 중의 안위를 뜻하는 것만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단어의 의미는 세월이 가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 무의미한 쟁론을 하기보다 성경의 문맥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 원래 ‘보혜사’란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로, 요한복음 14장-16장에서 나타난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문맥에서 보혜사란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당시 예수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제자들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던 주님이 이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의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후에 누가 자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누가 그들을 도와주고 꺾박을 감당할 힘을 공급할 것인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는 네 번이나

1) 〈성령론〉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국역본, 일본역본을 인용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난하주로 처리한다. “일역 문어체(日譯文語體), 여씨역본(呂氏譯本)과 회영대조본(希英對照本)에는 모두 ‘도와 주는자(邦助者)’(Helper)로 되어 있다. 이 명사가 ‘國語和信譯本’에 네 번씩이나 사용되었는데, 전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요14:16-26, 15:26, 16:7). 이 명사가 처음 성경에 나타났을 때 國語和會譯本の 역자(譯者)는 특별히 ‘혹 훈위사(訓慰師)’라고도 함이란 주석을 달아서 ‘훈도(訓導)’와 ‘안위(安慰)’의 뜻이 포함됨을 표시했다.”

‘보혜사’란 명칭을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강림을 약속하셨다. 첫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6-18)는 말씀에는 ‘안위’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6-27)”라고 하신 말씀에는 ‘가르침’·‘안위’·‘도움’·‘힘을 더함’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15:26)”란 말씀에는 ‘변호’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넷째,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6, 7)”라는 말씀은 첫째, 둘째에서 처럼 ‘안위’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경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 ‘보혜사’란 명칭은 ‘안위’·‘가르침’·‘도움’·‘힘을 더함’·‘변호’ 등의 뜻을 두루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뜻은 또한 여러 역본들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안위’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은 확실히 안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르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은 성도들에게 여러 상황들에 대해 알게 하셨고(요일2:27), ‘도움’과 ‘힘을 더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약함과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게 했다(행2:4, 14-36, 4:19, 20, 31). ‘변호’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막13:11, 눅12:11,12).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란 영역(英譯)으로 ‘아드보케이트(Advocate)’인데, 이는 회랍 원문의 ‘보혜사(Paracletos)’나 라틴어의 ‘변호사(Advocatus)’의 뜻과 같다. 이 두 용어는 특별히 고소자나 심판관에 대항하여 ‘도움을 주는 자’란 뜻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법정 용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대(古代)에는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이 하나나 둘, 혹은 여러 유력한 친구들과 동행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 때 동행하는 친구를 희랍어로 ‘파라클레토스(Paracletos)’라고 했고, 라틴어로 ‘아드보카투스(Advocatus)’라고 했다. 그들은 법정에 함께 출두해서 친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지혜롭게 처리하고 도우며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서 해주었다. 이런 관계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그분 사이의 관계와 같았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순간 당황해 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안위하고, 가르치고, 힘을 더해주고, 변호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승천 후 하늘에서 여전히 이런 직무를 계속하고 계신다(요일2:1). 제자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선민에 대한 마귀의 고소를 변호하시는 것이다(롬8:33, 34, 계12:10, 히7:22-25). 따라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은 천상(天上)이고, 파송되신 보혜사의 활동 영역은 지상이며,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변호의 일을 수행하시듯이, 보혜사도 지상에서 변호의 일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말했다(롬8:27-28).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보혜사의 활동 영역이 특별히 지상이라 할지라도 천상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눅22:31-32, 요17:9-10, 15, 17, 20).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한 시에 한 장소에만 존재하실 뿐,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기에도 계실 수 없었다. 또 제자들이 그분에게 얻는 도움과 힘과 안위와 가르침 등도 모두 외부적인 것이었다. 이와 대조해 볼 때 보혜사 성령은 육체의 한계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신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여러 가지 소중한 체험을 한 후에야 주님이 지난 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16:7)고 하신 난해한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제 4절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또 다른 호칭은 ‘지혜와 계시의 영’(엡1:17)이다. 이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추인 것과 미래의 일을 계시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지혜를 얻어 바로의 꿈을 해석했으며 장차 애굽 나라가 당할 일을 미리 예언함으로써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창 41:37-41).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의 브사렐과 단 지파 중의 오홀리압이란 인물에게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고 금, 은, 동 등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또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다(출35:30-35).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해서 그의 임무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신34:9). 또한 다니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위가 잠시 그를 떠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지혜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능가하였다(단4:4-18, 24:27).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의 뜻을 벨사살왕 앞에서 해석하여 그의 나라가 분열되어서 메대인과 바사인에게 돌아갈 것을 예언할 수 있었다(단5:10-16, 25-30). 구약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로 그들의 아름다운 임무를 완성했고, 또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이어 영광을 받으실 것과(벧전1:10-12) 재림까지 증거할 수 있었다(유14:15).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2:11).”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풍성한 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사람이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의 지혜와 은혜, 능력에 대해 좀더 깊이 알 수 있다(롬11:33-34, 엡1:17-21).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1:11-12)”라고 했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엡 3:2-5)”라고 했다. 오묘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지 사람의 가르침만을 의지하다보면 ‘자루에 든 물’과 같이 다 소모하고 나면 없어지게 된다(참고, 창 21:14-1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2-13).”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인 동시에 바울과 기타 제자들이 실제로 체험한 바이다(요일 2:27).

제 5 절 기 타

성령의 명칭은 상술한 네 가지 외에도 다음 몇 가지가 더 있다.

1. 참 신을 나타내는 명칭

하나님의 영(마3:16, 롬8:9,14, 고전2:11,3:16), 여호와의 영(삿3:10, 삼상 10:6, 왕하2:16, 사11:2), 아버지의 영(마10:20),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고 후3:3), 거룩한 신들의 영(단4:8-9,18 5:11), 주의 영(눅4:18).

2. 예수의 영임을 나타내는 명칭

그리스도의 영(롬8:9, 벧전1:11), 예수의 영(행16:7),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1:19), 주의 영(행5:9, 고후3:17-18), 하나님 아들의 영(갈4:6, 롬8:15).

3. 존귀함을 나타내는 명칭

성령(마4:1 눅2:27 요3:5,6,7,8,34), 영원한 영(히9:14), 영광의 영(벧전4:14).

4. 효용을 나타내는 명칭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사 11:2), 즐거움의 영(시 51:21), 소멸하는 영(사 4:3-4), 은혜의 영(히 10:29), 은총과 간구하는 영(속 12:10).

5. 성정(性情)을 나타내는 명칭

공의의 영(사4:3), 판결하는 영(사 28:6), 성결의 영(롬 1:4), 선한 영(느 9:20).

■ 제 3 장 ■

성령의 상징

상징이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하여 그 의미를 뚜렷하게 나타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흰옷’은 성결을(계 3:4),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것을(마 16:24), ‘지팡이’는 권세를 비유적으로 이룬 것이다(출 4:17, 20, 민 24:17). 이런 것은 모두 상징적 묘사법이다. 이런 상징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 때로는 수많은 언어로 형용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상징은 가장 경제적인 표현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오묘한 비밀을 나타내시고, 말과 글로서는 알기 어려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성경에는 성령의 품덕과 효용(效用)을 나타낸 상징이 총 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절 비둘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했고, 그로 인해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 히브리어 원문에 ‘운행’이란 말은 ‘비둘기 알을 품듯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어역에서는 ‘막아 덮는다’라고 번역하여 상당히 이와 같은 뜻에 접근하고 있다. 유대인의 『탈무드(Talmud)』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한 마리의 비둘기같이 물 위를 가리어 덮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한 최초의 기술이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대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만물에게 생기와 따뜻함을 주셔야 했다(롬4:17). 성령은 우리의 거둬나게 하시는 영적 생명의 어머니시다(요 3:5). 그가 임하시기 전에는 마치 걸어다니는 시신(屍身)처럼 생명이 없다. 그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렘37:14, 갈5:25),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다(롬8:2, 겔37:10).

비둘기의 사랑은 순결하고 온전하여 결코 제2의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의 이상적佳人(佳人)을 비둘기에 비유했다(아5:2, 6:9). 성령께서도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도 성령에 대해 이와 같이 대할 것을 기대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가 질투의 불을 일으키신다(아4:4,5 고후 11:2).

비둘기는 자기 집을 좋아해서 아무리 높이 날아 멀리 갔더라도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온다(사 60:8).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 3:15), 또한 성령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칭함을 받는 교회라면 성령은 반드시 거기에 거하신다(엡 2:19-22, 고전 3:16).

비둘기는 화평의 상징으로서 성령은 화평을 이루시는 중보자시다(요 16:7, 요일 2:1). 중보란 말은 원문에 ‘보혜사’이다(엡 2:14-18). 사도 바울은 ‘화평’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갈 5:22).

비둘기는 유순한 동물로서(마 10:16) 부드러운 성령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서 잉태되셨고 태어나셨다(마 1:18-21).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의 몸에 임하셨다고 했다(마 3:16). 이처럼 성령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마 11:2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분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라고 했다(갈 5:23). 비둘기는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깨끗한 날짐승(鳥類)으로서(레 1:14) 또한 성령의 순결한 성품을 상징한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일도 한다(창 8:8-11).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15:26),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노아 홍수 시대에 아직 물이 완전히 건히기 전, 수면에는 각종 시체들이 떠 있었을 것이다.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는데(창 8:7), 아마도 시체들을 쪼아 먹느라 그랬을 것이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서(레 11:13, 15) 죽은 시체를 쪼아 먹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달리 내려앉을 마른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 왔다(창 8:8, 9).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두 가지 생각을 품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몸에는 임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욕의 파도가 일렁여서 성령께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참고, 약 4:8). 노아는 세 차례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창 8:8-12). 일차는 비둘기가 아직 물이 건히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 왔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를 상징하며, 약속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때를 예표한다. 이차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는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사도교회가 건설되고 선민을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을 예표한다(시 52:8, 렘 11:16, 롬 11:17). 삼차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늦은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말세의 참교회에 임재하시되 주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르실 것을 예표한다.

제2절 이슬

이슬은 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날씨는 가물고 이슬마저 없다면 식물은 말라서 죽고 만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의 밭과 같아서 이슬로 상징되는 성령의 적셔줌이 없다면 불모지와 같이 변하고 만다(렘 4:3). 이미 황폐해진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변화하듯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사26:19). 낮이 더우면 더울수록 밤의 이슬은 더욱 많은 법이다. 식물은 밤에 맺히는 이슬이 있기에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를 잊고 저마다 푸른 잎을 활짝 펼치며 생기를 얻는다. 이와 같이 교회는 박해가 심할수록 성령도 더욱 충만해진다(행 7:54-60, 13:50-52, 5:40, 41).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에 박해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피곤한 손과 저는 다리를 일으켜 다시 전도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이슬은 생명과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아침 해가 대지 위에 찬란한 햇살을 펼치고 푸른 잎사귀 위로 이슬이 맺혀서 햇빛을 머금어 빛나는 것을 보면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약1:17). 세계의 어떤 보석과 보물보다도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성령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 이슬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과거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잠 19:12, 호 14:5)!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라!

제3절 비

비는 공의와 박애(博愛)의 상징이다(호 10:12, 마5:14).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땅에 비를 주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신다(행 11:15-18, 호 6:3). 오래 가뭄이 지속되면 밭은 황폐해지고, 그런 밭을 비로 적셨을 때에야 각종 과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레 26:4) 사람의 마음도 밭과 같아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야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갈 5:22, 23, 엡 5:9).

굳어 있는 메마른 땅은 파종하기 전에 이슬이나 단비로 부드러워져야만 나중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듯이(시 65)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진리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막 4:14) 성령이 임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진리의 씨앗이 싹트고 뿌리내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겔 36:26, 27).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을비(이른비)와 봄비(늦은비)이다(신 11:14, 렘 5:24, 약 5:7). 가을비는 가을 파종 전에 내리며 봄비는 봄에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두 시기로 나누어 강림하시는데, 먼저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하셨고, 말세에 참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해 성령을 내려주셨다(말 4:5, 계 7:2, 3, 엡 1:13).

제4절 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사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지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사 4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 14).”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9).”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령을 내려주실 약속의 말씀에서처럼 가장 뚜렷하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이다. 또 성경에서 성령을 물로 상징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슬이나 비도 사실 그 본질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출 17:1-6). 이것은 성령을 물로 상징한 최초의 기록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뜻을 영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당시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킨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소생케 하신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히 10:22). 더러워진 그릇은 대개 물로 깨끗케 할 수 있다(레 11:32). 그래서 구약시대의 결례(潔禮)의식에는 대부분 물이 사용되었다(출 29:4, 민 8:7). 이처럼 성령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끄신다(롬 15:16, 딤후 2:13).

물은 동력의 원천이다. 전기가 일반화된 오늘날 물은 동력(動力)의 근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근원으로(눅 24:49)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화와 능력에 달려 있다(딤후 3:5, 행 1:8, 요 10:10). 물이

동력을 발생시키고 동력은 다시 발전(發電)하게 하고 발전된 전기가 빛과 열을 내는 것처럼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충만할 때 성도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게 하고 나아가 빛을 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마 5:16, 벰전 2:12).

노자는 “강과 바다가 백곡(많은 계곡)의 왕처럼 자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다²⁾”라고 했다. 물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흐른 물은 낮은 땅에 고인다. 이처럼 성령도 겸비한 사람의 마음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벰전 5:5). 또 물은 어떤 모양과 크기의 그릇에라도 담길 수 있는 부드러운 성질이 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국가와 종족과 지위를 막론하고 구별없이 채워지셔서 그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행 11:15-18). 큰 그릇 안에 많은 물이 담기듯이 큰 인격의 성도 안에 성령은 충만히 거하신다.

물은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생명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진다. 즉,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계 22:1, 2, 17, 요 10:10). 또 육체는 비록 환란에 처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롬14:17, 살전1:6, 롬15:13).

제5절 강물(江河)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로 성전에

2) 도덕경 제 육십육 장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

들어가서 환상을 보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 내용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동으로 흐르더니 물의 흐름이 갈수록 커지더라는 것이다. 6-12절에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성전’은 바로 주 예수를 상징하며(요 2:21),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상징한다(요7:37-39, 16: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8a)”라고 했다. 여기서 ‘아라바(Arabah)’란 ‘불모지(Desert)’를 뜻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마치 불모의 땅 아라바와 같은 데(렘 4:3-4),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이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8b)”라고 했는데, 소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원문을 살펴보면 ‘고침을 얻었다’로 기록되어 있다.³⁾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염해와 같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뇌로 가득 차 있다. 평안과 복락과 생기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강물이 그들의 마음 속에 충만해지면 마치 염해가 단물로 변화하듯이 고침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마 11:28, 요 16:33, 4:14).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9a).” 생명에서 삶이 시작된다. 모든 생물은 생명이 있기에 삶이 가능하며, 생명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 또 생명이 다르면 삶의 방식도 다르므로 생명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즉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생활을 하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생활을 한다.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성도가 되고 영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다(롬 8:2, 갈 2:20, 6:14, 빌 3:8).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9b)”라고 했다. 많은 물고기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마 4:19), 이는 죽어가고 쇠퇴하는 세상 사람과 대조된다(마8:21,22 겔37:11 엡 2:12). 바다의 물고기

3) 저자는 이를 대만에서 출판하는 국어화합역(國語和合譯)의 주석을 인용하고 있다. 국어화합역 주석에 의하면 원문은 ‘고침을 얻었다’로 되어있다.

가 뛰노는 것은 마치 성령이(요15:26) 임하실 때 택한 성도가 주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같다(엡1:4-9).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을 잃듯이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가 성령을 떠나 육체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역시 새 생명을 잃게 된다(롬 8:6). 마치 나무 가지가 본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요 15:5, 6).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10)”라는 말씀에서 ‘어부’는 전도하는 성도를 상징하며, 따라서 ‘고기를 잡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한다(마 4:19).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라는 말씀은 각각 다른 종족과 신분의 사람을 가리킨다(갈 3:28). 이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활발히 전한 결과 각각 다른 종족과 신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늦은 비 성령 강림 이후 세워진 말세의 참교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있다. 이처럼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후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11)”라는 말씀은 추한 탐심으로 육체의 욕망을 누리려는 무리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것을 상징한다(눅12:16-21, 16:19, 마22:1-7). 이런 육욕의 무리들은 새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으니(요3:19, 20, 14:17) 이런 자가 어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12).” ‘실과나무’는 성도를 가리키며 ‘실과’는 성도의 선행을 가리킨다(눅13:6-9). 성도가 만일 성령이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면 지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갈5:22, 23, 엡5:9, 빌1:11, 계22:1, 2). 또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막16:20, 히 2:4).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져서 사람이 건너지 못해서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 무한하여 그 성령의 역사(役事)가 이전의 역사보다 크고 선지자의 예언이 응할 것을 상징한다(학 2:9).

제6절 기름

기름은 윤회 물질로서 기계에 이용하여 마찰을 감소시켜서 기계가 마모되거나 발화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교회는 각 신도가 부속품을 이루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 부속품과 다른 부속품 사이에 기름이 없으면 과격한 마찰로 인해 타버리고 만다. 그런데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모두 평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겔 11:19, 엡 4:3). 기름은 거룩히 구별하는 표지이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임금, 선지자 등을 세우려면 반드시 기름을 붓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출29:7-9, 왕상19:16).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고(행 4:27, 10:38)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히 9:11-15), 임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치리하시고(요8:36, 37, 행5:31),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눅4:18, 행3:22). 성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성령의 내주)을 받고(고후 1:21) 제사장, 임금,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벧전2:5, 계5:10, 고전14:31). 기름은 상처를 치유한다(눅 10:34). 과거 우리 영혼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악한 자를 만나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처럼 거의 절망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요일 2:20)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정결과 은혜의 효능이 있어(레8:12, 요일 2:20) 병을 속히 낫게 한다(막 6:13, 약 5:14, 15). 이처럼 성령은 정결케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기능이 있다(살후 2:13, 히 10:29).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혼의 상처와 병을 고치는 것을 나타낸다. 레위기 14장 16-18절을 보면 한센병에 기름을 발라 깨끗케 한다는 것과 열왕기하 4장 2-7절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적으로 베푼 기름은 모두 성령을 상징한다. 전자는 죄인을 깨끗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후자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을 나타낸다. 기름은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한다(레 24:2). 성도는 마치 등불(혹은 등유:燈油)과 같아서 충분한 기름이 예비되면(마 25:4) 세상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마 5:16, 벰전 2:12) 신랑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동거하게 된다(마25:10).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아 문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한다고 했다(마 20:11, 12). 성령은 ‘즐거움’을 상징한다(히 1:9).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일체의 근심을 잊고 무한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살전 1:6).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희락’을 말했다(갈 5:22).

제7절 도장(印)

도장은 인증(認證)의 효능이 있다. 계약서나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즉시 증명의 효과가 발생하여 법률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으면 이 일을 인증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결코 다른 사람이 폐지할 수 없다(에 8:8).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하므로 왕 자신도 고치거나 폐할 수 없다(단 6:8, 12, 15-18).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딤후 6:15)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어인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자는 누구든지(엡 4:30)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결코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음(계 7:2, 3, 3:10)을 나타낸다. 왕의 어인은 왕의 신실함과 권력을 나타내므로 이를 몸에 지닌 자는 누구든지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인(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분이 부여하신 사죄와 정죄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요 20:22, 23, 마 16:19, 18:18).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마 3:16, 17).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믿되 성경에 부합하는 믿음이라면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고(엡 1:13)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로 인증 받게 된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고 했다(롬 8:16, 17). 에베소는 해안 도시로서 부유한 상인들이 대개 목재 장사를 했다고 한다. ‘빅커스테스(Bickersteth)’에 의하면 그들이 목재를 파는 방법은 이러했다. “상인들이 마 음에 드는 목재를 고른 후 자신들의 도장을 그 위에 찍었는데, 이는 곧 소유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였다. 상인들은 매매절차를 끝낸 후 목재를 바로 운반하지 않고 항구에 다른 사람의 목재와 함께 놓아두게 된다. 그 후 때가 되면 상인들은 대리인들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어 같은 도장 모양이 찍힌 목재를 찾아 소유주에게 운반해 오도록 했다.” 성령이 성도를 인치신 사실은 주님이 골고다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문화 속에 있었던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인침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문화와 배경 속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그들이 확실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했던 것이다(엡 1:13, 4:30).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백성을 아신다 하며(딤후 2:19).”

제8절 보증

‘보증(保證)’이란 말은 (대만) 국어화합역본(國語和合譯本)에는 ‘증거’, 일
어역본(日譯本)에는 ‘보증(保證)’, 킹제임스 역본(欽定版)에는 ‘보증
금(保證金: earnest)’, 헬라-영어대조역본(希英對照本)에는 ‘저당품(抵當品:
pledge)’으로 되어 있으며, 헬라이어 원문에는 ‘arrhabon’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arabon’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증(保證)’ 또는 ‘담보(擔保)’
라는 뜻이다. 이 글은 원래 회랍인과 로마인 사이의 상거래시 사용된 무역용어
이다. 이처럼 증거, 보증, 보증금, 저당품, 저당, 담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법률
상 공통된 뜻과 용례를 가지고 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창세
이래로 예비하신 나라를 이어 받도록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구원
의 은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벧전 1:13). 그러므로 이를 소망하는 성도는 하늘나라를 상
속할 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보주
(保主)가 되옵소서(욥 17:3)”라고 했으며, “은총의 표증을 내게 보이소서(시
86:17)”라고 했다. 이처럼 증거를 얻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영생
을 얻을 보증은 바로 성령인 것이다(고후5:4, 5). 성령은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항상 담대한 태도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후 5:6-8). 성령은 천국기업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신다(엡1:14).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후사임을 보증하셔서(롬 8:16-17) 우리
로 하여금 장래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의 일은 티끌로 여기고(빌 3:8)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고 하신다(골 3:2).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을 받은
보증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 1:20-22).”

제9절 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사 4:3-4).”

‘소멸하는 영’은 성령의 명칭 가운데 하나이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은 교회의 흠결을 가리킨다.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 금이나 은같이 불순물이 섞인 금속도 일단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연소하여 깨끗이 제거된다(말3:2-3). 이처럼 성령도 사람의 더러운 죄를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면 그 사람을 감화시켜 새롭게 하며(고후 6:6, 딤후 3:5),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벧전 1:2).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는 소멸의 영을 교회에 주시고 깨끗케 하실 것이며,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계 21:11, 18-27, 참고 사 1:25). 불은 모든 것을 녹여 하나로 융화시킨다(벧후 3:10-12). 이처럼 성령은 각 사람의 성품을 하나로 융화시키고 각 나라와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엡 4:3, 갈 3:28). 불길은 위로 치솟는다. 불에

타는 물질은 불꽃으로 바뀌고 불꽃은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의 성령도 불타올라서 성도가 세상을 벗어나 저 하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고 성경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마 6:19-20, 골 3:1-4).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행 9:17).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소명을 가지게 하였고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듯 하여 아름다운 하늘 본향을 사모한 반면(고후 5:1-8, 빌 1:23) 세상은 마치 티끌처럼 하찮게 여겼다(빌 3:7-8). 사사 기드온은 향아리를 깨뜨려 빈 향아리 안에 감춰졌던 횃불이 나타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승리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깨뜨리는 희생을 나타내야 비로소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행 2:1-4).”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본래 학문 없는 사람’(행 4:13)이 힘 있게 증거할 지혜를 갖추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정도까지의 평가를 들었다(행 17:6). 또 성령은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말하지 않았을 때에 그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렘 20:9, 참고, 시 39:3, 욥 2:17-22) 열심을 품게 하시고 꾀박조차 두려워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신다(행 4:18-20).

제10절 구름 기둥과 불기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13:21-22).”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적막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하였다. 그 때는 나침반도 등불도 없던 시대인지라 행군 방향을 알 수 없었고,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저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기둥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밤에도 행군할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불을 비춰주셨다(출 40:38). 이것은 성도가 어둡고 험악한 세상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전진하여 아름다운 하늘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에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출 14:19-20).”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뒤에 도달했을 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의 중간에 머물러 애굽 진에는 흑암이,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있게 하였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두운 흑암이, 믿는 자들에게는 밝은 등불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주의 영이라고 했다(고후 3:17).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다시는 어두운 길을 걷지 않게 된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어서 적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도의 모든 일에 인도자가 되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가 되신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 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1-2).”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세례’를 상징하고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름 기둥을 앞에서 뒤로 돌리셨던 사건이 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건을 가리켜 ‘다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제11절 빛

빛은 불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불이 성령을 상징하듯이 빛 또한 성령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사건을 시편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시 78:14)”라고 표현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고(요 4:24), 야고보도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다(약 1:17). 바로 성령은 빛의 근원이시고, 그 빛이 흑암에 거하며 그 빛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 빛은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엡 5:13). 마치 강한 빛이 비치면 유리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성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을 훤히 드러내서 결국 징벌하셨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다(행 5:1-10).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참고 눅 12:2)”고 했다. 빛은 선함을 상징한다. 어두움은 빛을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요 1:5) 빛은 어둠의 사자(使者)를 내어 쫓는다. 악한 세대는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요 14:17) 성령은 악한 영의 권세를 소멸하신다. 태양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생명의 근원이다(마 5:45). 이처럼 성령께서도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빛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도 빛이 되신다(참고, 마 4:16, 눅 1:78-79).

제12절 칼(劍)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2-24).”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영생을 누리려면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신다고 했다. 이것은 성령을 칼로 상징한 최초의 기록이다. 지상의 에덴동산은 하늘의 에덴동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상의 에덴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듯이 하늘의 에덴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다(계 22:14).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이후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봉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에덴동산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문안에 들어서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도 없었는데,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길을 다시 열어 놓으셨다(마 27:50-51, 히 10:19-20). 그래서 주님은 ‘갈’이요, ‘문’으로서 당신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다(요 14:6, 10:9).

화염검은 성령이 소멸하는 권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생명나무의 문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첫째,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롬 6:3). 사망은 죄의 대가이므로 죄인이 죽어서 죄의 몸을 떨치지 아니하면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롬 6:6-19, 23). 둘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 사람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성령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기

때문이다(롬 8:13, 갈 5:16).

화염검은 곧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화염검이 지킨다는 사실은 인간의 구원이 저지당했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뜻한다기보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요 3:5, 딤후 3:5).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성령으로 완성되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갈 3:3). 화염검은 곧 성령의 상징이다. 이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 이것은 성령을 검으로 상징한 명확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 첫째, 검은 성령의 상징이다. 둘째, 성령은 성도의 무기로서 정욕을 소멸하는 능력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마귀를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보검이다. 좌우에 날선 보검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써 사람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아나니아 부부가 저주를 받은 것이 그 좋은 실례이다(행 5:3-10).

제13절 바람

바람(風)은 히브리 원문으로 ‘*ruach*’이고 희랍 원문으로는 ‘*pneuma*’이다. 이 용어는 ‘바람’, ‘기식(氣息)’, ‘공기’라는 뜻이다. 성경에 이 용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세 차례나 된다. 첫째는 에스겔서 37장 5-10절로써 (중)국어화합역본(國語和合譯本)에는 ‘바람’ 또는 ‘기식’으로 되어 있고, 일어구어체(日語口語體)에도 ‘기식’으로 되어 있다.⁴⁾ 둘째는 요한복음 3장 8절로써 (중)국어화합역본에서 ‘바람’으로 되어 있고⁵⁾ 여씨역본에서는 ‘영과 동일한 자(字)’라고 기록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이다⁶⁾. (중)국어화합역본과 여씨역본의 각주의 용례가 모두 2번이나 일치한다.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9-10).”

구약성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한 기록은 이것이 유일하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상 중에 행한 표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라고 명확히 전달하셨고, 바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4) 역자주.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에서는 모두 ‘생기’로, 새번역에서는 ‘생기’라고 했으나 난하주로 ‘바람’ 혹은 ‘영’이라는 뜻을 추가했으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숨’이라고 번역했다.

5) 역자주.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새번역, 공동번역 모두 ‘바람’으로 번역했다.

6) 역자주.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새번역, 공동번역 모두 ‘바람’으로 번역했다.

주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요 3:8). 바람은 자유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임의로 불면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주 예수께서 성령의 상징인 바람(*pneuma*)과 성령(*pneuma*)을 번갈아 함께 언급하신 것은 성령의 특징과 그 신비를 설명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자(바람으로 표현한 것)대로 성취되었던 것이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행 2:2-3).”

폭풍우가 몰아칠 때의 바람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는 잔잔한 기쁨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래서 강력한 힘과 위엄, 온유와 자비를 담고 계신 성령의 특징을 이처럼 바람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순식간에 대지의 먼지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마음 속에 먼지처럼 더러운 오물을 털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제14절 일곱 개의 눈(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 3:9).”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스 4:10).”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이 땅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더라(계 5:6).”

‘일곱’은 완전수이며 ‘일곱’ 눈은 완전한 영적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며,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잠 15:3). 일곱 눈을 가지고 성령을 상징한 것은 성령께서 만사를 꿰어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심(全智)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고전 2:10).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아신다. 둘째, 성령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가려내실 수 있다. 셋째, 성령께서는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신다.

■ 제 4 장 ■

성령과 교회

성령은 교회의 존재와 그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바로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제자들이 제각각이었지만 오순절 이후로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는 온전한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것은 기계 조직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실제적인 연합체가 된 것이다.

제1절 교회의 정의(定義)

‘교회’라는 단어는 희랍 원문으로 ‘에클레시아(Ecclesia)’이다. ‘에클레시아(Ecclesia)’는 고대 희랍의 자유도시가 의사(議事)를 위해 소집한 ‘합법집회’ 또는 ‘상례집회(常例集會)’였다. 그 때는 성(城)의 모든 시민들이 나팔소리가

나면 곧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 단어는 회람 사회에서 늘 쓰는 단어였고, 본래의 뜻은 ‘부름을 입고 나온 집회’였는데, 주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명사를 ‘교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셨다(마 16:18). 사도행전 19장 39절의 ‘상례집회’¹⁾라는 말의 원문은 ‘에클레시아(Ecclesia)’로 되어 있고, 일본어역에서는 ‘정식의회’ 곧 ‘국법으로 공인된 집회’로 되어 있다. 여씨(呂氏)역본에서는 ‘합법적 집회’로 번역했고, 각주에서 ‘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모인 무리’와 41절의 ‘모임’이란 말을 원문에서는 모두 ‘에클레시아(Ecclesia)’로 기록하고 있고, 여씨역본에서는 ‘집회(會集)’라고 했으며, ‘교회와 같은 것’이라는 각주를 붙였다.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집회는 상례집회와는 달리 질서가 없는 것이었다.

유대인은 ‘에클레시아(Ecclesia)’란 나팔소리를 듣고 모여서 회의를 열기 전의 ‘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사도행전 7장 38절과 히브리서 2장 12절의 ‘회중(會中)’²⁾이란 말은 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든 구절의 ‘회중’이란 말은 여씨역본에는 ‘공회’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역시 ‘에클레시아(Ecclesia)’로 기록되어 있다. ‘에클레시아(Ecclesia)’의 원 뜻으로 볼 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비록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상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시대에 이 어휘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며(행 20:28),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정의하기 때문이다(고전 1:2).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므로 그 뜻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1) 한글개역판, 개역개정판에서는 ‘민회’라고 번역했다.

2) 한글개역판, 개역개정판에서는 ‘교회’라고 번역했다.

제2절 교회의 본질

‘교회’라는 단어의 원문상의 뜻은 ‘모임’이다. 그러나 통념적인 ‘모임’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사회적인 모임과는 달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고후 1:1, 갈 1:13) 예수님의 것이다(마 16:8). 둘째, 교회는 영적 단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중에서 불러내셔서 세상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특수한 모임이다. 일반 사회의 모임은 정치, 교육, 교류, 경영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수를 닦으며 성업을 추진하려는 신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모임으로,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조차 감내해야 한다(요 15:19). 이처럼 교회는 사교 집단도 아니고 변화하는 정치단체도 아니다. 셋째,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종족과 지위의 제한도 없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은 누구든지 이 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갈 3:27, 28, 마 10:20). 반면 사회의 모임들은 때로는 모이지만 흩어지기도 하고 종족과 지위와 지역상의 제한을 받기도 한다. 넷째, 교회의 일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또 개인의 어떤 특수한 형편과 관계없이 한 주님을 경배하고 한 소망을 품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침례)를 받는다(엡 4:4, 5). 반면에 사회 모임의 회원은 반드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과 한 주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교회의 일원은 신앙의 연륜이 길건 짧건 영성이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동일한 아버지를 경배하는 한 형제요, 동일한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다(마 28:8, 9, 엡 4:6). 목사, 장로, 집사 등의 호칭이 있지만 이는 계급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직분일 뿐이다(벧전 5:1-4, 엡 4:11-13). 반면에 사회단체나 모임에서는 뚜렷한 상하관계를 가진다(마 20:25).

제3절 교회의 유래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창 12:1).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서 생활했다(수 24:2).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서 사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행 7:9, 34-36). 부름을 받은 그들을 향해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레 20:26)”라고 하였고,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민 23:9)”라고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신 14:2)”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종결과 신약의 시작을 선포하시고(마 11:13, 막 1:15, 요 4:23), 세상 속에 있던 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적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요 15:19). 이것이 곧 신약시대 교회가 건설되는 서곡이었다(마 16:18). 성령이 강림하시던 오순절날 제자들은 권능을 얻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약 삼천 명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하루만에 교회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곧 신약교회가 탄생한 사건이다(행 2:1-4, 14-41).

제4절 교회가 구비해야 할 조건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1.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일반적인 사회 모임과 구별되는 핵심 사항이다. 성경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 1:23, 4:12, 골 1:24)이라고 했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약 2:26)이라고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죽은 것이며, 생명이 없어서 형체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사교집단’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성도가 ‘성령의 전’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고전 6:19). 교회는 성도로 구성된 집단인데, 만약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성령의 전’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고전 3:16, 17)?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롬 8:9). 교회가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대의 교회들이 사람의 뜻에 의해 건설된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요 15:26). 또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세례(침례)가 사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행 22:26). 사죄의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오며(요 20:22, 23), 물이 주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증거도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요일 5:6-8). 성령이 없다면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례도 단지 의식(儀式)에 불과할 뿐 주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효할 수 없고, 따라서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요 6:53-58).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각종 집회도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고 만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와 살아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각 교단 교파에서 성찰해야할 문제이다.

2. 교회에는 파송된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구비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파송된 목회자이다. 목회자는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은사대로 널리 펼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나에게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렘 20:15)”라고 말했다. 고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렘 1:7). 여씨역본에는 ‘신언인(神言人)’(마 2:23, 막 6:4)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고전 12:28, 29, 14:32)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목회자를 가리킨다. 고대의 선지자가 파송 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도 반드시 파송을 받아야 한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롬 10:15)?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을 했지만(렘 29:8, 9), 거짓 예언이기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수리할 수도 없었다(겔 13:1-7). 마치 옛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지 못하고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지 못하게 함과 같이 오늘날에도 파송되지 않은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서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며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지 못하게 한다. 비록 모든 것을 희생해서 고향을 등지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이끌어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마음 속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마 23:15, 16). 소경이 되어 길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 것이며 두려운 것인지 생각해보라!

예수께서 예언서를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말씀하셨고(눅 4:18),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요 20:21, 22).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당신의 성업을 계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목회자는 반드시 학문이나 지혜나 언변이 좋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행 4:49, 고전 4:20), 다만 성령의 파송을 받고(눅 24:49, 행 1:4, 5, 8) 성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롬 15:18, 고후 12:12, 히 2:4).

3.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터로 삼아야 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19-22).”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란 곧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순수하

고 올바른 교훈을 가리킨다. 교회에서 추종하는 교훈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교훈이 차이가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상반되면(요이 9)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갈 1:6-9).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요 16:13)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는 ‘성령은 곧 진리’(요일 5:7)라고 말했다. 성령과 진리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령이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으며 진리가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다. 일반 개신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으로 터를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에서도 벗어나게 된 원인은 모두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제5절 교회를 치리하시는 성령

1. 성령은 교회의 유일한 치리자이다

초대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한 때였다. 성령이 교회의 모든 성업을 주도하셔서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대로 행동했고(행 8:29, 30), 성령께서 금하시면 자신들의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행 16:6-8). 어떤 규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위치에 있을 뿐이었다(행 15:28, 29, 16:4, 5).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마음 속에 으뜸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고, 피차 미워하기까지 했다(마20:20-28). 심지어 예수께서 수난당하시는 그날 밤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논쟁을 벌였다(눅 22:24-27).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자기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행

10:25, 26, 14:8-15, 7 고전 3:5-7), 모든 은사와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고전 4:7, 약 1:17).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엡 4:15) 그들은 그의 지체로서(롬 12:5) 단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롬 8:13, 갈 5:16, 25).

오늘날 일반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초대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지위에 사람이 올라 앉아있고, 성령이 통치하셔야 할 곳을 사람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며, 성령의 뜻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좇고 있다. 성령과 사도들이 정한 규례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례와 규정을 좇고 있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세상 지혜로부터 온 신학으로 대치하였다. 성령의 은사를 인간적인 재능으로 대신하고 있고, 성령의 택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의 물질의 힘에 의지하여 사람을 모으고 있으며, 성령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일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본 바를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편지로 보냈다(계 1:9-11). 그 내용 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반복구가 있다(계 2:7, 11, 17, 29, 3:6, 13, 22). 이 종결 어구가 얼마나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성령께서 일꾼을 세우신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

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1, 22).”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롬 10:15), 만약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성직을 감당치 못한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눅 24:48, 49, 행 1:8).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은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리들이 각각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행 2:1-4, 37-41). 그 후 제자들은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체장애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주를 증거했고, 그 결과 회개한 자가 남자만 5천명이나 되었다(행 3:1-4:4).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 관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다(행 4:5-20). 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기록했다(행 4:31, 33). 이처럼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무심히 지나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자세히 고찰해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일을 설명할 때 능력을 얻은 비결에 대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라고 했다(벧전 1:2).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능력의 비결이다. 즉 온전히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사람은 다만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며, 주님의 능력이 내려지는 통로일 뿐이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했다(고전 2:4, 5).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

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했다(고전 4:20). 그리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라고 했다(살전 1:5). 그러므로 지혜와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강연은 큰 차이가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교회에서 성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께서 세우신 자로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감독도 역시 그러하다. 성령께서 목회자를 세운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까지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이다.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운 목적은 온 무리를 위해 근신하는 태도와 역지가 아니라 즐거운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것이다. 치리란 저들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태도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뜻이다(벧 5:1-3).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책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을 택하여.....(행 6:1-6).”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치리자가 되시는 영적인 상황의 교회였다. 그래서 목회자와 감독(長老)만을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공책을 일삼는 일을 하던 집사들도 그 선택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본 교회는 늦은비 성령이 세우신 참교회로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두 초대교회가 남긴 모범을 원칙으로 삼아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영역을 치리하시게 해야 한다. 따라서 규정대로 목사·장로·집사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임원과 지도자, 종교교육 교사 등도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조건으로 세워야 한다.

3.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신령한 것’이란 중국어로 ‘영적인 은사’이다. 원문에는 ‘프뉴마티카(Pneumatika)’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영적인’ 혹은 ‘영으로부터 온 것’이며 은사의 성질을 나타낸다. 여씨역본(呂氏譯本)에서는 ‘영적인 일’이라고 했고, (중)국어화합역본의 ‘은사’라는 단어는 번역자가 덧붙인 것이다.³⁾ 12장 4,9,28,30,31절의 ‘은사’라는 말의 원문은 ‘카리스마타(Charismata)’인데, 이는 ‘은혜로 주시는 상’ 혹은 ‘수고 없이 얻은 은혜’라는 뜻으로, 은사의 기원을 나타낸다. ‘프뉴마티카(Pneumatika)’와 ‘카리스마타(charismata)’의 두 단어를 조합하여 ‘영적인 은사’라고 하며, 이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성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성령께서는 교회를 치리하는 활동으로써 각 성도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나눠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전 12:8-11).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할 때 이러한 은사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기 때문이다(행 4:13).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처음에는 그들 자신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복음을(마 28:16, 17, 막 16:9, 14, 눅 24:9-11, 요 20:24-27)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성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에 소용되었던 각종 영적인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3)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도 ‘은사’로 번역하였다.

도 여전히 필요하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러하다(참고:고전 13:18-10).

음악가가 단음만 가지고는 화성 악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미술가는 한 가지 색깔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문학가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그의 저서를 완성시킬 수 없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고전 12:14, 17, 19).”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골 1:24),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롬 12:4-5). 그러므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엡 4:16, 13). 곧 주님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고(고전 12:18) 성령께서 저들에게 각종 은사를 나눠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성령의 각종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스스로 자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고전 12:7).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다(엡 4:12). 따라서 은사를 받은 성도는 스스로 쓰임 받는 일꾼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은사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전 12:15-17,21-24).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은사들은 9가지로 분류된다. 즉, 지체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고전 12:8-11)이 그것이다. 영에 속한 은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책 6절 교회 설립의 은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6절 교회 설립의 은사

은사의 목적은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결코 자신을 스스로 높여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이제 하나의 건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 곧 고린도전서 12장 8-10절에 기록된 아홉 가지 은사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자.

1. 초월적 깨달음의 은사

(1) 지혜의 말씀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3-14).”

성령이 계시하시는 진리는 모두 ‘신령한 것(영적인 것)’이다. 이는 육의 혈기에 속한 인간이 능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얻은 영에 속한 사람만이 그것들을 분명히 밝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언젠가 없어질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예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이전 세대의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특별한 계시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엡 3:3-5 ; 1:17).

그리고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사로 택함을 받기에 합당한 지혜 (행 6:3), 또는 주의 일에 대하여 모든 훼방자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 (눅 21:15 ; 행 6:10) 등도 이러한 은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지식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지식은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이다(롬 15:14; 벧후 3:18).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며(딤후 1:1), 세상의 지식과 크게 구별되는 지식이다(골 2:8).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6:13). 이것은 곧 이 은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은사로 인해 한 사람이 진리에 있어서 풍성한 지식을 갖추고(골 3:16), 능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빌 1:9-10). 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으며(롬 15:14),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고린도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풍성하여, 구변과 지식을 모두 갖추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전 1:4-7).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깊고도 넓었다. 그에 힘입어 그는 자신을 세우고, 여러 방면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이 은사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기록에 의해 최소한 그의 진리에 관한 지식이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분별의 영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요일 4:1).”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린도후서 11:14).”

성령께서 능히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령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며, 옳고 그름에 대해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디모데전서 4:1). 만약 성도에게 분별의 영의 은사가 없다면, 형제 자매가 받은 것이 참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결코 알 수가 없고, 속임을 당하게 된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둘 다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어서(행 5:3, 13:8-11, 16:16-18), 각각 영에 속한 눈으로 사탄의 꾀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2. 초월적 사역의 은사

(1) 믿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Weymouth 역본에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히 11:6)이나 ‘구원의 은혜를 얻는 믿음’(엡 2:8)과는 구별된 의미를 갖는다. 이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시 119:71, 빌 4:11-14)이나 혹은 이적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2-23).”

‘하나님을 믿으라’는 구절은 헬라어 원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Have You faith of God)’, 기본 영어 역본(Basic English)에 ‘Have God's faith’라고 되어있다. 만약 우리가 겨자씨만큼이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을 옮기는 초월적인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마 17:20).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행 6:5)”,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행 11:4).” 성경의 이 두 구절을 살펴볼 때 스테반과 바나바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두 곳 모두 ‘성령이 충만한’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성경이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성령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으로 보인다.

(2) 치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것은 바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받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은사는 결코 주 예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이다(막 16:17-20).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11-14).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고, 보편적인 은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장로들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왔다(약 5: 14~16). 베드로(행 3:1-8, 5:15-16, 9:15-16, 9:32-34), 빌립(행 8:6~8), 아나니아(행 9:17-18), 바울(행 14:8-10, 28:8-10) 등 여러 성도가 성령께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보는 이가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한다(행 8:6, 14:3).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 15:18).”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병자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마 9:27-30, 막 9:21-24, 행 14:8-10).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고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장로들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다(약 5:14-16).

매틸레이(F. Madeley)와 펑(H. P. Feng)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는 제목의 책 62쪽에서, “오늘날, 이적기사로 한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은 매우 희귀하다. 사도 시대처럼 치유의 이적기사는 보편적이지 않다. 설령 가끔 한두 차례 그러한 이적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의외의 일로 생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체험을 근거로 볼 때 오늘날도 여전히 이적기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 낫는 일이 흔해서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본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설립하신 참교회로서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전할 때 병을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3) 능력을 행함

‘능력을 행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에너제마타 두나메온(*energemata dunameon*)’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중국어 직역본에는 세력(勢力)과 작약(炸藥)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은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두루 사방에 다니며 전도하실 때, 여러 성 중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셔서(마 11:20) 마귀를 쫓아내시고(막 1:23~28),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요 11:39-45), 바다 위를 걸으시고(마 14:24-33),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

(막 4:35-41). 오순절날 베드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능력을 언급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증거했다(행 2:22).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행 8:13).”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 12:12).” 빌립과 바울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소유한 이 은사가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한다고 인식했다. 빌립은 이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하체장애자를 일어서게 했다(행 8:7).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행 29:12)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다(행 19:11-12).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히 2:4).” 병을 고치는 일처럼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3. 초월적 구변의 은사

(1) 예언하는 은사

중문역에 ‘선지자가 됨’이라는 구절은 일어역본에는 ‘예언을 말함’이라고 했고, 여씨역본(呂氏譯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재능’이라고 했다.⁴⁾ 이 두 역본은 유사하게 표현했고 내포된 의미도 같다. ‘예언을 말함’이란 번역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뜻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살펴보면, 그것은 또한 현재의 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4) 한글개역판, 개역개정판에서는 ‘예언’으로 번역되었다.

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말씀들은 꼭 미래사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재능’이라는 번역을 살펴보면,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을 도모하고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말은 미래에 관한 일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전 14:1).”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선지자가 됨’의 은사(예언하는 은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크고 중요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만약 이러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말씀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4:4). 구약시대에 선지자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었고 각 시대에 세우시는 선지자도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모두 선지자가 되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할 수 있다(고전 14:30-31). 따라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 곧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다.

(2) 각종 방언하는 은사

중문역에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일어역본에는 ‘다른 언어’라고 번역했고, 여씨역본에는 ‘혀를 말며 하는 말’이라고 번역했다. 천문리역본(淺文理譯本)에는 ‘영언’이라고 번역했다(고전 12:10). 각 역본의 번역한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방언이 이 땅에 속한 일반적인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에 속한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언은 그 방언을 통역해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전 14:2).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전 14:5).” 이 부분의 성경 구절이 비록 ‘선지자가 됨’의 은사(예언하는 은사)를 ‘각종 방언하는 은사’와 연관시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선지자가 됨’의 은사(예언하는 은사)를 ‘각종 방언하는 은사’의 범주로 생각할 수 없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영에 속한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누군가 통역을 할 때 교회가 이를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차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만약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는데 불신자 앞에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전 14:23, 27-33, 40).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보면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두 가지로 활용된다. ① 기도할 때에 직접 하나님께 말하는 것(2절, 14-15절)으로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목적이 있고, ②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중을 향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이 있다(5~6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을 말함’은 모두 ‘방언을 통역함’이 있는 일종의 특수한 은사로서 회중을 향하여 말하는 종류이다. 이 외에 ‘방언을 말함’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이 책의 제9장 제1절 제1편 ‘방언을 말함’, 제2절 ‘방언의 기능’, 제3절 ‘특수한 은사’ 중에서 좀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니 독자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방언 통역의 은사

기도할 때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있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그 내용을 통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회중에게 말하는 방언은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통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전 14: 5, 12-13, 27).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심지어 교회의 질서 또한 혼란해질 수 있다(23

절, 33절).

만약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회중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데, 이것은 방언을 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목표를 바꾸어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라는 것이다(28절, 39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느니라(고전 12:11).”

은사를 나누주는 권세는 성령께 있어서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사람이 그것을 간섭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각과는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다. 즉 은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누주신 은사는 지금까지 서술한 9가지의 은사 외에도 로마서 12장 6~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인용하여 어떤 학자들은 확대해서 언급하곤 한다. 이는 모두 성령으로부터 나온 직분으로서 ‘카리스마타(charismata)’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7절 은사의 기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고린도교회의 당시 정황을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교회를 세우는 역할로서의 은사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고린도교회가 인식하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각 은사의 차이와 지체 의식에 대해 논하면서 고린도교회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 또 14장에서는 교회를 치리하는 영에 속한 은사에 대해 논하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고 은사의 남용을 경계하였다. 12장과 14장 사이의 13장은 12장에 기록된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14장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주의해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랑’임을 피력하고 있다.

1. 고린도교회의 오류

성령의 은사와 사랑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즉 고린도교회는 비록 ‘성령의 은사’를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오히려 결핍되어 있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바울 사도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첫째, 그들은 당을 지어 분쟁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여 서로 나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전 1:10-13, 3:1-8).

둘째, 그들은 서로 구별했고,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아래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훼손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한 몸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였다(고전 12:4-6, 12-16).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회 안에서 제일 존귀한 위치에 있다고 여겼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은사든지 각각 저마다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므로 어떤 지체는 연약할 뿐이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고전 12:17-24).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 12:29-30).”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다양각색의 은사들이 모두 필요하다. 고린도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업신여기고 자기만을 높이다보니 분쟁하며 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서 사랑의 정신은 이미 일그러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체 간에 서로 안위하며 한 지체가 받는 고통을 모든 지체가 함께 받는 고통으로 여기라고 했다. 또 한 지체가 받는 영광은 모든 지체의 기쁨이 된다고 하여 한 몸임을 강조하였다(고전 12:25-26).

2. 사랑으로서 기초를 삼는 은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은사가 있으나 사랑이 없어서 경쟁적으로 헛된 영광을 탐하여 자기만을 위하고 다른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참고 : 빌 2:3-4).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의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바로잡았다. 그리고 13장을 통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었다(고전 12:31).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서로 분열할 위험에서 구원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고전 13:1).” 이 성구에서 ‘사람의 방언’을 여씨역본(呂氏譯本)에는 ‘혀를 말며(捲舌頭) 하는 말’이라고 번역했다. 이는 ‘사람의 방언’이 은사 중의 하나인 ‘방언(方言)’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낸다. 12장부터 13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린도교회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역시 이와 같은 이해가 타당하다. 이를 해석하면 어떤 이에게 만약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통달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치 울리는 팽과리와 같고, 그의 소란스러운 소리만으로는 사람들의 영성을 성장시킬 수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 13:2).” 사랑은 모든 웅변과 영에 속한 모든 은사보다 뛰어나다. 어떤 이에게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고, 각종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각종 지식을 통달하고 완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을 때 은사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라는 것은 얼마나 자비롭고 선한 행위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고자 구제한다(마 6:1-2). 이러한 구제는 도움을 주고 유익과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그에게 무익한 일이 될 뿐이다.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희생은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해, 헛된 명예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정신이 없고 오직 자기를 높이려는 뜻만 있다. 이와 같은 희생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랑은 가장 오묘한 가르침이다. 영에 속한 은사의 기초이며, 오직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게 한다(엡 4:16).

3. 거룩한 사랑과 자연적 사랑

중국어화합본에 사용된 ‘사랑(愛)’이란 표현은 헬라이어 원문에 ‘거룩한 사랑(聖愛)’과 ‘자연적 사랑(自然愛)’으로 구별되어 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신앙을 따라 베푸는 사랑으로서, 헬라이어 원문에 ‘아가페(agape)’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연적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와 생명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대중적 사랑을 포함하는데, 헬라이어 원문으로는 ‘필리아(*philia*)’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가페(agape)’라는 단어는 헬라시대의 문헌에 극히 적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리고 사용되었던 뜻도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깊고 넓지 않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 뜻이 성경에서와 같이 크고 높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롬 5:8, 요일 3:16).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한 ‘사랑(愛)’이란 표현은 바로 이 단어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란 단어 가운데 대다수가 또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고(7)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8).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했다(9). ‘필리아(*philia*)’라는 단어는 가족과 친척, 또는 친구들 간의 좋은 감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절 오직 하나뿐인 교회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둘이 될 수 없다. 오늘날 개신교 일반 교회들은 수천 개의 다른 이름의 교단 교파로 나뉘어 있는데,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로 보기 어렵다. 과연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본 장의 제 4절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할 조건’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본 절에서는 교회가 오직 하나여야 하고 둘이 되어선 안 되는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다.

1. 성전은 오직 하나이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고전 6:19), 성도로 구성된 교회는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17, 엡 2:22).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도와 교회의 상징이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전은 오직 하나만 지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과 관계된다(신 32:39). 또 신약시대의 성도는 다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지어진 신령한 집이다(벧전 2:5). 그리고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고전 12:4, 엡 4:4).

2. 몸은 오직 하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골 1:24). 그리고 성도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이다(롬 12:5). 비록 지체들이 다수일지라도 몸은 오직 하나이

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몸에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 (고전 12:20,25 ; 엡 4:4).

3. 신부는 오직 하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고후 11:2, 계 21:9-10).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하나이고, 많은 여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여인이다(아 6:8~9). 그러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교회는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 (엡 5:31-32).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며(롬 5:14), 그리스도의 예표이다(고전 15:45).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더 많은 사람을 지을 수 있으셨지만(말 2:15) 첫 사람 아담을 위해 오직 한 명의 배우자를 주셨다. 이와 같이 말세의 아담(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오직 한 명의 배우자(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사 4:1).” ‘그 날’은 ‘말세’를 가리킨다(사 11:10-12, 22:12-13, 24:21, 27:12-13). ‘일곱’은 완전수로서 ‘매우 많음’을 나타낸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떡’은 ‘말씀’을 가리키고(참고: 암 8:11), ‘옷’은 ‘행위’를 가리키며(참고: 계 19:8), ‘수치’는 ‘죄’를 가리킨다(계 3:18, 16:15).

이는 말세에 나타날 일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하신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가 아니라 더러운 옷과 같은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사 64:6).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속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는 오직 하나요 진리대로 보혈을 의지하여 세례(침례)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교회뿐이다.

4.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딤후 3:15).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다(엡 4:6). 그분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다(히 12:9-10).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이다(엡 2:19).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가 다수일 수 있으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고전 12:6).

5. 참 포도나무는 오직 한 그루이다

주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고 성도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요 15:1, 5). 가지는 다수일 수 있으나 그 가지들이 붙어있는 나무는 하나이다. 참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에 붙어있는 참교회(요 15:4-6)도 또한 오직 하나이다.

6. 주의 양은 오직 한 무리이다

주 예수는 선한 목자이고(요 10:11,14), 성도는 그의 양이다(참고: 요 10:26). 양은 다소에 상관없이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 속하여 보살핌을 받는다

(요 10:16).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다.

7. 방주는 오직 하나이다

노아의 시대에 온 땅에 강포가 충만했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멸하게 하셨다(창 6:11-13, 7:11-12, 21). 오직 노아만이 당세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와 그 집 식구들을 구원하였다(히 11:7, 벰전 3:20, 벰후 2:5). 노아가 지은 방주는 말세의 참교회를 예표한다. 첫째, 노아의 방주는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하여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말세의 참교회 또한 죄악이 하늘에 닿아 멸망하기 전에 세워진다(계 7:1-3, 18:4-5 ; 행 2:17-21). 둘째, 노아의 방주는 세부적인 재료와 치수가 모두 하나님의 분부대로 지어졌고(창 6:14-16, 22), 사적인 생각으로 변경할 수 없었다. 말세의 참교회 또한 하나하나 모두 주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하고(마 28:20 ; 참고: 갈 1:6-9), 사적인 생각으로 고칠 수 없다. 셋째,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간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창 6:18-20, 7:23).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중생의 진리를 가진 말세의 참교회는 구원을 보증할 수 있다(요 3:5, 딤후 3:5, 벰전 3:20-21, 엡 1:14). 노아가 지은 방주는 오직 하나로서, 하나님이 홍수로 불경건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구원을 받은 방주는 오직 하나이다(벰후 2:5).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구원을 얻을 참교회 또한 오직 하나이다(엡 4:4, 아 6:9).

8. 취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에서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마 24:40-41)”라고 말씀하셨다. 두 명의 농부와 두 명의 여인은 모두 두 개의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는 부르심을 입어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했다. 지금 지구상에 인간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두 그룹이다. 한 그룹은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고 아담과 연합하여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들이다(고전 15:22).

오늘날 각 교파가 서로 분리되어 다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사 4:1). 역시 하나님 앞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유업을 얻지 못할 자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로 유업을 얻을 자이다(갈 4:23,30).

제9절 교회는 반드시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1. 위슬로프(F. Wisloff)의 주장

위슬로프(F. Wisloff)는 『난 성령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저서 78쪽에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合一)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마치 독사를 품 안에 끌어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러한 음성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사람의 뜻에 따라 함부로 분열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화합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뜻일진대 교회의 합일을 위협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고 교회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님을 인식해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위슬로프는 같은 저서 같은 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들을 연합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가 반드시 어떤 방면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일찍이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요 17:11,20-23)고 주장하면서, 그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각 교회 단체가 모두 자기 특성을 지워 없애고 합일에 이르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교회 단체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회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요 17:11,20-23)을 살펴볼 때 각 교회 단체가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명백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예수께서 각 교회 단체가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거나 혹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거룩한 몸이 나뉘었느냐 나뉘지 않았느냐에 있다. 교회가 분열하고 각 교회 단체가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최근 수백 년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와 사도시대에는 이런 분열 현상이 없었다.

우리는 쉽게 결론에 이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아서 주저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참고: 롬 8:5-8).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

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아는 것이다. 그 후에 공통의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마 6:10).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갈 1:10).

2. 교회 연합은 주 예수의 뜻

주 예수께서 일찍이 기도 중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11,20-23)”라고 말씀하셨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발견되듯이 주 예수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첫째, 11절에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사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구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합일은 진리의 합일에 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면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20절의 ‘이 사람들’과 ‘저희’는 모두 사도들을 가리킨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는 오순절 이후 세워진 교회를 뜻한다. 결국 주 예수께서 사도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다.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들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바라셨다. 곧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 16:18, 엡 2:19-20).

셋째, 23절에는 주 예수께서 주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구절로서, 아래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이고, ‘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한 교회를 가리키며, ‘목자’는 ‘예수’와 또 그의 영(성령)을 가리킨다.

둘째, ‘다른 양들’은 인도할 목자가 아직 없는 잃은 양들을 말하는데, 이는 아직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의지할 것 없는 그들을 붙잡히 여기서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머물 곳이 있게 하려고 하신다. 또 ‘다른 양들’은 소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킨다(참고: 마 15:3-9, 23:15-19 ; 갈 1:6-9, 롬 50:6). 자비로우신 주님은 흠여져 있는 양들을 당신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이 우리’ 안에 인도하셔서 참 목자의 이름 아래 속하게 하신다.

셋째, 주의 양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따르며(요 10:27), 한 무리를 이루어

한 목자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양은 주의 양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한 무리를 이룰 수 없다(요 8:47,10:26). 주 예수께서 분리와 합일에 대해 기도하실 때 사도들이 하나 되기를 아버지께 구하셨으나,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은 제외시키셨다(요 17:12).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유다와 같이 멸망의 자식에 속하여 결국 한 무리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 합일(教會合一)은 각 교회 단체를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한 목자가 돌보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어떤 위험도 없다.

넷째, ‘내 음성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 우리’는 참 목자가 정한 교회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참교회이다. 주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라고 말씀하셨다. ‘목마른 자’는 곧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주의 양이다. 주의 양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참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주 예수의 뜻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노력하여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이 교회를 황폐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교회의 분열이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것이다. 분쟁은 교회 발전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하여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다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얼마나 흥왕할지 누가 알겠는가!

3. 어떻게 교회의 합일을 촉진할 것인가?

교회가 결국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면, 어떻게 이 신성하고 위대한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아래의 세 가지가 교회 합일의 관건이다.

(1) 주의 이름 아래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무형의 영적 단체이다. 어떤 장소,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 이미 그의 이름 아래 돌아온 자들이다. 예수의 이름 아래 들어왔다면, 그에게 귀속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써야 한다. 이 이름의 보호하심 아래 한 무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단체들이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 많은 이름들이 교리의 특색이나 사람의 이름, 또는 지명, 제도의 이름을 쓰고 있다. 교회가 ‘예수’의 교회이고 의지하고 믿는 분이 또한 ‘예수’라면 어찌 교리의 특색이나 사람의 이름 또는 지명이나 제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2)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성령은 오직 한 분이고 그분이 주시는 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마음이다(엡 4:3-4, 겔 11:19). 결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엡 2:21-22).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라고

말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각 사람의 자기 사건이나 다른 종족 간의 이질감과 여러 계층에서 나오는 이견들을 모두 태워서 성령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의 몸 안에서 합일(合一)을 이루게 하신다. 오늘날 교회 분열의 원인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6)”라고 말했다. 진리의 영(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서로 알고 듣고 순종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으니 이것이 곧 교회 분열의 원인이다.

(3) 진리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마 16:18, 엡 2:19-20). 곧 그들이 전한 말씀을 ‘함께 믿어야 할 진리(共信之道)’로 삼아서(갈 1:6-8, 딤후 1:4, 유 17)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엡 4:13). 그들이 전한 모든 것은 주께서 분부하고 계시하신 것이다(마 28:20, 갈 1:11-12, 엡 3:3-5). 만약 이를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가 받은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다(요일 4:6). 바울 사도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라고 하였고, 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라고 하였다. 성경은 하나뿐이고,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결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고후 1:18-19). 각 교회 단체가 만약 성실하고 진실하게 성경에 근거를 둔 올바른 교리를 정립한다면 반드시 ‘함께 믿어야 할 진리(共信之道)’에 이르게 되고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날 각 교회 단체는 교리가 달라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례(침례)의 양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침례)가 죄사함과 무관하다고 여기며, 오직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간단한 지름길'이 성경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가! 교회 분열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위에서 서술한 세 가지는 교회 합일의 관건이다. 또한 주의 양 무리로 들어가는 기본 원칙이다. 묻고자 한다. 당신이 속한 교회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당신이 믿고 받드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순수한 최초의 복음인가? 지금 주 예수께서 성령을 따라 당신을 부르시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한 무리를 이루어 한 목자(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하라고 하신다. 당신이 만약 목을 끈게 하여 이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곧 주의 양이 아니고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양 우리'만을 인정하시기 때문이다(요 10:16).

■ 제 5 장 ■

성령과 성도

교회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한 단체이다.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치리가 있어야 한다. 성도 각 사람에게도 성령의 내주와 인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교회는 결국 영적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 성도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제1절 성령(聖靈)과 칭의(稱義)

1.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稱義)’라는 개념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稱義)’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롬 4:3,6), ‘의를 이루는 것’(롬 10: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고후 5:21), 또는 ‘의롭게 보

주시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이 선포는 타 피조물이 침노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롬 8:33-34)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완성된다(롬 5:17-19). 칭의의 과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범과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롬 4:6-8, 고후 5:19)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셨다(사 53:6). 둘째,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에게 전가하셨다.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미며 (인간이) 율법을 준행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롬 3:21, 갈 2:16).

2. 어떻게 칭의를 받을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존재한다. 심판은 죽음으로부터 온 것이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누가 능히 영원히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으며, 누가 능히 죽은 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를 정하신 것은 당신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에 대해서 시비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이다. 만약 그들이 그 규례와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면 이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롬 2:12~13). 율법이 온 후로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갈 5:3). 그러나 명백한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갈 3:11). 이 때문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갈 3:10).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들의 행위가 양심의 기준에 부합했는가에 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만약 본성을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소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롬 2:14-15).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한 의를 조금도 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깊은 죄악에 잠겨 스스로 헤어나지 못했다(롬 1:18-32; 엡 2:1-3, 4:17-19).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자신의 선한 행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의롭기를 원하는 이방인도 현실의 시험에서는 모두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 참고 : 시14:1-3, 53:1-3)”라고 말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행하지 않은 죄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지 않은 죄가 있어 이를 ‘본죄(本罪)’라고 한다. 곧 본인 스스로 지은 죄이다. 이외에 ‘원죄(原罪)’가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시조에게 물려받은 죄성을 말한다(롬 5:12).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인간이 출생 전 이미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인정하였다(시 51:5).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 (갈 3:33).”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성경에 의해 죄 안에 있게 되었다(롬 3:9).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 6:23). 죽어서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침륜(沈淪)이다(살후 1:7-9). ‘죄’와 ‘벌’, 이 두 가지는 사람을 비참하고 두렵게 한다.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稱義)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3. 성령을 의지한 칭의(稱義)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3:16),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후 2:4). 결코 한 사람도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벧후 3: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엡 4:6).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제사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다(레 1:1-4, 히 9:22).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롬 5:8, 벧전 2:24).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안에 갇힌 존재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갈 3:22).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稱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 전제이다. 힘을 다해 의를 추구하더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필연적으로 얻는 결과는 양심의 가책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가책은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게 하는 다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방법 외에 별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마음 속에 알고 있다(롬 7:23-25).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본래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롬 10:3). 이로 인해 자칭 의인으로 여기는 것은 실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공활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稱義)을 받을 수 있다(눅 18:9-14).

칭의(稱義)의 은혜란 사람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얻는 것이다(롬 3:24).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롬 4:2-3). 만약 사람이 칭의를 받고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고 회개하여 세례(침례)를 받는 것뿐이다(행 2:38,

롬 4:5). 왜냐하면 범죄해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롬 4:25, 고후 5:2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0,28).”

칭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다(롬 5:9). 불의한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요 3:36). 반면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롬 5:1,10) 어떤 사람의 소송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롬 8:33-34).

칭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세례(침례)를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한번 세례(침례)를 받으면 즉시 칭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막 16:16 ; 행 26:16 ; 요일 1:7-9).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칭의의 은혜는 일찍이 구약시대에 그림자로서 예표되었다(히 9:22 ; 레 17:11). 세례(침례)에는 분명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 근거는 첫째, 죄 없는 어린양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제단 위에 바쳤기 때문이다(고후 5:21 ; 고전 5:7 ; 히 9:12-15 ; 요 10:18). 둘째, 성령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는 성령을 받은 자가 세례를 시행할 때 그 권능이 발휘된다(요 20:22-23). 또 성령은 친히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신다(요일 5:6-8).

성령은 확실히 칭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겨진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稱義)의 진리가 바로 이러하다(고전 6:11).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누군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의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하다(요 16:7-8 ; 고전 12:3). 성령께서 이와 같이 죄를 꾸짖어 인도하시는 일은 칭의의 효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제2절 성령과 성화¹⁾

1. 성화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이 성구에 따르면 누구든지 세례(침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뜻이다(엡 4:24).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성화를 간단히 정의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롬 13:14). 이와 같이 거룩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는 생활 속에서 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후 4:16).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전 행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엡 4:22-23). 그래서 성화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갈 6:14)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롬 12:1-2).

1) 성령론 원문에는 ‘成聖’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레 20:7-8).”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살전 4:3-7).”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일찍이 모든 규례와 율법 안에 감추어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규례와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후에(요 19:30) 더욱 굳게 세우셨다(마 5:17-18 ; 롬 3:31). 본래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다(골 2:17). 구약은 성문화된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고후 3:6).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4-16).” 성화는 성도의 본분이며, 이것이 성도를 이방인과 구별되게 한다. 왜냐하면 성도는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아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요 15:19).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은혜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전 6:18-19). 또 신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갈 3:26), 거룩한 성도(롬 1:7, 고전 1:2)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자기 옷을 빨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성결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성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예수의 보혈에 죄를 씻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계 7:13-14). 만약 항상 근신하지 못하여 성결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 이러한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히 10:26~29).

전술한 바와 같이 성화(聖化)는 성도의 본분이며,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과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성화와 영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26:18)”,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라고 말했다.

3. 성화에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성화의 노력은 마음 속부터 일어나야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긴급(緊要)한 이 문제를 소홀히 여겼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그들은

겉은 성결하게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여 예수께 책망을 받았다(마 23:25-26 ; 눅 11:37-41).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7-21).” 정욕은 성화의 큰 적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으니 죄가 자신의 몸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롬 6:12).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죄는 항상 그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다시 끔찍한 죄악 속에 빠짐을 면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고전 5:7). 이렇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은 말하자면, 장기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쟁에서 성도들은 종종 패배자가 되곤 한다.

바울 사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18-24)”라고 했다. 왕양명²⁾은 일찍이 자신의 저서 『치양사덕설상겸서(致楊仕德薛尙謙書)』에서 “산중의 도적을 몰아내기는 쉬우나 심중의 도적을 몰아내기는 어렵다(破山中賊易 破心中賊難)”라고

2) 양명학의 주창자

하였다. 또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던 성현이신 공자 또한 “바른 것을 들었으나 실행에 옮길 수 없고 나쁜 것인 줄 아나 고칠 수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나로구나!(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라고 말하였다. 보라.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였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이 설새없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그리고 때로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보다 강해서 마치 풍랑에 산산이 부서진 난파선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만든다. 죄의 권세와 싸워 이겨서 완전한 성결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능력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다.

4. 성령은 성화의 조력자이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신만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 오직 성령만이 이 연약한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신다(요 14:16-17).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 8:26), 우리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성결의 목적에 이르게 하신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시고(눅 24:49 ; 행 1:8), 사람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하셔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그 속박에서 구해내신다(롬 8:2). 또한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성실히 준행하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신다(골 3:26-27).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 (벧전 1:2).”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롬 15:16)”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화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이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일을 잘 다스리고 성령의 일을 돌아보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롬 8:5-6).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 하느냐는 그가 자기 육체를 누구에게 병기로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사람이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면 죄는 그의 몸에서 왕 노릇하고 육신의 정욕을 좇아 불법에 이르게 한다. 그가 만약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는 그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고, 그는 의의 약속하신 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롬 6:12-14, 19-20).

바울 사도는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라고 말했다. 이 두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준다. 첫째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위슬로프(F. Wisloff)는 그의 저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 265쪽에서 “일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주셨다. 이제 내가 노력하여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최소한 성실한 마음과 굳은 뜻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부의 주장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데서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반론 : 위슬로프의 이러한 주장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에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서로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살후 2:13). 노력과 추구를 조건으로 삼는다면 어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이러한 노력은 인간이 자신의 역량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아래 행하는 것이다(고전 9:27, 빌 4:13).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稱義)은 주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成聖)은 성령의 도움 안에서 사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은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교훈에 결코 저촉되지 않는다(고후 7:1).

제3절 성령(聖靈)과 구원(救援)

1. 구원(救援)은 무엇인가?

구원(救援)은 주의 보혈(寶血)에 모든 죄를 씻고(행 22:16 ; 엡 1:7 ; 요일 1:7~9) 의인이 되는 것이며(롬 8:33),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죄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롬 7:24-25, 8:2) 자유의 사람이 되어(요 8:36 ; 고후 3:17) 장래에는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거하며(살전 4:17 ; 딤후 4:18) 영생의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마 25:34 ; 요3:16). 교회(教會)는 ‘의인(義人)의 회중’(시 1:5)이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죄가 씻어지기 전에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일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천국은 ‘의인의 나라’이다(마 13:43).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의지해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롬 8:13 ; 갈 5:16) 성결(聖潔)을 지키지 못 한다면 어찌 의인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2.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근거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하심(칭의)을 입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이다. 세례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권능이 발효되는 증거이다(요 20:22-23, 요일 5:6-8). 죄는 구원의 장애 요소이다.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稱義)을 받는 것이 구원의 관건이다. 성령은 죄사함과 칭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구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로 들어설 자격을 얻은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와 같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여정이 있었다. 이 40년은 신앙의 시험기로서, 오직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민 32:11-12).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거룩함(成聖)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살후 2:13). 성령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조력자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거룩함과 구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의 문제는 당연히 구원과 관련이 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시대(눅 2:11).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성령)이 없어서 그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와 상관이 없으면 어찌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거듭남(重生)은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곧 거듭남(重生)이라고 생각한다. 본회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할 때 당연히 회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개가 곧 거듭남(重生)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신 거듭남(重生)이란 죄사함의 효력을 가진 ‘물 세례’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참고 : 딤후 3:5).”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명확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을 받는 것(성령 세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 가운데 하나란 점이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성령이 없는 교회나 성도)와 같다.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애태우면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소리 친다. 그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애절하게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하셨다(마 25:8, 11-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생명은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이 없다면 그러한 존재는 그저 밖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성령은 하나님 아들의 영이다(갈 4:6).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므로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라고 하였고,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라고 하였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 (요 37:14)”라고 약속하셨다. 기억하

기를 바란다. 천국은 산 자의 천국이고 죽은 자의 천국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첫째로 시행한 일은 저희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도운 것이다(행 8:14-17).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 건넨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였다. 바울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했다(행 19:1-2,6).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때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 받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만약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면 사도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제4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다(눅 3:38).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창 3:24)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돌보아주셨다(신 14:1-2).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사 1:2-4) 선지자의 권고(호 11:1-2)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주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6-17)”라고 하였다. 세례 요한 또한 이 일을 보고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요 1:32-34)라고 설명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셨다. 세례 요한 또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린 것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만회하시는 것이다(갈 4:4-5). 그는 친히 비천한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육신으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다. 이는 곧 자녀됨에 대한 계시이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라고 하였다. 또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여씨역본(呂氏譯本) 인용: 롬 8:15-16)”라고 하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이는 또한 ‘양자의 영’이다. 사람이 만약 성령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느냐의 여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제5절 천국 기업(基業)의 보증

기업(基業)은 아버지가 고생하며 부지런히 축적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가리킨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업(基業)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기업 또한 그러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의 영으로

더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시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롬 8:16-17 ; 갈 4:6-7).

세상의 기업은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축적되는 것이며, 유한하다. 그래서 집, 논밭, 사업, 금전, 보석 등과 같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無)로 돌아간다(벧후 3:10-11). 일생 동안 누린다고 해도 수십 년에 불과하고, 누리더라도 결국 모두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전 5:15-16).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낫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사람은 그 가치를 추측할 수 없다. 이 기업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된 것이다(마 25:34). 이 기업은 본질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벧전 1:4). 이 기업은 가치 면에서 온 천지만물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우월하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마 16:26 ; 빌 3:7-8).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전 15:50)”라고 했다. 주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인데, 물질과 육에 속한 몸이 어떻게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겠는가? 그 기업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인데, 쇠할 육의 몸이 어떻게 영원히 남을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겠는가? 육신(肉身)에서 난 것은 육신(肉身)으로 백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肉身)일 뿐이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으로 났고 영원히 쇠잔하지 않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4).”

세상에서 기업을 상속을 받으려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 받으려는 사람이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어찌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증거’라는 말은 희랍

원어로는 ‘알하본(*arthabon*)’이라고 발음하는데, ‘보증’ ‘담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여씨역본에는 ‘저당’으로 번역했고, 일역(日譯)에서는 ‘보증’, 흠정역에서는 ‘보증금(*earnest*)’, 헬·영 대역본(希·英對照本)에서는 ‘저당품(*pledge*)’으로 번역했다. 이처럼 원문과 각 역본에서의 단어의 뜻을 살펴볼 때 성령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과 관련된다. 즉 성령을 받아야 법적인 보증으로서 효용을 발휘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할 근거를 소유했기에 기쁨으로 그 날이 이르기를 기대할 수 있다.

제6절 산 소망을 주는 성령

성도가 바라는 바는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기업이다(벧전 1:4). 이 소망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안위와 권면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품을 수 있다(행 24:15, 16). 그러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롬 8:24, 25), 만약 확실한 증거가 몸에 없다면 어떻게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잡히신 후 제자들은 모두 크게 실망하고 공포에 싸여 있었다.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말했던 베드로마저 위기가 닥치자 주를 안다고 감히 밝히지 못했다(눅 22:33, 54-62).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아직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자(행 2:1-4) 비로소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용감히 주를 증거했으며(행 4:19, 20), 기꺼이 순교까지 감수했다(행 7:55-60, 12:1-2).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산 소망이 아니겠는가?

사도시대로부터 이천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당시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보다 일찍이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셨는지, 새로운 세계가 과연 있을 것인지, 신도가 부활한 것인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거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믿도록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로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말씀하셨다. 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요 14:3).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신 현실은 초대교회에서도 확실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서 비록 이천 년 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다.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주실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믿게 한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조력자요(살후 2:13), 구원을 얻는 조건이요(요 3:5),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요(롬 8:15,16), 천국 기업을 얻을 보증이요(엡 1:14),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갈 증거가 된다(롬 8:11,고후5:1-5)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성령은 분명 성도가 산 소망을 품는 뿌리가 된다(갈 5:5, 롬15:3).

제7절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항하는 첫째 무기가 바로 진리이다. 진리는 성도가 자유와 거룩함을 이루도록 인도하고(요8:32, 17:17),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로 2:2).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시119:7, 요17:17), 그리스도인의 발 앞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니(시 119:105),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는 이 등불을 의지해야 어디가 바른 길인지 깨달아 방황하지 않게 된다(시 25:4,5, 참고 잠 14:12).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을 가리켜 “그러므로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라고 했다(사 29:11).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도 특별히 성경을 가리켜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했다(계 5:1). 성경의 뜻은 결코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의미가 있다(고후 3:6). 그리고 이 감춰진 의미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봉해진 말씀이다(엡 1:13). 봉해진 이 책을 열어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 밖에 없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4:26), 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하셨다(요 16:12, 13). 제자들은 주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성령이 그들 위에 내리기

전에는 그 말씀들을 절반도 깨닫지 못했으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은 후에야 감취졌던 심오한 진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시니(요 4:24, 6:63),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결코 진리를 알 사람이 없다(갈 1:11, 12, 엡 3:3-5). 성령께서 사람에게 진리를 알도록 계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0, 11).”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쁨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쁨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 2:27).”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라고 했고(벧후 1:20, 21), 바울 사도도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다(딤후 2:15). 현재 기독교회에서 교파와 교단은 이미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고, 같은 성경을 연구하나 각기 다르게 주장하여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보니 자기의 지혜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그 뜻을 곡해하기 때문이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한 견해를 가지고 계셔야지 이토록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하도록 인도하실 리는 없을 것이다.

제8절 능력을 주시는 성령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다(눅 24:49).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다(롬 8:26). 위에서 오시는 성령께서는 누구 위에 임하든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연합함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

1. 증거하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은 성도에게 증거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 사실은 오순절 전과 후의 사도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순절 전에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마 26:69-75),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막 4:50-52), 모인 곳에 문을 닫기도 하는 등 겁에 질려 있었다(요 21:19). 그러나 오순절 후 그들은 매우 용감해졌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행 2:24-36, 3:15-26, 4:10-13, 31), 위협과 핍박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행 4:18-20, 5:17-32),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기까지 했다(행 5:40, 41).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4, 참고, 마 5:10-12).”

누가복음 24장 2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있다(고전 4:20). 만약 뜻을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권능이 없다면 혹시 말재주가 있어도 그 결과는 사람을 만족시킬 뿐이지 절실한 회개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였노라(고전 2:4, 5).”

2. 잘못을 드러내는 능력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이것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영에 속한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곤란해 하며 종종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은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 3:8).”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

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욥 32:17-21)."

이것은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와 욥이란 의인이 형제의 과오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사명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던 날과 또 성전 미문에서 하체장애자를 고친 날, 용감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여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고 나아가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것(행 2:22-41, 3:13-19, 4:4)은 모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했다. 또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책망할 점을 발견했을 때 체면을 생각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용감히 그것을 지적했다(갈 2:11-14).

3.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기적 이사를 많이 행하셨다. 즉 소경이 눈을 뜨고 하체장애자가 일어서고 나병이 깨끗해지며 청각장애자가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마 11:5) 풍랑이 잔잔해지고(막 4:35-41) 바다 위를 걸 으며(마 14:24-27) 귀신을 쫓아내셨던 기적 등이 그것이다(막 5:2-20). 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라고 증거했고(눅 4:14), 베드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했다(행 10:38). 이것이 곧 주께서 기적 이사를 행할 수 있었던 근원이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막 16:17-18). 아울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행 1:4, 5, 눅24:49).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르자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행 1:12-14, 2:1-4)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많은 기적 이사를 행했다(행 3:2-8, 5:1-12, 8:6-8, 9:32-42, 13:9-12, 16:16-18, 28:3-6). 그래서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도 증거되었다(막 16:20, 행 14:1-3, 히 2:4).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 15:18).” 사도 바울이 기사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려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새롭게 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은 죄가 거하는 처소이다(롬 7:17). 선과 악,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이다(갈 5:17).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기회를 타서 그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로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중생해야 한다(딤후 3:5). 그래야 실제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 27). ”

누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얻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사람의

일생의 열매가 어떠한지는 모두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잠 4:23). 이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으로써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판에 쓴 것이다(고후 3:3). 사도 바울이 얻은 계시는 이미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 중에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아직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상황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했다(롬 7:18-20). 이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후의 상황을 간증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엡 4:24) 된 것을 의미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엡 3:1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이것은 평화로운 영적 에덴동산의 모습이다(창 1:30). 이리 · 표범 · 사자 · 독사 · 곰 · 독사 등은 모두 사나운 야수들인데, 이는 성품이 포악한 사람을 상징한다. 어린 양 · 염소 · 송아지 · 살찐 짐승 · 어린아이 · 젖 먹는 아이 · 젖

덴 어린 아이 등은 성품이 유순한 자를 상징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참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유약한 성도가 포악한 성도에게 굴복해서가 아니라 포악한 성도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믿기 힘든 성품의 큰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제9절 신도를 대신하여 기도함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교각이 없어서 강의 건너편이 서로 단절된 것과 같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유익이 있으며 기도가 없다면 본 가지에서 잘려진 나뭇가지가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요 15:5-6).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고(엡 5:19), 또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다(빌 4:6). 우리는 하나님이 복주신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즉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스스로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즉시 통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려드려서 적나라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필요가 있다(시 62: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 27).”

‘이와 같이’란 말은 전 절과 본 절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로써, 말씀

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연약함’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매하고 무지해서 결점 투성이인 약점을 가리키며 ‘도운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쉬날틸람바노(*Sunantilanmbano*)’라고 하는데, 이는 무거운 짐을 나눠진다는 뜻이다. ‘우리를 위해 간구(기도)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히페렌팅카노(*Huperentunchano*)’인데 ‘이무개를 위해 중재하여 탄원해주다’라는 뜻이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23).” 앞서 기록한 로마서 8장 26-27절에서 27절은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의 주제이다. 19-22절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 23-25절은 성도의 탄식에 대해, 26-27절은 성령의 탄식에 대해 기록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창 3:17)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탄식도 있다.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롬 8:17, 18), 자연계의 혼란(롬 8:19-22),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갈 5:17), 세상을 덮고 있는 죄의 세력(요일 2:16),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등이 그것이다(요 23: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몸의 구속, 곧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고통이 전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로 고대하는 것이다(고전 15:42-54, 살전 4:16, 17).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과 탄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듯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심으로써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아셔서 그 기도를 열납하시고 성도를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해주시나. 성령이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응답된다(요일 4:14, 15). 우리는 때로 연약한 육신적 생각에 잠겨 부지불식간 우리 영혼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므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고(고전 6:19, 2:10),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성으로만 기도하므로 말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끝나면 기도를 마쳤다고 여기거나 새로운 기도 제목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의 다양한 체험을 가지지 못하며(유 20, 엡 6:18), 또한 성령이 대신 기도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4, 15).”

■ 제 6 장 ■

성령의 역사(役事)

성경의 중심은 성령이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거의 매 권마다 성령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창 1:2, 욥 26:13, 33:4, 시 104:30),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느 9:20), 사람에게 지혜와(창 41:38-39, 출 31:2-6, 신 34:9, 단 4:8-18, 5:11-16) 능력을 주시는 일에(삿 14:6, 15:14-15),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실 때(대하 20:14-17, 겔 11:24-25, 눅 2:25-35), 경고하실 때(대하 15:1-7, 24:20-22, 느 9:30, 미 3:8, 스 7:12), 선지자나 의인을 감동시키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삼상 16:13).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요 15:26, 행 5:32),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때(요 16:14), 사람을 감동시켜 주를 알리실 때(고전 12:3), 사람을 중생케 하실 때(요 3:5), 신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때(히 10:29), 신도를 일깨워주시길 때(계 2:7-11, 17-29, 3:6, 13, 22),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때(눅 10:21, 행 13:52, 롬 14:17, 살전 1:6),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행 8:39-40),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게 하실 때(행 2:17, 7:55, 계 4:2, 17:3, 21:10), 예언을 말하게 하실 때(행 2:18, 11:27-28, 20:23, 21:4, 10-14), 사람을 안위하실

때(행 9:31), 끝 날에 사람을 부활시키실 것 등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암 8:11).

이 외에도 이 책 제4장 ‘성령과 교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례를 정하는 것(행 15:28, 16:4-5), 일꾼을 세우는 것(행 6:2-6, 20:28), 여러 가지 영에 속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고전 12:8-11),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고전 12:13, 엡 4:3-4, 골 11:19) 등에 성령의 역사 있고, 제5장 ‘성령과 성도’ 중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하는 것(고전 6:11), 사람이 거룩함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롬 15:16, 살후 2:13, 벰전 1:2),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것(롬 8:15-16, 갈 4:6), 사람에게 기업 얻는 증거를 주는 것(엡 1:14), 사람으로 하여금 넘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벰전 1:4, 요 16:7, 고후 5:1-5, 롬 15:13, 갈 5:5), 사람에게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는 것(요 14:26, 16:12-13, 고후 2:10-11, 요일 2:27), 능력을 주는 것(눅 24:49, 행 1:8, 4:31, 롬 15:18, 엡 3:16), 신도를 대신해 기도하는 것(롬 8:26-27, 고전 14:14-15, 엡 6:18, 유 20) 등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본 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제1절 자기를 책망케 하시는 성령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중문 성경 역본에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위해 의를 위해 심판을 위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리라'라고 되어있음)
(요 16:7-8).”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리라’는 것은 여씨역본(呂氏譯本)에 ‘스스로 죄가 있음을 안다’라고 번역했고, 헬·영 대조본(希·英對照本)과 영국개정판(英國改訂版)에서는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과실 있음을 깨닫게 한다(convict)’로 되어있고, 일어역문어체(日譯文語體)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실이 있음을 승인케 한다’라고 번역했다. 헬라이어 원문에서 ‘엘렌초(elencho)’는 자각 또는 자책이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의 ‘책망(개역 한글판에는: ‘악한 행위가 드러남’이라고 되어 있음)’과 같은 용어이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는 여씨역본에는 ‘죄 있음을 스스로 안다’로 되어 있다

죄와 의와 심판은 모든 종교의 중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본질이 결정된다. 성령은 변호사가 되어 성도를 대신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피고(복음의 거절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진리에 설복하게 만든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인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그 감동을 통해 비로소 과거의 과오를 깨닫고 큰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실현되지 않았고, 성령 강림 후에야 비로소 그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역사(役事)이다.

1.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यो(요 16:9).”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며 가장 큰 죄이다(요 8:24, 15:22-24). 기타

다른 죄들은 모두 이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이며(참고, 롬1:28-32), 불신의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왜 주 예수를 믿지 않음이 근원적인 죄가 되는가?

첫째, 그분이 만일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교훈을 듣고도 저버리면 그들의 죄는 핑계할 수 없다(요 15:22, 12:48, 참고, 요 9:39-41, 롬 3:20, 4:15).

둘째, 그분이 만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요 15:24).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마 11:20-24).

셋째, 사람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고전 14:22) 방언하는 자들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장차 세상에 재림하셔서 성도를 그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케 하실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요 16:7, 14:1-3). 따라서 만일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목격하고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며 그 죄는 부인할 수 없다(히 2:3-4).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기적, 성령의 강림은 모두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 시대와 같이 현재도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요 3:16-19).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이것이 가장 크고 중한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단지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만 죄로 간주한다. 윤리적 관점의 죄는 누구나 양심에 의해 깨달을 수 있지만 불신의 죄는 양심에 의해 깨달을 수 없는 죄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 예수를 불신하는 것이 가장 엄중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은 방탕하고 부패한 그들의 생활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한 책망이었다. 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에게 경고하며 깨닫게 했다(행 2:22-24, 32-36). 그 결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불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행 2:37).

2.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यो(요 16:10).”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외모가 준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멸시했다(사 53:1-3, 고후 5:16). 사람들은 의로우신 그분을 참람된 말을 한다느니(막 2:7, 마 26:63-66), 안식일을 범한다느니(요 5:18), 귀신이 들렸다느니(요 8:48,52), 백성을 미혹한다느니(눅 23:2,5) 하면서, 죄인이라고(요 9:24) 판단하여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사 53:4). 세상 사람들은 진실된 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윤리적 의만을 의로 여긴다. 즉 율법의 의를 의로 삼거나(눅 18:9-14, 빌 3:4-6) 또는 자기의 의를 의로 삼을 뿐(마 6:1,2,5,6)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롬 10: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롬 3:25), 또 복음을 통해 의를 선포하셨으며(롬 1:17), 스스로 의로운 자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행 3:14-15, 요일 2:1, 롬 4:25,8:33-34). 그가 만일 죄인이라면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실 수 없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신 기도하실 수도 없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실 수도 없다(고후 5:21). 그분의 의와 유대인의 의는 다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서의 그의 의는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나타났다(빌 2:6-8, 벧전 3:18). 그에 반해 유대인의 의는 바리새인의 전통(유전)을 준수하며 육체의 예법에 따라 율법을 준행하

는 것이다(마15:1-9, 참고 8:4).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그의 겉모습은 보지 못한다. 다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확실히 의로운 분이시며, 의의 근원이 되심을 알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롬 3:12,28, 갈 2:16, 21), 그분을 새로운 의의 표준으로 삼고, 그 의를 믿게 되었다(롬3:22-26).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의라는 것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버리게 만드셨다. 이것 역시 성령께서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역사(役事)이다.

3.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16:11).” 온 세상 사람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고(요8:34, 요일5:19),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죽음의 공포로 사람을 속박한다(롬 5:12-14, 6:23). 예수께서는 사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셔서(눅 4:1-12, 마16:21-23, 26:39)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사 53:4-6, 행 2:23-24)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하셨다(롬 6:8-11).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탄이 범죄한 인간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사람을 그의 수중에 두셨기 때문이다(요일 3:8, 5:19).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후 예수께서는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사탄의 지배권을 말소시키시고, 사람을 당신에게 속하게 하셨다(롬 8:33-34). 그 결과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시고(골 2:15, 요19:30), 사탄의 역사는 소멸됐으며(요일3:8下), 사탄은 심판을 받아 사람에게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히 2:14-15). 사탄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것이다(요8:36, 롬

8:2). 유대인들은 끝 날에 대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모든 성문의 율법을 지켜야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는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복음 11장 37-41절의 교훈과 18장 9-14절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그릇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관념 하에서 그들은 예수가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겼으며, 그로 인해 심판받아 필연적인 보응의 징벌을 받았다고 여겼다(사 53:4, 요 19:6-7).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당신이 심판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은 자는 이 세상 왕(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 사람들(행 17:31)임을 증명하셨다.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을 자랑할 수 없고 절실히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마 3:7-12).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생긴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은 이미 그분의 승리를 확정하였고 동시에 사탄의 실패가 선포된 일이다. 선악간의 심판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대립의 관계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 분명히 드러났다. 무릇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제2절 주 앞에 이끄시는 성령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케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이 각성해서 벗어날 길을 찾아서 주님께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에(출 34:14) 대심판의 날에 그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과 불의한 사람 위에 나타날 것이며,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롬 1:18, 계 6:12-17). 지금은 비록 그 날이 이르지 않는 않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죄악을 형벌하는’ 보응의 법칙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히 9:27).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고,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마 27:45-46). 법정에서는 죄가 클수록 형량도 중한 법인데, 심판은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위해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참혹한 광경은 바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그 참혹하고 전율케 하는 광경은 지옥의 참혹한 형벌의 축소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마 25:41-46) 등은 바로 그 참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땅 위에 패괴한 행위가 넘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을지라도(창 6:11-13), 홍수로 멸망시키시기 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길을 예비하셨으니 바로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었다(창 6:18-20, 7:23). 이처럼 끝 날에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벧후 3:10) 인류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시기 전(딤후 1:7-9)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길을 예비하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요 3:16).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죽음이다(롬 6: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맹렬한 분노를 그분에게 내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고후 5:21, 사 53:5-6).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아래로 피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분노를 면하게 된다(롬 5:9).

성령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행 11:18) 결국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다(행 2:37-41).

제3절 사죄케 하시는 성령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시 103:8-13).”

죄인이 성령의 인도 아래 과거의 잘못을 통회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시 51:17). 이는 구약시대에 이미 그 선례가 있어서(느 9:26-31) 하나님의 관용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요 1:1, 14)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는 강생의 목적을 친히 선포하셨다(마 9:13).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요 17:18).” “이 예수

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을 선사하기도 하셨으며(마 9:2, 눅 7:48),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당신의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원수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간구하셨다(눅 23:34, 사 53:12).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사도들에게 사죄의 권세(赦罪權)를 위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였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요 20:22-23).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본래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자책하게 하시고 나아가 죄인을 각성시키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려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일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엡 1:7).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얻지 못한다고 했다(히 9:22). 이에 따라 사죄의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침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흐르는 물에 보혈의 효능(效能)이 작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요일 5:6-8, 요 19:34-35).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침례)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죄의 권세를 행사(行使)하셨다는 점이다(요 20:22, 23).

성령의 인도로 주님 앞에 나온 죄인이라면 겸허한 태도로 순종하고 회개해서 세례(침례)를 받는 즉시 사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행 2:38).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소위 ‘탕자의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감동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애로우시며 얼마나 간절히 죄인의 회개를 고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죄사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제4절 해방케 하시는 성령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죄의 종으로서(요일 5:19, 요 8:34) 자주성을 상실하여 본인이 미워하는 악은 행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한다(롬 7:15, 19). 그들은 비록 그들 속의 마음의 적이 그 짓을 행하게 하며 자신들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한다(롬 7:17, 18, 20). 그들의 육체 가운데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마음 속의 법과 싸워 그를 사로잡아 육체에 속한 죄의 법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롬 7:21-23). 이런 비참한 상황하에서 그들은 비통한 음성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롬 7:24).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救贖)하시는 전체적인 계획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절망적인 탄식은 구원의 은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성령에 의한 ‘해방의 역사(役事)’를 위한 예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이 성구는 로마서 7장의 연속부분으로 7장에서는 단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내용을(롬 7:25)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죄의 권세를 모두 성령에게 맡기셔서 성령을 통해 세례(침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

즉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고후 3:17). 어떤 학자는 “만일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며, 8장은 그 보석 위에 반짝이는 정점이다”라고 했다. 과연 7장의 절망과 고통의 상태와 비교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놀라운 변화이며 은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7장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제5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롬 5:12).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다(롬 6:23). 죄는 원인이고 죽음은 결과로서,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죄로부터 온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며,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異象) 중에 본 골짜기는 이 세계를 상징하고, 골짜기의 뼈들은 몸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겔 37:1-2, 마 8:22). 그들은 생명의 기운이 모두 소진되어 스스로를 의지해보아야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다(겔 37:11).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부활할 수 있고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軍隊)를 이룰 수 있다(겔 37:4, 5, 9, 10, 14).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온 세상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생명이 더 가치있다는 뜻이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롬 8:2), 죽을 사람의 몸을 다시 살게 하시며(롬 8:11), 그 안에 더욱 풍성한 새 생명을 주신다(갈 5:25, 요 10:10).

제6절 정죄(定罪)하시는 성령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사람이 비록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을 죄악의 굴레에 있더라도 믿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해방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정죄를 받아 일생 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2-23).”

여기서 ‘맨다’는 것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모두 정죄(定罪)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정죄의 권세를 맡기고 허락하셨다. 즉 이 권세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로써 사람이 스스로 책망케 하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 전파하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도 주어지는 반면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도 존재한다. 즉,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막 16:16)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요 3:16-18, 살후 1:7-9, 히 6:4-8, 10:26-29). 사도행전 5장 1절 - 11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처럼 정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낸 뚜렷한 증거이다.

제7절 일꾼을 보내시는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 4:18).”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강생하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공생애 기간에 사역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려고 하실 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 밝히셨다(요 20:21-22).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 전도 활동을 했고, 정작 그들은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행 16:6-8). 그 중 가장 뚜렷한 내용은 성령께서 직접 음성으로 빌립에게 지시하셔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건이며(행 8:29-35), 또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과 그의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며(행 10:19-43),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셨던 사건 등이다(행 13:2-4).

■ 제 7 장 ■

성령 주심의 약속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있었다. 이를 성경의 배열 순서대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1절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각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민들에게 예언되었다.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나 그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었고,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그 예언들은 다음과 같다.

1. 모세의 예언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신

11:14).”

팔레스타인(Palestine)의 토양(土壤)은 대부분이 석회질인데, 부서진 돌이 많이 섞여있고 수분까지 부족해서 몹시 단단하다(참고, 시 65:10). 따라서 가을비로 토양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서 싹이 나도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 또 수확하기 전에는 봄비가 내려야 풍요로운 수확이 가능하고, 창고를 채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참고, 레 26:4). 이와 같은 팔레스타인의 토양은 세상 사람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상징하고, 비는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비가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진리의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겔 36:26-27)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갈 5:22-23). 가을비는 파종하기 전에 꼭 필요한 비로, 초대교회를 건설한 성령을 상징하고 있으며(행 2:1-4, 41), 봄비는 추수 전에 필요한 비로, 말세의 참교회를 건설하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말 4:5, 계 7:2-3, 엡 1:13).

2. 다윗의 예언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시 36:8).”

‘주의 집(하나님의 전)의 살진 것’은 곧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암 8:11, 렘 15:16). 성령은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로서, 첫째, 샘의 근원, 또는 하천으로 상징되는데, 이는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되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며(요 4:13-14), 또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람의 마음 밭이 다시는 가물지 않게 한다(요 7:37-39). 둘째, 성령은 즐거움의 기쁨으로 상징되는데(히 1:9), 사람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진정한 안위와 쾌락을 얻게 하신다(사 61:3). 이 성경 구절에서 ‘저희’는 시편 36편 7절에서

말한 ‘인생’³⁾을 가리키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전 인류에 관한 것으로,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행 11:15-18, 참고, 행 10:34-35, 롬 3:20).

3. 솔로몬의 예언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잠 1:23).”

잠언은 솔로몬이 그 저자지만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 중에서 ‘나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첫째, 솔로몬은 자신의 영을 타인에게 줄 수 없고, 둘째, 20절에서 ‘나는 ‘지혜’라고 명시했으며, 셋째, 8장 12절, 22절, 23절에서는 ‘지혜’를 ‘그리스도’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을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4. 이사야의 예언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기록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사 4:3, 4).”

3) 역자 주 중문성경에서는 ‘세상 사람’이라고 번역되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다 성령의 명칭이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은 교회의 티와 흠이고, ‘(생명책에)녹명된 모든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가 거룩함을 이뤄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때가 차서 약속의 성령이 위에서 부어지길 기다려야 한다(살후 2:13, 참고: 사 1:25).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사 32:15).”

‘광야’와 ‘아름다운 밭’은 모두 사람의 마음 밭을 가리키는 것인데, 광야는 소망이 조금도 없는 불모(不毛)의 땅으로서 말라 건조된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땅은 기름진 좋은 밭으로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은 돌발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자애와 권능을 나타내며 사람에게 축복과 존귀한 신분을 가져다주는 변화이다.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은 농작물이 풍요로워 삼림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온 밭에 풍년의 소망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이로 인해 풍부한 곡식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가리킨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사 41:17-18).”

같은 사람에게 ‘물’은 생명같이 귀한 것이며, 팔레스타인의 건조기에는 물을 지불해야 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라면 더욱 그러하다. 17절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마실 물을 찾지 못해 갈급했으나

4) 본서 제3장 제9절을 참조하라.

그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갈증을 해소하고자곤 간절함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움직였고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7:7).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갈한 심령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갈증을 면하게 하신다. 18절의 ‘광야와 ‘마른 땅’은 사람의 마음 밭을 가리키며 ‘강’, ‘못’, ‘샘’은 모두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사람의 마음 밭은 마치 소망없는 광야와 사막처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강과 못과 샘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사 43:19-20).”

이 구절에서 ‘사막’은 사람의 마음 밭을 가리키며 ‘강’은 성령을 상징한다. 사막에 강이 나는 일은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도 오순절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최초의 일이다(요 7:39, 행 2:1-4). 이 강물은 선민(選民)에게만 주어질 마실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20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16-17).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사 44:3).”

목마른 자는 마실 물이 필요하고, 마른 땅은 부어질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수 또는 강과 같은 성령이 필요하다. 이 예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아픔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말한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목마른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그분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생명수를 거저 주셔서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5. 에스겔의 예언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19-20).”

이 예언에 의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두 가지가 성취된다. 첫째, 성도는 서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엡 4:3). 즉,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되는 것이다(요 10:16). 둘째, 성도는 온유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새 영(新靈)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我的靈)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겔 37:14).” 에스겔 37장 1절-14절의 내용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환상을 본 것이다. 11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 뼈들은 바로 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환상은 일종의 예표로서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전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한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롬 11:25-27).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행 2:22-24, 3:13-15),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도 거절하여 진리가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었으나(행 13:46), 자애롭고 신실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기다리셨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 생명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이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겔 39:29).”

이 성구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이 표면적으로는 이미 이뤄진 사실 같지만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래에 성취될 일임을 알 수 있다. 다비(J.N.Darby)의 역본(譯本)에는 “I shall have poured”라고 되어있는데, 영문법에 의하면 미래완료형의 시제이다. 28절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에서 이 성령을 부어주심의 예언은 가을비(이른 비)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봄비(늦은 비) 성령에 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봄비 성령이 건설하신 참교회는 장차 이스라엘 땅까지 전도될 것이며, 이로써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된 환상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영역본(英驛本)에는 ‘부어준다(쏟는다)’가 ‘out’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때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무한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묘하고 큰 것인가!

6. 호세아의 예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 6:3).”

새벽빛은 여명(黎明)을 가리킨다. 여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온 땅이 어두워 캄캄하지만 은빛 화살 같은 새벽빛이 온 대지를 비추면 세상은 광명이 지배하는 낮으로 변화한다. 새벽빛이란 성령을 상징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을 몰리치고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비추듯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비’와 ‘늦은 비’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자는 성령의 은혜를 후자는 늦은 비 성령을 상징한다. 밭에 봄비가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 밭에도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은 마치 단비가 밭을 촉촉이 적시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7. 요엘의 예언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요 2:23).”

‘시온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약시대의 선민을 가리킨다. 비가 그친 것은 선민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성령 강림이 중단된 것을 예표한다. 다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선민에게 노를 품지 않으시며, 성령 강림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선민이 즐거워하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

리나'라는 구절의 일어구어체(日譯口語體) 역본을 살펴보면 “주께서 너희를 의롭다 칭하려고 하시며 이른 비를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번역했다. 이처럼 비가 그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리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의롭다 칭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천주교가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성령 강림도 중단되었는데,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내리시고 선민을 의롭다 하실 미래사를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을 2:28-29).”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성령 내려주심의 약속에 대해 기술할 때 대개 요엘서의 이 예언을 인용하곤 한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데라도(행 2:16-21) 본 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언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인류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누구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예언, 꿈, 환상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는 방법으로써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대상은 종족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계층의 구별이 없다.

8. 스가랴의 예언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

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 4:6).”

유대의 총독이자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은(학 1:1)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사 44:28, 스 1:1-6) 기원 전 536년 바사의 고레스왕 통치기에 왕의 허락을 받아 성전을 중건한 지도자였다(스 2:2, 64, 65).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바사의 아다사스다왕에게 상소하여 공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선민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스 4:4, 5, 7, 23). 바로 그 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민들을 권면하여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케 하였다(스 5:1, 2).

스가라서 4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모든 방해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사람의 권력과 재능을 의지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성전은 곧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성전이 훼파되었다는 것은 곧 이른 비 성령으로 건설된 사도교회가 변질된 것을 예표하며, 성전이 다시 중건된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에 의한 말세 참교회가 출현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중건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대적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듯이 말세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시지 않는다면 초대교회가 회복된 말세의 참교회도 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스 8:12).”

‘이슬’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마치 이슬이 내려 황폐했던 광야가 부드러운 땅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되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토지는 소산물을 내는 것처럼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내릴 때 황폐했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남은 백성’이란 말세에 큰 환란을 겪은 후 남은 자로서 말세의 시기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백성을 가리킨다(롬 9:27, 29, 11:5, 25-27).

이처럼 스가랴 8장 12절의 말씀은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그 성령이 건설한 참교회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스 10:1).”

비는 일정한 계절에 내리므로, 우기가 아니면 비를 구해도 헛될 뿐이다. 이 ‘봄비’는 늦은 비 성령을 예표하는데, 누구든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시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받을 수 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스 12:10).”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⁵⁾이란 성령의 호칭 중에 하나이며 이를 일어 역본에서는 ‘은혜와 간구하는 영’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차례 배반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살해한 구주를 양망하며 자기들의 범과(犯過)에 대해서 슬퍼하며 자책할 것이라는 뜻이다.

9. 말라기의 예언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5) 역자 주. 중국어 역본에는 “사람들이 간구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는 영”으로 되어 있다.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

이 예언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란 세상 끝 날을 가리킨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맹렬한 불을 내리셔서 모든 형체가 풀어지게 하신다고 했다(슥 1:18, 벧후 3:10-12). 성경은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사 13:6-16, 욥 2:31, 슥 1:14-17, 계 6:12-17), 예수께서는 이 날이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던 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다(눅 17:28-30).

둘째,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다. 인류 구속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엘리야는 전후 두 시기에 출현하는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다. 이 두 시기는 구속을 선포하는 시기와 완성하는 시기이다. 먼저 구속의 선포시기에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라고 하셨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기로 한 그 엘리야이며(마 11:14, 17:10-13) 먼저 와서 당신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예언이 응했다고 하셨다(사 40:3, 마 3:3).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한 엘리야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의 바로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심지(心志)와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다(눅 1:17).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여러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다(요 1:21). 다음으로 구속의 완성시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삼년 반 동안의 가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린 사건은(약 5:17-18) 이른 비 성령이 그친 후 다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참교회가 설립될 것을 예표한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출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담당 한 것처럼(마 3:3),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출현하여 그의 구속을 완

성하는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계 7:1-3, 21:2).

셋째, ‘아버’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키며, ‘자녀’란 아담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을 가리킨다(눅 3:38, 행 17:28).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자 온 땅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셔서 멀리 추방 하셨다(창 3:17, 22-24).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회복하셨지만(골 1:20-22, 엡 2:20-22) 교회가 타락하여 다시 그 화평이 파괴되고 말았다. 엘리야 선지자로 예표된 말세의 참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해서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게 해야 한다. 참교회는 엘리야의 심지와 능력을 소유하여 모든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고(왕상 18:19-40, 참고 갈 1:7-9, 유 3),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겔 36:26, 27). 이처럼 말라기 4장 5절-6절의 말씀도 늦은 비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

10. 세례 요한의 예언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오해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라고 했다(요 1:19, 20, 3:28).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리스도의 출현은 성령 강림의 전주곡

(前奏曲)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령 강림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요 1:32, 33).”

요한은 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미리 알려주셨다. 후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이 그 몸에 임하심을 보고(마 3:16) 요한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예언은(사 11:1·2, 42:1, 61:1, 마 3:11) 모두 실현되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성령 강림 예언과 동일한 내용이며 따라서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었던 셈이다.

제2절 주 예수의 약속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각 시대의 선민들에게 예언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신 후 주께서 친히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복음과 함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더불어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을 전하셨다. 이는 인류 구속의 서광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주 예수의 약속은 성경에 수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십자

가 사건 전의 약속과 '부활 후의 약속'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두 시기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십자가 사건 전의 약속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예수께서는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누가복음 11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나는 떡을 빌리는 비유로서, 밤중에 찾아온 벗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미 잠자리에 든 이웃에게 떡을 꾸어달라고 할 때 그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눅 11:5-8), 다른 하나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눅 11:11-12)는 비유의 말씀이다. 두 비유의 말씀 후 13절에서 결론 내리시기를, 누구든지 간절히 성령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시며(잠 18:24, 요 15:15), 우리의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이다(엡 4:6, 요일 4:8, 시 103:13).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눅 12:11-12).”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 전파의 일 때문에 회당에 끌려가거나 관원에게 잡혀가서 심문을 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할 내용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들 안에 거하셔서 말할 내용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들의 유일한 ‘조력자(Helper)’로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그들의 유일한 ‘변호사(Paracletos)’로서 언제 어느 법정에서나 그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요 4:10).”

‘하나님의 선물’이란 표현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고전 6:19, 히 10:44, 45, 11:15-17).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라는 말씀은 성령을 구하는 데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구하라는 뜻을 내포한다. 여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생수가 솟아나듯이 사람 속에서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사람들이 주 예수를 가까이 하기를 마다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인류의 구주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면 즉시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결핍을 아셨고 그녀가 차차 마음의 문을 열고 간구하고픈 충동이 일어나도록 그녀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 주 예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 14).”

11절과 이 말씀은 매우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물(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주 예수께서 주시는 물(생명수)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즉 재물, 지위, 명예 같은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며(벧전 1:24), 우물물처럼 사람의 심령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반면,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은 사람의 심령에 갈함을 해소시켜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다(사 49:10, 요 6:35, 계 7:19, 참고 사 58:11). 이처럼 주 예수는 영적인

생수를 주시고자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물질적인 물만을 구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7-39).”

‘명절 끝날’이란 초막절 제 칠일의 다음날, 사람들이 귀가하는 때의 마지막 제전(祭典)의 날이었다. 이 제 팔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경건히 보내야 하는 절기의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가장 큰 날’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했다.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큰 날이라는 절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의 열정적인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성경에 이름과 같이’란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기록된 말씀들의 대의(大意)를 가리키는 것이다(사 12:3, 44:3, 55:1, 겔 47:9).

매년 7월 15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은 그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레 23:41-43). 절기 중 제사장은 매일 아침 금(金)그릇을 가지고 군중들과 행렬을 지어 실로암 못으로 간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라는 노래를 제창하고(사 12:3) 물을 떠서 성전으로 돌아와 그 물을 제단 서쪽에 뿌린다. 군중은 환호하며 크게 경축하는데, 이는 그 조상들이 르비딤에 거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갈증을 해소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출 17:1-6, 시 78:15, 16). 이로 인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샘물을 얻어 기뻐한 과거사를 회상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며 생수의 샘은 곧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전 10:4).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명절 큰 날이라는 가장 적절한 때를 포착 하셨고 당신께 나와 생수를 마시라고 크게 외치셨던 것이다.

여기서 ‘목마름’이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심령의 갈증을 가리킨다(암 8:11).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주 예수 자신이 생수의 샘이므로 누구든지 당신께 나오면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이란 말씀에 볼 때 세상에 갈증을 느끼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만한 영적 상태의 라오디게아교회는(계 3:17) 갈증을 느껴야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갈증을 면하는 세 단계를 보여준다. 이는 성령을 받는 단계이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갈증의 상태에 있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고, 다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은 아직 부활 승천하지 않으신 것을 의미한다(요 12:16,23, 13:32,17). 이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야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행 2:1-4,33).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신 것은 일종의 약속일 따름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보혜사’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 16장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지도자, 조력자, 힘을 주시는 분, 안위하시는 분, 변호사 등의 뜻을 갖는다(본서 2장 3절 참고).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 역할을 하셨다(요일 2:1의 ‘대언자’란 원문상 요 14:16의 ‘보혜사’와 동일한 단어임). ‘또 다른 보혜

사를 너희에게 주사'란 말은 주님이 담당하셨던 역할을 성령께서 계승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의 보혜사 역할을 지속하실 것을 가리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은 비록 성육신하셨던 주님이 제자들과 작별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며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진리의 영'은 성령의 명칭 가운데 하나이다. 성령의 본질은 곧 진리이며(요일 5:7, 요 1:14), 또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시고(요 15:26, 14:6),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신다(요 16:13). '세상'이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는 볼 수 있게 제자들과 동거하였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들 속에 거하실 것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도 먼저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內住)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마 28:20, 요 14:20, 21,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래지 않아 떠나실 것을 예고하셨다(요 13:31-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설명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그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도 약속하셨다(요 14:1-3).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깊이 근심하며 '주님이 가시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도와주며 힘을 더해주고 안위 하며 누가 대신 변호해줄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위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머지않아 자신들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질 것을 생각하니 이리때의 소굴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심정처럼 초조하기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보혜사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과거 주님께 배운 교훈을 떠올리게 하셨다. 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이 매 순간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②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에는 숨겨진 깊은 뜻이 있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를 대부분 잘 깨닫지 못했다(요 16:12).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과거에 들었던 교훈이 생각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③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미래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었다. 성취되지 않은 미래사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르는 것은 어찌면 당연했다. 그러나 예언이 성취되면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고(눅 24:6-9, 요 2:19-22) 더 깊이 깨닫게 인도하셨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곧 영(靈)이라고 하셨고(요 6:63),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을 가리켜 봉(封)한 책이라고 하였다(사 29:11).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계시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전 2:10-11).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요일 2:27).”

성령께서는 장래 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만약 성령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①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어 함께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엡 3:3-6, 롬 9:24-26), ② 이방인의 수가 다 찬 후에 이스라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롬 11:25-27), ③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나 배교(背敎)하는 일이 발생하고, 자기를 높이는 큰 죄인이 출현하는데(살후 2:3, 4, 딤후 3:1-5), 그 중 일부 사람들은 마귀의 진리를 청종하고, 혼인을 금지하며 먹는 것을 폐하며, 기타 여러 가지 이단이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것(딤후 4:1-3, 벰후 2:1), ④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승천하며(고전 15:51-55, 살전 4:15-17), 땅과 그 위의 만물들이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이라는 등의 내용들이 그것이다(벰후 3:10).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예수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증거란 다음과 같다. ①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요 16:7, 14:3), ②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며, 두 분은 위격상(位格上)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요 14:18), ③ 세례를 베풀 때 물은 주 예수의 보혈로써 사람의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다는 것(요일 5:6-8, 요 19:34, 엡 1:7, 행 22:16), ④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 등이다(롬 8:16). 간접적인 증거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①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롬 1:3-4), ②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행 3:15), ③ 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셨다는 것(행 5:30-32, 10:42, 43), ④ 주 예수께서 장차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살후 1:7-10), 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에 대한 기타 모든 문제를 증거하신다는 것 등이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주 예수께서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 속으로 근심했다(요 16:5, 6).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말씀으로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유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① 그가 가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희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② 성령께서 위로부터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눅 24:12) 그들의 신앙과 성업에 큰 힘을 더하시기 때문이다. ③ 주께서 가신 후 제자들이(성령을 의지하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이다(요 14:12). ④ 주님은 곧 그들을 떠나셔야 하나 성령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육신으로 계신 주님은 동시에 두 장소에 계실 수 없으나 성령은 어느 곳, 어느 때나 각 사람과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⑥ 육신으로 계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돕거나, 힘을 주거나, 위로하거나, 대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외적으로 하셨으나 성령께서는 그들의 내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다(자세한 것은 이 책 제2장 제3절 참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요 16:16).”

이 구절의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앞부분은 주 예수께서 당신이 곧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뒷부분은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과 직접 관계가 없는 앞부분은 접어두고 뒷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신의 죽음의 결과 제자들과 잠시 헤어질 뿐이며 제 삼일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다시 상면하게 된다는 점(요 13:31-33, 16:17-22), ② 성령은 주 예수의 영을 가리키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본다는 뜻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날(성령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주 예수께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요 16:23, 13, 요일 2:20, 27).

2. 부활 후의 약속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1-23).”

위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수는 본래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을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처럼 성령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당신이 다 못이룬 성업을 계승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둘째,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약속이며, 현재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그들에게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사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다.

지아위밍(賈玉銘)은 그의 저서 『요한신강의(約翰新講義)』 263쪽에서 “이 사명(전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숨을 내쉬며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하셨다. 여기서 드러난 이것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는가!”라고 기록했다. 즉 제자들이 바로 이 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다. 또 치바 유고로(千葉勇五郎)는 『현대신약성서 주석전서』 제4권 373쪽에서 “이 말씀(요한복음 20장 22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장 7절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했다. 해석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에 관한 모든 약속이 이 때 다 실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었지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6:7), 이 무렵에는 예수께서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으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요한은 예수께서 명절 끝날 하신 말씀에 대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언급했는데(요 7:39),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모든 사도들의 일치된 견해였다(행 2:33, 5:31, 빌 2:9, 10). 이 무렵 예수께서는 아직 그런 영광을 받지 못하신 때인지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셋째,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며 성령을 통해 능력(권능)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성업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눅 24:49, 행 1:8). 만일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시는 순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다시 이와 같은 명령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넷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언급되는 날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이었다는 점이다(행 2:1-4, 33).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하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 24:49).”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 동안 여러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까지’란 표현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로부터의 능력’이란 표현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성업의 진행에도 큰 유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내가 너희에게’라는 말씀에서 ‘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대상은 제자들이 생명의 도를 전해야 할 일반 대중을 가리키며 또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에서의 ‘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의 예수로서 이는 그 분이 보내실 성령을 가리킨다.

만약 진리를 전하는 자가 말씀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구원의 교훈을 전할 뿐더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그 교훈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동행하신다. 반대로 인도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소경이거나 거짓 선지자라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아무리 열심히 교회로 사람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일이므로(마23:15-16)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갈 1:6-9). 천주교에 성령이 내주(內住)하지 않는 원인은 순수한 원시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또 개신교단들이 성령의 내주가 없는 원인도 세속화되어 순수한 성경의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5-16).”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4-5).”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비교할 때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일치한다. 아마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누가리는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수신인(受信人)에게 보내면서(행 1:1, 눅1:1) 반복하여 말했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란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써(눅 24:49)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개인의 신앙의 차원뿐만 아니라 전도의 성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을 볼 때 개인의 신앙에 대해 차치하고라도 전도의 성업에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성령의 보내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전도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이 사람에게 말과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이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다. 넷째, 성령이 사람을 인도하셔서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도의 성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거듭 명령하신 것이다.

■ 제 8 장 ■

성령의 강림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지키시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신 7:9). 혹시 인간은 연약해서 약속을 저버리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미쁘신 분이시다(딤후 2:13).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 강림에 대해 약속하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될 일이었다.

제1절 이른 비가 먼저 내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께서 장차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와 같이 세상에 소개하였다(요 1:32-33).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의 세례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마 3:11). 그래서 하나님은 천여 년 동안 각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성령 강림의 서광을 비추셨다.

1.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약속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신 11:14).”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렘 5:24).”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 성령의 상징이다.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하기 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수확하기 전에 내린다.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은 가장 처음 내린 것으로, 초대교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업의 때에 내렸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른 비 성령이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사 44:3).”

‘네 자손’은 아곱의 후손을 가리키며,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다.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아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겔 11:19-20).”

‘그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다. 에스겔 11장 15절-16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겔 37:14).”

‘너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비 성령에 대한 예언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이지 늦은 비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에스겔 12장 10절에도 이른 비 성령의 강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2.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다른 방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렸다. ‘임의로 부는 바람’(요 3:8)과 ‘소멸하는 영’(사 4:4)이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내렸다. 바람은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와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참고: 행4:31, 계 19:6). 불은 열과 빛을 발하고 태워서 깨끗하게 하거나 녹여서 하나 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며 죄악을 불살라 버리게 하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기능을 나타낸다. 혀는 말을 하게 하는 도구로써 성령이 사람에게 구변의 재능을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씨역본(呂氏譯本)에는 사도행전 10장 46절의 내용을 “혀를 말아서 말을 한다”로 번역하고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 주님의 부탁하심을 따라서, 매일 예루살렘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눅 24:49, 행1:4-5, 12-15). 오순절에 이르러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약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천년 동안 지속되었던 약속이 이루어졌다. 천하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일에 놀라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의심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행 2:13). 그 때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행 2:16-18, 율 2:28)을 인용하여 그들이 받은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 성령을 주신다고 설명했다(행 2:37-39). 그 결과, 3천명이 그

6) 역자주, 중국어 역본에는 ‘불로 사르는 영’으로 되어있다.

의 말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고, 모두 사도들의 교훈을 준수하게 되었다(행 2:40-42). 이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증거한 최초의 일이며, 이후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사도들은 곳곳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 성령의 기쁨 부음이 있었다(행 8:17, 10:44, 19:6).

제2절 성령 강림 중단

이스라엘의 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시기가 있다. 이른 비는 가을철 파종하기 전에 내려서 가을비라고도 부른다. 늦은 비는 봄철 수확하기 전에 내려서 봄비라고도 부른다. 2천 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내려서 약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때는 이른 비 성령의 파종 시기이다. 20세기 초반에 성령이 다시 내려서 말세의 참교회가 세워진 이때는 늦은 비 성령의 수확의 시기이다. 이른 비 성령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렸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중간의 비가 내리지 않는(성령이 내리는 것이 멈춘) 기간이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겨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민의 거역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해서 내리던 비가 그친 영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이 일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미 수많은 예언과 예표가 있다(사 46:10).

1. 성령 강림의 중단에 관한 예언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낫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레 26:19-20).”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음을 나타내며, ‘땅으로 낫과 같게 하리니’는 오랜 가뭄에 땅이 딱딱하게 말라버리는 것을 말한다. 레위기 26장 14절-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선민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구약의 선민은 신약의 선민을 예표하고, 비가 그침은 성령이 내리지 않는 것을 예표하며, 땅은 사람의 마음을 예표하고, 땅의 소산과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성령 강림의 중단 원인은 천주교의 변질된 복음 때문이다. 변질의 결과 성도의 심령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딱딱해져서 아무리 힘써 수도(修道)하고 노력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는 천여 년 동안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형편에 이른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신 11:16-17).”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 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렘 3:2-3).”

신명기 11장 16-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선민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은 원인이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임을 알 수 있으며,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을 보아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렘 2:20-25, 3:6-14). 신약시대 교회사에서 살펴볼 때 성령이 그친 원인을 더욱 분명히 설명해준다. 구약의 아합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고, 결국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왕상 17:1,7, 16:30-33) 신명기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신약시대에 로마 교황은 자칭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여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예수, 사도들, 성인, 순교자와 마리아를 대상으로 그림과 석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성령 강림이 중단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개신교회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신학박사나 유명한 목사, 교회 지도자를 숭배하면서 그런 인물의 이름을 따라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고, 사람을 기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모습 또한 우상을 조각해놓고 숭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사도시대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신비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 감히 사람들에게 경배나 칭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행 10:25-26, 14:11-15).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화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염밭이 되게 하시며(시 107:33-34).”

성령의 강림은, 본래 광야(사람의 마음)를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요 4:14)인데, 그 거민(교회)의 악으로 인하여 강이 변화하여 광야(성령강림의 중단)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옥토가 염밭이 되어서 더 이상은 파종할 수 없게 되었다(성령을 잃으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더 이상 교회에 뿌리를 박고 싹을 틔우거나 자라지 못한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사 5:6).”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으로 이스라엘과 그 선민을 비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셨으나(공평함), 그들은 도리어 들 포도를 맺혔다(포함).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내버려두사 황폐하게 하시고, 질려와 형극이 자라며,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사 5:3-7). 이 예언대로 천주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은 성령 강림이 중단되는 원인이 되었다.

“유다가 슬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길으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기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렘 14:2-4).”

유대인들은 수차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령되게 행동하고, 발걸음을 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며, 가뭄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렘 14:7-12). 천주교가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결과 성령 강림이 멈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예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모든 교훈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만약 교회가 주님의 교훈을 임의로 변개하고 지키지 않으면 예수께서는 교회를 떠나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므로,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곧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यो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15-17, 21, 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잠 1:23).” 성령이 없는 모든 교회는 회개하여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만 성령 강림을 회복할 수 있다.

2. 성령 강림 중단의 예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눅 4:25).”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왕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라 우상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민들까지도 명령하여 악한 길로 인도하였다(왕상 16:30-33, 18:17-18).

이 때의 비는 성령을 상징하며,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강림의 중단을 예표한다. 하루를 1년에 견줄 때(민 14:34, 겔 4:6),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천여 년 동안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합왕의 시대에 선민이 패역한 길을 걸어 3년 반 동안 가뭄이라는 재앙을 초래한 것처럼 신약시대 천주교회는 초기의 복음을 변개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 결과 천여 년 동안이나 성령이 내리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참고: 마28:20).

3. 성령 강림 중단의 역사

오늘날 성령 강림이 중단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첫째, 성경에는 성령 강림 중단에 대한 예언과 예표에 대해서만 기록했을 뿐 그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의 마지막 저술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성령은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천주교와 개신교는 오순절 성령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이 출판한 교회 역사 자료에는 성령 강림 중단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를 떠나셨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은 성령 강림 중단의 시기에 대해 추정한 것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독일의 신학자 베넬(Weinel)은 사도시대의 영적 세계에 대한 현상을 면밀히 연구하였다. 그는 “2세기까지도 ‘영적 감동의 집회’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있었다. 성령은 안수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내렸으며, 또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했다. ‘영적 감동의 집회’라는 것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집회를 가리키는데, “2세기까지도 여전히 이런 집회가 있었다”는 표현은 이후에는 그러한 집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리스(W.T. Rees)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는 1세기만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였으나, 2세기 이후로는 교회의 규범

과 관습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규범이 성령에 속한 영역과 부조화했고 사령(邪靈)까지 목격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했다. 2-3세기의 교회는 집회시 과도한 영적 현상을 반대하여, 성령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고, 결국 성령은 교회에서 아주 작은 지위만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열정이 식어 냉랭해졌으며, 성령에 속한 현상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라고 했던 바울의 교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쓸 당시는 영지주의(Gnostic)가 유행하던 때였는데, 어떤 무리는 이에 미혹을 받아 교회를 떠났다(요일 2:19).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의 은혜는 ‘지식(그리스어: gnosis)’으로부터 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엄격한 신앙생활의 여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여겼다.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점은 ‘지식’이라는 미명하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속된 음행들을 행했다는 것이다.

『성경백과전서(聖經百科全書)』 문예부(文藝部) 오상(午上)편 28쪽에는 “영지주의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영은 영적인 세계의 생각에 힘쓰고, 육체는 육체적 욕정에 방임하게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연구해 보면, 육체와 영혼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육체가 어떠한 비천하고 더러운 일을 할지라도 영혼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29쪽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기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선한 일을 버려서(딤후 1:16), 사람들을 유혹하여 불결한 모든 죄를 범하게 하고(딤후 3:5-6), 육체의 욕심을 인하여, 음란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국 허탄한 자랑의 말로 인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벧후 2:12-18). 그들은 경건함에 매이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을 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음욕으로 육체를 더럽히고, 샅을 따라 어그러진 길로 가니,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유

1:4,8,11,19).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도, 영지주의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니콜라당이라 하는 자들이 공공연히 말하는 바 범죄의 자유라는 것과 그들의 행위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였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는 그들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며, 그들의 교훈은 욕망에 따라 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아디라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 당의 행하는 악이 다양하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아서, 그릇된 길과 사탄의 깊은 것을 견지한다고 되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상은 초대 교회에 이미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고, 폐단이 점점 많아졌다. 사도들이 비록 들추어내고 책망하여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날이 갈수록 타락하였고, 성령 강림은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니케아회의를 개최하기 전에는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한 사상에 부화뇌동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정통 신앙이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이 사상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의 일치된 견해로, 요한이 계시록을 AD95 - 96년, 즉 1세기 말엽에 썼다고 한다. 그 당시에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과 냉랭한 신앙을 비판했다(계 1L9-11). 2세기가 되자 사도들은 모두 죽고(요한이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도로, AD98년에 죽었다), 교회는 중심적인 인도자가 없이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었고,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어 점차 성령이 내리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를 토대로 우리는 성령이 완전히 그친 시기를 3세기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제3절 늦은 비가 후에 내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전 11:3).”

영적 뜻으로 말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실 시기를 말함인데,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정한 때가 있듯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 3:1-8).”

비록 2, 3세기 이후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성령이 그쳤으나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때가 차매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셨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님께서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돔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 하시리이다(미 7:18-20).”

1.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예언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사 11:11).”

구약의 선민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 땅으로 쫓겨나 흩어졌으나 하나님이

다시 손을 펴시고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은 신약의 선민이 앞으로 당할 핍박과 장차 유업으로 받을 구원의 은혜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을 내리셔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예언하셨다. 본래 아브라함에게는 육에 속한 후손과 영에 속한 후손이 있는데(창 20:17), 구약의 선민은 육에 속한 후손을, 신약의 선민은 영에 속한 후손을 가리킨다(갈 3:29). 육에 속한 후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영에 속한 후손에 대한 예언도 성취될 것이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사 32:15).”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배역하여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후에 반드시 부흥시킬 것을 약속하셨다. 교회가 성령을 상실한 이후로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도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욥 2:28-31).”

이 예언은 오순절날 이른 비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이지만(행2:17-21), 마지막 두 구절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늦은 비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전 10:1).”

봄비 즉 늦은 비는 말세 참교회를 건설할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구절은 늦은 비 성령 강림에 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이다. 지금이 바로 늦은 비가 크게 내리는 때이니 누구든지 참교회에 와서 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늦은 비 성령에 관한 예언으로는 앞에서 말한 몇 군데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기재되어 있으나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책 제7장 제1절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신 11:14, 겔 39:29, 호 6:3, 욥 2:23, 스 4:6, 8:12 등).

2.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예표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약 5:17, 18).”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 6).”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던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세의 참교회를 예표한다. 엘리아가 백성을 이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노기를 거두게 하시고 비를 다시 내리게 했듯이(왕상 18:17-21, 39-45) 말세의 참교회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힘써 증거하고 이단과 미혹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엘리아는 또한 그의 심령과 능력을 지녔던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마 17:10-13, 눅 1:15-17).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한 것처럼(사 40:3-5) 말세의 참교회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의 재림을 영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계 21:2,9,10).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사 61:4).”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깔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이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겔 36:9, 1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 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을 이방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겔 36:33-36).”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 온 열왕(列王)들과 백성들 때문에 대적에게 훼파되고 불살라졌으며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왕하 25:8-12). 그리고 칠십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바와 같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남은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대하 36:17-23, 사 44:28, 렘 25:11, 12).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영적 성전인 참교회도(고전 3:16, 17, 벰전 2:5) 동일한 과정(건설 - 훼파 - 중건)을 거치게 될 것을 예표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시대에 스킨바벨은 왕의 허락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오래지 않아 그 땅에 원수의 세력이 나타났고 방해와 압제를 당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사업이 정체되었다(스 4:1-24). 그 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라의 입술로 스킨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수많은 원수의 방해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성전 재건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말세의 참교회도 늦은 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마귀의 방해와 압제를 이겨내고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을 예표한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암 9:11).”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슥 5:15).”

영적인 관점에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2, 3세기 이후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타락하고 파괴되었던 신앙의 터가 20세기 초에 출현한 참교회를 통해 다시 세워지며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예표한다.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는 말은 말세에 출현할 참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엡 2:19, 20) 초대교회를 부흥시켜서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완성할 것임을 예표한다.

스킨바벨이 백성을 데리고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라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의지해야 성사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슥 4:7).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

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요 16:13)”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기존의 터 위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니 (겔 47:1).”

‘전(殿)’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2:21), 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예표한다(요 7:37-39, 16:7). 본장 3절에서 5절의 기록처럼 물이 점점 깊어져서 건널 수 있던 물이 해염을 칠 만한 강물이 된 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질 것을 예표한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 잦아들고 소멸되었지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작게 일어나 점점 커진다는 뜻인데, 이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신부가 될 교회이기 때문이다(계 21:2, 9, 10). 이에 대해서 또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학 2:9)”라고 했다.

3.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강생하셨고 이른 비 성령도 이스라엘 땅에 내렸다.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서 여러 문화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위치이다. 그런데 이 땅은 아시아에 속하여 당대에는 세계의 동방(東方)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른 비 성령이 동방에 강림했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초대교회가 동방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 비 성령에 의한 ‘생명의 도’가 동방에서 서방으로 전파되어 여러 지방의 여러 족속들을 구원하였듯이 늦은 비 성령에 의한 참된 교회도 현대의

동방에 세워지고 순수한 원시복음(原始福音)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전파되어 각 교파의 오류를 바로잡아 말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도록 정해졌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돌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눅 1:78,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란 죄 가운데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빛과 생명이 필요하며 평강의 길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돌는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워하실 인류의 태양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쪽 사람이 먼저 빛을 보고 서쪽이 나중인 것처럼 주 예수께서도 동방에 강생하셔서(성령을 통해) 동방 사람이 먼저 그분의 은혜의 빛에 잠기고 나중에 서방이 그러할 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

‘성령’은 인자의 영이요 ‘인자의 임함’은 곧 성령의 강림을 가리킨다. ‘번개’는 성령을 가리키며, 또한 진리를 가리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성령과 진리의 전파도 그러할 것이란 의미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창 9:26, 27).”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요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셈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예수님도 셈의 후예로부터 나셨고(창 11:10-27, 눅 3:23-26), 이른 비 성령도 그들 나라에 강림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늦은 비 성령도 셈의 후예(중국인)에 속한 나라에 임하고, 야벳의 후예에 속한 나라로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란 말은 야벳의

후예가 물질, 문명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과연 예언대로 세계 역사(歷史)가 그렇게 전개되었고 이 예언이 응했다고 본다. 반면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케 하시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란 말이 있듯이 백인종의 교회가 외형상으로 어떻게 발전되든지 간에 황인종에 속한 참교회에 들어왔을 때 온전한 안식을 누릴 것을 예언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창 2:8).”

‘에덴동산’은 성령께서 건설하신 참교회의 예표이다. 첫째,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식물로 주셨으며(창 1:30), 그들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원리가 지배하는 모습은 없었다. 참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딤후 3:5) 서로 사랑하며 에덴동산과 같은 평화로운 모습을 재현하게 된다(사 11:6-9).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창 1:27) 그들을 에덴동산에 두셔서 성결하고 죄가 없게 하셨다. 이처럼 참교회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고(고후 5:17, 딤후 3:5, 행 22:16, 롬 8:2),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소유한다(엡 4:24). 셋째,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창 2:9),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했다(창 3:22). 참교회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서(계 22:2, 14), 그 앞에 돌아오는 자는 영생케 된다(요 3:5, 16, 갈 5:25). 넷째, 에덴동산에는 많은 과수(果樹)가 있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다(창 2:9). 이처럼 참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요 15:5, 갈 5:22, 23, 아 4:12-14). 다섯째 에덴동산에는 진귀한 정금과 보석이 많이 있었다(창 2:11, 12). 이처럼 참교회를 섬겨서 온갖 시련을 견디는 성도는 정금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벧전 1:6, 7, 계 21:18-21, 욥 23:10). 여섯째, 에덴동산에는 네 즐거움이 있어서 동산 안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했다(창 2:10-14). 이처럼 참교회

도 강으로 상징되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요 4:13, 14, 7:37-39). 일곱째, 에덴동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의사소통을 했다(창 3:8). 이처럼 참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계 21:3, 요 14:16, 17, 요일 3:24).

에덴동산은 동쪽에 위치했었다. 이는 이른 비 성령이 세우신 초대교회가 동방에서 출현한 것을 예표하며 또 늦은 비 성령이 세우실 말세의 참교회가 동방에서 나올 것을 예표한다(계7:2).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난 후 동방에 세워진 에덴동산은 그룹들과 사면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동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은 동편에만 있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동방에서 나오므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동방에서 출현한 참교회에 속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른 비 성령이 건설한 사도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이 건설하신 말세의 참교회도 역시 그렇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겔 43:1,2).”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이 말하는 방언 소리이다(계 19:1,6).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향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며 하나님의 음성도 동쪽에서 전(殿) 가운데로 울려왔으므로 늦은 비 성령도 반드시 동쪽에 강림하신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겔 47:1).”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불어나 그냥 건널 수 있을 정도였

는데 나중에는 해염을 쳐야만 건널 만한 물의 양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성장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본서 제3장 제5절 참조). 물이 동쪽에서 흘러나온 이유는 성전문이 동쪽을 향했기 때문인데 이는 늦은 비 성령이 동방에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본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 7:2,3).”

‘해 돋는 데’는 동쪽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을 상징한다(엡 1:13, 4:30). 이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나왔는데, 이는 늦은 비 성령이 동쪽에 강림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늦은 비 성령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출현할 때가 말일의 대환란이 임박하기 전이요 이른 비 성령이 강림하신 시대가 아니다. 둘째, 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언한 것이며(계 1:1), 과거에 이미 이뤄진 일을 다시 서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사 24:15).”

본문은 주 예수님이 동방에서 나시고 성령도 동방에 강림하셔서 그 후 모든 바다와 섬까지 두루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계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가리킨다.

4.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은 두 시기로 나뉘어 강림하신다. 이른 비 성령은 사도시대 오순절 절기에 이스라엘에 강림하셔서 초대교회를 건설하며 씨 뿌리는 일을 수행하셨고,

늦은 비 성령은 북아메리카에 내리신 후 중국에 말세의 참교회를 건설하셔서 추수하게 하셨다. 이에 대해 먼저 190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참예수교회의 발원(發源)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여 대략적인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다.

(1) 세계 각국의 오순절 운동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도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한 시대였으며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 3세기 이후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자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고 결국 성령 강림이 중단되었다. 이 후 성령이 떠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하였기에 점점 더 세속화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없어졌다. 미국 교회의 경우 성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화를 상영하거나 춤 등의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예배 전후에 도입했고 설교는 사회 교육에 치중할 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하지 않아서 집회는 영적인 신성함을 잃었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경건한 신도들은 이와 같은 부패를 탄식하며 하늘의 만나와 생수에 주려 있던 바, 삼삼오오 가정에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지는 집단이 여러 곳에 나타났다.

1900년에 캔자스(Kansas), 텍사스(Texas), 오클라호마(Oklahoma) 등의 주(州)에서는 그와 같은 모임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 방언을 말하고, 몸이 진동하며, 신령한 감동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 현상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내용과 비슷했다. 이를 체험한 사람들은 곧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각지에는 예배당과 전도하는 장소가 서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영국에까지 전도여행을 가기도 했다. 이것이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전주곡(前奏曲)에 해당되는 역사이다.

1906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초가집에 모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각 교회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온 천하의 교회를 부흥시켜주시도록 간구했다. 그들은 열흘의 기간을 작성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의 기록처럼 성령 강림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있을 것을 고대했다. 그러다가 4월 9일 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들은 모두 방언을 말하고 매우 기뻐했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영가(성령의 감동에 의한 노래)를 하는 등 주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깊이 체험했다. 특징적인 사실은 성령을 받은 그 소수의 무리는 모두 백인이 아닌 흑인이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치우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갈 3:27-29).

얼마 후, 이 사건이 원근 각처에 전해지자 갈급했던 다수의 신도들이 그들 모임에 참가하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모임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에 ‘이수샤 거리’의 낡은 집을 한 채 빌려서 임시 집회소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도 마구간이나 창고와 다름없는 누추한 장소였다. 이런 누추한 장소에 성령이 그리 강하게 임하실 줄 누가 알았으랴! 그날 이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빈번해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집회 장소마저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큼 북적거렸다. 어떤 사람은 종일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음식 먹는 것조차 잊었고, 어떤 사람은 이 집회를 위해 수천km의 거리를 여행하기도 했다. 그들의 집회시간은 항상 연장되어 한밤중까지 지속되거나 더한 경우 동이 틀 무렵까지 집회가 계속되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이적 기사가 나타나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가 하면 악한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다. 길이 험하고 멀어서 직접 와서 병 고침을 구하지 못하는 신도의 경우 손수건을 보내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물건을 병자에게 돌려보내면 병자가 그것을 환부(患部)에 대고 고침을 받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도나도 찾아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오순절의 진리를 널

리 전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많은 신자들이 성령 강림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복음을 세계 각국에 가서 전하겠노라고 자원하였다. 그들은 이방 땅으로 나아갔고 열심히 전도하여 온 세계를 오순절 운동의 열풍 속에 몰아넣었다.

당시 세속에 물든 각 교단, 교파는 이 현상을 목격하고 크게 위협을 받아 조롱과 배척을 일삼았다. 심지어 그들이 사령을 받았다고 비방하며 갖가지 방해로 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각처에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여 교회는 거친 비바람 같은 상황을 만났음에도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한편 일부 경건한 목회자와 신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다는 그 영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며, 그들이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임을 점차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로 돌아가서 교회의 신도수는 날로 증가했다. 그들의 방언에는 항상 통역이 따랐는데, 그 내용은 대개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내용이었다. 또 많은 신도들이 예수 재림의 환상과 천국의 환상을 보고는 믿음이 견고해졌다.

로스앤젤레스에 늦은 비 성령이 크게 임하신 지 2년 반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 지방에서 성령 강림은 계속되었다. 노르웨이의 한 목회자의 경우 뉴욕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의 머리에 ‘불(火)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 위에 이상한 빛이 감도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다. 얼마 후 그는 이 복음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중국, 인도 등의 나라에 전했다. 그가 중국과 인도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의 자녀들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신문을 발간하여 오순절의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소련, 팔레스타인 등지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1908년까지 세계 각국에 신문을 발간하여 성령 세례에 대한 소식지를 무료로 발송하는 곳이 이미 십여 곳에 이르렀다.

인도의 구놀라우산(山)은 인도의 목회자가 주재(駐在)하는 피서지였다. 1908년 여름, 오순절회의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큰 집회를 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처음에는 적잖은 방해를 받았으나 점차 많은 목회자가 성령을 받고 힘을 내서 4개월간 계속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오순절회의 한 목회자가 처음 인도에 갔던 계기는 ‘랑마과’라는 사람으로부터 무티에 있는 랑마과 여자서원(書院)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 목회자가 무티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 서원의 여학생 중 4백 명이 이미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다. 천 명이 일제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나이가 가라 폭포 소리같이 웅장했다고 한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할 때, 누구는 영어로 말하기도 했고, 누구는 산스크리트어로 말하기도 했으며, 누구는 특별한 은사로 방언을 통역하기도 했고, 또 누구는 안수를 할 때 병이 낫기도 했다. 나툰 지역의 남자 학당은 그곳에서 거리가 꽤 떨어진 곳이었는데, 65명의 남학생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 여러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았다.

남아공에서도 성령이 크게 강림하셨다.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와 크루거스도르프(Krugersdorp), 기타 각 도시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한 젊은 부인은 성령을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 인도의 각종 토어를 말하고,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침 그 가운데 인도사람이 있었는데, 그녀가 인도어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강대상으로 올라가 한 말씀도 빠짐없이 들었다고 한다. 인도 청년이 그녀의 말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도록 통역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도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마호메트(이슬람교의 창시자)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며, 예수께서는 머지않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 함께 승천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성령의 강림뿐만 아니라 각종 이적 기사도 나타났다. 한 맹인 여자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회중이 모일 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눈이 떠진 것을 알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 “보여요! 성가대가 보인다고요!”라고 말하고 회중을 향해 뒤돌아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라고 소리쳤다.

1908년 여름, 영국 선덜랜드(Sunderland)지방에서 성령을 구하는 대집회가 있었는데 참가한 회중 가운데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등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회중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렸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방언을 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병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바로우(Barrow)라는 여인은 노르웨이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노르웨이 신문에 실었다. 그녀는 이 집회에서 방언을 말하고 영의 노래를 하는 등 노르웨이 수도(首都)의 ‘영감 집회(靈感集會)’를 능가한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벨러랏(Ballarat)에서 십여 명이 성령을 받고 멜버른(Melbourne) 외곽의 윌리엄스타운(Williamstown)에도 성령이 크게 강림하였다. 이집트의 아시우트(Asyut)에서도 백 명이 오순절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중 절반이 성령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이탈리아 사람은 어느 형제의 방언을 통역했다. 남아공의 트랜스발(Transval), 프레토리아(Pretoria)에서는 사십여 명이 성령을 받았고,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시리아 등지에도 성령의 큰 강림이 있었다.

1910년 이전에 세계 각국에 가서 전도하는 일꾼들은 자원해서 일했으며, 때로 열의가 있는 신도의 원조를 받기도 했는데, 어떤 조직의 통제(統制)도 없었고, 전도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그들은 통제를 주도할 집단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공회(General Council)’, ‘하나님의 총회(Assembly of God)’, ‘친교회(The Fellowship)’ 등을 조직하여 연락기관으로 삼기도 했다. 또 남북아메리카에 각각 신학원을 설립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을 바탕으로 전도 인재 양성에 힘썼다. 1937년 오순절회의 ‘연보(年報)’에 의하면 그들 단체에서 세운 신학원을 졸업하고 파송을 받아 출국(出國)한 사람

가운데 안수 받은 목회자 수가 3,086명이고,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이 2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 ‘신소회(神召會)’, 오순절회, 하나님의 교회(神的教會) 등의 단체명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도활동을 수행했는데, 방언은 성령을 받은 절대적인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방언파’라고 불렸다.

본래, 단체를 조직한 목적은 각지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성업(聖業)을 강화하고 신앙의 터를 굳게 하여 교회 부흥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조직된 후에는 부지불식간에 누룩이 섞인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교회가 방언은 성령 받은 최초의 증거에 불과한 것이며, 그 후에는 더 이상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공중 예배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여 일반교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오직 소수의 교회만이 진리를 지켜 성령 충만을 입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성령이 내린 후, 일본에 파견된 목회자는 고베(神戸)의 데라 여사, 나고야(名古屋)와 도쿄(東京) 타키노가와(瀧野川)의 여이궁선(汝爾肯先) 부자(父子), 다치카와미찌(立川町)의 덕사리(德斯理) 여사, 나라(奈良)의 켄트 등이었다. 그들은 다 초기의 목회자였다. 여이궁선(汝爾肯先)은 문서선교에 힘을 써서 『늦은 비(後雨)』라는 잡지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성령세례를 받는 법』, 『성령세례의 증거』, 『성령의 세례』, 『중생과 성령의 세례』 등을 저술해서 ‘늦은비 출판사(後雨社)’를 통해 발행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오순절운동은 별 진전이 없었고, 비록 십여 곳에 교회가 서기는 했지만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1907년 오순절회가 중국에 전해졌다. 이듬해 오순절회의 모리스(미국인) 목사가 홍콩에서 〈오순절 진리신문〉을 발행하여 성령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졌다. 오순절회는 당시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와 교류가 있었고 진리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는 그 무렵 함께 상하이(上海)에 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고 주장했으며, 초기에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의 초기 오순절운동이다. 이후 공중 예배시 방언하는 것을 금하므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냉랭해졌고, 정체기에 이르렀다. 또 화베이(華北)의 벤더슨(미국인) 목사는 1911년 산시성(山西省)에 와서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에 터를 잡고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신문(通傳福音真理報)>을 발행하여, 크리스천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후 베이징에 가서 ‘신소회(神召會)’로 개칭(改稱)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개칭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신문(通傳福音真理報)>을 정간(停刊)하고 복음전단지로 대체했다. 벤더슨이 목양하는 교회는 사종 별다른 진전이 없이 현상을 유지할 뿐이었고, 기타 오순절계통에 속한 교회들도 중국에서는 대다수가 이런 형편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구세계에서 일어난 오순절운동은 조직을 만든 이후 성령의 활동을 경시(輕視)하고 외부로부터 조롱받기를 꺼려 신령한 현상들을 기피한 결과 성령께 극히 작은 지위만을 남겨드렸고,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일반교회와 비교할 때 아무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순절운동은 미국인을 통해 전 세계 원근 각국에 성령이 다시 내려오셨다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기여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으로 모든 충성되고 경건한 목회자와 신도를 고무시켜 그들이 세속의 교회를 떠나 주님이 성령으로 치리하시는 참교회로 돌아와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요 10:16) 함께 영적 은혜에 잠기게 하려는 섭리이다.

동방은 정신문명의 발상지로서 유대교, 불교, 유교, 기독교, 도교, 회교 등의 종교가 다 동방에서 발흥하여 이른바 ‘동방문화’를 형성하였다. 물질문명에서 앞서가는 서구세계에서는 동방의 정신문화를 깨닫기 어렵다. 즉 유물론자가

유심론(唯心論)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라고 말씀하셨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다.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을 받은 동방인이라야 영적인 오묘한 비밀을 체득(體得)할 수 있다. 물질문명의 측면에서 축복을 받은 서구세계는 줄곧 ‘형이하학’적 관점을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의 최종적인 뜻은 결국 알아내지 못한다. 더구나 근래에 미국에서 일어난 신(新)신학파는 실증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사상과 사실(事實)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여기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이상과 같이 늦은 비 성령이 비록 북아메리카에 먼저 내렸지만, 그 세력이 성장하여 동양인 중국에서 초대교회가 부흥된 말세의 참교회가 건설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나 선지자가 선택된 적이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나사렛사람이라 불리신 것과 같다(마 2:23, 요 1:46, 7:52).

세계 각국의 오순절운동 참고 자료

- ① 일본어 판 『참예수교회 요약론(日文眞耶穌教會要論)』(1943년 12월 31일 발행)
- ② 제 11호 홍콩 <오순절진리신문(五旬節眞理報)>(1908년 11월 발행)
- ③ 제 2책 제 3호 홍콩 <오순절진리신문(五旬節眞理報)>(1909년 3월發行)
- ④ 제 33호 홍콩 <오순절진리신문(五旬節眞理報)>(1911년 8월發行)

(2) 참예수교회의 발원(發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후 개신교는 급속도로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4백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수천 교파로 분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일반 교파들은 차치하고 오순절 계통 교회만 보더라도

현재 수십 개의 종파가 있다. 이와 같은 분열의 양상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현상은 멈추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없이 성경을 제멋대로 곡해(曲解)했기 때문이다. 곡해의 결과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은 세상의 지혜에 속한 신학으로 대체되었고 성령의 통치는 인간적인 통치로 대체하게 되었다.

참예수교회의 건설은 개신교의 분열하는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도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이 건설하신 참예수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이적 기사가 참교회임을 증거한다는 점이다(막 16:20, 히 2:4). 참예수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엡 2:19-22) 각 교파의 이단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을 품고 태어났다. 참예수교회의 교의(敎義)는 모두 성령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신학적인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본회는 오순절 계통의 각 교파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참예수교회의 초창기 일꾼으로 장링성(張靈生), 장바나바(張巴拿巴), 웨이바울(魏保羅)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그들의 약전(略傳)을 소개하여 참예수교회 발원의 대략(大略)을 밝히고자 한다.¹⁾

장링성(張靈生)의 약전

장링성(張靈生)은 본명이 핀(彬)이며 산둥성 웨이현(山東省濰縣) 사람이다. 1900년(37세)에 장로교에 입교하여, 평신도로 7년, 집사로 3년, 합하여 10년 동안 장로교회에 출석했다. 1909년에 큰아들 푸추완(溥泉)이 상하이(上海)의 공립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상하이(上海) 소재의 '사도 신심회(使徒信心會)'의 땡(丁)목사가 그를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였고, 그는

1) 여기서부터 나오는 중국인명은 신해혁명(1911년) 이후의 중국인명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외래어 표기원칙에 따라 표기함. 단, 성경상의 인명일 경우에만 성경의 인명을 그대로 표기함. 중국지명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함.

그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 장푸추완은 여름방학 기간에 산둥성 집에 돌아와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한다. 장핀(張彬)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그 해 9월말, 상하이에 가서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였지만 그곳에 20여 일 머무는 동안에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산둥성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계속 기도하여 50여 일이 지난 12월 21일(양력 1910년 1월 31일) 새벽에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링성(靈生)이란 이름으로 개명(改名)하였으며, 일주일의 각 날 중에서 일곱째 날(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10년에 쑤저우(蘇州)에 가서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의 목사 짜이후중(在湖中)에게 세례(침례)를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뜻을 세우고 이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주의 허락하심으로 그 해 웨이현(濰縣)의 시좡터우(西莊頭)라는 곳에 ‘예수참교회(耶穌眞教會)’를 세웠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장바나바가 있었다.

1914년 베이징(北京)으로 간 장링성은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의 뎬더쥘(賁德信) 목사와 궈이(奎) 장로의 안수를 받고 장로로 입직되었다. 장링성은 1916년 뎬목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건의하였고, 뎬목사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 6월 2일(양력 7월1일)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아울러 제13호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신문(通傳福音眞理報)>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1918년 봄에는 티엔쥘(天津)에 있는 참예수교회에서 웨이바울을 만나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한 영을 받아 친밀하게 지냈다(장링성은 웨이바울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후 더욱 능력을 얻었고 웨이바울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1919 정월(양력 2월), 장링성은 장바나바와 시좡터우(西莊頭)에서 2백 리 떨어진 탕자좡(唐家莊)에서 전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

를 받기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27일(양력 2월 27일)에는 30여 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할 때 그들 두 사람이 서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세례(침례)를 서로에게 행한 후에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고개를 숙여 물 속에 잠기는 세례(침례)는 웨이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대로 행한 것이었다. 2월(양력 3월)에는 웨이바울이 산둥성 웨이현에 가서 장링성과 함께 일하는 한편, 제2호 〈만국경정교신문(萬國更正教報)〉을 준비했다.²⁾ 9월(양력 10월)에는 장링성이 세 번째로 베이징에 가서 리샤오핑(李曉峯)과 량친밍(梁欽明)을 처음 만나 〈만국경정교신문(萬國更正教報)〉를 발간하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 그 달 6일(양력 10월 29일) 총감독자인 웨이바울이 세상을 떠나려는 순간, 곁에 있던 두 사람, 곧 장링성과 량친밍(梁欽明)이 웨이바울로부터 안립(按立)되어 함께 경정교(更正教)의 감독 직임을 계승한다. 장링성은 난징(南京), 창사(長沙)의 각처에서 전도했는데, 그가 전한 것은 바로 ‘만국경정교참예수교회(萬國更正教眞耶穌教會)’의 진리였다. 1920년 봄, 베이징에서 감독직을 사퇴하고 산둥성에 돌아와 교회를 지켰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외적 활동이 없었다.

장바나바(張巴拿巴)의 약전

장바나바는 본명이 띠엔취(殿舉)였고 산둥성 웨이현 시좡터우 사람으로 농업과 골동품상을 겸업해 경영했다. 1910년 동족인 장링성이 그의 마을에 와서 회개 및 죄사함의 도(道)와 성령 세례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에 그의 아내가 진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자 처음에는 그녀를 반대하기도 했으나 이후 사도행전 1장 5절의 기묘한 뜻을 깨닫고는 회개하여 믿음을 결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다. 1911년 3월 16일(양력 4월 14일) 새벽에 그가 들에 있을 때 홀연히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말세

2) 경정(更正)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만국경정교의 의미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는 교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역자주

에 구원의 은혜가 동에서 서에 이르러 만민을 구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때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했다. 장링성은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엔쥐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3, 4년간 그의 신앙을 돌보았고, 이후 금식기도하고 그를 장로로 안립했다. 1916년 2월(양력 3월) 떠엔쥐는 노상(路上)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남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라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었다. 또 4월에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개명(改名)하였다.

1917년 7월(양력 8월)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 산둥성 이남으로 가서 안치우(安邱), 주청(諸城) 까우미(高密 현 등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 해(몇 월인지 알 수 없음) 장링성이 그에게 ‘베이징의 웨이바울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수차례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여기 전단지가 있는데, 매우 신묘하다’는 말을 전하자 바나바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다. 1919년 정월(양력 2월) 장링성과 함께 러안(樂安)의 탕자좡(唐家莊)에 가서 전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27일(양력 2월 27일)에는 장링성과 함께 서로 고개를 숙이고 세례(침례)를 베풀 후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2월(양력 3월)에는 웨이바울이 산둥성 각 현(縣)에 가서 전도할 때 장링성과 함께 사역했고 4월 4일(양력 5월 3일)에 웨이현 시정터우에서 영은전도회를 이틀간 개최하여 21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바나바는 이때부터 목숨을 바쳐 전도할 것을 결심하고, 흰색의 사각형기를 만들어 ‘만국경정교참예수교회(萬國更正教眞耶穌教會)’라고 기록하고 여러 날 동안 수차례 금식기도를 한 후 각지(各地)에 나아가 만국경정교를 전하였다. 한편, 그의 고향에서는 어떤 성도들 다섯 가정이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모습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는 웨이바울을 따라 온 천하에 만국경정교를 전파하는 데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해 가을에 귀장카이(郭長愷)와 량친밍(梁欽明) 두 사람과 함께 먼 지방에까지 전도하였는데, 9개월 여만에 여덟 개 성(省)을 다니면서 42개

교회를 설립했고 약 2천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1923년 9월 21일(양력 10월 30일), 푸저우(福州)에서 전도하였는데, 10월 초순(양력 11월 중순)에는 먼저 안식일교회에서 전도하였고, 이후 커공상(科貢鄉)의 귀뚜오마(郭多馬)의 집에서 전도했는데, 모인 자들은 모두 안식일교회 신도들이었다. 전도의 결과 귀뚜오마, 첸아벨(錢亞伯), 진푸성(金復生) 등 모두 12명이 세례를 받고 진리 안에 들어왔고, 그 날 저녁에 성찬례를 거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에 사흘간 영은전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주변에 그 소식을 알렸다. 사흘이라는 행사 기간 동안 22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셋째 날 물세례 받은 사람이 93명에 이르렀다. 이에 장로 세 명, 집사 세 명을 안립하고 셋집을 얻어 푸저우(福州)교회를 설립하였다. 1925년 6월(양력 7-8월), 윈저우(溫州)에서 일주일간 전도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병을 고친 사람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수세지는 131명, 수령지는 50여 명에 이르렀다. 8월(양력 9-10월)에는 제2차 푸저우 ‘전성대표대회(全省代表大會)’가 열렸는데, 그곳에는 불과 2년 동안 ‘푸젠청(福建省)’ 전역에 설립된 60여 교회에서 파견된 각 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1926년 정월 19일(양력 3월 3일), 샤먼(廈門)에서 일본의 기선을 타고 타이완(臺灣)에 가서 전도하였다. 이 때 참여한 자는 귀뚜오마, 까오루자(高路加), 천웬첸(陳元謙)과 장저우(漳州)와 샤먼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타이완 사람 황청충(黃呈聰), 우따우웬(吳道源), 왕칭룽(王慶隆), 황싱민(黃醒民) 등 모두 여덟 명이었다. 22일(양력 3월 6일)에 장화시엔(彰化縣) 센시샹(線西鄉)이라는 황청충 성도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때 이미 장로교 신앙에서 본회의 진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1925년 가을 황청충의 부친인 황씨우량(黃秀兩)이 타이완으로 돌아간 후 뿌린 씨앗의 열매로서 대부분이 그들 친척이었다. 27일(양력 3월 11일)에 센시샹의 스우장리(十五張犁)에서 62명에게 세례를 주고, 장로 두 사람, 여 집사 두 사람을 안립하여, 센시교회를 설립하였다. 2월 3일(양력 3월 16일)에는 자이시엔(嘉義縣) 뉴타우완

(牛挑灣)에서 사흘간 영은회를 개최하여 3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장로교회 신도들이었다. 그들에 의해 뉴타운 교회가 설립됐다. 21일(양력 4월 3일)부터 사흘간 타이중시엔(臺中縣) 청웨이쩐(清水鎮)에서 전도하였는데, 진리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교회 신도였고, 24일(양력 4월 6일)에 청웨이쩐(清水鎮) 루랴우(鹿寮)에서 11명에게 세례를 주어 청수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들은 3월 1일(양력 4월 12일) 지룽(基隆)에서 카이청완(開城丸)호를 타고 중국 본토로 돌아갔다. 타이완에서의 일은 비록 40여일이란 짧은 기간이었으나 백여 명의 수세자(受洗者)가 있었고 세 곳이나 교회가 섰으니 타이완 기독교 역사상 전대미문의 대성과였다.

1929년 9월 1일부터 12일(양력)까지 제5차 임시전체대회를 개최했을 때 총책임자 한 명을 선출했다. 또 참예수교회 발원(發源)을 심사(審査)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장바나비는 이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었다. 10월에 총회의 파송으로 장바나바가 광저우(廣州)에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오래지 않아 홍콩으로 건너가 개인적으로 총회를 설립하여 중화참예수교회(中華眞耶穌教會)라 호칭하고 스스로 총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각성신문(角聲報)〉을 발행하여 총회를 비판하며 교회를 어지럽혔다. 이에 총회에서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권면했으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칭 교회의 원수(元首)라 하였기에 1930년 5월 1일부터 9일(양력)까지 열린 제6차 임시전체대회를 통해 제명 처분하였다.

웨이바울(魏保羅) 약전

웨이바울(魏保羅)의 본명은 은파(恩波)였고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부(保定府) 룡청시엔(容城縣) 사람으로 주단(綢緞)을 취급하는 은썬용(恩信永)과 은전화(恩振華)라는 포목상점의 지배인이었다. 1902년 네 식구가 베이징에 가서 포목상을 경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회’의 신도인 왕더순(王德順)의 인도를 받아 츠치커우(磁器口)의 런던회에 가서 진리를 사모하는 계기

를 맞이하였고, 그로부터 일 년 정도 경과한 1904년 가을 온 가정이 슈양치간(雙祺杆)의 런던회에서 미치 목사에게 세례(침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세례)를 받았다. 수세 후 그는 일요일마다 휴업을 하고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에 나갔으며, 가난한 신도를 돕는 구제활동에 열심을 내기도 하였다. 겨울로 접어들어 총원문(崇文門) 밖 뚝차스(東茶食) 거리에 점포를 빌어 수입품 털실가게를 차렸다. 1950년 여름, 언썬용(恩信永)이란 포목점을 차렸으나, 일요일에는 여전히 휴업하고 점원을 포함한 종업원 삼십여 명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부채를 청산하고도 수만 원 어치의 포목이 남는 이윤을 남겼다. 그래서 그는 목사에게 중국인이 자립적으로 중국교회당을 세울 것을 건의한 결과 즉시 받아들여져 은화(銀貨) 3천원에 집을 팔아 전액을 교회에 바치는 한편, 힘써 모금도 하여 북방(北方)에서 최초의 자립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1915년, 상하이 안식일회의 스리민(施列民)과 웨이덴칭(魏殿卿)이 베이징에 갔을 때 웨이바울을 만났다. 웨이바울은 그들과 안식일 준수 문제를 토론한 끝에 안식일 준수가 완전히 성경에 일치함을 깨닫고 많은 감동을 받는다. 1916년 5월(양력 6월) 웨이바울은 중병(重病)에 걸려 가슴이 심히 아프고 기침이 나며 숨이 차서 의사에게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8월 17일(양력 9월 14일),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의 신성민(新聖民) 장로가 언썬용 포목상을 방문했다가 웨이바울을 보고 “당신, 약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인수하면 곧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자 웨이바울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2층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다음 날, 신성민 장로가 웨이바울을 뚝청(東誠)에 있는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의 벤더슨 목사에게 인도했다. 웨이바울은 목사의 인품(人品)에 크게 감복하여 즉시 그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며칠 뒤 병이 낫자 그의 아내와 함께 벤더슨 목사에게 세례(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의 진리

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는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에 들어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고(당시 사도신심회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 은썬용 상점 2층에서 집회를 했는데, 항상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3개월 후에 또 첸먼(前文) 밖 다마창(打磨廠)에 언전화(恩振華)란 주단포목 상을 분설(分設)하였다. 그리고 그가 언썬용 포목점 2층에서 집회를 갖고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다.

1917년 3월(양력 4월)에 그의 딸 웨이잉이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웨이바울은 딸을 위해서 기도했고, “네 딸이 다 나왔다”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후에 딸의 병이 나았다. 한 번은 잠을 청하려는데 큰 우두머리 귀신이 작은 귀신 몇을 거느리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들이 즉시 물러갔다. 그 후 웨이바울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4월 3일(양력 5월 23일)에 그는 “네가 39일 동안 금식하라, 결코 주려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시 금식을 시작했다. 금식기간에 그는 종일 기도하며 글을 쓰기도 했고 길가에서 전도하기도 했다. 또 투완허(團河)라는 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왕복 14리의 거리), 그리고 매일 밤 3시간만 잠을 잤다. 또 5일(5월 25일)에는 베이징을 떠나 후왕춘(黃村)이란 곳에 가서 전도했다. 8일(양력 5월 28일)에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용평먼(永定門) 외곽의 따홍먼(大紅門) 강에 가서 물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어서 큰 음성이 있기를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였는데, 그 명령을 좇아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마친 후, 고개를 들어 보니 주께서 영광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몸과 영혼이 다 성결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에서 올라와 숲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름을 바울로

개명(改名)할 것과 각 교파의 그릇됨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하셨다. 이 때부터 그는 주님을 위해 몸 바쳐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한다. 10일(양력 5월 30일)에 그는 다음의 몇 가지 교의를 고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즉 ①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세례(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③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 안 된다. ④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안 된다. ⑤ 목사(牧師)란 칭호를 없애야 한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스승,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⑥ 상제(上帝) 또는 천주(天主)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神) 또는 참 하나님(眞神)이라고 불러야 한다.³⁾ 25일(양력 6월 14일)에는 앞의 몇 가지 내용을 각 교파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곧 48개 교단에 보내었다.

5월 13일(양력 7월 1일), 39일간의 금식 기간을 마치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을 때 주께서는 광야에 다시 나타나셨고, 그분의 좌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14일(7월 2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후왕춘(黃村)을 떠나서 난위엔(南苑)을 거쳐 베이징에 돌아가 자오더리(趙得理)와 함께 만국경정교를 전파하여 각 교파의 그릇됨을 바로 잡으려 했다. 18일(양력 7월 6일), 썩룽지에(興隆街)에 있는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의 벤더슨 목사를 심방하였고, 그에게 성령의 계시를 순종하여 고개를 숙여 세례(침례)받기를 권면했다. 30일(양력 7월 18일), 종전에 웨이바울(魏氏)을 런던회에 인도했던 왕더순이 따흥먼 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는 웨이바울의 동역자(同役者)가 되었다. 6월 23일(양력 8월 10일)에 이르자 후왕춘, 난위엔, 베이징 등 세 곳에 참교회가 설립되었다. 7월 16일(양력 9월 2일)에 웨이산장(魏善莊)의 어떤 사당(祠堂)에서 전도했

3) 중국에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 하느님을 上帝라고 번역하였는데, 上帝는 원래 중국 전통 신화 속의 복희(伏羲)라는 신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역자주

을 때 웨이바울은 두 눈을 실명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보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라고 묻자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웨이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머리에 안수했더니 성령께서 “그가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다. 8월 중(양력 9, 10월)에 베이징을 출발하여 각 성(城)과 각 향(鄉)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였다. 9월 27일(양력 11월 11일)에는 지교회의 교회당 건축, 주의 계시로 알게 된 교의를 인쇄하는 일, 그리고 성령의 참된 증거에 대한 책자 발간을 위해서 룡청(容城)에 있는 토지 일부를 팔았다. 10월 2일(양력 11월 16일)에는 또 토지 약 70평을 처분해 46위안(元)을 받아서 전도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13일(양력 11월 27일)에 또 다시 땅을 팔아 백여 위안을 받아서 동역자의 활동 경비(經費)와 간행물 인쇄비로 사용하였다. 11월 20일(양력 1918년 1월 2일)에는 경찰청의 우총간(吳總監)에게 편지를 써서 다마창(打磨廠)의 언전화(恩振華) 포목점에 참예수교회를 신설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이 때부터 본 교회의 명칭을 ‘참예수교회(眞耶穌教會)’로 결정하였다.

1918년 정월(양력 3월), 벤더슨이 제18호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신문(通傳福音眞理報)>에 다시 일요일을 지킬 것을 천명하자 웨이바울은 그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의 퇴보를 안타까워했다. 텐진(天津) 씨잔(西沽)에 뱀 귀신이 들어간 지 38년 된 노파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 7월 13일(양력 8월 19일)에 웨이바울에게 와서 자기 아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다. 웨이바울은 리웨한(李約翰)과 함께 그곳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가족 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베이징의 상부지에(形部街) 따쑹푸(大中府) 거리의 쑤즈쥰(孫子眞)이라는 병어리가 있었는데, 9월 1일(양력 10월 5일)에 그가 세례(침례)를 받았다. 웨이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니 병어리가 침을 많이 토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세 후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며 영가를 부르기도 했으며, 웨이바울의 동역자로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쑨즈쩐의 마을에는 병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징화르빠오(京話日報)>에 이 기사가 실려 그 소식이 온 지방에 전해졌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되었다. 웨이바울은 진리를 받아들인 후 약 8천여 부의 전단지를 각처에 뿌려 전도에 힘썼고 사람들의 각종 병을 고쳤으며 이후로 포목상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고품을 싸게 처분해서 부채까지 청산했다.

1919년 정월 1일(양력 2월 1일), 제1호 <만국경정교보(萬國更正教報)>를 발행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무상 공급하였는데, 이것이 각 성(省)에 두루 퍼져 각 성에서 이에 대한 편지가 도착하여 산더미같이 쌓였고, 이런 활동은 각 성에 참교회가 건립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2월(양력 3월)에 산둥성(山東省) 각 시엔(縣)에 가서 전도하고 웨이시엔(維縣)에서는 장링성과 함께 일하며 제2호 <만국경정교보(萬國更正教報)>를 준비했다. 4월 4일(양력 5월 3일)에 웨이시엔 시장터우에서 이들간 영유회를 개최하였는데, 21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6월(양력 7월)에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8월 중순(양력 10월초)에는 장링성, 량친밍, 리샤오핑 3인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베이징으로 갔다. 9월 6일(양력 10월 29일), 그가 세상을 떠나려할 때에, 장링성과 량친밍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는데, 웨이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들 두 사람에게 인수하여 축복하고 경정교(更正教)의 감독을 삼아 직임을 계승하게 했다. 벤더슨 목사가 방문했을 때 서로 손을 붙잡고 크게 울었다. 그날 오후 4시경, 그는 크게 웃으며 “보라! 천사가 왔다!”라고 외치고는 다시 웃으며 숨을 거두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열거한 인물 장링성, 장바나바, 웨이바울 등은 본 교회 초기의 중요한 일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이 참예수교회의 창설자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참교회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부르신 일꾼에 불과하다.

참예수교회 발원 참고 자료⁴⁾

- ① 웨이바울 저 『성령의 참된 증거』 상권(聖靈眞見證書上卷)(1917년 발행)
- ② 웨이바울 저 『성령의 참된 증거』 하권(聖靈眞見證書下卷)(1919년 발행)
- ③ 장바나바 저 『전도기(傳道記)』(1929년 10월 발행)
- ④ 일본어 판 『참예수교회 요약론(日文眞耶穌教會要論)』(1943년 12월 31일 발행)
- ⑤ 『티이완 선교 30주년 기념호(臺灣傳教 30週年 記念刊)』(1956년 12월 발행)
- ⑥ 『참예수교회 총회 10주년 기념사(眞耶穌教會 總部 10週年 記念專刊)』(1937년 4월 1일)
- ⑦ 우시엔젠(吳賢眞) 저 『사도 웨이바울 약전(使徒 魏保羅 略傳)』(1924년 5월 발행)
- ⑧ 제1호 <만국경정교신문(萬國更正教報)>(1919년 2월 1일 발행)
- ⑨ 제 2호 <만국경정교신문>(1919년 7월 27일 발행)
- ⑩ 제 3호 <만국경정교신문>(1919년 11월 22일 발행)
- ⑪ 제 4호 <만국경정교신문>(1920년 1월 22일 발행)
- ⑫ 제 1호 『성령보(聖靈報)』(1925년 3월 24일 발행)
- ⑬ 제 35호 홍콩 <오순절진리신문(五旬節眞理報)>(1912년 10월 발행)
- ⑭ 장링성이 총회에 보낸 편지(1929년 7월 31일 보낸 것)
- ⑮ 제 13호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신문(通傳福音眞理報)>(1916년 11월 발행)
- ⑯ 제 18호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신문>(1918년 3월 발행)

4) '참예수교회의 발원' 내용에 기재된 날짜는 일률적으로 기존 문헌상(文獻上)의 음력을 그대로 기재했고, 참고자료의 발행일자는 일률적으로 양력을 사용했다.

■ 제 9 장 ■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정의(定義)한 것을 보면 ① 성령이 몸에 임하는 것(눅 24:49, 행 1:8, 11:15, 66, 19:6), ② 성령을 받는 것(행 2:38, 8:15, 17, 10:47, 엡 1:13), ③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갈 3:14), ④ 성령을 몸에 부어주시는 것(딤후 3:6)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의 표현에 차이점들이 있지만 ‘성령의 세례’란 한 마디로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한 직후(마 3:16, 눅 24:49)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신다(요 14:16, 17).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라고 했고, 이는 자신들이 오순절에 받은 것과 같다고 했다(행 11:15, 16).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그의 저서 『한량없는 성령』의 73쪽에서 “참된 신도는 누구나 다 성령 받았다(롬 8:9).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즉, 그는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그 순서로 말하면 성령

을 받는 것이 먼저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다음이라는 것이며, 전자가 보편적이라면 후자는 특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성경에는 비록 과정에 대한 묘사가 다소 다르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즉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 차이점을 두지 않는다. 아마도 샌더스가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성령의 세례는 ‘거룩함을 이룬’ 초연한 경지라고 여겨 구별해서 생각한 것 같다.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행 1:5, 8).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며,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샌더스의 같은 저서 75쪽에 보면 “세례와 ‘충만’ 이 두 용어는 서로 상반된 뜻을 지닌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의 원소(元素)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충만은 하나의 원소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며,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사실 ‘세례’라는 용어는 성령의 내주라는 의미를 일체 배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의 주장 : 물질적인 관념으로 이야기 하자면 샌더스의 견해는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러나 성령은 물질이 아니므로 성령의 세례를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행 1:5). 이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 성경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1장 5절과 달리 기록했다(행 2:4). 샌더스의 주장대로 몸 밖과 몸 안의 구별이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

는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구분된 개념을 만들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성령의 내주라는 의미’를 일체 배제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픽포드는 (J,H,Pickford) 그의 저서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의 32-3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신도 개개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어떠한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 (심지어 성경 전체에서까지) 개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애를 바치는 일상적인 경험이었다.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은 위기를 체험하는 것과 결부시킬 수가 없다.” 픽포드의 주장을 정리하면 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것은 아니다 ②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에 대한 기록은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뿐 개인이 받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 ③ 성령의 세례는 일종의 위기(危機)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 : ①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②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행 9:17) 분명히 개인이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의 기록이다. ③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주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체험이지(행 1:5) 일종의 위기 체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하셨기에(요 1:33).”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행 11:15, 16).”

성령의 세례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주 예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다. 그 후 초대교회가 체험한 사건이므로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fact)이고, 성경을 통해 증명되는 일이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을 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했다(행 8:14-17).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 제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기에 곧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행 19:1-7). 이와 같은 기록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령 강림의 역사(歷史)적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다섯 차례 기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다섯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다섯 차례의 사건은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생략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다섯 차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① 오순절 성령이 처음 크게 내리셔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행 1:15, 2:1-4).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실현된 것이기에 소명을 받은 유대인 그룹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주께서 복음이 반드시 사마리아까지 전파된다고 예언하셨다(행 1:8). 후에 사마리아성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도 받았는데(행 1:5, 14-17),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므로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③ 바울이란 인물은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된 극적인 사건이었다(행 9:1-7, 딤후전 1:15, 16). 그러므로 그가 성령을 받은 사건은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행 9:17). ④ 이방인은 원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다(엡 2:12). 그러나 주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소명 받은 이방인 그룹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행 10:44, 45, 11:5-18). ⑤ 에베소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그릇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준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으며 곧 성령을 받았는데(행 19:1-7), 이 사건도 역시 따로 기록해둘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일반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였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① 오순절 이래 성령께서 줄곧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다. ②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③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은사이며 성령을 받아야 나타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④ 오순절 날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각국의 모국어인데, 왜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방언은 자신들도 알아듣지 못하는가? ⑤ 방언은 가장 열등한 은사일 뿐 아니라 사도시대에 이미 쇠퇴한 것이다. ⑥ 누구에게 사랑이나 믿음이 있거나, 성업(聖業)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은 것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생각들을 부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제1절 성령 받은 증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행 19:1, 2).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체험이다. 체험이 있으면 성령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내 생각에 성령이 있다거나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마술사 시몬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주소서”라고 말했다(행 8:17-19).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 그 목격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기까지 했다(행 19:6-7). 이상의 내용들은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언더(胡恩德)는 그의 저서 『영적 은혜의 문제(靈恩問題)』 16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요 3:18, 행 10:43), 이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행 2:38)이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곧 이와 같이 믿는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다. 체험을 통한 인식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 이 주장을 정리하면 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곧 죄 사함을 받는다. ② 주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을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받았다고 믿는다. ③ 성령을 받았다고 반드시 체험을 통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주장이다.

우리의 주장 : ① 저자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세례를 받고(행 2:38)”라는 구절은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문장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했다. 이는 일반 개신교 대부분이 죄사함의 효능이 있는 세례(침례)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② 사도시대는 이른 비성령이 주장하신 시대로, 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았지만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는 이 과거의 역사에만 매달려 현재 성령이 없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위안 받을 수 없다. ③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자각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보고 인지할 수 있다.

주 예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하셨다(요 14:16-17).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성령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세례 받은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추측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따르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복음서에는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의 내용은 성령 받은 후에 성도가 행하여야 할 도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도 찾을 수 없다. 계시록은 예언서로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 해답은 오직 사도행전 안에서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만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방언을 말함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행 10:44-46).”

“바울이 그들에게 인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행 19:6).”

위에 열거한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여러 차례 성령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방언을 말한 사실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성령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자신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임했다고 증거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행 2:15-18, 15:8).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마치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다(계 19:6, 14:2).

‘방언’이란 말은, 그리스어 원문으로 ‘혀(Glossa)’인데, 역본에 따라 ‘혀를 말아서 하는 말(捲舌頭說話)’¹⁾ 또는 ‘영언(靈言)’²⁾으로 번역되었다(고전14:2).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은 위의 본문과 기타 번역본들을 살펴볼 때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呂振中氏譯本

2) 淺文理譯本

영국의 신학자 리스 박사(Dr. Rees)는 “초대교회에서 방언을 말한 것(Glossalia)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유행한 은사였다. 이것은 마치 성령이 강림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며 증거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예일(Yale) 대학의 스티븐스 박사(Dr. Stevens)는 신약신학(新約神學)에 관련된 그의 저서에서 사도행전 8장 14-24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성령은 일종의 특별한 은사로 간주된다. 이런 은사는 주를 영접하고 세례(침례)를 받을 때 항상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록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성령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믿고, 세례(침례)까지 받았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기 위한 안수를 할 때에야 비로소 성령의 은사가 내렸다. 확실히 이것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은사나 경험이다.” 그는 또 사도행전 19장 1-7절에 관해 이렇게 주석했다. “에베소의 신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를 통해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하는 놀라운 기쁨은 영에 속한 능력의 특별한 주심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리하면 ①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 혹은 세례(침례)를 받을 때 받은 것이 아니다. 이와는 별도의 체험이며 ②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다. 스티븐스의 이러한 견해는 정확하고 깊이 검토할 만한 내용이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목사 맥도날드 박사(Dr. A. B. Macdonald)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성령을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회 발전의 초기에 제자들은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중에서 처음 남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현상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놀라운 능력의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받거나 그 능력을 듣고 본 사람들은 높은 세계로부터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와 말씀을 증거할 능력이나 기타 다른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능력과 은사는 그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다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어떤 평범한 능력과는 다른 무엇이었다. 과거에는 극히 평범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상한 말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들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밖에는 볼 도리가 없다(고전 14:2, 28).” 정리하면 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있다는 증거요 초대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②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오는 말이며 감정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③ 방언을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사도 이후에 수많은 교부(敎父)들인 이레니우스(Irenaeus), 터툴리안(Tartullian), 저스틴 마티어(Justin martyr), 오리겐(Origen) 등은 모두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목회자 크리소스툼(Chrysostom)의 말과 일치되게 주장했다. “사도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즉각 방언을 말했으며…… 이것은 곧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서 말씀하심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이 긍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①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즉각 방언을 말했고 ②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심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토레이 박사(Dr. R.A.Torrey)는 그의 저서 『성령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사도행전 2장, 10장 및 1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말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하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럽고 만일 방언이 사도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나는 왜 방언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지도 매우 의아스럽다. 토레이 박사는 성경을 정직하고 겸손히 고찰하였으나 아쉽게도 시야를 더 넓혀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도시대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중국어로 번역되었던 세계적인 명저 『리위야단』의 저자 홉스(T.Hobbes)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의 신도는 세례와 성령을 받고 나면 곧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고,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독사를 집어도 해를 입지 않았으며, 병든 사람을 인수하면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다. 만약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러한 전도의 능력을 다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태로운 신도들이 많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회자들이 아니기 때문인가?” 홉스의 성경을 고찰하는 태도도 역시 정직하고 겸손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야를 더 넓혀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쉽게도 오늘날 참예수교회에서는 그가 주목한 초대교회의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쑤더성(孫德生)은 그의 저서 『측량할 수 없는 성령(無量的聖靈)』 85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순절 당시 삼천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은사(방언 말하는 것을 가리킴)가 기록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이후 교회에 오천 명이 전도되었을 때에도 방언을 말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도 역시 방언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경우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추측하는 것 외에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수반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주장 : ① 오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삼천 명인데,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삼천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쑤더성의 억측이다. ②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한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몬이 사도들의 인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고 했다는 간접적인 기록은 있다(행 8:18, 19).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점이다. ③ 고넬료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동행한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방언 말함을 들음으로’ 저들이 성령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행 10:44-46). ④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때 고넬료 일가의 성령을 받은 모습과 오순절 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일치한다고 말했다(행 2:15, 16). ⑤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기록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단정에 근거하여 다른 성경의 명확한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⑥ 오순절에 약 삼천 명이 세례(침례)를 받았고, 이후 오천 명이 더해졌는데,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모두 방언을 말했는지 아닌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⑦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했다(고전 14:14, 18). 바울은 스스로 서신서에서 방언을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쉴더성은 같은 책 86쪽에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각종 은사가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방언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매우 두드러지는 사실이다. 로마서는 비교적 일찍 씌어졌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일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혹시 오늘날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현재는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은사를 받았다는 상태를 살펴보면,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크게 위배하고 있고 위조(僞造)된 것이며 진실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

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 ① 에베소와 로마의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점을 되풀이해서 설명할 필요와 이유도 없었고, 타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②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고전 14:4),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은사 가운데 포함될 수 없다. ③ 고린도전서 12장에 제기된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을 말함’은 방언설교의 특수한 은사로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과 혼동하면 안 된다. ④ 쏜더성은 오늘 날에도 방언을 말하는 사실이 있음을 승인하면서도 방언에 대해서 인정할 의사가 없다. ⑤ 기도 중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통역할 필요가 없다(고전 14:2, 28).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오는 언어인데,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웬 말인가? ⑥ 만약 쏜더성의 말과 같이 오늘날 방언하는 상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위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위조한 일이 끝까지 자신과 남을 속일 수 있는 것인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다 유치하고 우스운 자들이라고 보는가?

스크루지(W.Graham Scroggie, D.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일종의 교훈이 광범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 교훈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모두 이러한 세례를 받는 경험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교훈은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 교훈을 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속박과 암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세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빚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성령을 받은 행복과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서로 연결지으려는 의도에서 조장된 것이라

고 여긴다.”

우리의 주장 : ① 이 교훈은 신약에서 온 것으로서(행 1:5, 8:14-17, 19:1-7),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며(롬 8:1-2)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교훈이다(요 3:5). 이 교훈은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속박과 암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크루지는 임의대로 복음을 변경시키니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랴! ②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③ 우리는 스크루지와 같은 생각이 성령을 받는 행복과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서로 구별하려는 생각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여긴다.

피크포트의 저서인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의 27-28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현상(방언을 가리킴)은 공통적인 체험이 아니며 일상적인 체험도 아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서 놀란 사실은 이 점을 더욱 명백히 해주고 있다. 만약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험이라면 베드로가 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주목할 점은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기 전까지 이미 안디옥의 니콜라와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행 6:5, 8:36-39). 만약 ‘성령 세례의 체험(방언)’이 당시 항상 있었던 체험이라면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발생한 일로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만약 오순절의 체험이 모든 신도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잊고 있었을까?”

우리의 주장 : ①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현상(방언을 말함)은 공통적 체험

이며 일상적 체험이기도 하다. ②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실로 놀란 것은 베드로를 따라온 할례 받은 신도였고 베드로가 아니었다(행 10:44, 45). 그들이 놀란 것은 이것이 이방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록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베드로는 이들에게 부득불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행 10:47, 48). ③ 안디옥의 니콜라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미 유대교에 들어온 자이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놀랄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그를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웠으니 더욱 다른 뜻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행 6:3-6). ④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미 유대교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놀랄 만한 것이 못된다. ⑤ 사도행전 8장 14절의 ‘사마리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人)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지역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나(행 1:8),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 여씨(呂氏)역본 및 위의 몇 종류의 영역본(英譯本)에서는 사마리아 ‘인(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본래 유대인과 왕래가 없던 사람이다. ⑥ 만약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단지 그곳에 거주했던 유대인이 아니라면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할례를 받은 신자들은 왜 꾸짖지 않았는가? ⑦ 만약 고넬료 일가가 주께로 돌아온 것이 이방인 중 제일 처음 부르심을 입은 기록이 아니라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도들이 그들의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하고 그토록 놀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왜 책망을 받았겠는가?(행 10:44, 45, 11:1-3). ⑧ 오순절의 체험이 모든 신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표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피크포트는 같은 책 56-57쪽에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방언은 일시적

인 증거이다(행 2:7-8, 고전 14:22). 성경에서는 현대의 방언 체험과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방언 체험이 감정을 억제하는 힘이 결핍될 때 생기는 것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 ① 피크포트가 인용한 두 구절은 방언이 일시적인 증거임을 증명할 수 없다. ②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대해 자기가 그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했고 또 그들에게 방언 말함을 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전 14:18, 39). 이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시적인 증거가 아님을 분명히 증거한다. ③ 성경에서 현대의 방언 체험과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은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④ 바울은 결코 방언 체험이 충동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그 자신의 충동된 감정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동된 감정(방언)을 금지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란 말인가?(고전 14:18, 39). 오순절의 경험도 충동된 감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인가?(행 2:1-4).

피크포트는 같은 책 40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회 후에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이 내리기를 구하며 제단 주위를 미친 듯이 뛰놀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광경을 상기시킨다(왕상 18:22-28). 엘리야가 저들에게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간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조롱한 것처럼 나도 또한 광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우리의 주장 : ① 소위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온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그의 표현을 놓고 볼 때 그가 과연 충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 그 이전에 진실한 크리스천인지 의심

된다. ② 바알선지자의 기도의 대상은 거짓 신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광신적 행동’과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광신’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가? ③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꾀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꾀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 주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다. 필자는 피크포트와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왕밍따오(王明道)는 『성경의 빛 아래의 영적 은혜 운동(聖經光亮中的靈恩運動)』이라는 그의 저서 14쪽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시대와 같이 이적기사를 행한다거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같은 책 2쪽에서는 “방언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옛 성도들의 경험이며 오늘의 우리는 이런 경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우리의 주장 : ① 이른 비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방언을 말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이므로(행 10:44-46) 필요하다 하지 않다고 논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시대만큼 방언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사도시대만큼 성령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③ 또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므로(롬 8:9) 오늘날에는 (사도시대만큼)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④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여전히 옛 성도들이 체험한 것과 같은 방언의 체험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것이다.

2. 몸의 진동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인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인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인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주소서 하니(행 8:17-19).”

성령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몸의 진동이다. 초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시몬이란 인물이 있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는 마술사이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했던 자이다. 그랬던 시몬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이유는 주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여러 이적기사와 큰 능력을 행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좇지 않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인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은사’를 사려고 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인수했을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하실 때 방언 말하는 것 외에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외적 증거, 즉 ‘몸이 진동’하는 현상도 수반되는 것을 함의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술사 시몬이 무슨 이유로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돈을 드리며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려고 했겠는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꺾박이 있으면 그 모든 꺾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손을 펼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크고 미묘한 체험을 주셨다. 즉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다(행 4:24-31). 이때의 체험은 ‘불의 혀’,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써, 성령의 권능과 위엄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2의 오순절이라고까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모인 자리까지도 크게 진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하실 때 사람의 몸이 진동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3. 보고 들을 수 있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 제자들에게 ‘새 술이 취했다고 조롱한 사실이 있다(행 2:13).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방언하는 소리와 몸이 진동하는 현상을 목격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은 계속 말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았기에 즉시 일어나 다음과 같이 그들을 이해시켰다.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행 2:15).” 이 때 ‘제 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보통 밤에 술에 취하지(살전 5:7) 아침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은 없다. 이어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한 것이라고 증거했다(행 2:16-18).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현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증거했으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상태를 가리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라고 했다(행 2:33). 본디는 것은 그들의 몸이 진동하는 것을 본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그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들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행 2:2-3). 위로부터 내려온 이 현상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자들을 놀랐고 결코 조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지 ‘방언 말함’과 ‘몸의 진동’만 얼핏 목격한 자들은 이를 조롱했던 것이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특별히 이 두 가지뿐이었다.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이 내리셔서 오순절과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성령의 세례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냉정히 생각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를 함부로 조롱하게 된다. 이처럼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중생의 의미를 몰라서 육신의 거듭남으로 이해하여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때 예수께서는 그의 의문을 풀어주시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설명하셨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도대체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다시 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바람’이라는 상징을 통해 성령으로 난(성령의 세례를 받은) 상태를 설명하셨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3-8)”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바람’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原文)으로 ‘프뉴마(*πνευμα*: *pneuma*)’인데, 이는 ‘영(靈)’이란 단어와 동일한 자모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다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느 곳이든지 임의대로 가실 수 있으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거나 속박할 수 없는 존재이다. ② 사람의 육안(肉眼)으로는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③ 바람이 불 때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물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현상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가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몸이 진동하는 상태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들을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사도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그러하다.

제2절 방언의 효용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 14:2).”

구로자키 고우기쵸(黒崎幸吉)의 주해서(註解書)를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뿐이며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언의 효용성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설명한 것뿐이다. 방언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방언을 논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장 : 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은 반드시 따르는 증거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일 뿐, 고의로 지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② 방언을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사람을 무시한다고 여길 수도 없다. ③ 구로자키는 기도 목적의 방언과 설교 목적의 방언을 혼동하고 있다. 이것은 제3절 ‘특수한 은사’에서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만약 방언이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라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모든 신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했겠는가?(고전 14:5). ④ 기도 목적의 방언은 비록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지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으므로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각종 영적 비밀을 말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네 가지 효용이 있다.

1. 대신 간구함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27).”

‘연약’이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돕는다’는 단어는 원문으로 ‘수난티람바노(*συναντιλαμβάνω* : *sunantilambanō*)’로서 ‘함께’라는 단어와 ‘취(取)하다’란 단어의 합성어로 ‘짐을 나누어서 함께 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지혜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찾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롬 11:33). 우리는 항상 고민과 탄식과 정서적 불안에 마음이 간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아시기에 그 기도를 열납하시고 우리가 모든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것은 절대 유효하다(요일 5:14-15).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그릇된 기도를 고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새롭고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며(유 20),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엡 6:18)를 알 수 있다. 또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친밀하게 효과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다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중언부언하다가 기도를 마친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용하는 어휘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의 진실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4-15).”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기도와 오성기도(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는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2.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가 됨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고전 14:22).”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막 16:17).”

위의 말씀 중에 나오는 ‘표적’이란 단어를 일역본(日譯本)에는 전부 ‘기호(記號)’로 번역했고 몇몇 영역본(英譯本)에는 ‘싸인(sign)’으로 번역했으므로 ‘증거(證據)’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적(異蹟)’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³⁾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종의 확증하는 이적으로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요한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라고 말했다(요일 3:24). 또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낼 표적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함’을 삽입한 것은 우리에게 그 증거가 더욱 확실함을 보여준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니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실증할 수 있으랴!

성령이 강림하시던 오순절 날에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다 놀라고 이상히 여겼으나, 나중에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임을 깨닫고서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죄 사함의 세례(침례)를 받았다(행 2:5-7, 37-41). 만일 제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어떻게 실증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가 구세주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겠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행 2:32, 33).”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 15:14).”

3) 중국어 성경은 고전 14:22의 표적을 證據(증거), 막 16:17의 표적을 神蹟(기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 역자 주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를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시몬을 떠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시몬은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 빌립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고는 그도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비록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 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을 본 시몬은 사도들 앞에 돈을 꺼내들면서 그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고 싶어했다(행 8:5-19).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시몬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眞)로 돌아오려고 한 것은 주님이 빌립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시요,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겠다고 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3. 자기의 덕을 세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고전 14:4).”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일역문어체(日譯文語體)에서는 “자기의 덕성을 건립한다”라고 번역했고, 일역구어체(日譯口語體)에서는 “자기의 덕성을 높인다”로 번역했으며, 여씨역본(呂氏譯本)에서는 “자기를 세운다”로 번역했

고, 흠정역(欽定譯)과 영국개정판(改定版)에서는 모두 “자기를 계발하다(ediffeth himself)”로 번역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말하게 되는 방언은 지상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어라는 것이다. 땅에 속한 언어는 ‘사람의 덕성을 높이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어떤 이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은 본말(本末)이 전도되어 스스로를 속이는 말에 불과하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다. 이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몹시 분주했고, 그녀는 주님이 동생에게 권고하여 자신을 좀 도와주도록 말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가장 좋은 복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눅 10:38-42).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고, 마르다가 분주히 주님을 대접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다. 주님을 섬겨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나 사실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운다고 하면서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의 덕을 세운 사실을 알고 있다(고후 12:15, 골1:24).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자기의 덕 세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고 남에게도 역시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남의 신앙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롬2:19-24). 이것이 ‘스스로 먼저 이룬 후에 남을 이루게 하고, 스스로 먼저 선 후에 남을 세우는’ 원리이다.

구로자키 고우기씨(黒崎幸吉)는 그의 주해서(註解書)에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후자(後者)를 선택한다.” 즉, 자기의 덕 세움만을 생각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의 덕 세움을 생각해서 예언을 말하는 은사를 구하는 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우리의 주장 : 고린도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하면 구로자키의 견해는 정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의 관점으로 말해서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린도교회는 방언설교의 특수 은사에만 매달렸고 예언하는 은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②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의 기초이며 교만과 분열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 이어서 14장을 기록한 중심 내용은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덕만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었다. ③ 이것은 방언의 은사가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은사보다 한 걸음 더 진보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다. 고린도교회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방언을 말함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④ 고린도교회는 성령이 친히 설립하신 교회이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세속적인 교회가 고린도교회가 소유했던 방언의 은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교회가 이를 가볍게 취급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든 혹은 교회든 고린도교회보다 더욱 영적이고, 우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는 증거이므로 성령이 없는 교회들은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시길 구하고 그 이후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이다. ⑤ 이와 같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

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는 구로자키의 지적은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곧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본말을 전도시키며 자신과 남을 속이는 주장이겠는가?

4. 교회의 덕을 세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고전 14:26-28).”

방언은 본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이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전 14:2).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고전 12:10)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신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내용에서 발견되듯이 고린도교회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나타났었으니 만약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아마도 교회에 큰 덕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회중에게 방언으로 말해서⁴⁾ 큰 혼란을 야기했다.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전 13:4, 5, 10:35). 그런데 혼란한 고린도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서 이탈되어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4) 마치 설교하듯이. 역자 주.

이를 바로 잡아야만 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의 그릇된 관념을 바로잡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도록 지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고전 14:26, 5, 13).”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언의 은사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가치 있고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으니 헌신짝처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방언의 은사도 통역의 은사가 따르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니 이는 예언의 은사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집회 질서를 확립하고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예로 들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① 예언을 할 때의 인원수(人員數)는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어야 하며 이 숫자를 초과하지 말 것, ② 순서는 서로 차례를 따라 할 것이며 두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지 말 것, ③ 방언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회중 앞에서는 잠잠할 것, ④ 그러나 이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하고 집회에 참가한 회중을 향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고전 14:27, 28).

제3절 특수한 은사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방언을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이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비록 방언이 없어도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언이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백한 사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은사 가운데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증거라는 사실이다(행 10:44-47).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의 바른 뜻을 곡해하여 논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그들은 ‘보편적 은사’와 ‘특수한 은사’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소위 ‘보편적 은사’나 ‘특수한 은사’는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잠시 이 표현을 차용해보자.

쑤더성(孫德生)은 『측량할 수 없는 성령(無量的聖靈)』의 85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읽어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제일 작은 은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방언의 용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별히 추구할 필요가 없다. 만일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특별한 표식이라면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큰 은사이므로 절실히 구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도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했다(고전 14:19). 게다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는 반문까지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씀에 함축된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 : ①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제일 작은 은사로 인식되고 있는 ‘방언을 말함’은 ‘방언 통역’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10절, 31절). 이것은 설교에 방언이 동원되는 특수한 은사이다. ‘특별히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말함’도 역시 ‘방언 통역’과 함께 언급되었고(26절-28절), 이것도 설교에 방언이 동원되는 특수한 은사이다. 이 은사는 통역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②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별한 표식이다. 다만 활용 면에서 ‘보편적 은사’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내용과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결코 상충(相衝)되는 내용이 아니다. ③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므로 마땅히 간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회 시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언을 폐할 수 없다(고전 14:5, 12-13). ④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요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 기업을 상속할 증거를 받은 것이다(엡 1:14).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엄격히 말해서 예언(혹은 말씀 선포)할 자격도 없다고 보는데(요 20:21-22, 롬 10:15), 더욱 큰 은사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⑤ 바울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은 ‘교회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고전 14:19). 다시 말하면 특별히 집회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씨역본(呂氏譯本)에는 “교회에서”라는 말이 “집회 가운데”로 번역되어 있다. 집회의 목적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있는데,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면 일만 마디를 한다고 할지라도 남의 덕을 세우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에,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⑥

이것은 방언을 설교용으로 활용하는 ‘특수한 은사’의 경우를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활용하는 방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전 14:15, 18-19)”라는 말이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런 모순을 느끼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⑦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반문할 때의 방언은 바로 ‘방언 통역’과 함께 활용되는(고전 12:3)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설교로 활용되는 방언’은 특수한 은사이므로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수한 은사와 보편적 은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은사는 영에 속한 각종 은사 중 하나이며(고전 12:8-10), 보편적 은사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반드시 따르는 증거이다. ⑧ 모든 성도는 다 깨달은 마음(悟性)으로 기도할 수 있으나 모든 성도가 다 깨달은 선지자 수준의 마음으로 설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나 다 방언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크포트는 그의 저서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의 3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증거(방언을 말함을 가리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설명 중 바울이 방언을 말함을 은사의 하나로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13장에서는 오히려 ‘방언도 그치고’라고 말했다(고전 13:8). 그는 13장에서 그 당시에 벌써 방언이 점차로 폐해지고 있음을 가르쳤고 아울러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로 결론을 지었다(고전 13:13).”

우리의 주장 : ① 방언을 말하는 증거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늘 따르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

의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밝혔고, 방언을 말함을 금지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전 14:18, 39). ② ‘방언도 그치고’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미 방언이 폐해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치게 될 것이라고 미래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③ 그 때가 되면 왜 방언이 그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만난 후에는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자신의 덕을 세울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④ 그 때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과 지식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의 모든 은사는 유한(有限)한 것이며 완전하신 분(그리스도)이 오시면 유한한 것들은 무(無)로 돌아가기 때문이다(고전 13:8-12). ⑤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로 모든 은사가 중요하며 더 진보되고 더 완전해지고 있다. 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며 결코 무(無)로 돌아가거나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 가장 큰 가치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本質)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방언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방언의 은사가 이미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

피크포트는 같은 책 56쪽에서 또 “방언 문제를 다룰 때는 바울이 그것을 제한이 있는 열등한 은사라고 가르쳤다”라고 기록했다.

우리의 주장 : ① 열등한 은사로 표현된 방언은 모두 ‘방언 통역’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고전 12:8-10, 30, 14:26-27), 이는 방언으로 설교하는 특수한 은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과 성령 받은 증거의 방언을 혼동하면 안 된다. ② 은사란 원래 우열(優劣)이 없으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은사도 버릴 만한 것이 없다(고전 12:7-11, 29, 30). 그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귀천이 없이 모두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도우며 온몸이 자라도록 이바지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도 멸시해서는 안 되는 원리와 같다(고전 12:14-22, 엡 4:16). ③ 바울이 비록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했으나 한편 방언을 말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데(고전 14:1, 18, 19), 어찌 방언을 열등한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설령 방언이 열등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필요 없다고까지 말할 수 없고, 낮은 단계의 은사를 받고 난 후에야 더 높은 단계의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④ 가장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이 은사조차도 받지 못한 성령 없는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더 큰 은사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⑤ 제한이 있는 방언은 설교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 정도가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특수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다(고전 14:27).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이 있는 것이 곧 성령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방언을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12장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방언 설교의 특수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② 방언 설교의 특수한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랑이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방언을 말하지도 못하는 일반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③ 또 이것은 사랑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사랑만 있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바깥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랑을 품고 있다면 더욱 좋다는 의미이지,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1. 고린도전서 14장의 정의(正意)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은사 가운데 하나요, 성령을 받았다고 반드시 따르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그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14장에서는 ‘보편적 은사’와 ‘특수한 은사’라는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진위(眞僞)가 뒤바뀌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 혼란을 느낀다. ‘보편적 은사’로서의 방언이란 기도할 때에 말하는 방언을 가리키며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방언으로 기도한다(14절)’, 또는 ‘영으로 기도한다(15절)’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며 사람에게 하지 않으므로(2절)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한다. 또 이는 통역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보편적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도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로 인식되었고(행 2:4, 10:44-46, 19:6), 이 은사가 없으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보편적 은사’로서의 방언은 영으로 각종 비밀을 말하고(2절), 자신의 덕을 세우며(4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다(22절). 따라서 우리는 이 ‘보편적 은사’로서의 방언을 ‘특수한 은사’로서의 방언과 혼동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또 가장 열등한 은사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특수한 은사’로서의 방언은 집회 시 회중들에게 하는 방언으로서 그 효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27절). 고린도교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 회중에게 방언으로 말해서 집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바울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바로잡아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에만 회중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하도록(설교하도록) 권고했다. 그 몇 가지 근거는 ① 예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통역자 없이 회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방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4-5절). ② 방언만 말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은 회중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6절). ③ 악기(樂器)에서 나는 소리가 높낮이, 강약과 장단이 분명해야 듣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알 수 있다(7절). ④ 전쟁터에서 나팔 부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8절). ⑤ 통역의 은사 없이 방언으로만 회중에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허공을 향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9절). 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는 다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면 그 듣는 상대방을 야만인으로 만드는 것이다(10-11절). ⑦ 교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남을 가르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19절). ⑧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미쳤다고 생각하게 된다(23절). ⑨ 집회시에는 남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26절, 12-13절). ⑩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란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질서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32-33절).

이와 같이 ‘특수한 은사’로서의 방언은 성령의 각종 은사 가운데 하나이며,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요(고전 12:8-11),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울은 이 방언의 특수한 효용을 설명할 때 기타 다른 은사들과 통역하는 은사와 더불어 언급함으로써 ‘보편적 은사’로서의 방언과의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있다(고전 14:26-27, 12:10, 28, 30).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점을 소홀히 여겨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자기 본연의 위치를 잊고 다른 성도를 멸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고전 12:30). 이와 같은 은사를 활용할 때는 통역이 따라야 하는 조건과 더불어 교회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질서에 유의하라는 것은 ①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말해야 하고 ②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차례대로 말해야 하며 ③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회중에 대해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27-28절).

지금까지 언급한 ‘특수한 은사’로서의 방언 이외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한 은사’로서의 방언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의지대로 말할 수 있는 은사지만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말하는 경우는 성령께서 꼭 필요한 상황에 그 사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참고 욥 32:17-22, 렘 20:9). 따라서 이 때의 방언 설교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다른 누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집회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말을 하던 자는 잠잠하고 계시를 받은 사람만 말하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있으며 남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30-31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만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운 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32-33, 40).”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집회의 질서를 잘 지켜서 타인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다(26절).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내리는 지침 때문에 방언을 경시(輕視)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게 말라(29절)’고 했던 것이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내가 영으로 기도하고……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14-15절, 18절)”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바울 사도는 결코 방언을 경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언더(胡恩德)의 『영적 은혜의 문제(靈恩問題)』 7-8쪽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영은파(靈恩派)의 소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다수의 신도들은 항상 집회시에 혼란한 상태를 보인다. 즉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영의 노래라는 것을 부르기도 한다. 그보다 좀 나은 것은 동시에 집회시 다 같이 방언을 하거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광경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집회시 일제히 방언을 말한 흔적은 없으며 단지 두 세 사람이 차례를 지켜 말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도 통역이 있을 때 한해서만 말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어지러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안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장 : ① 인위적으로 크게 고함지르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 ② 바울은 분명히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고 했으며 신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엡 5:19, 참고 골 3:16)’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의 노래(靈歌)를 부른다고 이를 가리켜 혼란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③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은 두 세 사람이 차례를 지켜 말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말하라고 한 것은(26, 27) 특수한 은사로서의 방언을 가리키는 것이지 보편적 은사로서의 기도의 방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고 오성기도(悟性祈禱 :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는 사람 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데,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사람 수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④ 바울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한 동기는 고린도교회가 집 회시에 통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중을 향해 방언을 말함으로써 무질서했 기 때문이다. ⑤ 후언더는 ‘혼란상태’에 대해 비판했고 ‘그나마 나은 일제히 하는 방언’도 비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방언 기도할 때 두 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말한 것은 방언으로 설교하려는 것에 관한 것이며, 방언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 방언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방언 말 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전 14:39).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 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전 14:45).”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낫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 말씀을 내세워 방언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의 주장 : ①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하나 자기의 덕은 세운다. 예언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우월하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은사만 추구하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②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 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그것보다 예언을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I would that ye all spake with tongue, but rather in order that ye prophesied.)”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 ③ 만약 방언에 통역이 따르면 그것은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의식이 있는 상태의 말로 전달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다. ④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교회의 집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었다(40절). 즉,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통역도 없이 마구 방언으로 설교하려고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한 상황을 야기시켰다.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보면 방언의 은사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2. 오순절의 경험

‘오순절’은 50번(五旬)째 날이라는 뜻의 ‘수확의 절기’이다. 즉 유월절을 지낸 후, 무교절의 첫날부터 계산하여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레 23:15-17). 이 날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로써, 절기가 임박하면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가득 찬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그들은 고국을 떠나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간다. 과거부터 선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신약시대에 방언을 말하게 하는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 오순절 절기에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던 그리스도가 최초로 성령으로 강림하셨다는 이 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흥분시켰다. 그 후 이 날은 특별한 날이 된 것이다.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결코 강림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요 16:7, 행 2:33). 또 이 절기에 성령이 내린 것은 만민을 구원할 복음 전파의 방법의 과정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였다. 단 하루 사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절기 이후에는 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돌아가 온 세계에 두루 전파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절기를 성령 강림의 날로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신묘한가!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사도행전 2장 1-13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분명 이 지상의 언어들이다. 지상의 각 나라 지방 언어였기 때문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고향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소위 방언과 사람들의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것은 오순절의 경우와는 분명 다르다.”

우리의 주장 :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말한 방언의 경우 비록 사람들이 알아들었지만 지상의 각 나라 지방 방언이 아니며 오늘날 본회의 현상과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방언’(4절)이라는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제자들이 마치 각 지방,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말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는데, 단지 성령이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나라의 지방 언어로 알아듣게 하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경험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동시에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의 경우 그 소리가 뒤섞여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 1:15) 성령의 충만을 입고 다 방언을 말했다면 그 소리는 꽤 시끄럽고 혼잡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난 곳의 언어(약 15개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11절).

셋째, 유대인들 중 경건한 사람들만이 자신이 난 곳의 말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반면(5-8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13절). ‘어떤 이들(13절)’을 그리스어 원문과 일역구

어체(日譯口語體)에서는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으며, 여씨역본(呂氏譯本)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 번역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과는 달리 조롱하는 무리들이 달리 반응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제자들이 말했던 것이 일반적인 지상의 방언이었다면 경건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넷째, 하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사도들이 말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셨다. 그 결과 그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여 주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았다(37-41절). 이 기적에 대해 구로자키 고우기쥬(黒崎幸吉)는 그의 주석서에서 여덟 가지 견해를 소개했는데, 그 중 여섯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몸에 기적을 행하셔서, 본래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말을 모국어로 들리게 하셨다.” 구로자키의 이 견해가 정확하나 그는 이 견해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다섯째, 방언 통역의 은사는 성경에서 특수한 은사 가운데 한 가지 은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신다(고전 12:10-11, 30, 14:26-2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잠깐 동안만 이 은사(방언 통역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일시적으로 방언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러한 은사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속적인 은사와는 다르다.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할 때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은 것도 이 같은 종류의 은사이다(행 10:44-46).

쑤더성(孫德生)은 『측량할 수 없는 성령(無量的聖靈)』의 84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오순절에 방언을 말한 것에 대해서 알아들은 사람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광경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피크포트는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의 17쪽에서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각 나라의 언어이며, 이것을 통해 각 나라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행 2:6-11).”라고 기록했으며, 또 55쪽에서는 “오순절 성령 세례의 특징 안에는 현대 방언의 어떠한 체험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기록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에 대해 구로자키 고우기씨는 그의 주석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황홀한 상태에서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한 것이며, 이것을 외국인이 듣고 알아듣게 되었다.” 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오순절 이후 고린도 지역의 교회라든지 기타 장소에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오순절과 같은 특별한 현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성령 강림이 항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 오순절 시절에 종료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특별한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을 성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의의를 오해한 것이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에 언급된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자들이 오순절 때 말한 방언은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각국의 외국어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광경은 성경에 단 한번 기재되었을 뿐 그 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② 현대의 방언 체험은 오순절 성령 세례의 특징과는 완전히 다르다. ③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황홀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다. ④ 오순절의 현상은 중복되지 않는다. 성령 강림은 항상 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런 현상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의의를 오해한 것이다. 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주장 : ① 제자들이 오순절 때 말한 방언은 결코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며,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일시적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외에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을 받을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동행했던 할례 받은 제자들은 다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행 10:44-46). ② 오순절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방언을 말함이었으나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의 난 곳 언어로 알아들었는데, 오늘날의 방언 체험에서도 유사한 광경을 발견할 수 있다. ③ 제자들은 방언을 말할 때에 의식이 또렷해서 놀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5-8절, 13-15절). 황홀경의 상태에서 한 말이 결코 아니다. ④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반드시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만(행 10:46) 방언은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전 14:2). 에베소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성경에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행 19:1-6). ⑤ 성령 강림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했다(행 2:38),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롬 8:9). ⑥ 성령 강림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 다섯 차례(행 2:4, 8:17, 9:17, 10:44, 19:6)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난 유일한 사건은 아님을 증명한다. ⑦ 구로자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때 방언의 내용을 듣고 이해한 것을 ‘특별한 기적’으로 여긴다면 이것은(방언을 듣고 이해한 내용이 없는 것을 성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 역자주) 잘못된 견해이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방언 말함’만을 가리킨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방언이 없는 것을 성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 역자주)이기 때문이다. ⑧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만 계신다. 자신과 남을 속여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할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순절, 이른 비 성령 시대의 방언 통역의 역사는 오늘날 늦은 비 성령 시대에도 역시 존재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는 형태는 최소 여섯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마치 모국어를 듣는 것처럼 방언의 뜻을 한 마디씩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는 오순절의 현상과 동일하다. ②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을 다 들은 후 그 내용대로 지시를 받는 경우이다. ③ 방언을 다 말한 후에 모든 내용을 낱낱이 통역하는 경우이다. 단, 방언을 말할 때 그 뜻을 알지 못한다. ④ 자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자신이 그 내용을 통역하는 경우인데, 방언 한 마디를 마치면 곧 통역 한 마디를 마치는 형태이다. 방언을 말할 때는 그 뜻을 모르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역의 말이 나온다. ⑤ 방언으로 말하는 자신이 그 뜻을 알고 또 성령께서 누구를 감동시켜 통역하게 하실 것도 역시 이는 경우이다. 그 사람이 일어서서 통역하는 말의 내용과 자신의 마음 속에 계시 받은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⑥ 방언으로 말하는 자신은 그 뜻을 모르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통역하게 하신다.

본회의 방언 통역 체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타이완성 타이쑹현 허핑향 보아이촌(臺灣省臺中縣和平鄉博愛村)의 리령교회(裡冷教會)의 천아꾸이(陳阿貴) 형제가 1959년 7월 26일 갑자기 과상풍에 걸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병원의 세 명의 의사는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그는 치료를 포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온 교회도 그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그런데 린치우쥬(林秋菊) 자매가 타이야얼화(泰雅爾話, 타이완 산지족인 타이야얼족의 언어)로 방언을 통역하여 “이 가정에 죄가 있다”고 했다. 기도 후 성도들은 즉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 기도하였으나 아무런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린자매가 다시 방언 통역의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으니 즉시 그를 쫓아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

에 조사해 보니 사실이 그러했다. 성령의 뜻을 순종한 회중은 즉시 그 범죄자를 쫓아내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천(陳)형제의 호흡이 순조로워지고 안색도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린자매에게 다시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천형제에게 “당신의 병이 이제 곧 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형제는 그 전까지는 몸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한 상태였으나 그날부터 죽을 먹을 수 있었고, 닳새 후에는 일어나 앓을 수 있었으며, 오래지 않아 홀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세 차례의 방언 통역의 은사 체험은 모두 린치우쥐 자매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자신이 통역한 것이다.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에는 자기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1927년, 본회가 처음 타이완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귀빌레몬(郭腓利門) 장로가 경영하는 운수회사 2층에 타이쥬교회(臺中教會)가 설립되었다. 당시 목회자 수가 극히 부족했으므로 타이쥬교회는 설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목회자가 이를 지도했다. 어느 안식일 오후 집회 때 양꾸이쵸(楊貴川) 형제가 설교할 차례였다. 그가 집회를 끝내는 마지막 기도 후 강단을 내려오려고 할 때 갑자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첸아벨(錢亞伯) 집사를 향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또렷했는데, 그는 손가락으로 첸집사를 가리키며 격한 어조로 책망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방언의 말을 마치자 첸집사는 스스로 일어나 방언을 통역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내가 들은 말은 푸저우말(福州語,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남쪽 해안에 있는 푸젠성에서 쓰이는 사투리, 민(閩)방언이라고도 한다. - 역주)이며, 그가 지금 나에게 ‘네가 지금 타이완에 있으나 마음은 고향에 있다. 너는 전심으로 타이완에서 전도하라’는 내용이었다.” 첸집사는 원래 푸저우(福州)사람으로, 그 당시 고향을 너무 그리워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마음조차 서지 않았다. 그는 책망을 받고 나서야 깊이 통회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전심전

력으로 성업에 힘쓰게 되었다. 기이한 것은 양형제는 타이완 사람이기 때문에 푸저우말은 알지도 못한다(중국의 사투리는 비록 동일한 한자를 쓰고, 어법체계도 매우 유사하지만, 말로 받을 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 역자주). 양형제가 첸집사를 향해 한 말은 회중이 들을 때는 분명 방언이었는데, 성령께서 첸집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푸저우말로 알아듣게 하심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깨달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어느 날 저녁 황기드온(黃基甸) 장로가 집회를 맡았다. 집회가 끝난 후 회중들이 성령을 구할 때, 양꾸이촨(楊貴川) 형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 속으로 자기가 말하는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 그가 말한 방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분명했고 마음 속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 통역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기도가 끝나기까지 통역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서도 감히 일어나 통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때 양형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말한 방언의 내용은 형제 중 한 분이 통역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용감히 일어나서 통역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양촨(楊泉) 형제(양꾸이촨의 아버지)가 일어나 통역하기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말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양촨 형제가 믿음이 약해져서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문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체험을 주셨던 것이다.

몇 개월 후 어느 날 밤 집회가 끝난 후 회중들이 성령을 구하고 있을 때에 청웨이교회(淸水教會) 차이모황(蔡謀煌) 형제가 들어왔다. 성령께서 양꾸이촨 형제를 통해, 양형제가 스스로 말한 방언을 통역하여 회중에게 “너희 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차이모황 형제가 일곱째 계명을 범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곧 제명 처분되었다. 이 체험의 목적은 주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다.

1947년 한국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신도수는 적었고 전문 사역자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회중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영적 양식에 주려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파의 이단을 바로잡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김천교회 백인덕 자매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그 해 9월부터 몇 년간 그녀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계속 나타나서 교회의 덕을 세웠고 교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기까지 그 은사는 계속되었다. 그가 방언을 통역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방언으로 설교하는 어조로 변한다. ② 먼저 방언으로 말하고 끝나면 한국말로 통역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③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자기가 그 내용을 통역하였는데, 방언을 말할 때는 뜻을 모르지만 통역할 때 자기가 말한 방언의 뜻을 깨닫게 된다. ④ 통역할 때에는 느리지만 한 마디 한 마디씩 또렷한 발음으로 말하게 된다. ⑤ 통역하는 과정은 성구의 내용과 장절(章節)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먼저 성경 구절의 내용을 말하고 뒤이어 그 장절을 통역하였다. ⑥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그녀가 통역한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 보았더니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그런데 방언을 통역한 그녀는 정작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⑦ 통역한 내용은 매번 그 당시 교회의 상황에 매우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체험했던 몇 가지 내용이다.

1947년 9월 배상룡 형제와 박창환 형제는 김천장로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모 장로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였다. 백인덕 자매가 교동(校洞)의 한 산(山)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도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이 때 백자매에게 방언 통역이 나타나기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9-12)”라고 하였다. 홍종배 형제는 즉시 산을 내려와 배형제와 박형제에게 연락하고 함께 그 교회 장로에게 “참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 사람들의 거절을 받으신 것처럼 참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참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전도하였다.

1949년 2월에는 김천교회 부근에 있는 냇물에서 세례(침례)식이 있었다. 세례(침례)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 백자매에게 방언 통역이 나타났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요(골2:11-13).”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세례(침례)를 받으면 확실히 죄가 사해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며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상룡 형제는 한국교회에 첫째로 뿌리내린 씨앗이었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본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1945년 1월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편으로는 열심히 전도하고 한국 교회 건설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 1951년 전도의 일을 접고 사업 경영에만 힘을 썼는데 2년 후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부채까지 안게 되어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길가에서 기도하며 우연히 시편 94편 12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크게 감동을 받고 눈물로 통회했다. 반 년 후 백인덕 자매에게 방언 통역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말씀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1:6-9).” 배형제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었다.

김천교회 박창환 형제는 불손한 마음을 품고 여신도를 대하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했다. 1953년 어느 날(배상룡 형제가 성령의 지시로 위안을 받은 날과 같은 날) 백자매에게 방언 통역이 나타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1-14).” 그러나 박형제는 듣지 않고 절실히 회개하지 않고 지내다가 3년 후 일곱째 계명을 범하고 제명당하게 된다.

■ 제 10 장 ■

성령의 감동

1900년 늦은 비 성령이 미주(美洲)에 강림하셔서 세계 각국은 오순절 운동의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 교회들은 천여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의 물결이 호수 전체에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과도 같았다. 성령이 없던 일반 개신 교회들에게 이 사건은 확실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의 시험이었다. 활발한 성령의 역사와 부르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금석(試金石)이 되었다. 그들 중 오랫동안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에 주리고 목말랐던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너도 나도 참교회로 돌아와 한 무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요10:16). 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롱하고 훼방하며 심지어 이곳 저곳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참교회를 파괴하려 했다. 그 원인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세례로 오해하여 자가당착에 빠진 것에 기인한다.

제1절 일반적인 그릇된 관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고 저주한 적이 없었으므로 성령이 자신들 속에 거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감동’이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는 결코 아니다(요14:16, 17).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령의 감동만 받은 사람이 성령의 내주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사도들이 내려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행8:12-17). 이미 믿고 있었던 에베소의 제자들의 경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었다(행19:1-6).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행19:1-6).

웨이슬로프(F. WiSloff)는 『내가 믿는 성령(王懷仁 主永生 共譯)』이라는 저서의 329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신도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만약 없다면 누가 그를 깨우쳐 주며 누가 죄를 깨닫게 하며 누가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겠는가?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주장 : 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행8:12-17) 에베소의 제자들의 경험은(행19:1-6) 이런 주장을 부정하게 한다. ② 이들은 세례(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미 충심으로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이 저들에게 안수하기 전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사람을 깨우치고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는 일은 모두 성령께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감동의 역사일 뿐이지 성령 받은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웨이슬로프는 같은 책의 330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린도교회의 신도들은 비록 충분히 알지 못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속에 거하셨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미 성령 받은 사실을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 : ① 사마리아 성의 신도들이 세례(침례)를 받은 이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직 성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가 그들 위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마술사 시몬은 이를 직접 목격하고는 신기함을 금치 못해 그 즉시 돈을 내어 사도들에게 은사를 사려고 했다(행8:12-19). ②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그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도들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성령

을 받은 줄 알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줄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령했다(행10:44-48).

③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이 때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바울은 그들이 받았던 세례가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곧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인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했다(행19:1-6).

④ 이처럼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하면 자신도 또 타인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어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자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결을 지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바울은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경고했다(고전3:17).

웨이슬로프는 같은 저서(同書) 347쪽에서 “당신의 마음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장 :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마음의 찢림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해 양심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의 양심이란 율법의 작용으로 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며(롬2:14, 15),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롬7:21-24). 둘째, 성령의 감동으로도 사람이 자기 죄를 자책하고 마음의 찢림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추구하고, 나아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도 한다 (행2:37-38, 41). 위의 인용 구절에서 바울의 고백(告白)이나 사도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간구는 다 성령을 받기 전의 일이다. 따라서 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고 이를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왕명도(王明道)는 그의 저서 『성경의 빛 가운데 영의 은혜 역사』 15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경건히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이 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들 모두가 다 방언을 하지 않았으니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주장 : ① 경건히 주를 사랑하는 성도와 심신을 바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면 비록 방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야 말로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경건히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성령의 내주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② 예를 들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의 종이 그에 대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행10:1-2, 22). 이 표현대로라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을 구제하는 일로 고넬료를 따를 사람이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방언을 말한 후에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았다(행10:44-46). ③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주의 도를 배워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가르친 자이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행18:24-28).

그는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목회자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쿨라를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추정된다(마3:11, 요1:32-33, 행2:33).

제2절 각 시대의 성령 감동의 역사(役事)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시종일관 성령의 감동 역사(感動役事)였다.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얼마나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 이제 각 시대의 성령 감동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세례(내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1.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셨다(창2:16, 17).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나님은 비록 많은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지만 단 한 사람만을 창조하셔서 경건한 후예를 얻고(말2:15)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롬5:12) 인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했으며, 점점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창4:8, 19-24, 6:1-4). 그러자 하나

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창6:3)”라고 말씀하셨다. 일어 성경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쟁론치 않으리니 그도 육에 속했음이라”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역본(흠정역)도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that he also is flesh”라고 일어 성경과 같은 맥락에서 번역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쟁론치 않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도 육에 속했음이라’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늘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순수한 길을 지키도록 인도 하셨는데,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같은 길을 가자 다시는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으시고 정욕의 방종 가운데 내버려두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 감동의 역사(感動役事)는 보편성(普遍性)을 벗어나 특수성의 성격을 뜻하는 시기로 전환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택하신 자를 감동시키셔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1) 선지자를 감동시킴

성경에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고도(느9:30)”라고 하셨고, 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라고 하셨다(벧후1:21). 구약시대에 성령 감동의 역사 중 가장 뚜렷하고 보편적인 것은 역대(歷代)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민들에게 전달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었다(삼상3:21).

예 : ①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백성을 인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게 하셨다(참고. 민10:16, 17). ② 엘리야를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게 하셨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셨다(왕상18:21-40). ③ 엘리사를 감동시키셔서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게 하셨다(왕하2:9-15). ④ 미가야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달하지 않게 하셨다(왕상22:13-23). ⑤ 아사랴를 감동시키셔서 그가 아사왕과 백성을 이끌어 가증한 물건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단을 중수하게 하는 한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좇을 것을 약속하게 했다(대하15:1-15). ⑥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셔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격려를 받고 용감하게 적과 맞서게 했다(대하20:14-19). ⑦ 이사야를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하셨다(행28:25-27). ⑧ 예레미야를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건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셨다(렘20:7-10). ⑨ 에스겔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패역을 꾸짖고 악행을 멀리하게 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겔 2:1-7, 3:16-21). ⑩ 다니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벽에 쓰신 글을 벨사살왕에게 해석하도록 해주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단5:5-31). ⑪ 미가를 감동시키셔서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게 하셨다(미3:8).

(2) 사사를 감동시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지에서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의 악한 풍습을 좇아 패역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여 거룩히 구별된 선민의 삶을 상실하고 말았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을 징계하시어 철저히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방인들을

일으켜 그들을 침략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으로 사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예: ① 여호와와 신이 웃니엘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십 년간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다(삿 3:9-11). ② 기드온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게 하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사십 년간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다(삿 6:34-35, 7:19-25, 8:28). ③ 입다를 감동시키셔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붙이셨고, 이십 개의 성(城)을 공격하게 하였고 암몬 사람을 항복하게 하셨다(삿 11:29-33). ④ 삼손을 감동시키셔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게 하였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이게 하셨다(삿 14:5, 6, 15:12-18).

(3) 제사장을 감동시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데, 이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기와 선민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죄를 사해주시도록 하는 것이었다(레1:3-9, 히5:1-3, 9:6-7).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율과 같은 족장의 시대에는 그들이 담당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렸다(창8:20, 22:13, 26:25, 33:18-20, 율1:5). 그런데 율법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론의 가문에서 이 직분을 담당했고 이는 자자손손 세습되었다(출29:9, 29, 40:12-15, 민25:11-13). 성령께서 제사장을 감동시키신 일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처럼 많지 않고 오직 한 곳에 기록되어 있다. 스가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죽었다(대하24:20-22).

(4) 왕을 감동시킴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시작으로 왕정시대를 열었다(삼상9:17, 10:1).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다. 그런데 그들이 열국(列國)과 같이 왕의 통치를 요구한 원인은 ①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탐욕에 끌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일과(삼상8:1-5) ② 외적의 침입으로 크게 생활의 위협을 받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삼상8:7, 12:12-18).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버림을 받은 후(삼상13:8-15, 15:10-23) 하나님께서는 다시 합당한 인물로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다(삼상16:1-13). 다윗이 연로했을 때 그는 제사장 사독에게 아들 솔로몬을 기혼에 불러들여 기름을 붓고 왕위를 계승하도록 분부했다(왕상1:28-40). 이 때부터 왕위는 세습제(世襲制)가 되었다. 만년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은 늙은 신하들의 진언(進言)을 무시하여 왕국이 분열된다(왕상11:1-13, 12:1-20).

이스라엘 왕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건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의 경우처럼 많지 않아서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는 기록이 훨씬 많다. 사울에 관한 내용은 ① 그가 선지자들처럼 신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삼상 10:6-10). ② 그가 여호와와 신에 감동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하셨다(삼상11:1-11). 다윗에 관한 내용은 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자 즉시 신에 감동되었다(삼상16:13). ②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이 되시며 백성들을 한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다(삼하 23:1-5, 참고. 시89:20-29, 겔37:24-38). ③ 그를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양

식을 지시하셨고, 다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게 하셨다(대상28:11, 12). ④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원수를 이기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마22:42-44, 시110:1). ⑤ 그를 감동시키셔서 훗날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사건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다(행1:16, 시41:9).

(5) 기타

구약시대의 성령 감동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사사, 제사장, 왕 외에도 지도자, 용사, 택한 백성 가운데에도 있었다.

예: 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땅에 임할 큰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창41:25-32, 37-41). ② 옷 만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론을 위해 정교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다(출28:2, 3). ③ 브사렐을 감동시키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나무 등의 재료로 회막과 각종 성기(聖器)를 제조하게 하셨다(출31:2-5, 35:30-33). ④ 이스라엘 백성 중 칠십 인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게 하였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말하게 하셨다(민11:16, 17, 24, 25). ⑤ 엘닷과 메닷이 진(陣)에서 예언하게 하셨다(민11:26-29). ⑥ 여호수아를 감동시키셔서 모세와 같은 존귀와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민27:15-20, 신34:9). ⑦ 삼십 인의 두목 아마새는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귀속되어 충성을 다하게 하셨다(대상12:18). ⑧ 유대인들이 히스기야왕과 방백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일심으로 지키게 하셨다(대하30:12). ⑨ 엘리후로 하여금 사람의 낮을 보지 않고 옳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셨다(욥32:15-22).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세례는 비록 동일한 한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다른 특징이 있다. 성령 감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이 어떤 사명을 완성해

야 할 때 일시적으로 임하시며 사명을 완수하면 떠나신다(겔3:22, 24, 37:1).
 ② 사람이 생사의 문제에 패념치 않을 만큼 큰 용기를 발휘하게 하지만 사명이 완수되면 떠나셔서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간다(왕상18:17-46, 19:1-14). ③ 하나님의 종이 되며(呂譯本. 롬8:15)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증명케 한다(겔2:1-3). ④ 방언을 말하지는 못한다.

반면 성령 세례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요14:16-18). ②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지속적인 힘을 주셔서 범사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행4:19, 20, 5:40-42, 롬8:2, 갈5:16, 엡3:16, 빌4:13). ③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며 반드시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신다(呂譯本. 롬8:15-17). ④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呂譯本. ‘혀 소리’ 행2:4, 10:44-46, 19:6).

구약시대에는 필요시 성령께서 선지자, 사사, 제사장, 왕들을 감동시키셔서 선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여러 차례 다시 부흥하게도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부패되어 구원할 방법이 없고(렘17:9, 13:23) 바른 마음을 오래 유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모든 선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근본적으로 바뀌놓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이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역대(歷代)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바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만민의 마음 속에 부어주셔서 율법을 그들의 마음 판에 새기신다고 했고(겔36:26-27, 렘31:31-34),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종족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했다(을2:28,-29, 갈3:28).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던(민11:29) 그 소원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2. 이른 비 성령이 임하시기 전

이른 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류는 새 시대의 개막을 맞았고(막1:14-15, 요 4:21)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이 완성됨으로써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요 1:17). 이 시기에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바로 역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인류의 구속자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실 것인지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

(1) 예수의 강생에 관하여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고지를 받은 후, 사가라의 집을 찾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그녀의 뱃속의 아이가 뛰놀며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 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라고 말했다(눅1:30-45).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태이를 가리켜 ‘주’라고 호칭하고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동기는 그녀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눅1:46-55).”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한 동기도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온 일임을 알 수 있다.

(2) 예수의 공적에 관하여

세례 요한의 출생 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요한과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공홀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활을 인함이라 이로써 돌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눅1:67-79).” 사가랴가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 또 아들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예언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

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자였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 부모가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시므온은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했고, 또 이어서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라고 말했다(눅 2:25-35). 이처럼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곧 자기가 항상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일,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한 일,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일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 예언한 일 등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안나라는 이름의 여(女)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팔십사 년이 지난 처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그 때에 그녀가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관한 일을 말했다(눅2:36-38). 이처럼 경건한 여선지자 안나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거한 일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3) 예수의 신분에 관하여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나오셨을 때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라고 했다(요1:29-34).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시며,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세상에 그를 나타내실 것 등을 깨달은 것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의 물음에 대해서 즉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확신에 찬 말로 대답을 했다. 베드로의 정확한 인식과 대답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마16:13-17).

한 번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 중 몇몇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라고 대답했다(요6:35-69).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갈 때 베드로는 그분을 명확히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구약시대와 이른 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령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감동이였다. 그 이유는 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는 약속의 성령이 아직 내린 것이 아니다. ②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임무가 완수되기 전까지는 약속의 성령이 사역을 시작하실 수 없다. ③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중보자가 되시지도 않았는데 다른 보혜사 곧 약속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7-39).”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라는 말씀 등이 있다.

3. 이른 비 시대

이른 비 시대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강림하신 시대이다. 오순절의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곳곳에 활발한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도들에게 확실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온 지 오래지 않은 이들, 즉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반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은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게 하며, 회개를 촉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1)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감화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말의 원문 기록 ‘아나테마 이에수스(*Anáθημα Ιησούς*)’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저주의 말을 의미하며 ‘예수를 주시라’라는 말의 원문 기록 ‘퀴리오스 이에수스(*Κύριος Ιησούς*)’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환영의 소리를 의미한다.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절대 예수와 대립하지 않으며, ‘예수를 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마10:32, 롬10:9,10) 그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이다. 바울이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 그 당시 ‘예수를 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① 예수는 보잘 것 없는 외모를 가지셔서(사 52:14, 53:1-3)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을 주(主)-하나님로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고후5:16, 마13:53-58) ②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주(主)

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의 대상이었으며(요 9:22),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주’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시되어 핍박받아야 했다(행8:1-3, 9:1-2, 22:4, 26:9-11). ③ 헬라 철학 사상, 이른바 그노시스주의(Gnosticism)에 깊은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에게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였다. ④ 로마정부의 통치하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가이사’가 주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요19:12-15, 행17:6-8). 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고전12:2, 3).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일어난 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유대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죄를 자책하며 바른 길을 찾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삼천 명이나 된 일(행2:37-41). ②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체장애자를 고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죄를 꾸짖어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약 오천 명이나 되었던 사실(행3:12-26, 4:4). ③ 유대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봄으로써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던 일(행5:12-14). ④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고 그녀가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일(행 16:14, 15). ⑤ 간수를 감동시켜 구원의 길을 찾고 또 그의 온 가족을 감동시키셔서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와 한없는 기쁨을 얻게 한 일 등등이다(행 16:30-34).

(2) 교회를 흥왕케 함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흥망은 성도들이 기쁜 뜻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느나의 여부에 달려있다. 미약하게 출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급속히 흥왕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시대의 물결(大勢)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눅12:32, 행17:6) 바로 헌신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 성도들이 기쁜 뜻으로 헌신하느나의 여부는 얼마나 주님의 지고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가와 비례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할 욕구를 느끼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빌3:8), 심지어 모든 환란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고후11:23-33, 골1:24, 딤후 4:6-8) 바로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갈2:20, 고후5:14-15).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깨달음의 깊이는 곧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의 정도에 달려있다(롬5:5, 엡3:16-19). 더 자주 더 깊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발전과 성령의 감동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약 삼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였고,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자들도 있었고, 그 헌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되 한 사람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기뻐했으며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를 믿고 따랐다(행2:44-47, 4:32-35, 6:7).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편적임을 안다. 그런데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희생 정신을 보이며 네 것, 내 것이라는 구별이 없이 서로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생활했다.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감동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겠는가?

스테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교회에는 큰 핍박이 발생했고,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성에 큰 기적을 나타내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성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쫓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여 사마리아 제자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행8:1-17). 이 사건을 일컬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칭한다.

스테반의 순교 후 흩어진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외에도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도달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으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교회에 전달되었고, 예루살렘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일꾼을 안디옥에 파송한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목격하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것을 권면했다(행11:19-23). 이렇게 해서 안디옥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요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전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기묘하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졌던 것처럼 만약 기독교인들이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교회가 발전하고 복음이 그렇게 세계로 전파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자기 목숨만은 보호하려 하고 목숨을 잃는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만약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그런 인지상정을 뛰어 넘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며, 사마리아의 오순절과 안디옥교회의 설립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3) 사명을 맡기심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갈2:8).”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뜻에서였고,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뜻에서였다. 이들은 비록 사명은 다르지만 전하는 복음은 같았으며 모두 사도의 직분이 있었다. 이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거나(행10:44-48, 15:7)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행9:19-22, 13:44-46). 다만 그들의 주된 사명이 그러했다는 뜻이다. 바울은 베드로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성령의 감동이 이 사명을 자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고(롬11:13),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며(행22:21, 26:17-18), 전력을 다해 이방 땅을 개척했다. 그는 옥에 갇혔으며(엡3:1, 6:20), 최후에는 순교했다(딤후4:6-8). 이런 희생의 삶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범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성령의 감동에서 ‘감동’이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능력을 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역문어체(日譯文語體)에서는 ‘능력을 줌’이라고 되어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 위로부터

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더하셔서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셨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 뛰어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선택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15:16-18)”라고 말했고, 그가 발휘한 능력이 바로 사도된 표식이라고 말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12:12).”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마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은사와 감당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전12:4-30).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각 마디가 그 직분을 다하듯이 서로 돌아보아 돕는 일을 기꺼이 먼저 해야 한다(엡4:11-16). 그러나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은사가 무엇이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되 바울 사도처럼 주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사양치 않겠다는 정신으로 정진하는 것이다(행21:10-14).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오순절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세대에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물소리 같은 성령의 기도 소리가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4) 미래의 일을 계시(預示)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여러 선지자들은(행13:1, 15:32, 21:8, 9, 엡4:11)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필요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게 했다.

예: ①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임기에 실제로 성취되었다(행11:27, 28). ②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했다(행21:3, 4). ③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빌립의 집에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이후 그대로 성취되었다(행21:8-11, 27-36).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1:21).”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미래사를 예언하는 일에는 환상을 통한 계시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경험이다(계1:1-3).

예: ①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낼 것을 명령하셨다(계1:10-16). ②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늘에 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은혜와 세상의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계4:2-3, 참고: 히4:16, 막16:15-16, 요12:48). ③ 그를 감동시키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올라탄 환상을 보여주셔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계시하셨다(계17:3). ④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어린 양의 신부인 참교회가 어떠하며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시하셨다(계21:9-26, 참고: 엠5:31- 32).

(5) 사람을 거룩하게 함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

이 성구를 살펴보면 구원 얻는 단계는 부르심 ⇒ 진리를 믿음 ⇒ 거룩하게 하심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 바울은 거룩함을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의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참고: 롬15:16, 벧전 1:2).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①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죄에게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비록 선한 의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실천에까지 이르는 능력이 없으며(롬7:14-24) ② 성령은 질투의 영이시므로 사람이 자기 죄를 자책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요16:8-9, 갈5:17-18, 엡4:30) ③ 성령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좇아 행하여 방종의 길을 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눅24:49, 롬8:2, 13, 갈5:16).

성령의 감동은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 것’을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살전5:19), ‘성령의 교통(감동)하심이 고린도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함으로써(고후13:13) 하나님의 선민들이 다 성령의 보호 안에 거하도록 권면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른 비 시대에 매우 뚜렷하고 활발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 시기

하나님께서 이른 비 성령을 거두신 후 늦은 비 성령이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천여 년의 세월 동안 성령의 세례는 없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며 이런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중단된 때가 없었다(요5:17).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 성령께서 천여 년이란 세월 동안 경건한 기독교인을 감동시켜온 배경에는 ① 기독교가 지상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셔서 각 시대의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고(참고: 시4:3, 행10:1-4) ② 세례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 이른 비 성령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늦은 비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마3:11, 요1:32-34).

(1)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실천하게 함

신약시대란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의(義),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이다(롬 3:21-28, 8:1-4). 율법은 본래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롬3:20, 갈3:22).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마음이 원한다고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며(고후6:14-18),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결코 육신의 방종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갈5:13). 바울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형식적인 육신의 할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갈5:6 고전7:19),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여(약2:14-16,26) 믿음을 내세워 행위를 경시하는 신앙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이며, 헛된 이론(理論)만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다(요일3:17-18). 그렇지 않으면 어찌 ‘생명의 도’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성경 말씀에 ① 예수의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하라고 하셨다(요13:34-35). ②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마5:13-16)

③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젖을 먹이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다(눅11:27-28) ④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며(롬2:13) ⑤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듣기만하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약 1:22-25) ⑥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7:21-23). 이처럼 위의 모든 말씀은 성도가 행위로써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라는 데 초점이 있다(빌2:12-18, 딤펴1:5, 딤후1:5).

늦은 비가 내리기 전, 즉 성령 강림이 중단된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없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신앙인의 미덕은 실종되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각 시대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일생 주를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있어서 진리의 빛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며 주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일반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마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성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일 뿐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했다. 이것은 누가의 증거며 그의 하인들의 증거 역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했다(행10:1-4, 22). 이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여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지 성령의 세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시점이 그와 그의 이웃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주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열심히 듣던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행10:44-46).

(2)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게 함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셨다(막16:15).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눅24:48)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행4:20) 주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10:7, 8).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죄악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딤후2:4, 벰후3:9).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각 시대마다 당신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계에 두루 다니며 선교 여행을 하였고 불모의 땅에서 갓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도록 사역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역으로 인해 퇴락하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눈부신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원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불굴의 정신으로 사역하여 아름다운 자취를 남겼지만 그 시대에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시기는 교회가 이미 변질되어 성령의 세례가

없고 순수한 복음도 없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은사들마저 상실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존속하고 이후 늦은 비 성령 강림이 일어나며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전했으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과 죄악생활에서 떠나도록 힘쓴 자들이기 때문이다. 혹 어떤 자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기보다 자기의 사사로운 뜻으로 사역한 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는 자들도 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 강림이 중단되었던 시대에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킨 목회자가 여전히 있었으며 그들의 사역에 성령 감동의 사건들이 확실히 존재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람을 감동시켜서 문서선교에 힘쓰게 함

복음 전파에 있어서 문서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초대교회 제자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문서선교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선대의 신앙을 후대에 이어가도록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문서선교를 소홀히 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신약성경을 접할 수 없었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 수 없어서 풍부한 진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근대의 성업을 하는 자들이 문서선교를 소홀히 했다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넓은 곳에, 오래도록 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시대에 합당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평생 문서선교에 헌신하게 하셨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감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딤후3:16 뱌후1:21). 또 우리는 초대교회 의 사도들이 완성한 신약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엡3:1-5, 계1:1-2, 고전7:40). 이처럼 우리는 근대의 성업을 하는 일꾼들이 문서선교에 힘쓴 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에 의한 문서선교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사건을 들 수 있다. ① 세계 각국에 성서공회가 설치되어 각종 언어와 문자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세상에 글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② 1890년 뉴욕 어빙든출판사(Abigdon Press New York)가 스트롱 박사(James Strong, S.T.D.LL.D.)의 편저 『성경원문모음집(The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을 펴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원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 원문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① 복음전단지(福音傳單)를 배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알게 한 활동 ② 고고학(考古學)적 발굴에 의해 이를 모은 책을 발간하여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한 활동 ③ 성서지리에 대한 서적을 간행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배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활동 ④ 성경 해석, 주석, 강의, 연구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성경에 대한 의문점을 풀고 참고 사항을 습득하게 한 활동 등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물론 그들의 저작 내용이 모두 진리에 부합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알리는 목적은 달성했다. 성경 해석이나 주석 등의 책자도 진리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활동은 충분히 늦은 비 성령에 의해 건설될 말세의 참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

현재는 천여 년 동안 그쳤던 성령 강림이 다시 시작된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이다. 성령 감동의 역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마24:14), 또 주의 양을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요10:16) 각 교회 단체에서 계속 힘쓰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 성령의 세례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왜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가? 왜 참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그들이 전하는 바가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전통(유전) 때문이며, 만약 참교회와 교류가 찾아지면 머지않아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② 소위 ‘하나가 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건한 자가 참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지, 각 교회와 단체가 참교회와 연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언덕(胡恩德)은 그의 저서 『영의 은혜 문제』 7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연 이 운동(방언 운동을 가리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은 큰 의문 가운데 하나이다. 첫째, 이 운동이 처음 일어난 시기는 마침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때였다. 외국의 여러 일꾼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되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으며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성결로써 승리하도록 이끌어주기도 하였다. 그 지도자들은 무

디, 토레이, 밀러, 알렉산더 등과 같은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방언 운동이 이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어나지 않은 점은 현재 우리 결의 방언 운동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 어렵게 만든다. 이 운동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만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활동은 위에서 나열한 인물들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혹자가 대략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무디 목사 한 분이 백만 명에 가까운 죄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니, 그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무신회(無神會, 반기독교 단체 중 하나)까지도 그의 설교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다. 방언과 인물 가운데 누가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가? 방언과 사람들은 왜 이들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하지 못하였는가?”

우리의 주장 : ① 방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함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이며(행10:44-46),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행2:38, 39, 골2:28, 29)). ② 무디와 같은 인물들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수의 성도들이 삶속에서 성결로써 승리하게 한 사역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성령의 세례는 아니었다. ③ 그들이 전한 복음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변질된 불완전한 복음이었으며, 다만 하나님이 저들을 일으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예수가 구세주시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④ 그들이 방언 운동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원인은 선대의 잘못된 전통(유전)을 계승하여 방언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호간에 접촉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성령이 세우신 참교회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다른 소속의 경건한 신도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참교회로 들어오게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진리에 순종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성

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요10:16).”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진실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참교회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고 반드시 백만 명에 달하는 죄인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같은 경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었으나 그렇게 많은 죄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⑦ 백만 명에 달하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감정적 충동에서, 심지어는 불순한 동기에서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역의 열매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⑨ 필자가 아는 바로는 로버츠 박사는 오순절 계통 교파의 일꾼이고, 후언더가 말한 바와 같은 방언파에 속한 사람이다(Oral Roberts' Life Story를 보라). 그를 무디와 같은 인물과 비교하여 거론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각 시대에 모두 성령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약시대와 이른 비가 내리기 전 시대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선지자,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케 하셨던 성령 감동의 역사 시대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른 비 시대는 성령의 세례가 시작된 시기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동거하기 시작한 때이며(요14:16), 성령의 역사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도 성령 감동의 역사도 있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이처럼 늦은 비 성령이 내리시기 전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경건한 기독교인을 감동시키셔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서 존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감동의 시대였다. 이 성령 감동의 시대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존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감동 시키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이른 비 성령 강림을 예비하도록 한 것처럼 예비하게 하는 시기이다(마3:11, 요1:32-34). 지금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이다. 천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령 강림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학개 선지자의 예언대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른 비 성령의 시대보다 더 활발하다(학2:9). 물론 이 시기에도 역시 이른 비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도 있으니 이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의 양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다(요5:17).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완료되었지만(창2:1-3)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다.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즉 성령 감동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써 구약시대부터 현재, 현재부터 말세까지 계속될 것이다(참고: 엡1:14, 4:30). 단,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점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세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에 둘을 같은 하나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제3절 일반 개신교회가 마땅히 취할 태도

성령 세례가 없는 일반 개신교회는 실제적인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세례를 혼동한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조차 분별하지 못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단상의 설교나 문서를 통해 방언 문제를 맹렬히 비난하며 ‘방언파’, ‘광신파’, ‘사이비’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한다. 엘리야 선지

자가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왕상18:27)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한다. 이런 모독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들의 대담한 이런 행동에 대해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1. 성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마12:31-32). 가장 엄중하고 가장 두려운 죄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보다 성령을 훼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내용에 비추어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 죄가 인자를 거역한 죄보다 더 엄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인자는 낮아지고 비천해진 상태에 처한 신이지만 성령은 영광과 위엄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훼방하고 모독한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10:30-33, 19:7)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으로 복귀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오셨으므로 이 때는 결코 모독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라고 말했다(고전14:22). ‘표적’이란 말은 몇 가지 영문번역본(英譯本)에 다 ‘sign’으로 되어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의미에서 ‘증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듯이

방언도 역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다른 기적과 더불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다(막16:17-18).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행 10:44-46),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며(요일3:24), 이 증거는 불신자를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거나 ‘사령이 들었다’거나 ‘미혹의 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권능을 사령의 역사라고 여기는 성령 훼방과 모독의 죄에 해당한다.

2. 가말리엘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라

일찍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예언하셨다(요 16:2-3).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고(행7:54-60, 8:1-3, 12:1-3), 심지어 바울 같은 인물조차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할 정도였다(행22:3-4, 빌3:6).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을 때 모든 백성이 존경했던 교법사 가말리엘은 무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행5:34-39).” 가말리엘의 변회는 결국 유대 관원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다. 가말리엘은 저들을 신중히 처리할 것과 일정 기간 관여치 말고 기다려서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면할 수 있게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골1:24)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행9:1-5).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참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직 체험하지 못한 방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 경솔히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말리엘의 권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아볼로의 겸손을 배우라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신 일꾼일 뿐 아니라 신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전1:12, 3:4, 4:6).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희랍문화와 모든 학문에 있어서 아텐(아테네)과 쌍벽을 이루는 도시였고, 학술과 변론이 왕성히 발달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정통(精通)하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시 유대인과 희랍인을 설득시키는 큰 무기를 소유한 것과 같았다. 아볼로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니, 학문이 깊고 달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정통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의 일생과 교훈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론하며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주 예수의 세례는 몰랐다. 예수의 일생과 교훈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이어서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후자는 구원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듣던 장막 만드는 기술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행18:2,3)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들려

주어 그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했다(행18:24-26).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① 지식은 유용하고 필요하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반드시 우월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지식과 열성만 가지고도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3:5) 결코 온전한 복음을 전해줄 수는 없다. ③ 학문이 깊고 구변의 능력이 있었던 아볼로조차도 그보다 신앙이 깊은 비천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했다. 이처럼 지식과 신앙은 서로간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 ④ 그런데 아볼로는 매우 겸손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비록 비천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줄 알았다. ⑤ 그 결과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훗날 복음 전파의 사역에 그가 소유한 학식과 구변의 능력이 큰 유익을 안겨주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이 그 내용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다(행8:30-31). 바울과 실라가 베뢰아에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누가는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행17:10-12).”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볼로의 겸손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베뢰아 사람의 태도와도 비교할 수 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행19:4).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마3:5-11, 눅3:10-14). 반면에 ‘주 예수의 세례는 사죄의 세례요(행2:38,22:16), 중생의 세례요(딤후3:5), 성령의 세례이다(요1:33, 행1:5). 회개는 중생이 아니라 중생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회개만 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곧 요한의 제자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단계의 믿음이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 목회자는 아마 이런 유형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학문이 깊고 구변의 능력이 있으며,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고 경건함과 열심을 품고 주님께 봉사하며, 또 죄를 미워하여 사람들에게 엄한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부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산상수훈의 교훈을 흠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람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서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로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요10:10, 눅24:49, 롬8:1-2,13). 따라서 각 교파와 교단의 사역자들은 이볼로의 겸손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그 태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방언에 대한 문제를 공박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4. 세례 요한을 주목하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요1:35-37).”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단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요 1:19-23). 예수를 본 순간 그가 제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쫓아가라 저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더라’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를 떠나 예수님을 좇아갔어도 결코 질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종의 자기 사명을 다한 것에서 오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

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요3:25-30).”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변론했던 내용은 아마도 세례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 주장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반박했을 것이며, 날로 예수님의 무리가 흥왕해 가는 상황을 견드리며 요한의 제자들을 멀리했을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분명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마3:13-16), 그렇다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왜 지금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야 하며 그 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보다 훨씬 많은가? 이것은 그냥 참고 넘길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실상,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사명을 맡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도 다르며, 능력에도 차이가 있었다. 요한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며, 단지 그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다. 비유하자면 그는 혼인식의 주인공 신랑이 아니요 들러리인 신랑의 친구에 불과했다. 요한은 그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했으니 과연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웠다.

보라! 말세가 가까웠다. 이제 곧 예수께서 그의 신부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이미 강림하셨고 오순절의 뜨거운 바람이 세계 곳곳에 번져가고 있다.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참교회는 반드시 흥왕하고 성령 없는 일반 교회는 반드시 쇠할 것이다. 각 교파와 교단의 목회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이란 인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란다.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려 하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하여 성령께서 지금 바로 당신들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기 바란다.

■ 제 11 장 ■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오류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했다(롬8:9). 바꿔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뜻이다. 신도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이고(요15:4-5),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고(겔37:14, 요10:10), 여기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 능력은 작게는 육신의 악행을 제어해서(롬8:13, 갈5:16) 성결을 이루고 개인의 영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며(살후 2:13) 크게는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엡6:17)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성도가 온 천하에 복음을 두루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마24:14, 계21:2,9,10).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는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보편적인 태도만 견지하여 수많은 교회 신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저들의 그릇된 관념을 정리하면 ① 오순절은 단 한 번 있는 것이며 영원히 재현되지 않는다. ②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이미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든 기독교 신도들에게 성령이 계신다. ③ 성령은 우리가 구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셔야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관념이 강단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종교 지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독교 신도들까지 일생 동안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신앙 상태에 머무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폐해이다.

성령의 바른 의미를 찾아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속히 미혹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추구하시기를 바란다.

제1절 오순절은 영원히 재현되지 않는다?

픽포드(J.H.Picford)는 그의 저서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일본성서간행회편집부 역) 23쪽에서 “오순절은 단 한 번만 존재한다. 그날의 성령세례(靈浸)의 경험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단 한 번 내리시며 그 후에는 모든 아들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했다. 또 랜돌프(H.G.Randolph)의 『성령 충만』(李小蘭 譯) 16쪽에는 “오순절에 받은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주장 : 최초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이었다(행2:1-4). 그 날짜와 그 때의 사건은 역사상 오로지

한 번 일어났으며 영원히 재현될 수 없다. 이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 재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성령 강림이 멈춘 기간(약 1천여 년) 외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이른 비 시대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단 한 번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기적을 봄으로써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이후 사도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셨다(행8:5-8, 14-17). 역사가들은 이것을 가리켜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한편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의 계시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적 관념을 넘어서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모두 놀랐다(행10:9-23, 44-48). 역사가들은 이것을 ‘로마의 오순절’이라 부른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음을 알고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자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행19:1-7). 역사가는 또 이것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른다(Charles, R.Edman 저 『사도행전주역』 참조). 이렇게 여러 차례 성령 세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으며, ‘성령은 단 한 차례만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마28:20). 이 말씀에서 ‘나’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후자의 ‘내가’는 특별히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행16:6-7), ‘그리스도의 영’(롬8:9)이라고도 표현한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자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요14:16). 만약 제자들이 성령께서 ‘세상 끝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만약 교회가 주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지 않아서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한다면 성령께서 더 이상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성경구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다(요14:15-17). 교회사(教會史)를 살펴보면 로마시대에 교회가 점차 변질되면서 원시복음 역시 변경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자 차츰 성령 강림도 사라졌다. 비록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 개혁이 있었으나 완전히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지는 못했으므로 여전히 성령 강림이 멈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성령 강림이 중단된 기간은 그 후 천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되었고, 비록 성령의 세례는 없었으나 기독교가 이 땅에 존속될 수 있도록 성령 감동의 역사는 계속 존재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은 단 한 번 강림하시는 사건이며, 그 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그릇된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픽포드는 같은 책 24쪽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순절 이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했다(행2:38). 오순절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진리를 강조하셨다. 즉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때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요7:38-39). 바울의 서신에서도 모든 믿는 신도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했다(고전3:16),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는 말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 성령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갈3:2)”라고 물은 것과 에베소교회에 대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엡1:13) 이와 같은 주장은 정확하다. 그러나 논점은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그른 믿음이냐?’라는 데 있다. 만약 ‘그릇된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는 것과 차이가 없다. 현재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음’인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교훈’이며 ‘변질된 복음’이다. 이 ‘거짓된 진리’를 믿는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결코 받을 수 없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라고 한 말은 성령으로 세워진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지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는 이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는 말씀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어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그의 저서 『한량없는 성령』 77쪽에 다음과 같이 썼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온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골고다에서 함께 죽은 것을 교훈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며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갈2:20).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기(歸入) 때

문에(고전12:13) 이 성령의 세례도 다시 있을 필요가 없고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참고, 고전12:13).”

우리의 주장 : 로마서 6장 3-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와 함께 부활할 수도 없다(롬6:5).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 것은(갈2:20)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행9:18).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했다(행16:31). 겔으로 볼 때 간수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족 전체가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후 간수와 온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행16:32-34).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했다(막16:16).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지만 성령의 세례도 신도 개개인이 체험해야 하는 사건이다.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약 백이십 명의 성도들은 결코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대표할 수 없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고넬료 가정을 대표할 수 없으며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정은 에베소 제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경험은 발생한 장소와 시간도 동일하지 않은 별 개의 사건이었다. 이런 사실을 정리해볼 때 오순절의 사건은 대표성을 띠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했

다가 나중에서야 사도들이 그들에게 인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행8:14-17).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왜 놀라야만 했는가(행10:44-46)? 에베소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다가 바울이 그들에게 인수했을 때 왜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했는가(행19:1-7)?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한 것은 성령으로 세워진 고린도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세례가 없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해 보자. 사마리아성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은 직후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가 사도들의 인수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한 까닭은 무엇인가? 바울은 왜 에베소 제자들에게 주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것의 여부를 물었을 때 왜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왜 인수를 받고서야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살펴보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일은 분명히 개별적 사건이며, 오순절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롬 8:9)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오순절에 이미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샌더스는 동일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곳은 일곱 군데이다. ① 마태복음 3장 11절 ② 마가복음 1장 8절 ③ 누가복음 3장 16절 ④ 요한복음 1장 33절 ⑤ 사도행전

1장 5절 ⑥ 사도행전 11장 16절 ⑦ 고린도전서 12장 16절. 스크루지(W. Graham Scroggie, D. D.) 박사는 이 성경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첫째, 예언성(預言性)의 관점에서 이 세례가 장차 늘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 이 성경구절들은 모두 하나의 시간성(時間性)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몇 날이 못되어’라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성을 가지고 있고 사도들의 신상(身上)에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다. 만약 이러한 구절들이 오늘날의 신도에게도 적용되려면 십자가 이전의 시대로 신도가 되돌아가야 하며, 오순절을 끊임없이 필요한 일,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의성(敎義性)의 관점에서 이 세례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고전12:13). 마지막 셋째로 역사성(歷史性)의 관점에서 이 세례는 현재 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행2:1-4, 11:15-17).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기초를 가지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언성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은 미래 지향적이다. 무엇을 지향하는가? 교의성(敎義性)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은 과거 지향적이다. 무엇을 지향하는가? 역사성의 관점에서 오순절 사건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오순절의 경험과 고넬료 가정의 경험을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행11:15-17).”

우리의 주장 : (저자가 인용한 스크루지 박사는) 성령의 세례를 언급한 일곱 부분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① 예언성(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사도들의 신상에만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 ② 교의성(고전12:13)-과거를 기억한다는 의미 ③ 역사성(행2:1-4, 11:15-17)-현재에 성취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스크루지 박사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다. 사실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역시 인위적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스크루지 박사가 분류한 첫째 예언성에 대해 논하자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은 모두 세례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의 몸 위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주님의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에 대해서 예언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크루지 박사와는 달리 다섯 곳의 성경 말씀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라는 것을 전달할 뿐이다. 오순절날 약 일백이십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주 예수로부터 왔고,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받은 성령도 주 예수로부터 왔으며,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이 받은 성령도 주 예수로부터 왔고, 에베소교회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도 주 예수로부터 왔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시간과 장소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위에서 말한 다섯 부분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성령을 받는 경험에 단지 오순절로만 제한되는 사건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할 때 어찌 자신들이 오순절에 겪은 바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또 보고의 자리에서 어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행11:15, 16, 1:5). 우리는 베드로의 보고 기사를 통해서 스크루지 박사의 견해에 대하여 ‘오순절은 부단히 필요하고 항상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십자가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른 비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늦은 비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다섯 부분의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신도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둘째, 교의성에 관해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신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관계가 된 것 즉 비록 지체가 많을지라도 몸은 단 하나뿐이므로 신분을 구별치 말고 언제나 서로 돌보아야 하는 관계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고전 12:12-25). 과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종족간의 거리감이 존재했고, 또 종과 주인 사이에도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했으나 그리스도께 돌아온 뒤에는 이와 같은 종족간의 담, 신분상의 담이 허물어져서 모든 신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엡2:12-19, 갈3:27-29). 이른바 ‘교의상의 견해’는 스크루지 박사 개인의 관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올바른 뜻은 그렇지 않다. 스크루지 박사가 지적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교회만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하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스크루지 박사 개인의 관점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하면 고린도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이다. 성령의 세례가 없는 일반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므로(롬8:9) 이 말씀이 그들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들이 초대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셋째, 역사성에 대해 논하자면 사도행전 11장 15-17절에 기록된 내용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한 간증이다. 그 대략의 내용은 그가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 몸에 임하셨고, 그것은 자신들이 오순절날 겪었던 경험과 같았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란 사실을 생각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히 주저 없이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대로 감취졌던 비밀,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예언에 대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동행했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엡3:3-6, 롬3:29-30).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이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했다(행11:18). 스크루지 박사가 말한 대로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역사성’이 있고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일도 ‘역사성’이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사건은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오순절의 체험은 계속 필요하고 항상 반복되어야 하는 일’임을 증명하고 있다. 스크루지 박사가 “우리는 베드로가 오순절의 경험과 고넬료 가정의 경험을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한 대로 분명히 증명해주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스크루지 박사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기초 위에 있으려면 역사성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말대로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를 참고하여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으며 성령을 받은 상태는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작 본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체험이 없는데 겸허하게 과거를 돌아보려는 시도마저 거부하고 신빙성 없는 이론만 앞세우려 한다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스크루지 박사는 같은 저서 75-76쪽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메이어 박사(Dr F.B.Meyer)가 ‘몇 해 전 케스윅 운동(Keswick Movement)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별하는 것)를 자세히 논의한 후 ‘세례’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 기록된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시키고 그 외의 신도의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으로 여기기로 유보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논점(論点)의 핵심은 성령은 이미 이 시대 교회에 주어졌으며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신이 얻을 분량을 얻게 된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역사성의 사건」이며 성령의 충만은 「개개인의 경험」이다.”

우리의 주장 :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다’(눅24:49, 행1:8, 11:15-16, 19:6) 혹은 ‘성령을 받는다’(행2:38, 8:15-17, 10:47, 엡1:13) 혹은 ‘성령을 얻는다’(갈3:14) 혹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딤후3:6) 등의 모든 표현이 사실은 ‘성령의 세례’를 가리킨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고넬료 가정의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할 때 자기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고, 이 두 번의 사건을 가리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다(행11:15-16).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눅24:49, 행1:8, 11:15-16, 19:6) ‘성령을 받는 것’(행2:38, 8:15-17, 10:47, 엡1:13) 모두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며, ‘성령을 얻는다’(갈3:14)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딤후3:6) 표현도 모두 성령의 세례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오순절에 경험한 것도 성령의 세례요, 사마리아성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도 성령의 세례요, 고넬료의 가정이 경험한 것도 성령의 세례요, 에베소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도 성령의 세례이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그것만이 성령의 세례라고, 그 외의 다른 사건은 성령의 세례로 볼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결코 그들이 확실하게 여기는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만 성령의 세례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마리아성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마술사 시몬은 이를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와 같은 권세를 팔라고 요구한 사실을 보라(8:17-19). 19장에는 에베소의 제자들 중 성령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 바울이 안수하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했는데, 모두 열 두 사람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9:1-7).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부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곳의 기록도 성령의 세례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겠는가? 과연 2장과 10장의 사건만 뚜렷하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기름 부음’ 역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뜻이다.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같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16:13), 요한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했다(요일2:27). 또한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눅4:18)”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했다(히1:9).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으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케스워 운동의 지도자들이 지적한 ‘기름 부음’이란 용어는 사실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름’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경험에 대해서만 ‘성령의 세례’로 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이란 사람의 마음이 성령에게 완전히 점유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경험은 개인에게 속할 수도 있고(행6:5, 9:17) 단체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며(행2:4, 4:31), 반드시 ‘신도 개인의 경험’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경험은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성령의 세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눅1:15,67).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경험과 같은 것이다. ②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성령 충만을 입는다(행2:4, 9:17).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세례를 일컬어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③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눅4:1,14 행4:8-13,31 13:9-11) ④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행13:50-52). ⑤ 성령이 충만하면 신령한 은사를 더해주시다(행6:3,5 7:55, 59-60, 11:24). 위의 다섯 가지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례들이 있었으나(눅1:15,67) 그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체험한 것과 같다. 즉 이는 성령께서 택한 백성의 마음 속에 운행하시는 ‘영원한 내주(內住)’가 아닌 일시적 ‘감동’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때는 아직 약속의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요7:37-39). 그런데 오순절 이

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내주를 경험한 신도는 이미 성령의 감동도 체험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자야말로 성령의 충만을 확실히 경험한 것이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경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세례”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 기록된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시키고 그 외의 신도의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으로 여기기로 유보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대표성(代表性)을 띠는 ‘역사적 사건’으로 여기고 성령의 충만은 개인적 경험으로서 ‘세례’와 ‘기름’이라는 단어로 분류하려고 한 것은 케이스워 운동의 지도자들, 그리고 메이어 박사와 샌더스까지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오류이다. 그 오류는 ‘성령은 이미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며 단 한 번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 안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분량을 받는 것뿐이다’라는 잘못된 전제에 있다. ‘이 문제를 자세히 고려한 후’라는 기록처럼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연구하려고 했다. 그 연구 정신만은 높이 사고 싶지만 그들의 주장은 실제 성령의 경험이 없는 암중모색(暗中摸索)으로 빚어진 오류에 불과하다. 이 오류들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

레터스(L.L.Legters)는 그의 저서 『성령 충만의 생활』(蘇慕華 L.Scurlett 역) 52쪽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방언을 말한 것은 일종의 기적이며, 오순절은 단 한 번뿐이므로 이후에는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장 :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방언을 말한 것’은 확실히 일종의 기적이다. 그런데 바울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했다(고전14:22). ‘표적’의 원문과 영문 번역본의 “Sign(증거)”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표적’과 같은 낱말이다.

이 표적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을 포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막16:17, 18). 새 방언, 즉 방언을 말함은 성령을 받은 증거요(행 10:44-46)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요일3:24).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요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레터스는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방언을 말한 것은 일종의 기적이다”라는 말에 이어서 “오순절은 단 한 번뿐이므로 이후에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방언을 말했던 그 기적도 이후에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제자들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행10:44-46, 19:1-7).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또 방언 말함을 금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전14:18, 19). 이처럼 방언을 말하는 기적은 이른 비 시대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신도가 체험한 것이지 결코 오순절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로써(행2:1-4) 그 날에 대해 말하면 당연히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나 그 오순절의 의의는 이후 이른 비 성령 시대가 계속되었고 그와 같은 현상은 결코 단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레터스의 주장은 오류이며 그 오류의 원인은 성경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석(誤釋)이다.

제2절 모든 기독교 신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픽포드는 그의 저서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의 29-30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든 신도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다. 바울의 증언은 이 사실과 일치한다. 바울은 모든 신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이 세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했다(고전12:13). 이 말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時制)와 더불어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성령의 세례는 종교, 인종, 사회적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신도의 과거 경험을 단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모든 신도는 이미 다 대표성(代表性)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은 오순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험 속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성령의 세례를 말하지 않았다. 재론의 여지없이 바울의 말대로 회개와 동시에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 사건이며 모든 신도는 이미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오늘날 이 진리를 어기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이요 기독교의 신앙을 거짓된 체험으로 이끌어 가려는 데 불과하다.”

우리의 주장 :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세워진 고린도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성령의 세례가 없는 일반 교회에 적용시킬 수 없는 말씀이다. 만약 ‘모든 신도가 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사도들이 저들에게 안수했을 때에야 성령을 받았겠는가(행 8:14-17)? 왜 에베소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해야 했는가(행19:1-7)? 왜 사마

리아성 사람들과 에베소의 제자들이 믿고 세례(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왜 ‘신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픽포드가 말한 ‘모든 신도’의 정의(定義)는 무엇인가? 우리가 위의 기사에서 분명히 발견한 사실은 ‘믿는 것’과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모두가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은 한꺼번에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신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사마리아성의 사람들 - 행8:14-17), 어떤 이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후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고넬료 가정의 경우 - 행10:44-48)고 기록했다. 이 두 사건은 위에서 논거한 내용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신도는 이미 대표성의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사마리아성의 사람들(행8:14-17), 바울(행9:17), 고넬료 가정(행10:44-46), 에베소의 제자들이 경험한 사실이(행19:1-7)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정한다. 그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았고 받은 시간과 장소도 동일하지 않다. 이는 결코 성령의 세례가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단 한 번 성령이 내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모두 성령의 세례였으며 결코 ‘다른 종류의 성령 세례’도 아니었다. 오순절의 것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각각 따로 받을 수는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성경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가?

‘한 성령을 마시는 것’ 역시 ‘회개’와 동시에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다. 이른바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 마시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요4:14, 7:37-39).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사마리아성의 사람과 에베소의 제자들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지 않았고 물세례를 받은 후 안수를 받았을 때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모든 신도가 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결정적 사건’도 아니며 ‘진리’도 아니다. ‘성령의 세례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행

8:15-17, 19:2-6, 롬8:9).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세례는 자신도 인지하고 타인도 인지할 수 있는 생생한 체험임을 밝히고 있는데(행8:16-19, 10:44-46, 19:2-7), 어찌 ‘거짓된 체험’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 ‘모든 신도가 이미 대표성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거나 ‘성령의 세례는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다’거나 ‘성령 세례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이라는 목소리야 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거짓으로 매도하는 주장이다.

픽포드는 같은 저서(同書) 47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명령이 있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고전12:13) 아무런 의의가 없게 된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랜돌프는 『성령 충만』의 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오순절에 그(성령)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사이다. 성령께서는 그 날로부터 모든 신도 가운데 계시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고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한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즉시 그 구성원들과 더불어 성령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는 14쪽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는 신도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촉구하거나 분부한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주장 : ‘성령께서는 그 날로부터 모든 신도 가운데 계시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고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한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즉시 그 구성원들과 더불어 성령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은 랜돌프 개인의 주관적 오판이다. 사마리아성 사람들과 에베소교회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즉시’ 성령을 받아서 신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행8:14-17, 19:1-7). 사도시대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을 받은 증거로 삼았다(행10:44-46). 또 ‘성령께서 오순절날부터 장구히 모든 신도 가운데 계시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면 왜 오늘날 대다수의 일반 교회들은 ‘방언을 말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찾을 수 없다는 랜돌프의 지적이나 ‘성경에는 신도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나 추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픽포드의 지적도 잘못되었다. 오순절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으며(마3:11), 사람들에게 그를 좇으라고 명령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행1:5),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명령하셨다(눅24:49, 행1:4-5). 오순절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성에 갔을 때 주를 믿었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인수한 후에야 성령을 받았다(행8:14-17).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세례 받은 것도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저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고 인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행19:1-7). 주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이 같은 체험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며(롬 8:9), 권능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눅24:49, 행1:8).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어찌 “성경에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성경에는 신도에게 성령 받을 것을 추구하거나 분부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내용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따라서 이 명령과 이 구절을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루터스는 『성령 충만 생활』의 2-3쪽에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다(고전6:19).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없다”라

고 말했다. 4쪽에서는 또 “믿을 때 곧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했다(행 11:15-17), 6쪽에서는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한다”라고 말했다(엡3:17).

우리의 주장 :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을 주목해 보자. 루터스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다고 말했다. ‘다 있다’는 말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란 뜻이며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미래에 성취될 일이란 뜻이므로 시간적 차원에서 이 둘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다. 오순절과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성령)’이라고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행 11:15,17). 그러나 사마리아성 사람들과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 달리 기록하고 있다(행8:14-17,19:1-7). 기록대로 ‘믿음’이 성령을 받는 필수조건임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체험이 믿을 때 즉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사도시대에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거나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한 의미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의미이다. 사도시대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던 반면 성령의 세례로 세워지지 않은 일반교회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

샌더스는 『한량없는 성령』의 78-79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지 이 한 구절(고전12:14)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명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네 가지 사실이 있다. ① 신도마다 이와 같은 세례(성령세례)를 다 받았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 중의 ‘다’ 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② 이 세례는 신도가 모두 경험한 과거사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원문(原文)에 사용

된 동사(動詞)의 시제는 부정과거형(不定過去形)이기 때문이다. ③ 이 세례는 신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과 관계된다. 왜냐하면, 신도는 이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합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이것은 신도들의 신분 상 어떠한 차별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다.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 그 당시에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다.”

우리의 주장 : 샌더스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근거로 제시한 네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① ‘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세우신 고린도교회에 대한 말씀이며, 오늘날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② 오늘날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는 모두 다 아직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된 동사’의 시제(時制)가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③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④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다.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내용인가?

샌더스는 같은 저서(同書) 80쪽에서 몰 감독(H. C. G. Moule, D. D)의 말을 인용했다. “내가 친밀한 영적 공화로 오늘날 경건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습관적이고 잠재된 보편적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세례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본분은 가장 겸손한 마음을 품은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우리가

서로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물 감독의 ‘친밀한 영적 공홀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세례를 ‘기다리는 것’이 왜 잘못된란 말인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반면 특별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그른 것으로 본다니 앞뒤가 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 물은 자신들이 ‘영에 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영에 속한 자의 생각이 이런 자리에 도달했다는 점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그가 말했듯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견해가 옳다. 그러나 이는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다. 이런 말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디 성령의 세례를 추구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샌더스는 같은 저서(同書) 132쪽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은 비록 완성된 일이지만 교회의 지체인 각 사람은 권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성령이 이미 자신에게 임하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장 :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천하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다 놀라며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고’ ‘들은’ 것 때문이었다(행2:1-4, 12, 33). 사도들이 사마리아성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마술사 시몬이 이를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사려고까지 했다(행8:17-19).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 신자들이 저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방언 말함’을 들었기 때문이다(행10:44-46).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했다. 바울이 더 몇 가지를 물어본 후 저들은 물세례도 온전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 후 안수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고 저들은 ‘방언을 말했다’(행19:1-7).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이며, 본인도 인지할 수 있고 타인도 인지할 수 있는 일이며, 막연한 느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샌더스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도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감내하지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말일 뿐이다.

사도들이 쓴 서신은 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혹은 이미 성령을 받은 개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당시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한다’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는 이미 경험했고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성령의 세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4복음서에는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 있는데, 모든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성령의 세례를 소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歷史)적 사건을 통해,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 사도들의 서신서에만 주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도들

의 서신에만 매달려 적용시키려는 결과 자신만이 옳다는 확신 속에 들어앉아서 잘못된 관념들을 수없이 파생시키는 현상만 빚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는 말씀을 읽으면(고전3:16) 스스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기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읽으면(고전12:13) 곧 자기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엡1:13)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들었으니 틀림없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성령의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픽포드는 그의 저서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의 21-2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약 성경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와 유사한 구절은 ① 마태복음 3장 11절 ② 마가복음 1장 8절 ③ 누가복음 3장 16절 ④ 요한복음 1장 33절 ⑤ 사도행전 1장 5절 ⑥ 사도행전 11장 16절 등 여섯 곳뿐이다. 이 구절들은 다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主權)에 의해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어느 구절이든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아마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성령의 강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결정하셨으며, 제자들의 기다림과 고대함이 그 날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 성령의 세례는 결코 간구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보내져 오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성령의 세례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보내져 오는 것’이며 사람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어서 성경 어느 곳에서나 모두 ‘그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아파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주권(主權)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므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행 10:44-45, 11:15-17).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된다(눅11:8).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간구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 일이며, 사람이 관여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이 사람에게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성령의 세례는 사람이 간구한다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1장에 ‘떡 빌리는 비유’를 통해 꾸준한 기도의 교훈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위해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떡과 생선과 알과 같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식물을 공급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성케 하는 성령을 ‘간구’라는 과정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가리키며 (행10:44-45, 11:15-17) ‘생수’도 성령의 상징이다(요4:14, 7:37-39). 세상의 모든 물질의 향락은 모두 아픔의 우물물과 같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사람의 심령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요4:12-13).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사람의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원한 희락과 만족을 얻게 한다(요4:14). 이 생수를 얻는 방법은 먼저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이다(요4:10). 이처럼 누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4장이 이 사실을 매우 확실히 설명하고 있듯이 성령은 강림하시지만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결코 간구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샌더스는 『한량없는 성령』의 79쪽에서 “성경 어디에서나 신도에게 이런 세례(성령의 세례를 가리킴)를 받을 것을 권한 곳이 없으며, 이와 같은 세례를 받은 신도와 받지 않은 신도를 구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132쪽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성령주심을 구하는 찬송이 많이 있고, 마치 성령의 강림이 우리의 간구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성령은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구는 시간적으로 일천구백여 년이나 뒤늦은 기도이다. 우리는 우리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 활발하도록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태도이다. 성령의 강림을 다시 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의 주장 :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라는 말씀은 다 성령의 세례가 ‘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한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는(성령을 가리킴) 우리의 기일에 보증이 되사.....”라는 말씀도 신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어느 곳에도 신도에게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기를 권한 곳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으며, 사도들이 저들에게 안수했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을 받았 다(행8:14-17). 에베소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고,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물세례를 베풀었을 때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직 없었으며,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이 내리셨다(행19:1-7). 이 사마리아성 사람들과 에베소의 제자들의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의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분명 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은 세례(성령 세례)를 받은 신도와 받지 않은 신도를 성경 아무데서도 구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찬송’은 시인이나 작곡자가 신앙의 감동을 노래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찬송 중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혹은 간구하거나, 혹은 회개하거나 하는 경우 작자(作者)의 감동이 실리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감동을 나타내는 데 종종 작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찬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대로 찬송의 작자들이 얼마나 심령이 주리고 갈했으며, 성령의 세례

를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설령 누군가 그들의 ‘관점이 틀렸다고 말하든지 ‘성령은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구는 시간적으로 일천구백여 년이나 뒤늦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림의 떡으로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없듯이 일시적인 착각으로 심령의 갈함을 해결할 수는 없다. 샌더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성령 주심을 구하는 찬송이 많이 있고, 마치 성령의 강림이 우리의 간구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성령은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구는 천구백여 년이나 늦은 것이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① 찬송의 작자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샌더스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겹쳐히 상고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이 간구의 과정으로 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③ 성령 강림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1900여 년 전에 성령이 오로지 한 번 강림하셔서 오순절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갇혀있었다. ④ ‘방언을 말함’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체험하는 ‘보편적인 은사’가 아니라 ‘특수한 은사’로 오해하고 있었다. ⑤ 신도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곧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 활발하도록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태도이다. 성령의 강림을 다시 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만약 위의 찬송가 작곡자들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설령 그들에게 깨우쳐주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더욱 활발하도록 구하거나 성령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지속적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찬송을 작곡했겠는가? 사실 작곡한 이유는 저들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 갈급함이 극도에 달하게 되니

까 찬송의 가사를 쓰거나 혹은 작곡을 통해서 그 간절한 열망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그 노래가 세상에 널리 퍼져 만인이 함께 찬송하고 성령을 받아 깊은 잠에서 모든 신자들이 깨어나고 오순절의 광경을 재현해서 온 세상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겨냥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뻐할 일이고 찬양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샌더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더 이상 성령의 세례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샌더스는 같은 저서 82-8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다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든 이 세례(성령의 세례를 가리킴)를 받으려면 ‘기다림’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이십 명의 제자들이 확실히 다락방에서 기다렸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그들이 이같이 행동한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것도 사실이다(눅24:49, 행1:4). 그들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성이라는 장소에 머물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그 명령이 오늘날의 신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만약 적용된다면 기독교 신도 역시 회교도들이 메카를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을 밟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준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관건은 성령의 강림이 사도들의 기다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를 조사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였고, 그 때는 이미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였다. 그 때는 창세 전에 정해진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였다.”

우리의 주장 :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분부하셨다(눅24:49). ‘유하라’, ‘기다리라’는 말씀은 한가히 앉아 ‘명

청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기까지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간구가 없는 기다림은 맹목적이지요, 가치가 없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 백이십 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그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기이한 혀의 말)'으로 말하기 시작했다(행1:12-15, 2:1-4). 이처럼 기다림에는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또 기다림의 결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갈망한다면 누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기다림'에 간구가 따른다면 성령의 세례도 확실히 간구함으로써 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명령이 오늘날의 신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샌더스는 "그런데 그 명령(기다리라는 명령)이 오늘날의 신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만약 적용된다면 기독교 신도 역시 회교도들이 메카를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을 밟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준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기다림'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전개한 논조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릴 것을 분부하실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눅24:49),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틀림없다(행1:12-15, 2:1-6).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영원불변의 명령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선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성령 강림의 복음을 온 천하만국에 전파하도록 인도하시려는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후 성령 강림의 장소는 사마리아성, 가이사랴, 에베소 등(행8:14-17, 10:1, 44-46, 19:1-7)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예루살렘이란 장소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할 필요성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며,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회교도들이 메카를 방문하듯이 예루살렘 땅을 한 번 밟아야 주님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신도가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는 명령까지 준행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샌더스가 말하기를 “이 문제에 대한 관건은 성령의 강림이 사도들의 기다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를 조사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아니라’는 답에 대해 ‘그렇다’로 교정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사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었다. 사도들은 이 명령을 지켰고 그래서 주님도 약속대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3,4세기경에 이르렀을 때 로마교회가 변질되어서 복음을 변경시키고 주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자 주님도 그들과 더 이상 동거하시지 않게 되어 오순절의 성령을 다시 거뒀들이셨던 것이다. 약속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몫이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성도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다.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명령은 주 예수의 명령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몫이다. 언제 성령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이다. 반면 기다리는 것은 사도들의 몫이었다. 사도들이 약속의 성령이 내리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필히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기다리는 것과 성령 강림이 무관하다면 주께서 왜 제자들에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겠는가? 제자들은 왜 지정하신 장소에서 그 명령

을 지키며 기다렸겠는가?

후언더(胡恩德)는 『성령의 은혜 문제(靈恩問題)』의 10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영은파(靈恩派-은사주의자들)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억지로 인용하는 면이 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여자들이 한 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나 사실 성경에는 단지 그들이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지 성령 강림을 간구했다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였고 제자들은 그 성에서 기다렸다.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강림할 것이라고 이미 확실히 알려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간구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제자들은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성품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조건 없는 약속은 철회(撤回)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강림하게 되어있었고 제자들은 단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으며, 오늘날 성령은 이미 강림하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 날 사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 사실은 다만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경건히 주님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사실일 뿐 그것이 성령을 간구한 사실은 아니다. 우리는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우리의 주장 :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요14:16-18). ② 성령께서 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요16:13). ③ 성령께서 저들에게 언변과 지혜를 주셔서 법정에서 승리케 하시고 저들을 대항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눅12:12, 21:15). ④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눅24:49, 행1:8). 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보내셔서 사죄의 권세를 행사하게 하신다(요20:21-23, 눅4:18).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눅24:49, 행1:4-5). 위의 저자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그리 깊이 새기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한 내용도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기도는 아닌 의례적인 기도였다고 했다. 어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성경을 잘못 풀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언변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구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론으로써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성경에는 단지 ‘그들이 기도했다’고만 말했다”라는 것과 성령 강림을 간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역시 일종의 추론이다. 그러나 이는 몇 개의 단어에만 의존할 뿐 좀 더 폭넓은 성경적 근거는 없다. 생각해 보자. 위의 두 가지 추론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 이른바 ‘기다림’이란 간구가 수반된 기다림이다. 간구가 없는 기다림이라면 무슨 의의가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기 전에 낙심해서 구해도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곧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마21:22, 히11:6). 믿음과 인내는 비례하게 되어 있으며 믿음이 좋다면 동요하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다윗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결과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후언더가 제자들이 기다렸을 뿐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문자의 의미만 읽고 그 이면의 내용은 읽어내지 못하여 기다

림에는 간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장취의(斷章取義)했기 때문이다. 또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강림할 것이라고 이미 확실히 알려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간구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제자들은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성품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조건 없는 약속은 철회(撤回)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후언더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고(딤후 2:4) 주님은 현재 우리에게 믿으라고 직접 명령하신 적도 없고 우리는 주를 믿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의 이 무조건적인 약속(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쓴 말씀이므로)은 철회될 수 없으며 주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했다고 할지라도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며, 제자들이 간구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만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며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행1:12-14). 열흘 후 오순절이 되자 주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언더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언더는 같은 저서 11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11:13).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본 절 상반부를 보면, 주는 단지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천부의 사랑을 강조하셨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과 마태복음 7장 11절, 두 곳의 말씀 상반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만 했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좋은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은 신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며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그 방법과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여인이 만약 주를 알았더라면 반드시 주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일 뿐, 생수를 얻는 필수조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장 : 누가복음 11장 11-13절에서는 예수께서 아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동기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만족케 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후언더는 오히려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단지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천부의 사랑을 강조하셨을 뿐이다”라고 엇갈리게 주장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며”라는 말은 그의 모순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후언더는 같은 저서 10쪽에서 “오늘날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시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이미 교회에 임재하시고 모든 신도는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러 저러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다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좋은 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 천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억지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연 이것이 바른 논리인가?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구한다’고 할 때 그 간구의 목적은 분명 ‘성령을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위와 같은 자기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위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것’이라고만 기록된 것은 곧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곳의 성경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 오히려 성령이 가장 귀한 것이며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후언더는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 상황으로 분리해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만 했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를 종합하면 성령을 통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라고 말해서 결국 누가복음 11장 13절

의 구하는 목적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4:10)”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①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이다(행10:44-45, 11:15-17). ②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주(主)시다(요1:32-33). ③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로 상징되는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신다(요7:37-39). 그러나 후언더는 이에 대해 “이 말씀의 뜻은 여인이 만약 주를 알았더라면 반드시 주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일 뿐, 생수를 얻는 필수조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의 견해이다. “여인이 만약 주를 알았더라면 반드시 생수를 주께 구했을 것”이라는 말은 성령은 간구를 통해서 오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말인데,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일 뿐, 생수를 얻는 필수조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어진 말은 자신이 앞서 말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 주님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점이다(요4:15). 이것을 ‘단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거나 조금 더 교묘한 이유를 들어서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여인이 ‘생수’를 구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요4:10).

후언더는 같은 저서 11-12쪽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사마리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로 하여

금 성령을 받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거나 모임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10장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인수나 기도, 혹은 간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 :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인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행8:14-17).”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 기도한 목적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서였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인수했을 때 그들은 곧 성령을 받았다. 생각해보자!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성령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들도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사도들만 기도하고 자신들은 곁에서 한가로이 앉아 수수방관했겠는가? 비록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기록도 또 ‘기다림이나 성령을 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기록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들이 기도한 모임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특별한 목적의 기도 집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넬료가 부르심을 받은 원인은 첫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이며(행11:18), 둘째, 고넬료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유대의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행 10:1-5, 22, 30-35).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본래 그 부름을 허락할 의사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의 주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왜 고넬료의 집에 가야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

시고 각 나라 중에서 주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념을 과감히 타파하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과 교제하는 한편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했던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도들이 크게 놀랐다. 베드로는 동행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줌을 금하리요?”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며칠 동안 저들의 집에 머물렀다(행10:23-48).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된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할례 받은 형제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베드로가 돌아가서 벌어진 일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성령의 세례를 가리킴)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막겠느냐?”라고 말하자 모두들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했다(행11:1-18).

이 역사 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를 부르셔서 유대인의 전통적 관념을 타파함으로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과 또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했다는 것이다(롬3:29-30). 유대인에게 대대로 감추어졌던 비밀, 즉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게 되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엡3:3-6)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개입하신 것이다. 이 기적이란 ①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그 종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지시받은 것 ②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속되거나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계시 받은 것 ③ 구도자(求道者)(고넬료와 그 일가)가 안수기도를 받거나 스스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안수 기도 하거나 스스로 간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16:13),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부어주시며(눅24:49), ② 성령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롬8:9),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는 증거가 된다(엡1:14).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와 사도들이 보여준 대로 성령의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힘써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암중모색의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성령의 세례를 끝까지 거부하는 완악함을 보인다. “오순절은 영원히 재현되지 않는다”거나 “모든 신도에게 이미 성령이 있다”거나 “성령의 세례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갖가지 잘못된 주장으로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비록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만 그들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마23:13, 15). 부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스스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루 속히 회개하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미래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마23:16).

고든(A.J.Gordon)은 “반드시 신도 하나하나가 다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고,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신도는 간구하여 성령의 세례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했으며, 존 맥닐(John Mcneil)

은 “신도가 기도로 ‘주 예수여 구하옵나니 당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교계의 지도자적 인사들의 말들을 주목해 보라. 이들은 모든 신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며, 또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가 바라는 바 성령의 세례가 없는 교회에 소속된 일반 개신교의 신도분들이여! 부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냉정하게 심사숙고 하셔서, 성령의 세례에 관한 진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 제 12 장 ■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맞는 오순절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실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홀연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같이 갈라지는 혀 형상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물려들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고는 모두 놀라서 이상히 여겼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새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라고 증거했고, 또 “이 약속(성령의 세례를 가리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말했다(행2:1-7, 13-18, 38-39).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했다(고전12:13). 이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약속은 유효하며 여기에는 종족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1절 참된 교회에 속한다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말세의 참교회, 즉 본회가 세워진 이래 본회의 신도와 의 대화, 서신 교환, 발행된 문서들을 통해 접촉해서 성령을 받았던 많은 체험들을 살펴보면 모두 본회에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간구해서 성령을 받았다. 이러한 예들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성령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모두 참교회와 접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의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본회가 성령으로 건설된 참교회임을 인정해도 본회에 속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사령(邪靈)을 받는 일도 생긴다. 일반 교회의 장로, 집사, 혹은 목사 중에서 본회에 와서 성령을 받았으나 정(情)을 끊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을 꺼려서 성령의 세례를 잃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록 본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참교회임을 인정하면서도 거절하는 마음을 품으면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고, 또 본래 소속한 교회를 떠나 참교회에 귀속하지 않으면 비록 본회에서 성령을 받았더라도 다시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참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참교회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참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다.

‘참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진리의 교회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며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사2:2-3). 초대교회는 교회의 영

원한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교파를 나누거나 다른 깃발을 세울 수 없다. 초대교회는 이른 비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殿)이고 주님의 몸이며(고전3:16, 엡1:23)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다(롬8:9). 초대교회는 주 예수와 사도들의 진리의 교훈 위에 그 신앙의 터를 세웠다(엡12:19-20).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다(딤후3:15).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적기사가 따랐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의 진실됨을 증거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했다(막16:20, 롬15:18). 그러므로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었다(행3:12-16, 히2:4). 참예수교회도 사도교회와 동일하게 교회에서 성령, 진리, 하나님의 이적기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초대교회가 부흥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말세의 참교회이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기도를 받았기 때문이다(행8:14-17).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직접 성령을 주시지 않았고 단지 성에 들어갈 것과 성 안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 말씀해주셨다. 바울이 성령을 받은 때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난 후였다(행9:3-17).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실 정도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직접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기 종을 읍바에 보냈고, 그곳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만났으며, 그의 말씀을 듣던 중에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행10:1-5, 44-46). 에베소의 제자들은 주를 믿을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이는 사도들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일도 없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 다시 세례를 주고 그들 위에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행19:1-7).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게 시사하는 바는 확실히 ‘영(靈)’은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른 비 시대에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에도 성령의 세례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이 동행하시는 참교회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하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고 (눅24:49),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행1:4-5). 이른 비 시대에 주께서 최초로 성령을 내려주실 곳으로 정하신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이었다. 그 외의 장소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 지정하신 장소에서 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행1:12-15, 2:1-4).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우신 참교회를 상징하며, 이는 어린양의 신부라고도 한다(계21:2, 9-10).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그 지정했던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영적 예루살렘)에 속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행8:14-17, 10:44-46, 19:1-7). 선지자 스가랴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슥14:17). 비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천하만민이 참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2절 진리에 순종한다

국가에는 원수(元首)가 있고 국민은 국가의 원수를 존중하며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며 국민이 태평을 누리게 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서 가족들이 그를 존중하며 가훈(家訓)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래야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있고 인자하신 부모와 효도하는 자녀, 또 화목한 형제애가 있어 기쁨이 충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엡2:19, 빌3:20).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딤후3:15, 엡4: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사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평안과 기쁨이 있다. 성경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5),”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사48:18).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 확실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일찍이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유일한 금령(禁令)을 선포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창2:17). 그러나 아담은 시험에 들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저주를 받고 낙원을 잃고 말았다(창3:4-6, 16-19, 24).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와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롬5:12). 마지막 아담, 즉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법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결과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폐하셔서 영생을 가져다 주셨다(고전15:45, 빌2:8-9,

히2:14, 딤후1:10).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생축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왕은 아멜렉왕과 살진 짐승을 아까워하여 진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나무라자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살진 짐승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기 급급했다. 저등급 짐승은 진멸한다고 하더라도 살지고 좋은 짐승까지 다 멸해야 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그것들을 멸하기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더 좋겠는가?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 다(삼상15:1-23).”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용사로서 그 왕에게 크고 존귀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병환자였다. 그는 이스라엘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병거를 몰아 이스라엘에 이르러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사환을 보내어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할 것이요”라고 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다메섹강 아파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라고 하면서 분한 태도로 떠나려고 했다. 이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말리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 이까”라고 하자 나아만 장군이 내려가 전해들은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고, 그 결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닳는 기적을 체험했다(왕하5:1-1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필수조건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1:1,14, 14:6). 따라서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했고 그를 죽여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오해했으며(요19:7) 소명 이전의 바울도 역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율법을 위한 열정으로 표현할 정도였다(빌3:5-6). 오순절 후 주 예수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으며 성령께서도 이미 강림하셔서 곳곳에 이적기사가 나타나 사도들이 전하던 진리를 증거하였다(막16:19-20 행2:1-5,23-33 5:12-16).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눈이 가리워져 끝까지 진리를 거절하고 사도들이 진리를 전하는 일조차 금지하고 위협을 하는가 하면, 채찍질하거나 옥에 가두기도 하였다. 이렇듯 온갖 방법으로 진리를 대적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욱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기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했고(행4:3, 21, 5:17-33, 40) 성령 세례를 받도록 ‘순종’할 것을 권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전1:9).”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옛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을 무지한 대다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의 성령을 일반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모독하며 참교회가 전하는 진리를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창2:17)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을 더 신뢰하고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다(창3:4-6). 오늘날에도 참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주장하면(행10:44-46)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래서 수많은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믿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안주(安住)하게 만든다. 우리는 다시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행5:32). 옛날에 이른 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전한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의 감동으로 참교회가 전하는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루 속히 오래된 누룩을 제해버리고 참교회가 전하는 순수하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소망한다.

제3절 ‘할렐루야’를 외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약속하셨다(요14:13-14).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므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자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때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서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저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한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

어 음역에서 온 표현으로 ‘할렐’은 ‘찬양’이란 뜻이고 ‘루’는 ‘너희는~ 하라’라는 뜻이며 ‘야’는 ‘여호와’를 가리킨다. 그래서 종합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말이다(참고, 시104:35, 계19:1).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주로 시편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사용된 부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① 시(詩)의 첫머리에 사용한 경우, 시111편, 112편이고

② 시의 끝맺음에 사용한 경우, 시104, 105, 115, 116, 117편이며

③ 첫머리와 끝머리에 다 사용한 경우, 시 106, 113, 135, 146-150편이다. 이 가운데 113-118편을 하나로 묶어 ‘할렐 루야 편(Hallel Group)’이라고 하는데, 이는 ‘찬미시(讚美詩)’이다. 146-150편을 하나로 묶은 근거는 매 편 첫머리와 끝머리에 ‘할렐루야’란 표현이 사용된 데 있으며, 고대(古代) 교회에서부터 이를 ‘할렐루야 시집(詩集)(Halleluiah Psalms)’이라고 호칭했다. 신약 성경 중에는 계시록 19장에서 네 번 외에는 사용된 예가 없다(1,3,4,6절). 앞의 세 구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큰 음녀 바벨론을 멸하신 것과 순교한 성도를 신원하시는 것을 찬송했고, 마지막 구절은 전능하신 이가 왕이 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러 신부가 예비된 것에 대해서 찬송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19:6).” 이것은 참교회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인데, 본 교회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항상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을 가리킨다.

후언더는 『성령의 은혜 문제(靈恩問題)』의 10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구하도록 가르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신도들이 이 말을 발음할 때 점점 말이 빨라져서 단숨에 몇 십 번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몇 시간을 지속하노라면 신경이 피곤해지고 무의식(無意識)에 빠져 사령이 임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성령의 세례로 인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언과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장 :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6:7).” ‘중언부언’이란 말의 희랍 원문은 ‘바타로게오(*Battalogo*)’라는 동사(動詞)로써 신약성경에서 이곳에만 기록될 만큼 사용 예가 적다. 이 말은 본래 ‘말더듬’이란 뜻으로 후에 ‘말더듬는 사람이 재잘거리는 것 같다’는 뜻으로 발전하여 그 뜻이 ‘말을 많이 하여 무의미한 문구(文句)를 많이 쌓는 것’으로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역본에는 이와 같은 원문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해서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방인들은 기도의 효과를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 즉 길게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하느냐의 문제로 여겨 동일한 말이라도 여러 번 거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많이 말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설복(說服)시킬 수 있고 자기의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기도는 같은 말을 거듭 되풀이하고,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방인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기도의 효과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있으며, 결코 말이 많고 적음이나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같은 말로 거듭 동일한 것을 간구하면 안 된다거나 긴 시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 없이 편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씩이나 기도하신 일과(마26:44) 산에서 밤이 맞도

룩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 유연하게 설명할 수 없다(눅6:12).

후언더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구하도록 가르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말하자면, ‘할렐루야’를 많이 말하게 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방법’이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이다. 성령을 구할 때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따라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간절한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반복하는가에 있다. 그는 이어서 “많은 신도들이 이 말을 발음할 때 점점 말이 빨라져서 단숨에 몇 십 번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몇 시간을 지속하노라면 신경이 피곤해지고”라고 지적했다. 이토록 사실과는 다른 말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사실이 실로 유감스럽다. ‘단숨에 몇 십 번’은 고사하고 단 몇 번을 하더라도 숨차지 않겠는가? 게다가 “점점 빨라져서 몇 시간을 지속하노라면 신경이 피곤해지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경이 피로할’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혀버리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기술을 갖춘 후언더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또 “무의식(無意識)에 빠져 사령이 임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성령의 세례로 인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데 대해서 말하자면, 성령을 받는 체험은 자기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도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인데(행2:33, 8:17-19, 10:44-46, 10:1-7), 어떻게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독자들은 거짓말에 미혹 받지 말기 바란다. 그는 ‘사령이 붙어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독자들을 겁주어서 감히 성령의 세례를 구하려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악한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말들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구할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또 “겉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성령의 세례로 인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말은 필자가 방언과 관련되어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고전14:2)”라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에 무지한 데서 나온 표현이다. 또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언과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후언더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의 본래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 어떤 ‘변론’이 난무하더라도 입증된 ‘사실(事實)’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게 된다. 본회에는 수많은 ‘성령 받은 체험담’이 있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이 옳고도 정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한다. 물론 기계적으로 입술로만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간절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다.

제4절 죄 사함의 세례(침례)를 받는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고(행3:38, 22:16),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벧전3:21) 물세례의 은혜에 대해서 대다수의 일반 교회는 알지 못한다. 물세례는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지름길인데, 본회가 설립된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수많은 체험담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른 비 시대에도 동일한 교훈과 역사적 사실(事實)이 존재하여 본회의 체험이 성경에 부합되는 것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현장의 유대인들

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때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임을 증거했다. 또 그들이 죽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음도 증거했다. 이 말을 들었던 청중은 죄책감으로 마음의 찢림과 두려움을 느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대답했다(행2:1-38). 베드로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례(침례)에는 죄 사함의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이 순서를 나열해 보면 회개 - 세례 받음 - 죄사함 - 성령 받음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른 비 시대에는 사울과 고넬료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순서에 의해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했다(고전12:13).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세례’를 가리킨다(고전6:11).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만 사죄권(赦罪權)을 가지며(요20:22-23),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만 물이 주님의 보혈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요19:34, 요일5:6-8).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는 성령의 세례를 가리킨다. 성령은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는 ‘생명수’이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이 물이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요4:14, 7:37-39). 우리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서 먼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 데 이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한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했던 말과 순서가 일치하고 있으며, 이른 비 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과정이 대부분 이러한 순서였다는 것도 반증하고 있다. 반면에 주님이 사울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성령세례)을 받게 하신 후 나중에 물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특별히 경우

이다. 바울은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요,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실 것이라는 목적을 증명하는 의미였다(행 9:10-19). 고넬료 가정도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가깝게 왕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을 먼저 내려주신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시려는 목적에서였다(행 10:28, 44-48, 11:1-4, 15:18). 이처럼 본회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먼저 내려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특별히 견고케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사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저들은 ‘아니라’라고 대답했다. 이에 바울은 이상히 여겨 이 사람들이 받은 물세례도 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른비 시대에도 물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물세례나 기타 다른 것에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던 것이다(참고 행 8:18-24).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묻는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했다. 바울은 그 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원인이 세례에 있음을 알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이 그들 위에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행 19:1-7).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이런 상황 아래 있는 분이라면 에베소 제자들처럼 다시 바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비로소 성령

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물세례의 방법’은 ① ‘주 예수 이름’(행8:16,19:5)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행2:38, 10:48)으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라는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행4:12).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행10:43, 22:16, 요일2:12). ②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롬6:3). 그러므로 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 죽으신 형상과 연합함을 나타내야 한다(롬6:5, 요19:30).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구하는 마땅한 태도이기도 하다(스9:6, 시38:4, 40:12, 눅18:13-14). ③ 세례를 받을 때 전신이 물에 잠겨야 한다. 이는 주와 함께 장사됨을 나타내는 것이다(롬6:3-4). 이것은 주 예수와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다(마3:16, 행8:36-39). 세례 요한이 특별히 물이 많은 곳을 택해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요3:23). 이 밖에 세례 베푸는 자의 자격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세례 주는 사람이 성경적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비록 세례의 방법이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세례 주는 자의 자격은 ① 그 자신이 반드시 성경에 지시된 방법의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들어오지 못하므로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한 자가 어찌 남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롬10:15, 요3:34, 20:21, 22, 눅4:18). 죄 사함의 권세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교회)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요20:22-23).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 교회는 세례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얼굴을 위로 들고’, 혹은 ‘적례(滴禮)’ 등과 같이 비성경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세례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성경에 부합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라서 하나님께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시세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격과 조건 아래의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와 같은 종류의 세례라고 볼 수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제5절 안수를 받는다

‘안수’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러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연합의 표시

구약시대 율법의 조문에 따르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해야 했다(출29:10-14, 레1:3, 4). 이 안수의 행위는 일종의 연합, 즉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①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에게 전가되며 ②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정결함은 제사 드리는 자에게 전가되어 ③ 제물된 짐승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고 ④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다.

2. 축복의 안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안수가 시행된 것은 아곱이 에

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바로 사람을 축복할 때였다(창 48:8-20). 신약시대에 예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바 있다(마19:13-15, 막10:13-16).

3. 병 고침의 안수

병 고침의 안수는 연합과 축복의 이중적 효과가 있다. 연합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병자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병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축복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안수하는 자가 병자의 몸에 안수할 때 병자는 그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과 축복의 이중적 효과 아래 병자의 질병이 치유된다. 신약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막6:5, 8:22-25, 눅4:40, 13:10-13), 바울이 멜리테 섬에 상륙했을 때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그 섬의 추장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행28:1, 7-8). 예수께서 들림을 받아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막16:18). 안수기도는 병을 고치는 일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4. 은사를 나누어 줌

연합과 축복의 차원에서 안수를 통해 자기의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그가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함으로써 영도자가 갖추어야 할 큰 능력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청중하게 했다(신34:9).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인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목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딤후4:14, 딤후1:6-7).

5. 전례(典禮-의례)의 하나

성경을 살펴보면 안수는 때로 일종의 전례(의례)로 행해지기도 했다(히 6:2). 다만 이런 전례를 집행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딤후5:22).

(1) 성직 안립

구약시대의 한 사례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인수하고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인수하여 그의 직분을 계승하게 했다(민27:15-23). 신약시대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는 신도의 증가에 따라 관리상의 문제가 처음 발생했다. 신도는 점점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자기 소속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원망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들이 칭찬하는 사람 일곱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인수하고 구제하는 일을 관리하는 집사로 세웠다(행6:1-6).

2) 일꾼의 파견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13:2-3).” 초대교회는 선교 사역을 위한 일꾼을 파견할 때 안수(按手)를 행한 후 그들을 파견했다.

6.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

안수는 위에서 열거한 각종 효능과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지름길이다. 이른 비 시대에 오순절과 고넬료 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

(1) 사마리아 성 사람의 체험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자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 때 흩어진 자 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이적기사가 나타났고, 이에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의 말을 좇았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다. 성 사람들은 물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안수 기도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들이 곧 성령을 받았다(행8:1-17).

(2) 사울의 체험

사울은 처음에는 복음에 반대하고 힘껏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인물이었다(빌3:6, 참고 요16:2-3). 한 번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받아왔다. 그것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목적에 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서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내리비취면서 예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 한편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란 사람을 만나도록 지시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려는 뜻을 나타내셨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인수하며 “형제 사울 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곧 물세례까지 받았다(행9:1-18).

(3) 에베소 제자들의 체험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곳의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원인이 바른 물세례를 받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이 그들에게 인수하자 곧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행19:1-6).

위에서 나열한 것들은 모두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례들이다. 본회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체험도 대부분 이와 같다. 오순절의 경우가 이와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최초의 성령 강림이었으며, 따라서 누구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없었다. 고넬료 가정의 경우 안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본서 12장의 제4절 ‘죄사함의 세례(침례)를 받는다’를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본 회의 성령 받는 체험을 보면 이와 같이 물세례보다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6절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5:3). ‘가난한 마음’의 원문의 뜻은 ‘영(靈)적인 빈궁(貧窮)’을 가리킨다. 가난한 사람이 살림살이나 기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여 자궁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천국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며, 이런 사람들로만 이를 수 있는 나라이다. 이들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은 이들의 기업이며,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되신다.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수 조건이며(요3:5, 엠1:14), 천국이 마음 가난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더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에 더 잘 순종하기 때문이다. 교회 집회시 성령의 세례를 구할 때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쉽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마18:3-4).

라오디게아교회는 스스로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그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령 없는 일반 교회의 전형이다. 이들은 진리가 없으나(가난한 것)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며 성결하지 못하나(별거벗음) 스스로 성결하다고 생각하며 성령이 없으나(눈먼 것) 스스로 있다고 여긴다. 부디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기 바란다(계3:14-20). 라오디게아교회

와 매우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교회다. 주께서 서머나교회에게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계 2:8-9). 우리는 모두 서머나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영(靈)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결코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이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착각에 영원히 궁핍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1-2절)”라고 진솔하게 대답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대답하거나 오히려 ‘오순절 이래 성령께서 신도 개개인의 마음 속에 계신다고 대답한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원인이 저들이 받은 세례가 옳지 않은 데 있었음을 알고 다시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다(3-5절).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고 “세례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되며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서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곤 한다. 이것은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도 말해서(6절) 그 증거를 나타냈다.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방언 문제에 대해 성령을 받는다고 반드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과거 그릇에 담겼던 것을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새것이 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릇된 성경 지식을 깨끗이 비워야만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과 접촉한 후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66장에는 “江海之所以爲百谷王者, 以基善下也”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물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지세(地勢)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수량(容水量)이 많아져서 마침내 강이나 바다를 이루게 된다. ‘물’로 상징되는 성령은 자기를 낮추어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5:5)”라고 했다.

●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은 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셨다(마5:8). ‘청결’이란 원문을 직역하면 ‘마음의 청결’을 가리킨다. 여씨역본과 일어역본에는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번역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요1:18)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볼 수 있다. 욥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했다(욥19:26-27). 다윗 역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말했다(시17:15).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히 구별하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살전4:3-7).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진리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지시하셨던 것이다(레1:3-4, 11:44-47, 렘4:4, 9:25). 하나님은 성결한 신이시므로 성결치 못한 사람은 그를 볼 수 없다(벧전1:15-16, 히12:14).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시73:1).

몸이 부정하지 않고 성결하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잠4:23).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렘4:4, 9:25)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참된 할례가 아니며,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므로 신령에 있고 성문화된 법조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롬2:27-29). 그러나 바리새인은 외형적인 성결만 중요시하고 마음 속의 성결을 소홀히 여겨서 항상 옛사람들의 전통(유전)만을 고수하고자 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한편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꾸짖으셨다(막7:1-5, 눅11:37-40). 이와 같이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리새인이 고수했던 외적인 성결은 바로 영적 성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다.

소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마음이 성결하고, 또 행위에 흠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평소 성결을 힘써 추구하는 태도의 사람이며, 과오를 범하더라도 절실하게 회개하는 자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마19:17, 롬3:9-12)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잘못은 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구약시대의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뵈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욥42:5-6, 10). 신약시대의 세리장 삭개오는 절실히 회개하여 예수님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그의 영혼을 구원받았다(눅19:1-10).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므로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시103:8-9, 사57:15, 66:2).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시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시51:17).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구해야 한다(애3:40, 시139:23-24). 결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

기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눅 18:9-14, 참고 잠30:12).

옛적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약속하셨다(잠1:23). 오늘날에는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절실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은 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마음을 가지셔서(시50:1, 10) 꼭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제7절 믿음과 전심(專心)으로 구한다

-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그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요 4:24, 1:18).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데, 이는 천지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神性)이 충만히 들어있기 때문이다(롬1:20).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다(요일4:8). 그가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요3:16, 롬5:7-8).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는가?(롬8:32).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시다(창17:1).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마19:26). 하늘이 그의 명하심으로 지어졌으며 만물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시33:6).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는가?(창18:4).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이시다(신7:9).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믿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딤후2:13).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마21:22),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리가 있겠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된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반면,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라고 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막11:24). 이것이 곧 믿음의 정의(定義)이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믿은 상태)을 듣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다가 뒤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그녀가 바라던 바를 아직 목격한 것이 아니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그 결과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 여인은 즉시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았다(그가 얻을 것으로 믿었던 그것을

얻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막5:25-34).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급박한 간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즉시 가시지 않으시고 단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한 말씀만 하셨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그때 그의 바라던 일이 비록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었을지라도 그는 확신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그의 하인이 그에게 나아와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보고했다(요4:46-53)(그가 얻을 것으로 믿었던 그것을 얻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믿음에 대한 예이며 우리가 깊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옛적 거짓 선생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는데(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영성(靈性)의 부활이며 생명의 새로워짐이다), 저들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감과 같아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딤후2:17-18, 고전 15:12-22). 오늘날에도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개 오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다(이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은 단 한 번뿐이며 성령이 단 한 번 강림하시어 그 이후로 교회에 지금까지 계속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한 창질의 썩어감과 같은 이들의 말도 역시 갈수록 심해져서 수많은 무지한 신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즉 성령의 세례를 추구할 생각을 영영 잊게 하여 평생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때의 오순절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지만 오순절의 의미는 단 한 번이 아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했다(갈3:14).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음으

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 이른 비 시대가 그러했고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성령에 기록된 성령을 주심에 대한 모든 약속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며, 굳건한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심(專心)으로 해야 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6).” 문자적인 뜻을 살펴보면 골방이란 은밀한 장소로 남들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진정과 전심(專心)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영적인 뜻으로 말하면 골방이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잡념을 버리고 깊은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전심(專心)으로 기도하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골방에서의 영적 소통은 하나님께 응답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수께서 주신 교훈의 뜻은 단지 문자적으로 신도는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진정과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뜻이다. 이 해석의 이유는 첫째, 당시 위선자들이 회당 안과 거리에 서서 기도함으로써 고의로 사람들의 눈에 띄어 칭찬 받기를 좋아했다(마6:5).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면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산만한 마음으로 인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잡념을 버리고 전심전력으로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설사 군중 앞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마을과 무리들을 떠나 산이나(마 14:23, 눅6:12, 9:28) 인적이 없는 조용한 들에서 기도하셨고(마4:1-2, 막1:35, 눅5:16),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마26:36-40, 눅22:39-41). 그러

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다(눅3:21, 11:1, 요11:41-43, 12:27-29).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마18:19-20), 성전을 가리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막11:17). 사도들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으나(행10:9, 16:13-16),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행 21:5, 27:35).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각처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도 했다(딤후2:8).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길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항상 진정과 전심으로 드러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요4:24). 우리가 이 교훈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진정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비록 군중 앞에서 기도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순절 이후 날로 제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 안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고, 급기야 원망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라고 말했다(행6:1-4).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사도들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기도와 선교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선민들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렘29:12-13).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원할지라도 육신이 약하여 마치 포로 된 자처럼 죄의 요구를 이길 수가 없다(롬7:14-24, 마26:41).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풀려난 자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롬8:1, 2, 13, 갈

5:16).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반드시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구할 때는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제8절 항상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롬12:12).” ‘항(恒)’자에는 ‘상(常)’과 ‘구(久)’의 뜻이 있다. ‘항상’은 ‘늘’이라는 뜻으로 일역(日譯)에는 ‘항상(恒常)’으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과 영국개정판(英國改訂版)은 모두 ‘지속(持續, continuing)’으로 번역되었으며, 새영어역본에는 ‘견지(堅持, persist)’로 번역되어 있다. 이는 기도는 항상, 꾸준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쇠막대기를 갈아서 바늘이 되는 것’을 보더라도 ‘항상’ ‘늘’ 반복하는 것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발견한다. 항상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사례는 성경 안에 많이 있다. ① 아브라함은 백세가 다 되었을 때 비록 자기 몸이 죽은 사람과 다름없고 사라의 생산의 능력이 단절된 것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롬4:19-21, 히6:15). ②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브니엘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는데, 그 결과 야곱은 천사를 이겼고, 그가 요구한 축복을 받고 나서야 천사를 가게 하였다(창32:24-30).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힘으로 이기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굽하지 않는 의지로 간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이처럼 끈질기게 간구할 결심이 필요하다. ③ 아합왕 재위 시절에 이스라엘의 온 땅이 삼 년 반 동안 하늘이

단혀 큰 흉년이 들었다(눅4:25). 이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차례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검은 구름을 일으키셔서 하늘을 캄캄하게 하시더니 큰 비를 내려주셨다(왕상18:41-45, 약5:17-18). ④ 어떤 가나안 여인은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을 찾아와 궁핍히 여기 서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않으시고 오히려 냉담히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셨다.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기까지 했다. 주님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웁소이다미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결국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즉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마15:21-28). ⑤ 주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설교하실 때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단념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만들고 중풍병자의 침상채로 달아 내렸다. 주님은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시고 즉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고, 그의 병이 즉시 나았다(막 2:1-12). ⑥ 헤롯왕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을 때 두 병사는 양쪽에서 두 개의 쇠사슬에 묶어 지키고 있었다. 또 감옥 문 앞에는 네 개 조의 병사가 교대로 경비하고 있었다는데, 그 경비의 삼엄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간혀있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탈출하도록 인도하셨다(행12:4-19). 이 같은 사실은 지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확실한 비결임을 가르쳐준다.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들어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눅 18:1-5)”라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과부의 호소가 너무도 끈질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일진대 동요하지 않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꾸준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한 기도를 비유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모범을 통해 응답의 비결을 몸소 보여주셨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사십 일간 금식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 주야로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고 세 번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장차 수행하실 사역의 기초를 마련하셨다(눅 4:1-15). ② 전도 활동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고 또 항상 이른 새벽이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막1:35, 마14:23, 25, 눅6:12-13). 이로 인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신 가운데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셨다(막5:30, 눅 5:17, 6:19, 행10:38). ③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해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셨다. 그 결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통해서 결국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마26:36-44, 눅22:41-44, 히5:7, 행2:24).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구할 때 꾸준히 열심히 기도할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 하나는 ‘떡 빌리는 비유’로써 문밖의 친구가 필요한 떡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간청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셨고(눅11:5-8), 다른 하나는 ‘간청하는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눅11:11-13). 예수께서 이 두 비유의 13절 하반절에 이르러 결론을 맺으셨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꾸준히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3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재되어 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곳의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온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교훈은 성령의 세례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목말라야 한다(요4:10, 13-14).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이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계 3:14-17).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옛 성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시42:1).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배에서는 틀림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하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 ‘~까지’라는 단어와 ‘~기다리랴’는 단어 안에는 ‘지속(恒)’의 의미가 담겨있다. 전자에서 ‘~까지’란 단어는 한정된 지점이 없이 목적이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기다리랴’는 단어는 ‘꾸준한 마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당신의 분부를 좇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꾸준히 기도했다(행1:12-15). 그 결과 오순절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행2:1-4). 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흘을 금식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꾸준히 기도했다. 그 결과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와 만나게 하였고,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셨다(행9:8-19).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꾸준한 기도’는 확실히 성령의 세례를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이다.

제9절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5, 16).”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①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②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보혜사(성령)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그분과 동거하게 하신다고

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주님을 진실히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많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열납지 않으셨고 성회로 모일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사1:10-17, 29:13). 오늘날 우리도 꾸준히 성령의 세례를 구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요13:34, 15:12-14).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건으로 선명히 나타났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한다(요일3:16). 교회는 주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다. 이들이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골1:24, 고전11:3, 12:25-17).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한창 핍박할 때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이까?”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다(행9:1-5).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주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다(요13:34-35). 우리에게 만약 서로 사랑하는 미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마22:39-40, 갈5:14),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을 자각하고 사랑의 빛을 갠고자 노력해야 한다(롬13:8).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यो.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14:21, 23).”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주님의 명령이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마10:20, 고후3:3) 주님의 영이시다(행5:9, 16:7). 여기서 ‘나를 나타낸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내주(內住)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진실히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2-24).”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다(참고 요 15:7-10). ②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③ 주를 믿는 것과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④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이다.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했다(요일4:20, 21).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딤후3: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며(엡4:6)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갈3:26).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이다.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가르치셨다(마5:44-45). 우리의 원수라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형제임에랴!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자녀가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요일4:8-11, 1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후5:14-15).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요한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했다(요일3:17-21). 이것은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2-24절의 말씀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실천해서 형제가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 그와 같으면 22절에서 말씀하신 복, 즉 성령의 세례를 포함한 모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처럼 뜻을 세우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명령을 준수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옛적 바리새인들은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알았고(요19:4-7, 참고 요16:2-3),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핍박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 알았다(행9:1-5, 빌3:5-6). 오늘날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강림하신 사실 앞에서도 대다수 일반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방언 문제를 주저없이 공격하고 극단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주님께 충성하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바라하옵기는 저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속히 성령 세례의 진리를 깨달아(참고 눅24:45) 빈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 제 13 장 ■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술 취하는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즐거움은 잠깐 이요 허무한 것이며, 나중에는 고통만 가져온다. 반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술 취하면 미친 사람처럼 망령된 말을 내뱉고 결국 화를 불러 자기와 남을 해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말을 조심하고, 화가 될 일도 복이 되게 하며 자기와 남을 유익하게 한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도 나쁘게 변화시키고 방탕과 방종에 빠져 패가망신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영성이 자라 악을 버리고 선을 좇아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결과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 날마다 취하도록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생활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생명으로 여기는 자이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성도는 성령을 생활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생명으로 삼는 자이다. 이렇게 애주가와 성도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나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얻은 경험과(눅1:15, 67)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성령이 세례 요한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엘리야의 심지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눅1:16-17). 성령이 사가랴를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예언을 하여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심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눅1:67-69).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마11:13),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므로(눅1:8)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체험은 구약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체험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 충만의 체험은 성령께서 영원히 동거하는 것이며, 감동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었다(요14:16-18). 본장(本章)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은 세례 요한이나 그의 부친 사가랴가 체험한 종류의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오순절 전에도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은 오순절 이후의 체험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일 따름이다.

일반 개신교 성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두 가지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방언 소리가 크고 몸의 진동이 격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더 우월하고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여기기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영성이 어린 신도들이 전자의 그릇된 관념으로 인해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 신도들은 후자의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선한 행위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지 않는다. 만약 성령 충만의 문제에서 이 둘 중 하나의 관념이라도 빠져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 여러 문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성령 충만의 정의

헬라이어 원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체험에 대한 서술 시제는 부정과거형과 현재진행형의 두 가지다. 부정과거형이란 과거의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31절, 9장 17절, 13장 9절 등에서 발견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용된 것은 현재진행형으로 이 구절의 충만은 신도가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은 과거에 발생한 동작으로 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행2:4, 9:17) ②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행4:8-13, 31) ③ 필요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행13:9-11) 등으로 말할 수 있고, 또 성도의 일상 속에서 신실한 생활의 모습이 지속되는 것, 즉 ① 지혜가 가득한 것(행6:3) ② 큰 믿음이 있는 것(행6:5, 11:24) ③ 핍박받을 때에도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한 것(행7:55, 56, 13:52)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

1.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

성경은 오순절 날 성령이 제자들의 몸에 임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행2:1-4). 예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는 뜻을 가지고 아나니아를 유다의 집으로 보내사 그를 만나게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다(행9:10-17). 이 두 곳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 문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더 숭고한 경지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오류라고 가정한다면 저들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더욱 문제가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은 영적 생활상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본장의 논제이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하는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 속에 성령의 내주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선행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내주하셔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도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끼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3:1-3).”

고린도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건설하신 교회로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다(고전3:16, 6:19). 또 그들은 종족과 계급의 차별 없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다(고전 12:13). 그런데 그들은 서로 질투하며 분쟁하여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을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시작일 따름이며(행 2:4),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 더 깊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할 것을 명령했으며, 우리는 결코 방언을 말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

2. 성령으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함을 가리키는 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용된 시제가 현재진행형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신도가 부단히 경험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신도가 마땅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다(요7:37-38).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확실히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샘’이

숫아나듯이 ‘강이 흘러나듯이’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기독교 신도들은 아직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서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주체하지 못해 세속에 점점 빠져들어 결국 이름뿐인 신도가 된다. 또 이미 참교회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도라 할지라도 그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경험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몸이 이미 성령의 전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는 생활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고린도교회는 비록 성령께서 친히 건설하신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는 생활을 지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자각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짐승의 고기,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등을 전부 단 위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했다(레1:6-9).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희생의 제물이 되는 짐승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요1:29),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엡5:2, 고전5:7)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신 것이다(히10:5-7).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마26:39)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생활이 나타난 극치라고 할 수 있다(빌 2:6-8).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했다(갈6:14). 한마디로 바울에게 세상은 없었고, 세상에는 바울이 없었고, 바울 안에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시며, 바울 자신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다. 바울의 이런 삶의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동일하며(고전11:1), 성령 충만의 생활이 나타낸 극치이기도 하다. 바울이 갈라디아교회를 위해 자신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되, 저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한 이유는 그들의 생활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것은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 기대했던 바이기도 하다(고전6:17). 만약 우리의 영성이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마6:33).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대하12:14, 19:3).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의 나라가 실현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혹은 하나님의 뜻)를 먼저 구하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중에 구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게 하는 데 있다(마6:10, 11). 이와 같은 삶이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성령을 왕 노릇 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 되게 하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다(갈5:16, 25).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은 성령께서 왕 노릇 하시도록 순종하는 생활이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과(마22:37)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며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롬 12:1-2, 6:13).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원칙과 특징에 일치하면 우리는 곧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성령 충만이며, 이것은 참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생활의 자세이다.

제2절 성령 충만을 받은 효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이 말씀에 대해 구로사끼 고우기찌(黒崎幸吉)의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승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을 그들의 몸에 풍성하게 부으셨듯이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계승하도록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성령의 일부를 저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일부를 부으셨다고 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부으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 성령은 한 분이시며(고전12:4, 엡4:4), 그 하나가 전부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곧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요14:16-17, 23). 위와 같이 물질적인 관념으로 일부의 부으심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체험도 역시 다른 성령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속에 받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뿐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능력의 샘이다. 예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며 달음박질해도 피곤치 않다(사40:30).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눅4:1, 14). 바꿔 말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10:10).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도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성령의 세례에서 비롯된다(겔34:14, 롬8:2, 갈5:25). 성령은 주의 영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행16:7, 요1:4). 또 성령의 충만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이 오는데, 이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강력한 힘을 더해주시기 때문이다(엡3:16).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험은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성업을 감당할 수 있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 혹은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성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마귀는 강력하게 모든 성업을 파괴하려고 활동하기 때문에 만약 성업을 맡은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는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구약시대에 성막(회막)을 짓는 기술자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었다(출31:1-5, 35:30-35). 신약시대에 신령한 집(성전)을 짓는 일꾼도(벧전2:4-5)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있으며 사람들

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했다(행6:2-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하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분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눅24:49, 행1:4-5, 8).

따라서 오순절 이후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각 성읍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다(행1:8, 4:33, 8:1-5, 14, 26:20). 그 구체적인 역사의 발자취는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①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고난 받을 결심을 밝혔으나 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다(눅22:33, 54-62).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게 약했던 그가 강하게 변화되어서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거하였다(행2:1-4, 14-40, 4:8-20). ②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큰 능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행4:23-33). ③ 스테반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민간에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증거하여 감히 그를 이겨낼 대적이 없었다(행6:5, 8-10). 성난 군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를 목격하였다. 육신이야 어찌되든지 그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그는 주님께 자기 영혼을 거두어주시기를 간구했다(행7:54-59). ④ 식탁 봉사를 하던 빌립 집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란 칭호를 얻기도 했다(행6:3-5, 8:5-13, 29-40, 21:8). 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행11:24). ⑥ 바울이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는 이를 대적하여 방해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꾸짖으며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저주하였다. 그러자 엘루마는 즉시 눈이 어두워져서 인도

해줄 사람을 찾았고, 그 광경을 본 총독은 믿고 배운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행13:6-12).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통해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행13:14,50,52). 위의 사실들은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준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전도자라도 학식과 언변만으로도 흥미롭고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고 만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찢어 감동시키거나 죄를 자책하고 회개하게 인도하거나 또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결심하게 하지는 못한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마음에 찔람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즉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행2:37,41). 이것은 본래 베드로의 학식과 구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다(행2:1-4).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인물이었다(행4:13), 예수님조차 사람들에게 ‘무학자’로 인식된 인물이었다(요7:15).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은 다 크게 놀랐는데,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랐기 때문이다(마7:28,29).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셔서 마음 속에 영적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눅4:1,14).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1,4,5).”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2).”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성업을 맡아 단지 세상적인 재능과 지혜만으로 계획

을 세우고 조직화하고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뜻이 섞이고 나중에는 사람의 능력이 성령의 통치를 대신하며 사람의 계획이 성령의 뜻을 대신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변질된 단체에 불과하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교회였다. 그래서 식탁 봉사하는 집사처럼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직분에 대해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행6:2-5)’. 오늘날 일반 교회는 대부분 이와 같은 모습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일에 세속적 형식을 영적인 가치보다 앞세우고, 설교도 성령의 능력보다 학식과 구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의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초대교회의 영광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2. 죄의 권세와 싸워 이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효과는 크게는 성업(聖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며, 작게는 개인이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후자는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교법사 가말리엘 밑에서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다(빌3:5, 행22:3). 그런데 그가 탄식해야만 했던 점은 무엇인가? 그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15,18,24)”라고 탄식했다. 그가 이렇게 탄식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14,19,20).” 그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7:21-23).” 이것이 기독교도가 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시대에 대한 회고(回顧)의 내용이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과거에 대한 회고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이로써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과거의 세세한 죄목들이 모두 말소되고 그로부터 승리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죄목이 말소되는 것은 중생의 세례를 통해 그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에게 전가되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것이다(딤후3:5,고후5:21,롬8:33,34,5;9,4:15). 승리하는 생활이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어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딤후3:5, 요10:10, 눅4:14, 요일 5:18). 죄목이 말소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첫 걸음으로 중요한 것이나 성결을 이루는 필수 과정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결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히12:1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말씀은 킹제임스 역본(KJV)에서는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

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이 왕 노릇 하시게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생활 중에 주님과 연합의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 생활 중에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사람이며(엡4:2),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는지 알 수 있으며,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법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죄의 종노릇하는 생활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하는 승리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이며 놀라운 은혜인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비록 이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로마서 7장 14-24절에 기록된 그런 패배의 경험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된 승리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패배와 바울의 승리는 아담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연상시킨다. 아담의 패배는 육체를 따라 행한 데 있었고(창3:6),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신 데 있었다(눅4:1-14). 우리와 바울 사도와의 차이점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바울 사도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17)”라고 말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9-30)”라고 말씀하셨다. 팔레스타인 농부가 사용하는 멍에는 십자가형으로 좌우에 각각 소나 나귀를 묶어 멍에를 함께 메게 한다(참고 신22;고후6:14). 만약 지극히 작고 유한한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멍에를 메려 한다면 고통과 절망만 더해지고, 메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히4:15 - 16).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만을 본으로 삼고 힘을 다해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7:24,25)”라고 말했다. 자기를 의지해서는 죄의 법을 벗어나지 못했던 바울은 주 예수를 의지해서 능히 벗어날 수 있었다. 자기를 의지해서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한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요 주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확실히 체험했던 것이다.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기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분의 모양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면(고전11:1) 우리도 바울이 체험한 것과 같은 승리를 체험할 것이고, 그가 누린 복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

바울은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9 - 10)”라고 말했다. 사람은 대개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강한 것은 영광스러워하고 약한 것은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방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연약함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연약함이란 그가 계속 주를 의지하여 강해질 수 있는 구실이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에게 연약함이란 죄의 법에 패배한 데 대한 변명거리만 될 뿐이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빌3:5) 육신의 법을 좇을 때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선포하여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음으로써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롬8:3,4). 이 얼마나 기묘한 하나님의 경륜인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출34:14).”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후 11:2).”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며(사54:5, 렘3:14) 우리는 그분의 아내이다(호 2:19 - 20). 만약 다른 이가 남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남편은 질투를 느낄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상황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라고 했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품었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상실하고 악에 치우쳐 세상을 친구로 삼는다면 이는 음부(淫婦)처럼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고후11:2,3,약4:4,5).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경배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한 아내가 두 남편에게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마6:24). 만약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에(요일2:15)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음부(淫婦)와 같이 여기신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일생 온 마음으로 그분만 섬기며 세속에 물들거나 탐내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마치 정결한 처녀가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신다. 구약의 선민들을 일컬어 여호와와 군대라고 했고(출12:41), 또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군대가 되었다고 한 것은(겔37:10,14) 신약시대의 선민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되살아나(롬8:2; 갈5:22) 그리스도의 정병(精兵)이 되는 것을 예표한다(딤후2:3).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원수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며(엡6:12)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이다(벧전5:8).

이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여 그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한다(갈5:17).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된다(갈5:10,롬8:13). 요한 사도는 “1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8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4,18)”라고 하셨다. 이른바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자신을 지켜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엡6:16). 반면 믿음이 없어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좇아 행하면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롬8:7). 이들은 마치 사데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것과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것이다(계3:1,2).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발견되는 미세한 존재지만 한번 전파되면 무섭게 번져서 각종 질병을 일으켜 무섭고 잔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마귀는 영적 안목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세균보

다도 더 무섭고 잔인한 결과를 가져온다. 세균은 단순히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이지만 마귀는 인생 전체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마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다(고전9:27)”라고 했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라고 했으며, 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7)”라고 했다. 우리는 전술한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죄와 원수 관계가 되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것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의사는 세균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서 전염병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가 된 자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둔감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마치 위생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자가 세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예방을 소홀히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치료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화를 입게 하는 것과 같다. 예방은 치료보다 중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에 주의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예방에 부주의하다가 질병에 걸리고, 결국 치료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도 한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법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도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 내용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대목이 있다(마6:13). 심문리역(深文理譯)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번역했고, 여씨역본(呂譯)에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사악(邪惡)을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했으며, 킹제임스 역본(KJV)에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유혹에 들어가

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라고 번역했다. 마귀의 시험에는 예외가 없다. 주님도 역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히4:15).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찌 시험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성을 갖춘다면 결코 세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 미혹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결코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극복할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눅4:1,14). 주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하였고, 두 번째 대답으로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였다. 또 세 번째 대답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시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잠시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다(눅4:3-13). 예수께서 마귀를 응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우선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범된 모습이며,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약4:7).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렸던 고별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는 말씀이 있다(요17:15).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요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요 동시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여 만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

3. 성령의 열매를 맺음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승리한다는 의미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마5:14). 소극적인 면에서 성결함을 지키고 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나 적극적인 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마5:16; 고전10:33). 죄에 대항하는 소극적인 방향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고 마음 속에 진리와 숭고한 성품을 품을 때에야 악의 세력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 마12:43-45). 이는 마치 승리를 위해서는 전쟁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것과 같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첫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둘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16-18,22,23).”

주님의 산상수훈 안에서 우리는 여러 귀한 교훈을 받는다. 첫째, 양은 양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리는 이리의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지,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코 양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마7:15). 아무리 외적으로 군자(君子)처럼 온화하고 고상하며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을 부르짖으며 그 행동은 사회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건한

자로 보일지 몰라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적나라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둘째, 과수(果樹)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당장의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다 나중에 그 맺힌 열매를 보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고전 1:4 - 7, 3:1 - 3). 주님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판단 기준을 그들이 받은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맺은 열매로 삼겠다고 하셨다. 셋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며(고전12:11), 모든 신도가 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요15:16).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더라도 모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눅10:17-20).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일 뿐이며(고전12:18 엡4:11~12,16), 이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주님께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생활이 모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상 그 마음에 주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엡3:17).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6:46)”라고 반문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경계의 교훈이다. 다섯째,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롬7:18,21).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5)”라고 말씀하셨다. 근원이 다르면 열매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여섯째, 주님은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종일관 지금까지 악을 행해온 자들이며, 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며, 악을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급변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6:37)”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일곱째,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며 우리는 그 가지이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해 버리신다고 했다(요 15:1,5,16,8,2). 구원과 행위는 깊은 관계가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공로를 높이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를 뒤엎고 율법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란 결코 행위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약2:26). 진실한 믿음이 힘이 있고 사랑을 발휘하게 한다(갈5:6).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롬6:15-19).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저희를 쳐다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19:23-26)”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즉, 구원 얻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라고 말씀하셨다. ‘주안에 있다’는 말은 로마서 8장 4절의 킹제임스 역본(KJV) 기록대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며 또 성령의 충만을 통해 범사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생활하는 자이

다. 그 결과 그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은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눅24:49), 이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다(딤후3:5 요10:10).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를 떠나서 성령 충만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고 말했다.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 23).”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르포스(*καρπός*, *karpos*)’로서 단수명사이다. 영문에서는 ‘fruit’로서 역시 단수로 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며(고전12:4 엡4:4), 그분이 맺는 열매도 하나의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장 5-7절에 언급하고 있는 소위 ‘은혜의 연결고리’처럼 한 가지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이다.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를 다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홉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아홉 가지 형태로 나타는 열매는 다시 세 가지(三組)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랑 · 희락 · 화평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다. 집의 구조로 말하자면 사랑은 기초요, 희락은 기둥이고, 화평은 지붕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agape*)’이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시며 중생한 자의 믿음에서 나온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가장 지고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다른 열매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높은 강령이다(마22:37-40; 딤후1:5). 십계명을 통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면 다섯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요일 4:20). 사랑은 모든 덕을 하나로 묶어준다. 마치 옷을 입을 때 옷과 옷이 어우러지고 맵시 있게 연결되도록 하는 띠의 기능과 같다(골 3:14). 사랑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고(요13:35),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증거이며(요일3:14),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한다(약2:13; 요일4:17,18).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사랑의 최고 경지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의 무지(無智)를 용납하는 것이다(마5:44; 눅23:34).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요일4:8).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한 사랑이어서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신다(마5:45). 또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행10:35; 롬5:6-8).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5:5)”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스테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이런 모습이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행7:55,60).

‘희락’의 히브리 단어는 ‘심하(*simhāh*)’이며 ‘빛이 비취다’라는 뜻으로, 상징적 표현의 일종이다. 희락이 있는 자는 마음과 외모가 다 밝아 그늘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헬라어 단어로는 ‘카라(*chara*)’이다.

솔로몬 왕은 그의 권세가 한창일 때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다 누렸는데, 그의 누림은 그의 이전이나 이후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화였다(전2:10).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

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5:10)”라고 한탄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 물질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은 잠깐 동안 존재하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깨달았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야곱의 우물물과 같아서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과 같다(요 4:13).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희락은 진실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롬 14:17; 요15:11). 이것은 생수의 샘이며 끝없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요4:14, 7:37 - 39).

희락은 힘의 근원이다(느8:10). 순전한 희락은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롬5:3 살전1:6). 즐거움의 기름이란 성령을 가리킨다(히1:9).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희락이 있어서 어떤 환란과 어떤 이 세상의 존재도 이 희락을 방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 핍박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생각하고 기뻐했다(행5:40,41; 13:50-52). ②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쁨이 충만해져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옥을 천국처럼 여기기도 했다(행16:25; 빌1:17-18). 이런 사례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희락을 누렸던 사실을 보여준다. 모세는 일찍이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사90:15). 마음 속에 참된 희락만 있다면 제 아무리 큰 환란이라도 두렵지 않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shalom*)’이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eirene*)’이다. 이는 국가에 전쟁이 없거나 심령의 고요함과 같이 번뇌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일컬어 ‘화평의 왕’(사9:6)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이 전했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다(행10:36; 엡2:17).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다(엡2:13 - 19).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롬8:9) 그분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마음이다. 이것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서로 긴밀한 관계가 되게 하신다

(엡4:3; 겔11:19). 이것은 종족의 편견이나 계급의 차별이나 남녀의 귀천(尊卑)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한다(고전12:12 - 13; 갈3:27 - 28).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분쟁하거나 결코 당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 원문 상 화평과 평안은 같은 단어이며, 유대인은 남을 축복할 때 평안이란 말을 사용했다.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손익을 헤아리지 않고 대하며, 그 영혼이 항상 평안하고 고요한 사람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가장 귀하고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평안이었다(요16:33). 약속의 보혜사가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와 같은 평안을 체험할 수 있었다(요14:26 - 27; 빌4:7). 즉 ① 스테반이 순교하던 순간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길 구하였고, 더불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했다(행7:55, 59 - 60). ② 다음 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행12:1-6). ③ 바울과 죄수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다(행27:18 - 25). 이런 사실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에서 비롯된 평안의 모습을 보여준다.

(2)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부분(組)은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출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타인의 상해(傷害)에 대해 반드시 인내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을 참을 뿐 아니라 호의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기까지 한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충성으로 남을 대하고 신의를 잃지 않으며, 언어와 태도에 화기(和氣)가 돌며 노를 발하지 않는다.

‘인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크 합파임(arekh 'appayim)’인데, 이를 직역하면 ‘긴 호흡’이란 뜻이다. 노를 나타낼 때 급박한 호흡을 하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출34:6, 느9:17, 시86:15, 욥2:13, 욜4:2, 흠1:3). 헬라어로는 ‘마크로뮈에미아(*makrothumia*)’인데 이는 ‘느린 성정(性情)’이란 뜻으로, ‘멀다’는 뜻의 ‘마크로(*makro*)’와 ‘온화(緩和)’라는 뜻의 ‘뮈에미아(*thumia*)’의 합성어이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벌을 속히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롬2:4, 9:22, 벰후3:9). (중)국어화합본(國語和合譯)에서 ‘인내’는 시간성(時間性)이 배제되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인내’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후포메노(*hupomeno*)’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15절, 6장 6절에서의 ‘오래 참는다’란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킹제임스 역본(KJV)과 여씨역본에서도 ‘오래 참음(*longsuffering*)’으로 되어 있다. 이 단어 안에는 ‘관용’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중)국어화합본에는 여러 곳에 ‘관용’으로 번역되어 있고(마18:26, 29; 골1:11; 딤후3:10; 벰후3:9), 한 곳에만 ‘오래 참음’으로 번역되어 있다(벰전3:20).

위의 원문과 번역본의 뜻을 종합해 보면 ‘인내’란 쉽게 노하지 않고 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관용을 나타내셨다(롬3:25). 인내의 덕이 나타내는 최고의 자리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의 자리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고(벰전2:19 - 24),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 없는 관용으로 베풀어주신 죄 사함의 은혜 안에도 존재한다(마18:21 - 33).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의 오해를 통해서 책망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적대자들이 기회만 되면 반대하고 모욕하며 심지어 박해하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이런 오해를 관용할 수 있고 적대자들의 공격에도 인내하여 분쟁을 멈출 수 있다(잠15:18).

‘자비’란 말의 헬라어 원문은 ‘크레스토테스(*chrêstotês*)’이며, ‘친절’, ‘정(情

分)’ 혹은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여역본(呂譯)에서는 일관되게 ‘자애’로 번역되었다(롬2:4, 12:22; 고전13:4; 고후6:6; 갈5:22; 엡2:7, 4:32; 딤후3:4). 킹제임스 역본에서는 대부분 ‘Kindness’로 번역했는데(고전13:4; 고후6:6; 엡2:7, 4:12; 골3:12; 딤후3:4), 이는 ‘친밀’, ‘인자’, ‘호의’라는 뜻이다. 동의어로는 로마서 3장 12절에서 (중)국어화합역에서는 ‘선’으로 번역되었고, 여역본에서는 ‘자애’로 번역되었으며, 기타 역본은 이와 대동소이하다.

자비는 이웃에 대한 관대한 표현이다. 즉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돕고 유익을 얻게 하여 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소위 ‘이웃’이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들은 비천하거나, 연약하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이다(눅10:27 - 37).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라고 했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15:1 - 3).” 이것은 자비의 행위이다.

인내와 자비는 원수를 제압하는 가장 선하고 강한 무기이다. 인내는 거친 감정을 잠잠케 하고 시비를 그치게 하며, 자비는 악한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적을 친구로 변하게 한다. 사랑을 품은 자는 타인의 가해를 견딜 수 있으며 나아가 자비의 태도로 대할 수 있다(고전13:4). 인내와 자비야말로 모든 적대 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보복이다(롬12:20).

인내와 자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다(출34:6; 롬2:4).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징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시103:8 - 13; 엡2:7; 요3:16).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인내와 더불어 자비의 성품이 있다.

‘양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tōbe*)’이며, 구약성경에서는 이 말이 ‘자비’ 또는 ‘은혜’와 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다(출18:9; 시23:6; 렘31:14; 호3:5). ‘양선’이라는 단어의 헬라이어 표현은 ‘아가소쉬네(*agathosynē*)’이며,

‘선(善)’ 혹은 ‘선덕(善德)’의 뜻이다(롬15:14; 엡5:9; 살후1:11). 자비란 단지 마음이나 태도일 뿐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 반면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비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복음이란 ‘영적인 것만 구하고 육적인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신의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를 전혀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열심히 선행을 실천하며 선한 사업에 부요해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미덕이라는 점이다(롬12:9; 살전5:15; 딤후6:18; 딤후2:14).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모든 신도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행 9:36 - 39). 그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혼하지 않은 모범된 성도였다.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게 된다(요일3:17). 또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선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적대자를 긍휼로 대하게 된다(롬6:35). 또 이런 사람은 원수가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그 재를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롬12:20). 이렇게 행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또한 알고 있다(갈6:9 - 10).

바울은 자신이 중생하기 전에는 육체 중에 선한 것이 없었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하는 것은 없었지만(롬7:18) 그리스도께 속하여 성령을 좇아 행한 후로는 완전히 변화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롬8:1 - 4). 이는 양선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막10:17 - 18).

‘충성’이란 단어는 신명기 32장 20절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에문(*ēmūn*)’이라고 표기했는데, (중)국어화합역본에서는 이를 ‘성실’이라고 번역했고, 하박국

2장 4절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emunah*)’인데, 이를 ‘믿음(信)’으로 번역하였다. 이 단어는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두 번 발견된다. 이 단어의 헬라이어 표기는 ‘피스티스(*pistis*)’이며, 이는 ‘신심’, ‘신실’, ‘충신’, ‘충실’, ‘충성의 뜻을 담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230여 차례 발견되며 ‘신실’(마23:23; 갈5:22)과 ‘충성’(딤후2:10)이라고 한 곳 외에는 다 ‘신심(信心)’을 가리키고 있다.

원문의 이 단어는 ‘견지하다’의 뜻이 담겨 있다. 즉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리킨다(골4:19 - 22; 1:23). 신실함으로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더욱 견고하게 되는 성품이다(산7:9; 롬3:3 - 4).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사42:3) 주 예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를 예언하신 것으로써 주님이 저들의 회개를 믿고 바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다(고전13:7). 사랑을 품은 자는 선한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남을 잘 이해해주며 함부로 남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혹 잘못을 범한 자일지라도 다시 그가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갈6:1 - 2).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믿음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분은 그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며 사람이 혹 불신하더라도 그분의 이와 같은 신실하심은 폐할 수 없다(딤후2:13; 롬3:3 - 4; 고후1:18 - 22). 이처럼 사랑을 품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품고 있는 자라서 타인이 볼 때 가식적이지 않고 신뢰할 만하다. 혹시 누군가에게 불신당하고 의심을 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는 약속을 지킨다.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anaw*)’이며, ‘빈궁’(욥24:4; 시9:12’ 18; 암8:4) 또는 ‘겸손’의 뜻이다(시22:26; 잠3:34; 사11:4; 습2:3).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였다. ‘빈궁’ 또는 ‘겸손’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리어로 ‘프라오테스(*praotēs*)’이며, 이는 ‘온유’라는 뜻이다(고전4:21; 갈5:23; 엡4:2; 골3:12; 딤후3:2).

온유함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하지 않으며 기개가 없고 소극적이지도 않다.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자제하고 용기를 발휘하는 강인함을 가진다(잠 16:32). 예수님과 모세는 모든 능욕을 인내할 수 있는 지극히 온유한 인물이었다(마11:29; 민12:3; 뱀전2:23; 히11:26). 반면에 진리를 수호하고 죄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요2:13 - 16; 출32:19 - 21) 절대로 양보치 않으셨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마5:5) ②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며(마11:29) ③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며(사61:1) 반드시 주어진 진리를 지키고(약1:21) ④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며(잠3:34) 인도하실 것이요(시25:9) ⑤ 붙들어주실 것이며(시147:6)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시76:9).

사랑을 품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고전13:5,7). 그는 진리를 막는 자를 온유한 말로 권면하여 회개케 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딤후2:25 - 26). 그는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해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갈6:1 - 2). 이처럼 온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소유해야 할 성품이며(갈5:23; 엡4:2; 골3:12; 딤후6:11; 딤후3:2-3),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다(벧전3:4).

(3)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는 절제이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때 절제는 곧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우리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이다(고전6:19 - 20).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방종하게 된다.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enkrateia)’라고 하며, 이는 ‘자치’, ‘자제’, ‘관리’의 뜻이다. 킹제임스 역본에서는 ‘temperance’(행24:25; 갈5:23; 벧후1:6)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절제’, ‘자제’, ‘중용’의 뜻이다. 일어역본에는 ‘절제’(행24:25; 벧후1:6) 혹은 ‘자제’(딤후3:2,11 딤후2:2)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의 ‘크라토스(kratos)’와 ‘-안’이라는 뜻의 전치사 ‘엔(en)’의 합성어이다. 이처럼 절제란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의지력을 가리키며, 이 능력이 있을 때 ‘자기 제어(self control)’를 통해서 심신의 나쁜 습관을 이겨낼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절제하지 못하며’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능력이 없다(akrates)’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역본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며’라고 번역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절제할 수 있다.

절제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절제할 수 없으면’은 여역본에서도 ‘자제할 수 없다’로 번역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절제하며’라는 표현은 여역본에서 ‘술을 경계할 수 있으며’로 번역되었다. 절제란 또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창세기 43장 31절의 ‘그 정을 억제하고’는 일어역본에서 ‘자제하고’로 번역되었다. 즉 동생을 사랑하는 감정의 격동을 억제했다는 것이다(30). 또 하만은 비록 모르드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참고’ 집에 돌아왔다고 했는데(에5:9-10), 이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했다는 뜻이다.

‘절제’라는 단어의 기원은 ① ‘관할을 지휘하다’라는 뜻과 ② 군대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자를 가리켜 ‘절제의 스승’이라 일컫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절제된 생활이란 곧 규율 있는 생활임을 알 수 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서 자기의 연약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쓴 잔을 다 마셨던 그리스도의 행동은(마16:23; 26:39) 절제된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다. 자기 몸을 처서 복종케 하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의 종이 되도록 했던 바울 사도도(고전

9:27; 참고: 롬6:17 - 20) 또한 절제생활의 모범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때로 '절제의 도'(행24:24 - 25)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생활의 원리이다. 어떤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이라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이다(고전9:24 - 25). 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지만 이 자유는 절제 있는 자유이므로,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갈5:13; 고전10:23).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으로 맺는 열매의 아홉 가지 형태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법사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은 자연스레 이러한 품성을 나타내게 된다(요15:5 고전12:12 - 13).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했다(갈5:25). 우리는 단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갈급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해야 한다. 즉 성업에 힘쓰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전15:58; 롬8:13; 요15:8; 마5:16).

제3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필자는 앞서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로써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필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서술하여 좀 더 실제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의 전반적인 문제를 되짚고, 이것이 공허한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1. 갈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린다”라고 약속하셨다(사44:3).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친히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다(요7:37 - 38).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심령이 갈하여 견디지 못하므로 진정한 평안과 희락이 없다. 혹 물질적인 만족을 누린다고 해도 야곱의 우물물과 같이 다시 갈증을 느낀다(요4:13).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생활하면 역시 심령의 갈증을 느끼고 항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심령의 갈증을 자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런 자각과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두 곳의 성경 구절은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을 격려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추구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또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깨우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에 거하는 복을 추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주어진 말씀들이다.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는 적극적인 표현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쇠약해진 영적 생명을 일으키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켜

않으셔서 다시 불붙도록 간구해야 한다(참고: 마12:20). 갈급하기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갈급이 아니며, 사모하기만 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사모함이 아니다. 갈증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며, 사모하는 마음에서 간구하는 행동이 나온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간구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7:7).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구해야 하고 우리가 잃은 무엇을 얻으려면 그것을 찾아야 하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문을 두드리야 한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은 추구하는 태도가 더욱 고조되는 것을 나타낸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을 나타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욱 간절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이다. ‘떡 빌리는 친구의 비유’에서 문 밖의 친구가 필요한 떡을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간절히 계속 간구했기 때문이다(눅11:5 - 8).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억지로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마7:6). 주의 약속은 이렇게 확실하고 주의 교훈은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찌 간절히 구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11:13).”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요10:10). 따라서 주님은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게 하신다(요4:14; 7:38).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의 교회가 급속히 발전할 때 마귀의 방해와 파괴의 활동도 점점 흉악해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힘써서 진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셨다(행4:28 - 31).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참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절실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연약하고 무능해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지만 만약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강해져서 승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5:6). 분명한 사실은 이 교훈이 자만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주리고 목마를 만큼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다. 주리고 목마른 심령의 사람에게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큰 위안이 없다. 옛날 라오디게아교회가 스스로 부요하며 이미 부자가 되어서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빈궁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다고 책망하셨다(계3:14 - 17).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라오디게아교회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한다. 혹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만하고 자족하면 토해 내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심정으로 갈급한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시42:1),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2. 악을 버려야 한다

구약의 선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요단강 주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민33:50 - 55).” 그들이 몰아내야 하는 거민들은 헷족속, 기르가스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등 일곱 족속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선민보다 더 강성했다(신7:1 - 3). 모세가 죽은 후 그의 사명을 계승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렀다(수1:1 - 9, 3:14 - 17).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은 사기충천한 큰 함성으로 성벽을 무너뜨려 성 안의 적들을 섬멸했다(수6:1 - 21).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감히 대항할 적들이 없었다. 파죽지세로 싸움을 계속하여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되 후한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잔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신7:2, 20:16; 수13:13, 15:63, 16:10). 이후 여호수아가 연로했을 때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계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

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수 23:5 - 13).”

여호수아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것이다’는 말씀을 저버리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받아들여 그들과 혼인하며 상호간에 교제하였다(삿1:19, 21, 28 - 33, 3:1 - 6). 결국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채찍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다(삿1:34, 2:1 - 5; 참고: 겔28:24).

구약의 선민들은 신약의 선민을 예표한다(신14:2; 요15:19).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며 멸절해야 할 가나안 땅 거민은 우리 속의 정욕을 상징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나긴 전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엡6:12; 히12:4). 이 전쟁에서 성결을 이루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욕이다(갈5:17). 만약 우리가 이 정욕을 허용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채찍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롬8:6a, 13a). 그러나 우리가 절제할 것을 결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자 하면 정욕으로 방종하지 않으며 항상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전9:27; 롬8:13b; 갈5:16).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전1:9)”라는 말씀처럼 역사란 항상 되풀이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싸워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를 용납하고 자기

정욕과의 싸움을 회피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결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구약시대 선민의 실패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빌2:12; 고전10:12).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전 10:1; 고전5:6). 죄에 대한 경성의 태도는 성령의 충만을 항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육신이 연약한 탓에 죄악과 철저히 싸우지 못하고 또한 큰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작은 죄를 짓는 자들은 곧 차지도 답지도 않은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는다. 그러므로 큰 결심으로 뜻을 세우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성령께서는 한량없이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3. 회개해야 한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마19:17 주석)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많고 적음의 차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다(약3:2).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탓에 역시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보다 우리가 고범죄(알고 짓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므로(출34:14)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한편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시66:18).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불의를 멀리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욥 22:23; 잠28:13).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34:18).”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잠 1:23)”

여기서 ‘나’란 ‘지혜’를 가리키며(잠1:20),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잠8:22 - 30). 또 ‘나의 신’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성령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것, 즉 회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비결임과 동시에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51:1-3, 11).”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

이 말씀을 일역문어체에서는 “성령을 끄지 말며”라고 번역했고, 여역본에서는 “성령을 박멸치 말며”로 번역했고, 킹제임스역본(KJV)에서는 “Quench not the Spirit”으로 번역했다. ‘소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불을 끄다’의 뜻인데,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끄다’와 동일한 단어이다. 성령은 ‘불’로 상징되고, ‘소멸의 영’이라는 호칭처럼 교회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사4:3 - 4).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여 마음 속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않도록 민감한 감각을 가져야 하며, 회개하

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만약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면 죄의 세력이 조장되어 감당치 못할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류가 신의 성품을 상실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에 물들었을 때(창4:8' 19 - 24, 6:1 - 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창6:3).” 킹제임스역본(KJV)에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에 속했기 때문이라(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that he also is flesh)”라고 번역되었고, 일역문어체 역시 그렇게 번역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서 유지되었으나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전철을 밟아 그 불이 소멸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정욕으로 방종하도록 내버려두셨음을 알 수 있다. 그 때의 상황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경성하게 하는 훌륭한 교훈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도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정욕에 방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다(살전4:3 - 7).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더럽혀지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불이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태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신다(참고: 사1:25).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곧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우리와 다투지 않으시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성결을 추구하며 매사에 이방인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벧전1:14 - 16; 고후6:14 - 18). 우발적인 과오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4. 순종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세우신 고린도교회를 일컬어 ‘성령의 전’이라고 했다(고전6:19). 그들은 이미 한 성령을 통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고전12:13). 다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같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질투와 분쟁과 충돌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고전3:1 - 3). 그들의 영성이 그토록 낮은 수준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좇아 행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를 시사해 준다. ① 성령을 받는 것(성령 세례)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② 고린도교회처럼 다수의 어떤 성도들은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엡4:13). ③ 이런 자들은 모두 중생하지 않은 사람처럼 단지 육체와 마음이 기뻐하는 것만을 행하고(엡2:3) 성령의 뜻을 좇아 행하려 하지 않는다. ④ 이와 같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 것처럼 ‘목의 힘줄은 무쇠요 이마는 놋이래’는 말을 실감하게 하지만(사48:4)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순종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행5:32),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겔세마네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눅22:42). ‘이 잔’은 바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혹형을 가리킨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정하도록 명령하셨던 유월절 절기의 어린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양고기를 불에 굽는 것은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을

예표한다(출12:1 - 9; 고전5:7; 마27:46). 또 다윗을 감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참혹한 광경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물같이 쓴 아셨으며 그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의 마음은 찢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의 정력¹⁾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의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시22:14 - 17)”라고 했다. 비록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딤후3:16) 그 모든 고통을 벗어나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로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을 면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만약 당신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전제를 말씀하셨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이다.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 그의 힘을 도왔고(눅22:43) 아버지의 원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훌륭한 모범을 남기셨다(빌2:8).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 먼저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감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해진 순서이며 영구불변의 원칙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순종뿐이며, 만약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감내할 힘을 더해주신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오로지 두 개의 진영만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서 그분과 연합하고, 연합의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15:4 - 5). 하나님을 거역하면 마귀의 진영에 속해서 그와 연합하고, 연합의 결과 방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끊어지게 된다(엡2:1 - 3, 4:17 - 19). 전 인류는 아담에게 속한 죄인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이 두 종류만 있을 뿐이다(고전15:22). 인류의 기원인 아담은 패역하게도 마귀의 말을 더 청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1) 정신과 힘

끊어졌다(창2:17, 3:22 - 24). 그래서 인간의 기원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생명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에 모두 악한 자의 손아귀 아래 죽은 것이다(요일5:19). 반면 새 인류의 기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결과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얻으셨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다(눅4:14; 빌2:8~11; 히2:92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악한 자의 지배를 벗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롬8:1 - 2; 요5:24; 고후3:17). 결론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연약하고 무능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중생하기 전의 바울은 육에 속하여 연약하며 죄에 팔리는 죄의 종이 되었으나(롬7:14 - 24) 중생 후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죄의 법과 싸워 승리하는 전혀 다른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연약함을 벗고 강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롬8:1 - 2; 빌4:13).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의 생활 가운데 성령을 좇아 행하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라고 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한 것인데,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신도에게 이보다 더 귀한 체험담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모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을 좇아(고전11:1)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앞세우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5. 노력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마11:12).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했듯이(행14:22)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항상 노력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분도와 같이 여겨서 이를 등지고 자기 앞에 놓인 신앙의 길을 달려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딤후4:18) 그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며 육체의 정욕으로 자신을 방종하지 않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롬8:1 - 2; 갈5:16; 고전11:1; 딤후4:7 - 8). 그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해 달려가되 마치 상 받기 위해 경주하는 자들처럼 노력하는 데 있었다(빌3:13 - 14; 고전9:24).

바울이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열거할 때 흉배(호심경: 갑옷의 앞쪽에 치는 구리조각)만 언급했지 호배경(갑옷의 뒷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조각)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엡6:11 - 17)은 앞만 향해서 힘껏 달려야 승리할 수 있지, 낙심하고 후퇴하면 마귀에게 패배하여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자산들이 떠난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만을 사모하고, 비록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믿음을 품고 죽은 것(히 11:13 - 16)은 역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눅9:62).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

면 세상을 등지고(요일2:15 - 17) 갈렙과 같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민14:24).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다. 소돔성에서 부유한 생활에 젖었던 롯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속히 도망할 것을 명령했으니, 그와 가족들은 남겨둔 재물이 아까워서 속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천사들이 억지로 그들의 손을 잡고 도망가도록 인도하지 않았다면 롯의 가족은 소돔성의 불구덩이 속에서 타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떠난 뒤에도 욕심을 거두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창19:15 - 17, 26). 광야에서 사십 년간 생활했던 선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배척하고 그 마음이 항상 애굽을 향하고 있었고 애굽 땅에서 누렸던 죄악의 삶을 사모했다(행7:39; 출16:2 - 3; 민11:4 - 6).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셨던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민14:22 - 23). 이와 같은 사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뜻을 굳게 세우고 주를 따라 세상의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하고 앞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준다(눅9:57 - 62).

어떤 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학문이든, 예술이든, 영성을 닦는 일이든 모두 그러하다. 항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면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영성을 닦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없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마7:21 - 23).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21:2)”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성전이 세워졌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이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이란 역사적으로 훼손되었다가 다시 세워졌던 지상에 건조되었던 물질의 그 성전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영에 속한 것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하여 말하기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고(계21:9 - 10), 바울은 교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했다(갈4:25 - 26; 엡5:31 - 32).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란 영에 속한 참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참교회를 영접하시는 일은 모든 참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 우리의 바라는 바가 실현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교회가 그리스도께 영접을 받는 이유는 주를 맞을 단장과 준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단장했다’는 뜻은 성도가 흠이 없고 성결하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의로운 행위를 갖추었다는 뜻이다(엡5:26 - 27; 계19:7 - 8). 바꿔 말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품행이 완전하고 덕을 갖추었으며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살전3:12 - 13).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예루살렘이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적 표현이다. 우리가 이 미래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건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오늘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도록(엡4:23 - 24)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자!

■ 제 14 장 ■

성령과 사령의 분별

20세기 초 이후 성령과 사령을 분별하지 못한 기독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그릇된 관념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는 일반 세속적 기독교회 지도자들의 경우 본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수의 신도가 성령 세례를 추구하면 이를 반대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반드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며 다시 성령을 구하면 사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대답하게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령을 받은 증거이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다른 하나는 오순절 계통의 지도자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결코 사령을 주시지 않는다. 따라서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山田盛彦著의 『성령 받는 비결』 1권 98쪽 참고)”라고 한 사례이다. 전자는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추려는(削足適屨)’¹⁾ 의도를 가지고 ‘목이 맨다고 먹기를 그만두는(因噎廢食)’²⁾ 식의 발상이다. 이는 일종의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후자도 역시 ‘물고기 눈알을 진주로 속이는(魚目混珠)’ 것 같은, 사령이

1) 우리 속담 ‘제 눈에 물대기’의 의미

2) 우리 속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의 의미

틈을 타서 다수의 무지한 신도를 미혹하게 하는 유치한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고전12:10), 더불어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영계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위와 같은 잘못된 관념이 교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1절 성령 받음의 특징

먼저 ‘성령 받음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목적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일반 기독교 신도로 하여금 그릇된 일체의 전통적 관념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 약속은 초대교회 신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일체의 신도들에게 다시 전해서 알려주어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행2:38 - 39).

1. ‘할렐루야’를 즐겨 말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

이것은 일제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성으로서 참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의 음역(音譯)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다(시104:35: 참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기에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그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찬양하며 모든 하늘의 군대도

그를 찬양하며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의 한 번 명령으로 만물이 만들어졌고 오직 그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다(시148:1 - 14).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항상 ‘할렐루야’라는 말을 즐겨하여 마음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2. 방언을 말하고 영가(靈歌)를 부른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14:15).”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뜻이다. 여역본에서는 “혀를 말아 기도하다”로 번역되어 있다(고 전14:14). 이 소리는 매우 우아하며 부드럽다. ‘영으로 찬미하고’는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가(靈歌)’로 번역하고 있는 곳도 있다(엡5:19; 골3:16). ‘영가’라는 단어는 헬리어 원문에 ‘오데스 프뉴마티케스(*od ê s pneumatik ê s*)’이다. ‘오데스(*od ê s*)’는 본래 통속적인 가요를 가리키는 단어이나 ‘영(靈)’의라는 형용사 ‘프뉴마티케스(*pneumatik ê s*)’가 수식하여 ‘영가’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 영가가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새 노래’이며 그 소리가 가야금(琴) 소리와 흡사하여 매우 우아하고 부드럽고 장엄하고 맑아서 통속적인 모든 노래를 뛰어넘는다. 요한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했다(계5:9; 14:2 - 3). 킹제임스역(KJV)에 의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 본문의 ‘신령한 노래’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영가’ 혹은 ‘새 노래’라고 호칭하는 것이 정당하다. 비록 사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방언을 말하고 영가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리는 듣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3.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행13:52).”

이 말씀을 헬라이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기쁨에 충만했다”이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결과였다. 성령은 성경에서 ‘즐거움의 기쁨’이라고 표현된다(히1:9). ‘희락’이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갈 5:22). 이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공급하시며, 혹 우리가 환난 중에 빠져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라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살 전1:6).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즐거움의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사 61:3). 본회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가 ‘영으로 충만해서 웃는’ 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주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모든 염려와 슬픔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실제로 증명하는 현상이다.

4.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5:22 - 23)”

주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마7:17 - 20).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도 말씀하셨다(마12:35).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장 현명하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열매를 관찰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만하는 일은 잠깐 가능한 것이고 결국 위선자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성령(눅24:49; 행1:8)께서 사람의 몸에 임하시면 그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롬8:2; 고후3:17) 새롭게 되며(딤후3:5; 고후5:17; 살후2:13)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제2절 사령 반응의 특징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요일4:1).” 모든 영이 다 성령인지를 분별해서 믿어야 한다. 야마다 모리시코(山田盛彦)가 언급한 것처럼 신도가 성령을 구하면 절대로 사령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견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영계(靈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상황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며, 문을 열어놓고 마귀의 침입을 환영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또한 이는 진리를 어지럽히고 어린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관찰하고 심사숙고하여 미혹되어 사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성경 말씀과 본회의 체험을 근거로 ‘사령 받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부디 각 교단 교회의 신도분들은 숙고하시기 바라며 겸허하게 자신이 받은 영이 과연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를 시험해 보기 바란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요일4:2-3).”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Gnosticism) 사상이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였다. 이것은 ‘물질에 속한 것은 다 악하며 영에 속한 것만이 선한 것’이라는 사상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물질과 접촉할 수는 없으시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생각과 사상은 분명히 사령의 활동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흥왕하고 있는 신신학과(新神學派 혹은 자유주의 신학과)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발전되어 출현한 이단학파이다. 그들은 주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기적,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부인한다. 어찌 이런 사상에 우리가 대비하고 삼가지 않을 수 있으랴!

2. 세상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요일4:5).”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주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요6:63).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것만을 말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전2:1). 마귀는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후4:4). 그러므로 마음 속에 사령의 역사가 있는 자는 세속적인 것을 말하기 좋아하며 세상 사람의 마음에 영합한다(딤후4:3-4). 오늘날 이러한 세속적인 교회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3. 참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4:6).”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터가 있어서(엡 2:20 - 22) 많은 이적 기사가 따랐다(막16:20; 히2:4).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요일2:18 - 19). 본회 역시 초대교회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참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삼대(三大) 조건, 즉 성령과 진리와 기적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릇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미혹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첫째, 몸은 오로지 하나뿐이며 성령도 오로지 한 분뿐이시다(엡4:4).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분열하게 하지 않으시며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고전1:13; 엡4:3). 셋째, 진리는 단 하나뿐이며(고후 1:18 - 19), 동일하신 한 분 성령께서는 결코 모순되는 두 가지 신앙을 심지 않으신다(엡4:5). 넷째,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요10:16). 다섯째, 선지자의 영은 본래 선지자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전14:32).

4. 주절거리는 음성과 속살거리는 말을 한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사8:19).”

본문에서 ‘주절거리는 음성과 속살거리는’이란 사령이 들려서 사술을 행하는 자의 특징을 가리킨다. 이것은 경험상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식구를 본회에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을 때 항상 목격되는 현상이다. 혹 신도가 사령을 받는 경우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어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두려워 떨게 하기도 한다.

5.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졸도하게 한다

“귀신이 저를 잡아 줄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눅9:39,42).”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졸도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신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짐승과 같은 소리를 낸다면 이는 사령을 받았을 경우이다. 입에 거품을 물고 졸도하는 것은 사령을 받은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성령을 받은 현상으로만 생각한다.

6.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다

(막 5:1-15)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자극히 높은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의식불명이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마귀의 조종에 따라 자기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기사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거러사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① 집이 있어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2 - 3). ② 밤낮 소리를 지르며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5 上). ③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5 下). ④ 자유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구속의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7 - 8). ⑤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벗은 몸으로 지내려고 한다(참고: 15). 이와 같은 모습은 모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생각, 언어,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 중에서 성령을 구했을 때 종종 사령을 받아서 의식불

명에 놓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성령 받은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7. 교만하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14:12 - 15).”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중략)...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뉘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뉘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겔28:12 - 17).”

교만은 마귀의 본질적 성품이다. 그래서 사령을 받은 자는 대단히 교만하다. 무슨 일이나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사람의 칭찬과 숭배 받기를 좋아한다. 어떤 때에는 총회 조직에 반항하며 진리를 순종치 않고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질서를 무너뜨린다.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

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개혁되어야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혹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꾸짖고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 심지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어느 어느 선지자나 어느 어느 사도라고 주장할 때도 있다.

8. 기타 현상

그 밖에도 다음의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 ① 남을 심란하게 하고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한다(삼상16:14 - 15, 23). ② 말을 함부로 뱉어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삼상18:10 - 11). ③ 분쟁을 조장하고 화평을 깨뜨리고 남을 시기한다(계16:14; 약3:14 - 16) ④ 더럽고 음란하다(계18:2 - 3; 벰후2:2, 18). ⑤ 사탄의 깊은 것을 청중하게 하여 진리를 떠나게 한다(딤후4:1; 계2:24; 벰후2:1). ⑥ 방언을 말할 때 혀의 소리가 아니라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낸다. ⑦ 영의 감동을 받은 후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이며, 탄식하거나 구토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사지(四肢)가 차갑게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말한 현상이 있다면 이는 신도가 사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즉각 제지하여 일단 기도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상태가 비교적 심하여 제지가 되지 않을 경우 그를 꾸짖어 그의 몸에서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막1:25 - 26, 9:25 - 26). 성경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후11:14; 참고: 행16:16 - 18).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사령을 받는 경우의 특징’ 가운데서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사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더 자세한 현상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거나 혹은 영계(靈界)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을 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제3절 사령(邪靈)받은 실례(實例)

야마다 모리시코(山田盛彦)의 저서 『성령받는 비결』의 1권 제6장 ‘성령 받은 체험기’에 보면 사령을 받은 상태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고 영계(靈界)에 관한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그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자(著者)까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사령 받은 실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독자들이 사령을 분별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1.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어느 저녁 집회 때 나와 형제 자매들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니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직한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말했다. 얼마 후에 나는 천정을 향해 마루바닥에 드러누웠다.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내가 드러누운 후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손바닥을 합했다 떼었다 하는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두 손으로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한다(263쪽).” 이 간증에서 ‘전해들은 말’이라는 부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가 분명 의식을 잃고 드러누웠는데,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와 같은 동작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다.

“나는 춤을 추고 싶고 날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나는 일어섰고 찬양의 가사가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나는 다만 손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기도가

끝난 후 어떤 사람이 내게 ‘당신 춤추는 걸 배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그에게 대답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두 손으로 양쪽 소매를 붙잡더니 영가(靈歌)를 부르며 매우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예배당을 계속 돌아다녔다고 한다(266쪽).’

여기서도 간증자가 역시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 동작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3월 29일 저녁, 내가 아마다 선생님과 정강일본성서교회(靜岡日本聖書教會)에서 기도할 때 홀연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영이 나를 점령했다. 나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방언기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전해주는 말에 따르면 나는 한 시간쯤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한다(317 - 18쪽).”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전해주는 말’이라고 기록된 표현이다. 이 또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2. 입에 거품을 문 경우

“목에서 많은 거품이 나와 나미에노(波江野) 형과 모리모토(森本) 형이 수건으로 나를 닦아 주었다(284쪽).”

“기도 후 토코(當子) 누나가 자매반 좌석에서 손짓으로 나를 부르기에 앞으로 나가보니 아내(朝子)가 마루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붉었고, 눈은 감은 채로 속살거리는 음성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나미에노(波江野)의 형수가 곁에서 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닦아주었다(285쪽).”

“처음에는 나미코(波子) 자매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7시가 되었을 때 입술이 갑자기 경직되고 제어할 수 없게 되자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고, 곁에 있던 어머니가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주었다. 7시 반경에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311 - 12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현상은 사령을 받은 특징이라는 사실이다.

3. 질서가 없는 경우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내 몸은 땅바닥에서 천정을 향해 있었고, 복부(腹部)를 중심축으로 몸이 시계바늘처럼 한 바퀴를 돌았으며, 목은 패종시계의 추와 같이 규칙적으로 좌우로 움직였고, 두 손은 스프링을 장치해 놓은 것처럼 상하로 움직이며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흘러 나왔다(285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동작들이 모두 질서가 없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메귀미미코(惠美子) 자매는 낮은 음성으로 계속해서 ‘할렐루야’라고 말했다. 7시가 되자 천정을 향해 드러누웠다. …(중략)… 처음 넘어졌을 때 머리는 서쪽, 다리는 동쪽으로 향했는데, 방언을 말할 때에는 두부(頭部)를 중심으로 남쪽을 향해 돌기 시작했다. 9시가 되었을 때 다리가 서쪽을 향해 180도 회전을 한 상태였다(309 - 10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동작들도 모두 질서가 없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어긋나는 행태이다. 하나님이 대중 앞에서 여자가 이런 추태를 보이게 하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4.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그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흉부(胸部)에 참을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느꼈다. 기도를 마치자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동시에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음을 느꼈다(318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람이 사령을 받으면 간혹 흉부(胸部)에 무언가를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호흡 곤란이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5. 뒤로 넘어지는 경우

앞에서 나열한 이러한 현상들 외에 사령 받은 또 다른 보편적인 현상은 ‘뒤로 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다 모리시코(山田盛彦)의 『성령 받는 비결』 1권 제6장 ‘성령을 받은 체험기’에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또한 사령을 받은 특징 가운데 하나이므로(눅9:42) 주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사령을 받은 경험을 아마다 모리시코(山田盛彦)가 성령을 받은 경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고 영계에 관한 경험도 없으며, 또 하나, 신도가 성령을 구할 때에 절대로 사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사상 때문이다. 즉, 그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사령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와 같은 사상의 근거는 누가복음 11장 11-12절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이다(아마다 모리시코(山田盛彦)의 저서 『성령받는 비결』 1권 98쪽 참고).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사령을 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도가 사령을 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 보증이 될 수는 없다. 마귀는 틈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눅11:9 - 10; 마21:22).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신도에게 사령을 주시는 않으며 다만 마귀가 틈을 타서 침입해 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신도는 절대로 사령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사령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4절 사령의 침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한다(고후11:14, 3).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베전5:8).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사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사령이 침입할 수 없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다(엡4:27).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사령이 침입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틈을 준다는 것은 마치 문을 굳게 잠그지 않아 도둑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고, 그에게 사령이 대신 들어간 일(삼상15:23, 16:14, 18:6 - 0) ② 가롯 유다가 평소 탐심을 품어 공금을 훔쳐서 쓰고 또 주님을 팔아버릴 음모까지 꾸미자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멸시킨 일(요12:6, 13:27) ③ 아나니아 부부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한 일(행5:1 - 10) 등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패역함과 미움과 탐심과 허위 등의 악한 마음과 부정하고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온 마음, 한결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이 간구할 때 사령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 제 15 장 ■

내가 성령 받은 체험담

참예수교회 대만총회에서 발행하는 『성령보』 제154편에 보면 ‘나의 성령 받은 체험담’이라고 해서 본회의 형제, 자매들의 성령 받은 체험에 대한 특별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제 성령을 받는 현상과 그 결과를 독자들의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간증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이 책에 기록하고자 한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영이 독자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본회가 성령이 친히 설립하신 말세의 참교회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란다.

1. 성령을 받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다 - 임오진(林悟眞)

나는 기독교에 문외한이며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1929년 나는 시커우(溪口)에서 의료활동을 하여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했지만 정작 제 집에 오랫동안 천식을 앓아온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동서 차이하이타오(蔡海濤) 군이 누추한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참예수교회가 이미 따린(大林)까지 전파되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성령이 계시다고 해요. 어떤 의사조차 못 고치는 난치병도 참예수교회에 가면 약도 필요 없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님도 믿으시고 빨리 처형을 데리고 가세요. 처형의 천식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멍청한 녀석!’이라고 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따린의 꾸우 오쭈(郭柱)라는 나의 좋은 술친구이며 또 동업자인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손에 『성령보』를 들고 읽고 있었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열어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네! 지금 대륙에서 전해져온 참예수교회가 있는데, 다른 기독교와는 많이 다르다네. 그들은 성령이 있어서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 참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흥분하여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철학에 정통하고, 귀신을 믿지 않고, 미신을 말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자네가 어떻게 하이타오(海濤)처럼 똑같이 어리석어졌는가? 꽃을 피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집 꽃이 향기롭다고 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이 가짜라고 하겠는가? 우리 의사들도 자신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약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처럼 종교도 예외는 아니야! 어떤 종교가 자신들만이 진짜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어떤 종교가 능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네는 무슨 진짜니 가짜니 운운하는가? 나는 여전히 못 믿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참예수교회는 이전 것과는 확실히 다르네. 내 일생 동안 귀신과 신을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내가 아는 몇 분의 환자들이 믿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을 친히 목격하니, 내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과 마음을 써서 이 교회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있는 중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는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관찰한 대로 연

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나도 한 번 연구해 볼 뜻이 있네. 혹 전도집회가 있어서 자네가 알려주면 내가 가서 들어보도록 하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후(1929년 4월 8일) 동서 하이타오(海濤)가 갑자기 목자님(일본인 쉬티엔 칭제(須田 清基) 장로라 하는 분)과 그의 아우 차이하이칭(蔡海淸 : 후에 차이성민(蔡聖民) 장로가 됨)이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분은 “꾸오쭈(郭柱)가 당신이 참 진리를 연구한다고 듣고 이렇게 특별히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바로 나가서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씀을 듣자고 초청했습니다. 이 날 쉬티엔(須田) 장로님은 일본어로 설교하시고, 차이성민(蔡聖民) 장로님은 대만어로 통역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셨을 때 저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입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쉬티엔(須田) 장로님과 차이(蔡) 장로님 두 분은 갑자기 몸을 이리 저리 흔들면서 입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말들을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만약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어느 곳에서 기도하시든지 저희의 인수가 필요 없이 성령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분 후 나는 아내의 두 발이 조금 흔들리다가 순식간에 온 몸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어떤 힘이 그녀를 잡아당겨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았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꼭 잡아 모았던 두 손도 펼쳐져서 오른손이 왼쪽을 향하고 왼손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해서 자신의 흥부를 크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입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녀의 천식이 발작을 했고, 두 눈은 급성망막염을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두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춤을 추니 혹시 그녀의 폐가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혼절해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곧바로 일어나 그녀를 지지하려고 했고, 그녀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

려고 했습니다. 쉬티엔(須田) 장로님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곧 일어나셨고, 그녀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곧 평소대로 조용해졌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며 땀이 비 오듯이 흘렀지만 아주 즐거운 듯 보였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든 천식 환자가 무릎을 꿇고 빙빙 돌며 춤을 추고,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두 손으로 흉부를 때리는 것이 어쩐 일인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고통스럽지도 않고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때보다 몸 상태가 더 좋은 듯 매우 개운해하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 앞에 휘황찬란한 빛, 마치 번개가 비추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이(蔡)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저는 아직 신앙에 문외한이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 속으로 ‘반딧불이 날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반딧불 빛이 반짝였지?’라고 생각했습니다(본래 영광의 ‘영(榮)’자와 형(螢)자는 대만어로 동일한 발음이다). 잠 잘 무렵 아내와 아이들이 옆에서 다시 기도할 때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여 큰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고, 이전처럼 무릎을 꿇은 채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환자인데 어찌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거요?” 그러자 그녀가 “기도를 한 번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병세가 몇 배는 나아지는 듯해요.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것보다 나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929년 5월 20일 오후 5시 반 바로 제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때입니다. 이미 아내와 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저는 믿음 안에 들어온 이후 줄곧 교회 집회에 참석해왔으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점점 진리를 깨닫고 세례(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일에 세례(침례)를 받은 신도가 모두 남녀 열 명이었는데, 저의 술친구 꾸우오쭈(郭柱)와 아우 차이하이타오(蔡海濤)도 함께 세례(침례)를 받았고, 그 외에도 학교 교사 몇 분과 장애인도 함께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 술에 빠져 방탕하게 생활하고 지식이 있어 똑똑하다는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신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조소하고, 꾀방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세례(침례)를 받은 후 회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광빌레몬 장로님께 세족례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무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성찬을 받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 때 황기드온 장로님이 저에게 안수해주시는데, 갑자기 빛이 비추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 이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마는 뜨거운 느낌이었으며, 마음은 아주 상쾌하였지만 여전히 성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례(침례)를 받은 다음 날(21일) 오후 8시 반,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집 뒤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라 땅이 습해서 무릎을 꿇지는 못하고 모두 서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두 발이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음은 뜨거워지면서 정신은 매우 맑아져서 곧 성령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손을 굳게 꼭 포개어 잡고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발음을 또렷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혀를 제어했는데 불명확한 방언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성령의 큰 능력에 저항하겠습니까?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몸은 땅에서 몇 척이나 위로 들어올려지는 듯했고, 춤을 추며 빙빙 돌면서 두 손이 펼쳐져 마치 새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터져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쪽에서 대낮과 같은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변화한 시내의 야경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 마음 속의 기쁨은 실로 형언할 길이 없었고,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이었으니, 혹시 누군가 왕의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곧 각처에 계시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형제, 자매님들께 8, 9통의 편지를 써서 제가 성령

받은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2. 남편의 변화에 감동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다 - 양숙진(楊淑眞)

저는 예전에는 우상 숭배자였고 주님을 몰랐으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척박한 땅, 시골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병약하여 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거칠고 급하며, 저를 자주 구타하기까지 하여 저는 절망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먼저 저의 남편 차이성민(蔡聖民)을 구원하셨고, 그 후 저도 구원해주셨습니다. 1928년 남편은 타이난(台南)의 한 신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로 참예수교회에 출석하며 전심으로 진리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례(침례)를 받아 참 진리로 돌아오는 길을 명백히 깨닫고 당시 소속했던 장로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성령이 일하시는 참예수교회의 기묘한 은혜들을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괴롭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터라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연중에 그의 행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에게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예전처럼 거칠고 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세례(침례)를 주고자 하셨는데, 저는 즉시 마음에 세례(침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때 남편은 저에게 “당신 왜 세례(침례)를 받기 원해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죄를 씻기 원하고 옛 성품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받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물에 내려갈 때 저는 눈앞에 영광이 비추는 것을 보았고, 세례(침례)를 받고 일어서니 마치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모두 벗겨지고 가벼워져서 자유롭게 된 것 같았으며, 기쁨이 가득하여 입으로 계속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 아래에서 다섯 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옷을 챙겨서 산골짜기 물 있는 곳에 가서 씻고, 또 다시 물가에서 두세 번 기도했습니다. 또 저녁을 지을 때에도 뒷방에 가서 다섯 번 기도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이 식사할 때 다시 물러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곧 제 몸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소리도 작고 미미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의 음성이 크고 힘이 있었으며, 몸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채에서 책을 보고 있던 남편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같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저에게 안수해주어서 성령이 충만해졌고 제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 기쁨과 즐거움이란 진정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로 언어나 문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 죄에서 떠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후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불쌍했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기쁨이 가득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러한 특별한 기쁨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은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화를 내며 한 차례 때리고 기도하니 뜻밖에도 성령이 제 안에 계시지 않는 듯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사해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제게 다시 돌아오셨고 이전과 같은 기쁨의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이 경험은 제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 항상 삼가는 태도를 심어주었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성령

이 떠나는 일이 혹 발생할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나의 마음에 거하시고 항상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위로하시며 또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3. 성령이 크게 강림하여 지반이 흔들리다 - 진양진(陳揚眞)

저는 다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본명은 아이루(藹如)이고 성명(聖名)이 양쩐(揚眞)입니다. 조상들은 복건성 푸티엔(莆田)현에서 살아오셨고, 민국(대만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독립한 후 사용된 연호) 초기에 아버지를 따라 룡시(龍溪)현 스마(石碼)진으로 거주를 옮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기독교에 조금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1921년 겨울 저는 푸티엔(莆田)으로 돌아가 결혼했고 아내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를 졸업하여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꽤 열정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혼식 도중 그녀는 조상신 앞에 절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희 집의 다신교 숭배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본래 말린 과일, 설탕류의 제품을 상해, 항주, 융장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상해와 항주 등의 부두에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접대로 밤낮 술, 여자, 도박장에서 뒹굴었고 늘 마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즐겼으며, 꼬박 이틀 주야로 거액의 도박판에 몰두하는 것은 놀랍지도 않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박꾼의 경지에 들어가고 나니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했던 아내는 비

록 속으로는 화가 났겠지만 감히 저에게 말하지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으로 시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931년 정월에, 같은 고향 사람 천멍란(陳夢蘭)·천리(陳厲)·오우위춘(歐玉春) 등이 아편중독에 빠져서 그 정도가 심하였습니다. 마침 고칠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던 중에 푸티엔(莆田)에 참예수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방법을 구하면 각종 질병이 나올 수 있고 아편중독도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수백 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스마(石碼)를 경유하여 본적지인 푸티엔(莆田)에 가서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그 달이 지났을 때 모두 승리한 자들 같은 태도로 돌아왔는데, 확실히 모두 이전보다 살이 찌고 얼굴빛이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샤오루취우(蕭路求) 집사라는 목회자와 함께 돌아왔는데, 한 집을 빌려 전도도 하고 밤낮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가 심아까지 연장되었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계급 사람들이어서 거칠고 촌스럽다 못해 이상하기까지 했고, 사람들이 볼 때 크게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시 저의 눈에는 특별히 ‘참이’라는 머리글자가 오만하고 가소롭게까지 느껴지고, 그들은 무의미한 일에 정거망동하는 마분한 무리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둘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해산할 때 부주의로 자궁에 손상을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에 감염되어 하복부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반 년 동안 어떤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고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은 초췌해져 가면서 침대 위에서 신음하기만 할 뿐 아무런 방법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참예수교회 샤오(蕭)집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여러 차례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와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고향분들이 지속적으로 오가며 추천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여
서 가족들을 모아 상의한 결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고, 저의 순위 동서 쉬티
엔연우(許天由, 중의사이자 침구의사. 후에 많은 사람들을 참예수교회로 인도
함)와 함께 가서 샤오(蕭)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자세히 알아보고자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샤오(蕭)선생님께서서는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그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병자가 있어서 선생님을 청해서 치료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당
신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세가
어떠한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겠다고 결심만 하시면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면 당연히 저희
는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샤오(蕭)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당신들
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못한 채 서로 대립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의논해서 최후로 샤오(蕭)선생님이 오서
서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샤오(蕭)선생님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하여 병 낫기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의약품 사용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
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사나 새 약의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경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같은 말에 저희는 자연스
레 약속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매일 약값으로 약 5,6원³⁾을 소모했음). 만약
기도가 효과가 있다면 약을 쓸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저희는 그의 대답한

태도를 보고는 마음 속으로 그가 반드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황당한 약속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샤오(蕭)집사님은 그 외에 여러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저희는 잘 알아듣지는 못했고, 각자가 생각하기를 그 분이 빨리 기도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완전히 고칠지 어떨지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 샤오(蕭)집사님은 물을 한 컵 따라오라고 명하셨고, 기도 중에 병자에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끓인 물 반 컵을 따라 드렸는데, 그 분은 자신의 평소 경험에 의하면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생수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을 때 저희 모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할 때 발병한 아내는 평상시 먹고 마시는 밥그릇과 접시까지도 모두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당시 전통 중에는 출산 중에 병을 얻었을 경우 만약 냉수를 잘못 마시면 병세가 더욱 악화된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런데 냉수를 그녀에게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에 따라놓았던 매우 적은 양의 냉수를 그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언짢아하는 듯 보였지만 곧 연약한 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혹시 사술(邪術)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몰래 살펴보았으나 샤오(蕭)선생님은 간절히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시고, 속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경건하고 엄숙해서 경박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 병자에게 냉수를 마시게 하고는 샤오(蕭)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방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는 것을 보았습니

3) 1912년 이전의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던 통화 단위, 청조말부터 대만에서 초기에 사용하던 통화 단위.

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함께 기도했던 가족들에게 물었으나 누구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 제 마음 속에 반감이 일었고, 사술(邪術)을 행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 중에는 왜 아무도 빛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이미 냉수를 들이킨 것이 심히 후회되었으나 샤오(蕭)선생을 호의적으로 배웅까지 했습니다. 배웅하고 난 후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의 병세가 좋아질까 겁이 났고, 한 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편안하게 잠이 들어 아침 7시가 돼서야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병을 앓은 이후 없었던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곧 그녀에게 복부의 통증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누르고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뜻밖의 대답에 매우 기뻐하고 마음 속으로 즐거움의 꽃이 만발했습니다. 급히 교회로 가서 샤오(蕭)집사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분은 기뻐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돌보시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어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저는 마음이 매우 즐겁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으며, 샤오(蕭)집사님께 다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분은 예전과 다름 없이 저에게 냉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저는 특별히 많은 물을 가져왔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오늘은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셨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7일을 기도했더니 아내의 병세가 완전히 호전되어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기적은 아파 없을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제 안에 있던 의심의 마음과 얽잡아 보는 마음들이 모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세례(침례)를 받고 참예수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음력 3월 28일(양력5월 15일)은 온 가족이 세례(침례)를 받은 날입니다.

같은 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남녀 모두 합해서 33명이나 되었는데, 샤오루취우(蕭路求) 집사님께서 세례(침례)를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두 분의 자매님이 새 모양의 발광체가 공중에서 이리 저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세례식이 끝나자 없어졌습니다. 샤오(蕭)집사님의 설명을 듣고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즐거워하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환호하였습니다. 회당으로 돌아온 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그 때 성령께서 크게 내리셔서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 같았고, 모두가 지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심지어 쉬예지우(許葉九)라는 이름의 성도는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 날 세례(침례)를 받은 남녀 신도를 조사하니 반 이상의 신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마음으로부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표정에서 역력했으며, 태어나서 가장 즐거운 하루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을 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짧은 감사기도를 마치자 마치 약한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이 흔들리고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혀는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나왔고 마음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 때부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릇된 취미들이 점차 고쳐졌습니다. 십여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던 흡연의 나쁜 습관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전후를 비교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현재까지도 저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성령 체험입니다. 게다가 저의 모친은 18년 동안 이편에 중독되어 살아오셨는데, 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합병증으로 아위었던 몸이 성령을 받으신 후 통통하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고 올해 팔십을 넘기셨는데도 보행이 가볍습니다. 십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최악의 고통에서 구원해주시고, 또 영육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오게 하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 없으며 항상 감사하는 것 외에 이 간증으로나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4.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게 되다

- 사금곤(謝錦坤)

“만약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경과 환란을 만나더라도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인생이란 정말 근심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화를 내는 성품으로 매일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이 말은 반신반의하는 면도 없지 않았지만 마치 흑암 중에 빛나는 별처럼 저를 교회로 이끌어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몸이 진동하고 입으로 웅얼웅얼 거리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57년 여름, 학교는 방학을 맞이했기에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구할 수도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타이중(臺中)에 있는 참예수교회에서 두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크게 실망해서 개학할 무렵에 말씀 듣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도 그를 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학을 하고 한 달쯤 뒤에 어떤 자극을 받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 마침 가을 영은회 기간이었고, 저는 성령을 구하고자 열심히 새벽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누

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7:37 - 38)”를 인용하시면서 성령에 갈급한 자들을 격려하셨고,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마침 마음 속으로 갈급함을 느끼던 저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안수를 받는 순간 그 감동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아직 방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는 미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기도할 때마다 늘 뱃속에서 어떤 기운이 솟는 느낌이 있었고 몸은 흔들렸으며 음성도 크게 나와서 밤중에 깊이 잠든 가족들을 깨운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며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제가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으나 방언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령의 감동은 있었지만 참예수교회에서 구구절절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며 설교하는 내용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고 지루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타이중(臺中)시의 각 교회에서 영은회가 있을 때면 항상 참석해서 늘 경청했습니다. 그 중에 집회소라는 곳에서 듣는 말씀들은 비교적 귀에 들어왔습니다. 또 내게 적합한 수준의 서적이 있어서 그것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958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약 반 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 기독교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예수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열리는 간증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신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고는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58년 5월 28일(수요일) 저녁, 평소 습관대로 참예수교회에 가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새 자전거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모두 저를 걱정하면서 오늘 저녁 자전거를 관리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원들은 저를 위로하면서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교회에서 저에게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오진(林悟眞) 장로님은 그리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잃지 않도록 계속 출석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때 저의 마음은 여느 때처럼 평안했고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없었으며, 실제로 아무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모두 큰소리로 웃으면서 제가 그들에게 농담하는 줄로 여겼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정색하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저를 꾸짖었습니다. “너 미쳤니? 자전거를 잃어버리고도 웃음이 나와?” 이 경험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간구했던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 동기는 바로 ‘집이 환란과 역경을 만나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번에 한 달치 월급으로 배상해야 할 가격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은 일종의 환란이 아닌가? 어찌 이렇게 태연하게 하하 웃으면서 조금도 근심하는 표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저 자신도 뜻밖이었고,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후 늘 완곡하게 세례(침례) 반기를 거절했던 태도를 다시 반복하기가 거북했습니다. 6월 8일(일요일) 한 집회(아마도 집회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에서 세례(침례)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확신하면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가겠노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세례(침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사회자가 “세례(침례)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치 찬 물을 끼얹은 듯 불 같은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망했

고 세례(침례)를 받으리라는 결심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 23일 저녁, 알고 지내던 친구와 대화하면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부터 금번에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에게 ‘그가 세례 받기 직전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의 부모님은 기독교에 깊은 원한이 사무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주위가 고요하고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무렵 친구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한 환경이 당신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 친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믿는 것을 말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확실한 증거나 절대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제 주변의 친척, 친구들에게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헤어ना야 합니까? 저는 성령이 속죄함의 세례(침례)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성결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저의 특별한 환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참예수교회의 광형제님이 여씨 성을 가진 다른 형제 한 분을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여형제님은 집회소에서 7,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광형제님의 부친의 인도를 받아 세례(침례)를 받고 참예수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회소에서 어떻게 참예수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의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내일 새벽 참예수교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겠느냐고 저를 권하셨습니다. 저의 본심은 참예수교회와 집회소의 가르침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당분간 집에서만 홀로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그냥 고개만 끄덕여 (소극적으로) 약속에 동의했습니다.

6월 25일 새벽 약속한 대로 일찍 일어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의 수는 약 십여 명이었고, 여형제님도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
 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난 후,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
 니다. 약 30분 정도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을 구하기 위해
 서 다시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실로 들어서자 채형제님이 이미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귀를 만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영가(靈歌)’라고 하는 것이
 로구나! 비록 신도들에게 전에 영가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때 처음 들었
 고, 그 소리가 그토록 아름다운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할렐루
 야’라는 외마디 하나 외에는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
 었습니다. 민란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어도 아니고 당연히 국어는 더더욱
 아니고 영어 같지도 않고 히브리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필자는 히브리어를
 모르고 단지 당시의 느낌이 그러했다는 것). ‘그는 어떻게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로 그도 역시 중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소위
 영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아한 히브리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하고 자문자답하였습니다. 그 후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일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
 가? 참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존재하시는데, 왜 과거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 왜 그를 믿지
 않고 반항하며 그분을 모독해왔는가?’ 이러한 자책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
 이 흘러내렸고, 무릎을 꿇었을 때 몸은 추운 것도 아닌데 떨렸고 오랫동안
 목놓아 울었습니다. 마침내 뱃속에서 한 줄기 열기가 솟아오르고 방성대곡하
 였습니다. 이 때 몸의 진동도 더욱 격렬해졌고 맞잡아 모은 손의 진동이 너무
 커서 손목시계 줄을 끊어 놓았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함께 흘러내렸
 고 손수건으로 닦아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양쪽 소매 역시 모두 젖
 었습니다. 등 뒤의 속옷과 겉옷도 젖었습니다. 그렇게 20분가량 지났을 때
 눈물은 말랐고 음성도 나오지 않았으며 몸도 안정되었습니다. 36세의 큰 애기

가 이렇게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이렇게 크게 울지는 않았는데, 그날 아침에 태어나서 가장 크게 울었던 첫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눈물 가운데서도 마음 속으로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가슴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눈물이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고 가볍고 즐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위 ‘희비가 교차한다’는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땀과 눈물을 닦을 때 여형제님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다만 학교에 돌아가 다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권면대로 수업을 마치고 다시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 집회에 참석했고, 다 마치고 나서 다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곽형제님은 기쁜 표정으로 의지에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그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때가 성령을 받았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성령을 갈급해한 지 이렇게 오랜 시일이 걸려서 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 성경책 표지 뒷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국 47년(1958년) 6월 25일 새벽, 타이중(臺中) 참예수교회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이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날 새벽,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잠은 이미 달아났고, 일어나 세면을 하고는 교회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셋째 날 또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참석했고, 넷째, 다섯째,…… 매일 똑같았습니다. 마음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는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서 종종 학교 학생들의 지습 감독 시간을 맞추지 못하곤 했는데, 근래 며칠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일어난 뒤로는 다시 잠을 자고픈 욕구도 없는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또 제 마음 눈을 여셔서 성경

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내용은 현재의 참예수교회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고, 계속해서 몇 편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후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말씀의 의미도 점차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쉽게 화를 내던 일도 곧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 노기가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는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분풀이했고,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지고 가서 분풀이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늘 읊기고 다니고 온 종일 우울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단지 몇 분의 기도를 통해 이전에 제어하지 못하던 노기를 없앨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마 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가 도산하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생활이 옹색한 공무원에게 이것은 적지 않은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분노가 변화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화하여 동정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가련한 형편에 대해 연민이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제 형편이 그들보다 풍족한 환경임을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천 년 역사의 조상신을 숭배하는 부모님을 좇아 어려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이것이 세례(침례) 받기를 주저해왔던 이유였습니다.

8월 중순, 타이중(臺中)에서 학생 영은회가 열렸을 때 모두 저에게 세례(침례) 받을 것을 권했는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장로님이 저를 향해 “혹시 어떤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나요? 만약 빨리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실 겁니다. 성령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오래 머무시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배로운 성령이 떠나신다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세례(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점차 과거에 우상과 조상들을 숭배했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제가 아는 참 하나님’과 ‘조상을 섬기는 문제를 논함’에 대해 『성령보』 제155호와 157호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해 11월 16일에 타이중(臺中)에서 가을 영유회가 열렸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5. 항상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성령을 부어주셨다 - 주아아(朱阿娥)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지 이미 12년이 되었습니다(편집자 註: 주자매님은 1954년에 성령을 받았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랐습니다. 유년기를 보내고 점점 사리를 분별하게 되었을 무렵 교회와 집에서는 물론 타인과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한 아동반에서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는 더욱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고 어느 때부터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면 얼마나 즐거운 상태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들은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느 영유회처럼 저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했고 장로, 집사님의 안수까지 받으며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결과는 실망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영유회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했으나 매번 낙담

해야 했습니다. 돌아보건대 만약 주님이 저를 은혜로 대해주시고, 제 어린 마음을 잡아주셔서 저에게 ‘백절불굴(칠전팔기)’¹⁾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영영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54년 가을 매산(梅山)교회는 신도들의 영성을 배양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시간에는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매 집회 때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저녁에 몇 분씩 성령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아동들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방언을 말하고 몸은 진동하며 기쁨이 가득하여 이러 저리 뛰어다녔고, 그것을 보는 저는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도 오히려 받지 못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마음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때 저는 마치 패잔병처럼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음 속으로 ‘만약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말자’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의 마음도 모르시고 저에게 ‘다른 집 아이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고 네 동생들도 모두 받았는데, 너는 그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거냐? 더욱 노력해서 간절히 구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격려의 말씀에 저는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제 뜻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11월 27일 저녁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와 같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때 제 마음가짐은 평소와 달랐는데, 마치 출정을 하는 병사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저녁 저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완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 수없이 좌절당해도 굽히지 않는다.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결심을 시험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분의 영을 빨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담해서 뜻을 거두지 않고 계속 간구했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 무릎 꿇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의 부모님은 옆에서 쉬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 혼자만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흐른 땀은 등을 적셨고 눈물이 주루룩 떨어졌으며,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결국 열여섯 살 소녀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서서 보배로운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입 속에서 방언만 계속 나오면서 몸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비록 충만하고 크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날이 깊어서 얼마 후 저는 기도를 멈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매우 가볍고 유쾌했으며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뛰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에 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은 지 5분이 지났을까 성령이 충만해서 전신이 진동하고 방언이 계속 나왔고 정신은 맑고 그 감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열심을 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인내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성령인지라 혹시 저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여 매일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저도 반석에서 보배로운 생(靈)수를 마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맛보고 영성이 하루하루 자라가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여인인 제가 이 굵고 패역한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만고풍상을 겪는 동안 매일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악한 일뿐이며, 타락해가는 세상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만약 성령의 도우심 없었다면 저는 일찍이 죄의 구덩이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두렵기만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망망한 인해(人海) 중에 놓으셔서 떠돌게 하시며 저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용감히 전진했고 거친 파도를 만날지라도 늘 기도하여 모든 고난을 물리칩니다. 절망 중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노라면 항상 사랑의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제 육신의 연합함을 붙잡히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때로 저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바른 길에서 떠나면 주님은 사랑의 매를 대시고 다시 평안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까지 성령께서는 갈급한 제 심령을 축축하게 적셔주시고 제 심령을 해갈하시니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은 은혜인지요!

6. 몸에 번개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왔다 — 간동호(簡東豪)

제가 성령을 받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집 부근에 참예수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 때 저는 철이 없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가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제가 믿음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왜 즐거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 부친은 매우 열심히 우상 숭배 하였던 분이었고,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마다 꼭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인 저도 어쩔 수 없이 부친의 영향을 받고 미신을 믿는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참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일제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고모와 숙부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분들은 성령의 즐거움을 체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께서 아버지께 전하신 결과 아버지께서도 한동안 참예수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도 항상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좋은 점을 맛보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장로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마침 담배를 피우시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무릎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뜻밖의 권면이라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그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때 무슨 영문인지 몰랐고, 다만 아버지를 좇아 참예수교회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제가 15세 때 악성 말라리아를 앓았는데, 병세는 하루하루 더 심해졌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독자인지라 초조해 하시며 이곳저곳 의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반면 고모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저는 아직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모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래지 않아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의사의 의술이 홀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무렵 이웃에 장로교회 신도가 있었는데, 항상 저희 집에 놀러올 때면 주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저희 어머니께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장로교회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느끼고, 만약 저의 병이 완쾌되면 장로교회에 나가리라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고모께서는 항상 참예수교회의 말씀을 어머니께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 때 완곡한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장로교회에 대해 사모

하는 마음이 왜 생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주님이 저를 본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목사님이 심방을 오셨고, 그 분은 저도 장로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과묵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생소한 장로교회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다른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너를 칭하는데, 왜 안가는 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못 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야한다면 저는 참예수교회에 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 비교적 가깝고 고모와 숙부도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것도 괜찮아, 모두 같으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참예수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저를 감동시키셔서 듣는 말씀을 점차 깨닫게 하셨습니다.

1953년 11월 22일 영은회가 열렸을 때 저는 세례(침례)를 받고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례(침례)를 받은 그날 고모께서는 제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 하였고,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눈물을 흘렸지만 외적인 별다른 느낌이나 변화도 없었습니다. 영은회 이후 며칠 지났을 때 이웃의 노인 한 분이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참예수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고 몸은 진동하는데, 이는 노인 한 분을 숭배하는 것으로써 최면술을 사용해서 신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이웃사람들도 여러 비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장씨 성을 가진 (일반교회) 여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직 어려서 그 가 말한 것을 사실로 믿었고, 감히 어떤 문제 제기도 못한 채 매번 기도할 때면 그 생각 때문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듬 해 3월 5일 교회의 어떤 자매가 병들어서 성도들 모두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졌을 때 갑자기 번개 같은 빛이 제 몸에

떨어졌고,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때 중부에 하나님 일을 하러 간 장집사 때문에 의심을 품은 지 오래된 저는 그 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논쟁이 유언비어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어머니께 뵈은 첫 마디 말은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있단다.” 얼마 안 있어 장로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참예수교회에 간 것을 아시고 저의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참예수교회에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제가 교회에 갈 때면 어머니는 야단치시거나 저를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고 어머니의 분노가 반드시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고모께서 오셨을 때 어머니는 심하게 반박하시면서 “너희들만 참이면 우리는 다 거짓이란 말이냐?”라고 따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제 위장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함께 찾아왔는데, 성령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아직 참예수교회에 입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몇 년 뒤에는 가족들이 연이어 참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몸의 그 가시는 아직 제거되지 못하였는데, 돌이켜보면 이것도 모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에는 고통이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받아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행9:21; 히1:9). 이외에도 저는 생활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곤란한 일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다만 주님께 가장 감사할 것은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7. 성령의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뜻을 정하여 세례(침례)를 받았다 - 임헌생(林獻生)

저는 다신교의 집안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경건히 우상들을 섬기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웃에 주복전(周福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예수님을 믿어 매번 왕배영(汪培英) 목사님이 그 집에 오셔서 가정예배를 주도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어머니가 함께 초대되어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사촌형 덕진(德進)은 가의(嘉義)라는 지방의 동문 장로교회 교회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항상 그를 좇아 참석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 그는 아동 연극에 참여해서 공연했는데, 제목은 ‘만국평화회의’였습니다. 그는 중국대표 역으로 두루마기와 마고자²⁾를 입었고 비록 어설피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저의 머리에 강한 인상을 새겨놓았습니다.

가의(嘉義) 중학교를 다닐 때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자칭 유식한 자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에 대해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 있는 미술전문학교를 다닐 때 성경교회 안에 있는 ‘성서학원’의 북쪽 작은 골목, 공교롭게도 증승애(曾承埃) 씨의 옆방에서 살았는데, 매주 일요일에는 그와 함께 백목(柏木)의 일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기 제가 가장 아끼는 독서물은 바로 일문개역성경이었습니다.

2) 마고자. 옛날, 남자들이 장포(長袍) 위에 덧입던 셔츠 여미지 않고 두 자락을 맞대어 단추를 끼우게 되어 있는 짧은 윗옷을 말함. 원래는 만주족이 말을 탈 때 입던 옷이었음.

후에 대만으로 돌아와서 교사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환경이 변하다보니 성경은 책상에 꽂아만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1937년 여름방학 기간에 가의(嘉義)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촌형과 길을 걷고 있을 때 동문의 참예수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함께 그곳에 들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찬송가를 부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는 앉아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참예수교회의 작은 회당 앞을 매일 지나다니기도 했고, 이모부께서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지만 저는 이것이 일종의 최면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살펴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저녁 자세히 관찰한 결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과 오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형태로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고상한 움직임으로 진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판적인 태도가 틀렸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어떤 엄숙한 기운이 임했고, 저는 곧 무릎을 꿇고 오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으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10월 5일 저녁, 참예수교회 신도인 하은상(何銀賞)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여름 방학 기간에 임선생께서 가의에 가셨을 때 참예수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숙소의 다다미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기도한 지 채 5분이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갑자기 위로부터 어떤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고, 곧 입에서 영어와도 다르고 불어와도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은 진동했고 계속 이리저리 뛰어다니다보니 피부가 굵혀 벗겨졌지만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때 저는 마음 속으로 이것이 바로 임오진(林悟眞) 장로님이 저에게 성령을 받은 간증을 해주셨던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현상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땀을 닦고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채성민(蔡聖民) 집사님께 편지 한 통을 보내서 제가 성령을 받은 경위를 전달해드렸고 안식일에 가의로 돌아가면 일요일에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정대로 10월 16일에 채(蔡)집사님이 저에게 팔장계(八掌溪)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저는 주님의 이름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蔡)집사님께 써보낸 그 편지가 가의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일본인 수전청기(須田清基) 장로님이 방문중이셨는데, 채(蔡)집사님은 제 편지를 그 분께 보여드렸고, 장로님은 제 편지를 타이난(台南)으로 가지고 가서 당시 장로님이 발행하시는 일어잡지 『성령시대』(제3호제5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사도시대를 살펴보면 아직 세례(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 방언을 말하고 나중에 세례(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행10:44 - 48), 반대로 세례(침례)를 먼저 받고 인수를 받은 후 비로소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행8:15 - 17, 19:1 - 7). 지금 본회에는 이러한 체험이 모두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제가 쉽게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저에게 성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만약 성령 세례의 체험을 먼저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도 여전히 길을 잃고 배회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1941년 10월 1일 저는 헌신했으며, 결과적으로 제가 세례(침례)를 받을 때 마음 속으로 서원했던 일을 이루게 되어 평생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즐겁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8.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다 - 오양도(吳揚道)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① 육신에 속한 옛 아담이 새롭게 되어 영에 속한 새 아담으로 변화하는 것이요(참고: 고전15:22; 요3:3, 5; 골 3:9 - 10) ②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롬5:12; 겔37:14) ③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스도께 속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요(요일5:19; 롬 8:9) ④ 죄악의 종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요8:34; 갈4:4 - 7) ⑤ 헛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전9:5 - 6, 9; 엡1:13 - 14).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사건이며 구원을 받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다섯 분의 형님들도 잇따라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령을 받은 체험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을 갈급하는 모든 이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엡2:2)”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어머니와 누이를 좇아 거짓된 신을 믿었는데, 매년 설이 되면 제비를 뽑아 길흉을 점치곤 했습니다. 성장한 후 저는 단지 세상의 명예와 이익과 정욕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허약했고 마음은 항상 고민으로 가득했으며 비록 몸을 단련하고 수양하는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29세 되던 해 위리(玉里)에서 강씨 성을 가진 동료 의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어찌 그리 어리석게도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까?” 그는 온화하게 제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읽어 보세요. 반드시 성경의 위대함을 깨달을 겁니다.”

그 후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세기와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롬7:19)”라는 내용을 읽었을 때 어찌 이런 진리가 다 있을꼬 하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경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연약함은 타인에게도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특별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 16 -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라는 말씀을 볼 때 저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저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느낌이 있어야 비로소 확실히 성령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강(姜)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은 큰 문제로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몇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선행을 행하면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대답들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허진신(許眞信) 형제를 인도하셔서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차 안에서 낯선 두 분과 만나 성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성경책에는 붉은 줄이 많이 그어져 있었는데, 한 눈에 보아도 오래 믿은 신도인 것을 알 수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은 토요일인데, 당신들은 어디에 가십니까?” 그러자 “저희는 제육일 안식일(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그들이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어서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허형제가 “받았습니다. 세례(침례)를 받고 3년 뒤에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우리 참예수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랍고도 기뻐했습니다. 후에 리산(立山) 참예수교회 화친성공(和陳聖工) 집사님과 토론한 후에야 성령은 능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행 2:33, 8:17 - 18, 10:46). 그 때부터 성령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곧 세례(침례)를 받고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진집사님께서 신중히 하시기 위해 저에게 즉시 세례(침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몇 차례 사경의 기회를 가지고 난 후 재차 요청하였고, 1951년 8월 5일에 결국 세례(침례)를 받아 주님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입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치고는(계19:5 - 6)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간구했습니다.(눅10:13).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마음이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목자님이 심방하실 때 항상 여쭙었습니다. “저는 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섭리로 영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간익진(簡益真) 장로님과 양요한(楊約翰) 집사님 두 분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성령을 구하는 것을 돕는 자들에 불과하고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는 휴식시간에 모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몸에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할 때 두 분의 목자님께서 다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셨습니다. 간(簡)장로님께서 제 머리에 안수하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에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점점 온 몸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아주 즐겁고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배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혀는 어떤 힘에 의해 제어당한 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자율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요7:37 - 38; 고전14:2). 전신에 열이 나고, 땀은 흐르고, 몸은 진동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국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급하던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성령을 받은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령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결혼하거나 아버지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등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 누리는 시간도 짧고 점점 그 흔적이 사라져 잊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은 깊이 새겨지고 쉽게 잊히지도 않으며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16:25). 이런 기쁨은 직접 느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

성령을 받은 후 찾아온 다른 변화는 바로 ‘진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항상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간증하고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행4:20). 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두 목사님을 모시고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온 목적을 몰랐고, 그 동안 하나하나의 일을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14:33)”라고 말했

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간증은 단지 성경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니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신학에 대해서 본래 문외한이었으나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마15:8-9), 또 본회의 말씀이 확실히 성경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에 그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그들에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할 길이 없었고, 감히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눅21:15).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롬15:16).”

저는 본래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 과거에는 성격이 거칠고, 승부욕도 강하며, 거짓말도 하고, 걱정도 많고, 불평불만을 품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성령을 받은 후 변화되어 그러한 옛사람의 ‘충동’을 점점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딤후3:5; 겔 36:26-27),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갈5:22-23).

이상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과학은 실험을 중시하고, 종교는 체험을 중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직접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맞볼 수 있는 것입니다(히6:4). 바라옵기는 사랑의 주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모두 이끌어주셔서 본회에 들어와 보배로운 성령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 골방에서 전심(專心)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다

- 양약한(楊約翰)

제 나이 대여섯 살 되었을 무렵 형수님(장로교회의 전도사 부인)은 저를 무척 아끼며 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 속에는 나도 나중에 크면 형수님을 따라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 살 쯤 되었을 때 형님께서 그의 동서가 책임 맡고 있는 교회의 ‘성탄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를 데리고 집에서 몇 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형수님을 포함한 네 자매 중 세 분은 목사, 전도사와 결혼했습니다). 열여덟 살 되던 해 상해(上海)로 갔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無智)했고 이성(異性)에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일 년 남짓의 기간이 지나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광둥(廣東)으로 가려던 생각을 가졌던 저에게 참예수교회 신도가 열정적으로 초청해서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일반 목사들과 비교할 때 탁월했고 하나하나 성경을 들어 증거하는 모습은 나를 자발적으로 계속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혹을 느끼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위가 높은 자나 학문이 높은 자나 모두 마찬가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흔들면서 입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 - 저들은 이것을 영가(靈歌)라고 불렀음 - 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기도 하는 등 동네가 떠나가도록 시끄러웠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우스웠으며 짐작지 못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타이중(臺中)교회 목회자로 계시는 주혜민(朱惠民) 집사님이 오서

서 안식일에 설교하셨는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전예배를 마칠 무렵 처음 자발적으로 저들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위에서 어떤 힘이 내려와 제 몸을 저절로 흔들어 놓았고, 모아진 손이 벌어지면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혀가 움직이면서 무슨 음성이 나왔고 마음은 매우 격동되면서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매우 맑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때 지금까지 품고 있던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의문이 눈 녹듯이 풀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과거의 갖가지 죄가 하나하나 뇌리에 떠오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 세례(침례)를 받을 결심을 했습니다(그날 평동(屏東)교회에서는 세례(침례)의 은혜로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신도가 다른 신도에게 저에게 세례 받을 것을 너무 권하지 말라고, 아직 의지가 약해서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몹시 불안했지만 오후예배를 마치고 주혜민 집사님께 참예수교회와 일반교회의 다른 교의(敎義) - 침례의 방식, 안식일, 세족례 등 - 에 대해 재차 질문을 드리고 상세한 가르침을 받고는 속히 주의 보혈로 세례를 받아 모든 죄를 씻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행 2:38; 갈 3:27). 주혜민 집사님은 무척 기뻐하시면서 다음 날 나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튿날 버스 편으로 오로지 저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물이 넉넉한 냇가(川)로 갔습니다. 드디어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죄를 다 벗고 보니 심신이 성결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받았던 성령이 조금도 저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주집사님께 다시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상고해서 진리를 알고 믿음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믿음으로써 믿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리를 오래 들었어도 깨닫

지 못하고 몸에 병이 없으니 주님의 고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 속히 당신을 그분께 인도하시고자 당신이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게 하신 것입니다(참고: 행10:44 - 47). 이후 열심히 구하시면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참고: 눅11: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하루가 지나고, 한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 안식일이 와서 비록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으나 성령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25일째 되던 날, 저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했고, 그것은 바로 ‘전심(全心)’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성령을 구했던 장소는 저의 침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저는 집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혹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감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인기척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다가 사람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기도를 중단하곤 했습니다.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저는 또 다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날부터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문밖의 일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참고: 마 6:6).

주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 때 기도를 그리 오래한 것도 아니었는데 성령이 처음 내리셨을 때보다 더욱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다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온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벽에 부딪치거나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매우 힘 있는 방언과 영가(靈歌)가 뱃속으로부터 솟아 나왔는데, 그 음량(音量)은 실로 놀라울 만큼 컸습니다. 이웃에 살고 계셨던 양영천(楊英泉)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실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양장로님은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를 말렸습니다(나의 두뇌(頭腦)는 온전한 의식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말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는 완전히 성령에 의해 충만해졌고 온 몸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으며 마음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두 무릎이 마찰되어 피부가 벗겨졌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다시 떠나실까 두려워 그 날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계속 제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홉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었고, 이미 열 살 때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증거(성령)를 받은 것은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얻은 보물을 간직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교적 유리한 시골 생활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처럼(렘10:23) 지금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이 금생과 내세에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얻도록 하는 가장 값진 일,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계신 것이 증거가 되고 또한 기적이나 사가 따르며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유 3; 엡1:13 - 14; 막16:17 - 20).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저 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입음으로써 부친을 포함하여 20여 년 동안이나 장로교회를 전하던 큰 형님과 작은 형님들이 모두 참예수 교회로 들어오셨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도 받았습니다. 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친척 친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현재는 말일이 가깝고 늦은 비 성령이 크게 강림하는 때임을 깨닫고 하루 속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무리가 되어 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리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대 사명을 이루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완성하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며 함께 영광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0. 성령의 세례를 받고 중한 폐결핵이 고쳐지다

- 간익진(簡益眞)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저는 1931년 12월 1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지 어언 35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각지 교회에서 간증을 한 바 있으나 아직 글로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1928년 저는 가이(嘉義)현 매산 향공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제가 사귄 친구들은 모두 술친구들이었고 매일 여자, 도박, 술의 세 가지 향락으로 밤을 지새우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생활에 몸이 망가졌습니다. 먼저 천식이 전염되었고 일 년여 지나서 폐결핵으로 인해 피를 토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주사도 맞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병세는 오히려 더 악화되어갔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보니 이미 폐결핵 제3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약과 한약을 모두 먹어보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고 돈은 이미 다 사용해서 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비록 여러 신과 부처에게 묻기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을 태우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했으나 이 또한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몸을 일으킬 수 없었고 침상에 반쯤 누워있었으며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만 갇고 남은 것은 피골이 상접한 물골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었으며, 단지 누워서 죽음의 끝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예수교회의 한 여신도를 감동시키셔서 제 아내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참예수교회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어떤 병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저에게 믿으라고 권고했지만 마음이 강박한 저는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저를 보살피는 아내가 혹시 병이 나서 쓰러질

까봐 염려되어서 부득불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뻐하며 교회의 신도에게 연락하더니 기도하러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1931년 12월 1일 저녁에 7, 8명의 신도분들이 저희 집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입으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두 번 하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잠시 깨어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두 마리의 길고 검은 털의 마귀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제 뒤에서 누르고 다른 한 마리는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말했습니다. “너에게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3번을 하더니 제 전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치자 비로소 두 마리의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깨어보니 온 몸에 땀이 났고, 저는 마음 속으로 ‘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 마귀가 아주 뻔뻔을 하는구나. 이것이야 말로 참 진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심을 가지고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매일 밤 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고 저의 병세는 점차 차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제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10일 쯤 되는 날 저녁 저는 곽우형(郭友兄)이라는 오래 믿으신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매일 저녁 기도하시면서 입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는 바로 중얼중얼 말하면서 몸도 흔들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자 그가 “이것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8:17 - 18)”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이 영감님(곽우형을 가리킴)은 술법이 아주 뛰어나서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 전신에 진동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

는다면 제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얻었다면 나도 구해서 얻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천식을 앓는 어느 할머니가 마침 발작이 일어나셨는데, 그 분들(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기를 청했기에 예배 후 그 분들은 곧 그곳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한 후에 바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성령을 구할 테니 만약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를 부르지 말고, 모기장을 열고 보아서도 안 되고. 당신은 모기장 밖에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저는 곧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올라가 모기장을 쳤습니다. 그 때는 아직 곳곳하게 무릎을 꿇고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발뒤꿈치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직 허약했기 때문에 소리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대략 10분 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몸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온 몸에 땀이 났습니다. 갑자기 한 줄기의 전류 같은 힘이 머리에서 내려와 발꿈치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혀가 움직이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스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는 곳곳하게 무릎을 꿇고 침상 위에서 빙빙 돌며 약 4, 5마디 높이로 뛰어올랐습니다. 20분가량 이와 같이 계속되자 아내는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이웃집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참예수교회를 믿습니까? 그 교회는 처음 믿을 때는 괜찮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곧 미쳐 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성령을 받아서 무릎을 꿇은 채 뛰는 것을 멈추지 않자 이를 보고는 정말 미친 게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저에게 멈추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모기장 밖에서 초조해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온 몸에 땀이 나서 입고 있던 두 벌의 두툼한 모직 내의와 한

별의 겉옷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잠시 멈추고 옷을 갈아입은 후 다시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일까요? 저는 쉬는 동안 마음이 매우 즐거웠고, 옷을 갈아입을 생각보다는 여기 와서 기도해주시는 신도분들에게 이곳에 오셨을 때 말하기보다는 빨리 그들에게 제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나막신을 신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고, 제가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하여 바로 저의 뒤를 쫓았습니다. 절반 정도 뛰어났을 때 그들을 만났고, 저는 그들에게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기도할 때 성령이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똑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후 매일 저녁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고, 매일 모든 이가 마음 속에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1932년 1월 9일 대림(大林)교회에서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병마가 떠나고,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가벼워졌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여자, 도박, 술, 담배 같은 나쁜 습관들을 모두 주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저는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전에 모았던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많은 부채까지 있어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빈궁한 생활에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비록 병은 완쾌되었지만 몸은 아직 허약하고 너무 말라서 보기 흉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감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50세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당시에 저는 30세였고, 이렇게 살다가는 5년을 다시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의외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빌4:6 - 7).

1966년 저는 이미 6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변화시키셔서 35년의 수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지금 제 몸의 건강상태는 청년시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어찌 주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베풀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다윗이 지은 시를 기억하곤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103:1 - 5).”

한정된 분량 때문에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성령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제가 받은 성령은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위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영원히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11.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³⁾에 따라 간구했더니 곧 성령을 받았다 - 이영실(李靈實)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갈

3) “報爾佳音” 참예수교회 대만총회에서 발간한 소책자 복음서.

망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성령 받은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1935년 (제가 21세였던 그 해) 어느 날 집에서 장회소설⁴⁾을 읽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소간집(蘇乾執) 씨가(소영안(蘇靈安) 집사)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라는 책 한 권을 읽어보라고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은 대만 참예수교회에서 발행한 것이었는데, 내용은 모두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혹자의 말에 의하면 타이베이에서 박람회를 열었을 때 종교선교용으로 쓰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절 한 절 자세히 읽으면서 마음 속에 큰 감동을 받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는 경험이 이렇게 놀랍다면 나 또한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라는 책을 받기 전까지 저는 참예수교회 회당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참예수교회의 신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지,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이나, 성령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은 모두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라는 책의 내용에 의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령을 구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을 제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라고 했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의 발음으로 원래 국어로 읽으면 원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모르고 대만어로 발음했습니다. 그 대만어로 드린 기도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외울 기도문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그 기도는 정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외울 기도문을 몇 번 연습하고 곡식창고로 숨어들어가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5시경 저는 계획대로 곡식창고에 가서 경건하게, 아주 간절히

4) 장편의 소설을 여러 장회(章回)로 구분한 것을 장회소설(章回小說)이라 한다.

작은 음성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을 제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는 기도를 한 시간가량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고 결심을 새롭게 해서 하루 3번 즉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도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단지 꿇었던 무릎이 빨갛게 부어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점심 때 약 30분간 기도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반복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을 제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되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위에서부터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한 줄기 온수가 머리로부터 제 온몸으로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음에 꽃이 피어난 듯 즐거움이 가득했으며, 매우 기뻐서 정말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제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고전14:2). 그뿐만 아니라 몸도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그렇게 가볍고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시간가량 지나서 자연스럽게 멈추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는 제 뜻대로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칠 수 있었으며, 그렇다고 제가 지각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의식은 분명했으며 집밖에서 나는 소음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사령을 받는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31년이 지나는 동안 성령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때 성령이 제게 충만했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충만하시며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жал급하는 제 마음을 아시고 결국 보배로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비록 큰 죄를 저지른 일은 없었지만 좋은 사람

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저는 성품이 많이 변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범사에 온화해서 제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을까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당시 아버지와 숙부는 아직 분가하지 않으셔서 온 가족이 거의 20명가량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불교를 믿으셔서 채식을 하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원한이 뼈에 사무치신 분이요 저는 장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예기치 못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제 곤란함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 저는 가족들 모르게 가의(嘉儀)에 있는 참예수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성경책 한 권을 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어떤 사람이 민웅(民雄)에도 참예수교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곧 민웅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할머니, 아버지, 숙부 및 다른 가족들도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매우 분개하고 원망하며 비방하고 공격하였으며, 제게 즉각 교회를 탈퇴하라고 뽀박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변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범사에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섭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과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기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3년 뒤 할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결과 주님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도 보셔서 마음 속에 무한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였고, 가족들에게 즉시 집안의 모든 우상을 불태워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숙부는 반대하지 못하였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때부터 저는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거리낌 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가족은 할머니처럼 저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것은 아직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저를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라는 책을 통하여 인도해주셔서 집에서 밤낮 갈급하며 성령을 구하던 저의 소원을 들으시고 보배로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저는 기념으로 오늘날까지 이 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온 가족이 참교회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그릇에 불과한 저를 택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입(목회자)으로 삼으시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저를 인도해주셨던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울 뿐입니다. 주님은 믿고 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아직 참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모든 분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진리를 연구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목회자를 반박하여 제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포로가 되다 - 사동벽(謝東璧)

저는 대만 참예수교회 현임 목회자입니다.

1947년 6월, 큰 누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재시며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참 하나님입니다.” 이런 견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녀의 학문에 대한 소양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외국 역사책도 안 읽어봤어? 예수는 확실히 유대인이야. 누나는 왜 그가 우주의 주재라고 주장하는 거지? 우주 만물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예수가 먼저 있었다는 거야?” 저는 누나가 어안이 병병해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기뻐다 싶어서 그녀를 견디기 힘들게 몰아붙였습니다. “좋아,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한 분 있다고 하자! 그럼 누나가 나에게 알려줘봐! 그 신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대한지 혹은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신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어떻게 그분의 형상을 말할 수 있겠니?” 그러자 저는 마치 철학자와 같은 태도로 그녀에게 훈계했습니다. “우주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신이 없어. 사람이 과학적 실험으로 모든 물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 불가능한 영역을 그저 믿는다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각 사람은 마음 속의 양심을 스스로 신으로 여길 뿐이야.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는 오직 나 자신을 믿어!” 변론은 이렇게 끝났고 저는 스스로 승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저의 독특한 견해로 미신에 빠진 가련한 저의 큰 누나를 물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 누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네 질문을 해결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회에 목자님이 계시니까 오늘 밤 나와 함께 가서 예배에 참석하자. 목자님은 반드시 네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실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까무러칠 정도로 흥미 있는 일이라고. 만약 그들의 목자가 제게 대답을 못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미신에 빠진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곧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저녁 때 저는 설교자의 실수를 잡아내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이었고,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 때부터 목자님의 자료를 수집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계속 성령을 통하여 제가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더 이상 반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동안 큰 흥미를 느끼며 완전히 주님의 발 앞에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퇴보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의 생각이 변해서 무신론을 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냉정히 돌아볼 때 이렇게 180도로 바뀐 사실이 종종 부득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저의 의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경박하다 하더라도 저의 태도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나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의 마음은 오히려 강건했습니다. 만약 이 변화를 타협이라고 할지라도 저의 주장은 여전히 무신론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처럼 크게 바뀌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 또한 굳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이 기적을 인정할 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이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전에 의심을 품고 큰 누나에게 반박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답을 얻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으로 말하자면 그 분은 유대인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신성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앞서 계시며, 만유가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를 의지하여 섰고,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마1:1' 18; 롬9:5; 골1:15 - 17). 둘째,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요4:24). 그분은 거시적으로 우주에 충만하시고 미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거하십니다(시139:7 - 10; 엡4:6).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넓으신지 혹은 길고 깊으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역경의 계사에 보면 “형(形) 이하의 것을 기(器)이라 하고, 형(形) 이상의 것을 도(道)라고 한다”⁵⁾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道)이

곧 하나님'(요1:1)이십니다. 과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형(形) 이하의 문제, 곧 형(形)에 속한 물질계입니다. 반면 형(形) 이상의 문제, 곧 무형에 속한 영계는 종교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비록 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롬 1:19 - 20). 넷째, 양심은 신의 등불이고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을 감찰합니다(잠20:27). 또 능히 사람이 옳고 그름(是非)을 분별하게 합니다(롬 2:14 - 15).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이 아니며, 또 사람이 악에서 떠나 선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롬7:18 - 20). 저는 한때 양심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처럼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롬 7:21 - 24).

그 외에 가장 저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가장 머리가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미친 것이 아니고 허위가 아니라면 어찌 무릎을 꿇자마자 온 몸이 떨며, 입으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었고, 그것은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것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을 받으면 천국 기업을 얻는 증거가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 속에서 말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월 5일, 호미(虎尾)교회에서 세례(침례)를 거행했습니다. 그 때 세례(침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세례(침례)를 받기 전 모두 먼저 서서 기도하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 '속죄함의 놀라운 은혜'의 찬송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5) 이 우주에는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형이하학의 영역의 것을 기(器)라고 하고 그 이상의 형태가 없는 형이상학의 영역의 것을 도(道)라 한다.

데 한 사람 한 사람 물로 내려가 세례(침례)를 받는 장면은 대단히 엄숙했습니다. 세례(침례)를 받은 후 저는 온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고 느꼈고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저의 새로운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아주머니께서 세례(침례)를 받을 때 피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그것은 주 예수의 보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가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었고 오늘 날에도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날로부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저는 계속 성령의 세례 받기를 간구했고, 때로는 금식기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천국 기업을 얻는 증거를 얻고(엡1:14),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눅24:49). 저와 함께 세례(침례)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 몇 분은 벌써 성령을 받았지만 저는 이렇듯 며칠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서 몇 차례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계속 더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월 14일 저녁 예배 후 상당수의 신도들이 이미 돌아가고 두세 분의 집사님과 형제들만 회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기도실에 가서 경건하게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을 저의 맘에 충만케 내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서 만약 오늘 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날이 밝도록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대략 한 두 시간이 지나 두 다리가 마비될 지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위에서부터 어떤 힘이 누르는 것 같았고 마음은 뜨거워졌으며 온 몸이 떨리면서 허가 스스로 움직여 곧 성령을 받아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모습을 보고 “동벽(東璧)이가 성령을 받았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안수하셨는데, 그 때 성령이 더욱 충만해져서 방언 소리도 크고 몸의 진동도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의 빛(영광)이 눈앞으로 휘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깨끗했고 의식은 아주 맑았으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면의 평안’임을 깨달았고, 제 일생에 처음 가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본회의 황엘리사 장로님께서 진리에 속하게 되신 뒤 ‘의심 중에서 신앙으로’라는 글에서 “저는 본래 이성적으로 신앙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신앙은 체험에서 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 ‘떡 빌리는 비유’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11:8 - 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증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혹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상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의지하여 계속 더욱 구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며 영원히 주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